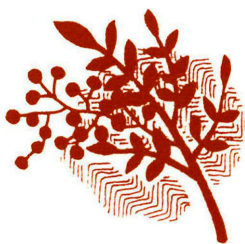


韓戊淑 文學全集 8

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을유문화사



1980년대의 필자.



1980년, 어느 문학인 모임에서.

우로부터 鄭漢模 씨, 趙敬姬 씨, 필자, 具曙暎 씨.



막내동생이자 여류 작가
韓末淑 씨와 함께.



1985년 10월, 明倫洞 자택 뜰에 선 필자.



1986년 6월, 부군 金振興 씨의 古稀宴에서.



1978년 7월, 언니 정숙 씨와 함께.



1980년 5월, 동생 묘숙 씨와 함께.

내 마음에 뜬 달

차 례

불 씨

- 불 씨 · 15
- 망상과 착각의 늪에서 · 38
- 나의 문학의 스승들 · 42
- 내 문학 속에 뜬 달 · 51
- 어리석고 못난 인간 본성을 추구하며 · 57
- 만 남 · 61
- 아리랑 고개 · 65
- ‘나’라는 존재 · 68

시간과 나

- 시간과 나 · 73
- 오래 살기보다 좋게 살고자 · 74
- 12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 · 77
- 이순(耳順)에 느끼는 신춘(新春) · 80
- 종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맞는 계절 · 84
- 다시 사무치는 분단의 한 · 87

아름다운 여인

- 아름다운 여인(1) · 93
아름다운 여인(2) · 95
삶의 진실된 주제 · 101
보잘것없는 일에 정성 다해 · 105

조금씩 못나지는 것도 하나의 지혜

- 조금씩 못나지는 것도 하나의 지혜 · 111
노모(老母) 저다 버린 지계는 자신이 얹혀갈 지계 · 114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가 · 117
부부, 운명(어느 무기수의 병실에서) · 120
예의와 형식 · 122

우리는 실망 시대에 사는가

- 우리는 실망 시대에 사는가 · 127
애 용 · 132
반 말 · 134
조삼모사(朝三暮四) · 136
유물도 미래에 산다 · 138
말의 순화 · 140
간사한 사과 · 142

집단 자살 · 144

준비된 자에게만 주는 행운 · 146

우리 것을 먼저 알고

우리 것을 먼저 알고 · 151

어린 시절의 구정 추억 · 155

새벽의 북조리 장사 소리 · 159

시식(時食) · 162

옛날 옛적에 · 167

정감어린 외할머니 음성 · 172

세모시佳人(佳人) · 174

석류가 익어 열릴 때

석류가 익어 열릴 때 · 179

그 높은 담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빌며 · 182

북창 자율화 시대에 내 아들에게 쓰는 편지 · 185

서울을 동경하는 시골 소녀에게 · 189

초겨울 밤의 긴 대화 · 192

잊지 못할 사람들

한여름의 하얀 꿈 · 197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진 분 · 201

강인한 끈기와 정열의 소유자 · 204

박제상(朴堤上)의 부인 · 207

서울 여인 · 210

서울 여인의 매력 · 214

불국생 보살과 그의 아들 · 217

눈짓처럼 손짓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는 것

그분의 고향 사람들 · 227

공간(空間) · 229

사랑은 잃은 후에도 · 232

샌 들 · 236

남자의 원색 옷차림 · 239

얼 굴 · 242

포인세티어

포인세티어 · 249

팻단과 경찰관 · 250

그날의 찬란한 바다, 지금은 수심만이…… · 254

죽 음 · 258

속옷만 걸치고 계셨던 박용원 박사님 · 262

김동리 선생과 나 · 265

벗 · 269

초파일의 추억	281
내가 만난 작가	284
내가 만난 가와바타 야스나리	287
펜의 형제 자매들	290

숨겨진 마음을 비단실로 아로새겨

숨겨진 마음을 비단실로 아로새겨	297
모란꽃과 노랑나비	302
백색(白色)의 철학	306
희랍의 묘비(墓碑)	310
간음한 여인	317
미니아튀르	320

한 그루 나무를 가꾸는 마음

한 그루 나무를 가꾸는 마음	329
성경(聖經)	332
충직한 곰	333
인생은 싸워서 이기는 것	335
악역(惡役)	337
박래(舶來) 구두	339

어록(語錄)

- 영기 — 머루치 모가지 · 343
호기 — 삼천만의 한 사람 · 349
용기 — 나 호랭이 할래 · 354
현기 — 진지 주세요 · 358
봉기 — 어머니는 형식적으로만 · 364
경란 — 장녀 영기의 딸 · 371
남지 — 호기의 장녀 · 375
남우(1) — 대한 민국 만세 · 377
남우(2) — 호기의 장남 · 383
남연 — 호기의 차녀 · 385
남진 — 삼남 봉기의 큰딸 · 387
남아 — 삼남 봉기의 작은딸 · 390

□ 부 록

- 인간 韓戊淑을 말한다 / 安惠初 · 395
- 작가의 말 · 397
- 작품 연보 · 399
- 저작집 연보 · 401
- 저자 약력 · 403

불 씨

불 씨

— 신사임당 상 수상작

운명의 밋은 어느 때나 어디에나 장치되어 있다. 일생을 평탄하게만 산다는 것은 빗줄기 사이를 찢지 않고 가는 곡예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는 하지만 나는 10대를 넘기기 전에 벌써 이 밋에 걸려 있었다.

졸업반인 여학교 5학년 때 봄. 수학 여행으로 갔던 일본 하코네에는 그날 느닷없는 소나기가 쏟아졌었다. 비를 맞으며 이 험한 산을 넘어야만 했었는데 그것도 여정을 돌우는 것이 될 수도 있어, 클 대로 큰 계집애들은 개구쟁이처럼 철벽거리며 업살 섞인 비명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부터 고열이 나고 동경에 갔을 때에는 중환자가 되어 있었고, 연락선에서 내리자 실려가다시피 병원으로 직행해야만 했다. 진단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폐침윤이었다. 열여덟살——소망의 미술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문턱에서 맞은 벼락이었다.

그때부터 4년 가까운 세월을 나는 병상에서 지내야만 했다. 어려서부터 봄을 이겨내지 못하여 어느 학년이나 1학기 통신표는 공란으로 남아 있는 위태위태하게 이어갔던 가냘픈 생명이기는 하였으나 이때의 발병은 최대의 타격이며 좌절이었다. 와병(臥病)이 일상이 되어 버리고 스물도 되기 전에 죽음과 직면해야 했던 나는 조금은 감미롭기조차 한 종말감 속에서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 병든 육신을 병상에 누이면서 상념만은 시공을 넘는 방대한 사색의 숲 속을 헤매게 하고 있었다.

인생의 문턱에서 갖는 종말감이란 묘한 것이다. 종말감이란 종말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책임하면서 얼마큼 감미롭고 어떤 도취감마저 섞이고 모순스럽게도 희망 같은 것조차 감도는 것이었다.

우럭 우럭 심한 증세를 갖거나 정신이 혼미할 지경의 병이 아니었으므로 그 또래의 다른 소녀들보다는 많이 읽고 생각하게 되어 있던 나에게 인생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지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앓으면서 감지(感知)한 앞당긴 인생의 종언의 투영(投影)은 절망조차도 얼마큼 감미롭게 했던 것 같다. 그렇다. 그 절망에는 애달픈 정열이 깃들어 있었다. 사그러져 버린 실망이 아니고 끊기어 버린 소망은 뜨거운 정열 그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소도서관이란 말을 들을 만큼 집에는 장서가 많았다. 나는 아직 열이 오르지 않는 오전과 열이 내린 뒤의 잠 오지 않는 밤을, 고도한 지식인이셨던 아버지가 아끼시던 고전들과 문학에의 뜨거운 열정을 버리고 법과를 택해야 했던 오빠의 젊음의 아픈 유물 같은 책들에 묻혀 살았다. 그러므로 나의 병상 생활은 남독과 탐독의 생활이기도 했다. 나의 순백했던 영혼은 병고와 사색과 탐독으로 풍요해 간 동시에 같은 것들로 해서 그늘지고 금가고 얼룩져 갔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앓고 있다는 현실감은 그리 없고, 앓음으로 하여 특별한 대우, 정성스러운 께과 보살핌을 받아 짜증과 웅석(胸石)이 그

대로 통하기도 하는 그 특수 공간은 완전히 시간과 인생 밖에 있었다. 내 마음 속을 지나는 모든 상념, 그리고 내가 읽는 책 속에 끌려 들어가 그 허구의 세계에서 이미 인생에 지쳤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장미빛 행복에만 싸여서도 안 되었다. 그래서 너무 통속적이다. 저녁 노을에 물든 잔잔한 바다같이 아름답기는 하나 단조로운 것이어서는 안 되었다. 아픔이 있어야 하고 비상(飛翔)이 있어야 하고 파란조차도 없어서는 안 되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인생 자체였으나, 그것은 꿈속에서 구성된 것이었으며 필경 나는 꿈속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그것은 덧에 걸린 채 깜빡 조는 동안에 꾸 꿈의 계절이었다.

이렇게 영혼을 과로시킨 생활을 정양 생활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부모님의 물심 양면의 극진한 돌보심과 좋은 의사의 적절하고 성실한 치료와 정성으로 약 4년 만에 끝났다.

치녀 나이 스물둘 — 꿈의 계절은 사라지고 현실이 내 앞에 있었다. 당시에는 결혼 이외의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었던 나이였다.

내 위험한 병력과 나이는 부모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걱정거리가 되었다. 부모님은 서두르고 계셨다. ‘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인지는 몰라도 나는 시집가서 시부모 모시고 아들딸 낳고 살림할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놓여진 스스로가 납득이 가지 않아 나는 깊은 절망과 굴욕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의 절망에는 이미 감미로움도 정열도 없었다.

‘내게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다. 열네 살 때부터 시작한 그림 공부였던 것이다.

그림과의 인연은 여덟살 나던 해의 9월부터였다.

처음으로 학교에 간 것은 9월 3일이었다고 기억 된다. 다른 아이들

처럼 3월에 입학할 못 했던 것은 그 해 역시 봄을 타느라고 앓고 있었던 까닭이라.

나는 정말 미거하고 어리석은 어린이였다. 아름답고 단정한 어머니는 스물여섯 젊은 나이에 나를 낳으신 후 웬일인지 10년 동안 수태를 못 하셨다. 하여 나는 열 살이 될 때까지 젊은 부모님의 소녀 막내로, 응석받이 어리광쟁이로 갖은 못난 짓을 다 하며 자랐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학교까지 따라가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나는 며칠을 어머니가 데려다 주어야 했다. 그래도 첫날부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많은 코피를 쏟아 선생님을 당황케 했다. 이때부터 얼마 동안 긴장만 하면 코피를 쏟는 버릇이 생겼다.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삼국지>나 <옥루몽>, <사씨남정기>, <홍부놀부전> 등등의 옛이야기를 귀로 익혀 양창국의 영화, 정숙한 사씨의 고난과 정절, 교씨의 사악 등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곧잘 종알거렸지만 나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글자를 한 자도 몰랐다. 병약한 막내에게 고역(?)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려던 부모님의 마음 쓰임이었겠지만 한 학기를 앞서 가는 수업 시간에 나는 멍청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들어간 학교에서 도화 시간에 그림을 그린 것은 나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따라가지 않으시던 날이었다. 흑판에 쓰인 모르는 글씨를 보느라고 긴장과 불안에 떨고 있던 나는 비로소 그 두렵고 생소한 책과 흑판에서 해방되어 멋대로 크레용칠을 해대었다.

그림이 모두 거두어진 후였다.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던 나는 그만 눈이 동그래졌다. 내가 마구 크레용을 칠해 놓은 그림이 흑판에 붙여지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시봉 끝으로 내 그림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못 쓴다.”

내 그림은 나쁜 표본으로 칠판에 붙여졌던 것이다. 충격을 받으먼 조건 반사처럼 코피를 쏟았던 나는 이때도 코피를 쏟아 또 선생님을

괴롭혔다. 곱게 생긴 선생님은 얼굴도 모르는 약혼자가 죽은 후에도 처녀로 수절을 해 온 분인데, 그분은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칸을 친 후 매화꽃을 그려 넣는 식의 도화 교육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이 처음 학기에 내가 평생 받았던 성적 중 가장 이채로운 점수를 받았다. 통신표의 도화 점수가 병(丙)이었던 것이다. 맹꽂이 어리광쟁이는 그런대로 체조에 을(乙), 도화에 병점 이외에는 모두 갑(甲)을 받고 2학년에 올라갔다.

2학년 때도 1학기를 병치레로 가지 못하다가 여름 방학이 지나 학교에 갔는데 며칠이 지난 뒤 남자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

“오늘부터 수업이 끝나면 남자 4학년 교실에 와야 된다.”

“네?”

“도화를 그리는 거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그날부터 나는 방과 후 날마다 그림을 그렸다. 4학년 남자 교실에는 나 외에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아이들이 나보고 ‘서울내기’라고 못살게 굴지 않아 나는 코피도 흘리지 않고 즐거운 놀이처럼 그 시간을 가졌다. 그림 그리기는 열흘쯤 계속되고 나는 곧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 그림들이 그 해 서독 베를린에서 열렸던 만국 아동 전람회에 보내졌던 것이었으나 나이보다 미거했던 나는 그것을 몰랐고 잊어버릴 무렵의 어느 날 조회 시간에 단 위에 세워졌을 때도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었다. 상을 탄 후에도 도화라 하면 나쁜 표본으로 칠판에 그림이 붙여지고 병(丙)점을 받았던 것이 더 질게 기억에 남았다.

3학년 봄에는 디프테리아를 앓아 12시간을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장래 희망란에 오빠가 장난삼아 의학 박사라고 써 넣어 직원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 의학 박사 이리 좀 와 봐” 하고 놀렸다. 하도 골골 앓으니까 의사라도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어른들은 무척이나 한탄을 하셨던 모양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그럼에 관심을 잃어 갔다.

4학년 가을에 천만 뜻밖에 나에게서는 동생이 생겼다. 동생을 가진 친구들을 그렇게도 부러워했건만 어른들의 관심이 애기에게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심정은 이내 가셨다. 얼마되지 않아 나는 또 생사를 헤매는 열병을 앓았던 것이다.

5학년 1학기는 이 중병 때문에 또 휴학을 하고 간신히 6학년에 올라갔는데 그 해 4월 말부터 머리가 몹시 아프고 몸이 자꾸만 떨리고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만 구토를 했다. 그것이 뇌막염 증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중 갑자기 혼수에 빠졌다. 오래 앓고 있었던 중이염을 유취돌기염으로 발병한 것을 그대로 두어 그런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됐던 것이다.

당시에 부모님은 직장따라 딴 곳에 계시고 노인 백모님이 우리 3남매를 거두어 주고 계셨는데 그분의 무지와, 미거한 어리광쟁이면서 아픈 것을 잘 참는 내가 보채지를 앓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였다.

설상가상으로 언제나 무병하시던 아버지가 장질부사로 중태에 빠져 계셨으므로 부모님은 오시지도 못하고 같은 서울 분으로 줄곧 제 2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이근용 씨라는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 대신 나를 맡아 명의로 이름이 높았던 가토(加藤)라는 일본인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였다 한다. 이때는 뇌에 고였던 고름을 걷어 내고 10일 동안 체력을 다진 후 10시간 가까이 걸린 재수술이 행해졌었다. 이때 고막, 신경, 반고리관, 내이골 등과 함께 왼쪽 귀의 청각을 영원히 잃었다. 아래위만 조금 붙여 놓고 갈라졌던 귀두가 봉합되어 귀가 다시 붙은 것은 11월 초였다. 6학년을 거의 결석하고 다시 학교에 간 것이 11월 9일이었던 것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도 2월 말에는 입학 시험을 치르고 34 명의 한국인 수험생 중 하나가 합격이 되어 부산 고등 여학교에 들어갔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본인 학교에 넣으신 것은 당시 일본인 학교는 한국인 학교보다 2학년이 더 길고, 비록 한국인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교활한 정책이 노골적이었고 최종 학교에서는 그들과 겨루어야 할 터이니 그러자면 그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토대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두 번에 걸친 대수술로 체력도 완전히는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해 나는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었다. 청각도 청각이려니와 반고리관이랑 전정 같은 평형 감각, 위치 안정에 필요한 기관 한쪽을 깡그리 잃어버린 나는 한쪽 귀만 가지고 사는 데도 익숙지 않아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담임 선생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라(奈良) 여고사 출신인 이 재원 노양(才媛老嬢)은 평소 좀처럼 보이지 않던 미소를 띠며 “아라이(荒井)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넌 그림에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지?” 하는 것이었다.

뛰어난 미모의 아라이 선생은 고운 자태가 찬 바람을 느끼게조차 하는 단아함을 가져 접근키 어려운 기품을 지닌 여성이었다. 미저한 나를 그런 냉철한 분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른다. 자기의 한계를 느껴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나를 통하여 성취시켜 보겠다는 것이 나에 대한 그의 유별난 애정의 이유라 했지만 나는 그 학년에서 유일한 한국 소녀가 아닌가. 어쨌건 그녀는 일본 유학생으로 개화가 남보다 빨랐으면서도 화기(畵技)는 말기(末技)라는 유교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5년 후에야 실현될 진학의 방향을 확정시켰다. 이리하여 나는 그림과 다시 만났다.

그 후부터 나는 날마다 별관에 있는 미술실에서 살았다. 나는 아라이 선생의 준엄한 지도를 받으면서 줄곧 그를 위하여 모델이 되기도 했다. 허구한 날 해야 하는 데생 연습의 지루함과 속박감을 이길 수 없어 피를 부리게 된 나를 아라이 선생은 사람을 시켜 교문 앞에서

잡아가기도 했다. 아직 나이 어린 나에게 달마다 〈아프리에〉 〈미즈에〉 [水彩畵] 같은 월간 미술지를 보게 해 준 것도, ‘루브랑’ ‘뉴턴’ 같은 고급 외국 물감을 대어 준 것도, 스위스에서 출간된 세계 미술 전집을 준 것도 아라이 선생이었다. 그는 인체의 골격과 근육의 움직임 같은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응용 해부학(應用解剖學) 공부까지 시켰다. 어느덧 나는 학교에서 ‘그림의 韓상(씨)’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넌 꼭 우에노[上野美術大學]에 가야 돼. 넌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전람회에는 모두가 깜짝 놀라는 작품을 내야 한다구.”

그는 본인인 나보다 더 눈을 반짝거리곤 하였다.

여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나는 신기하게도 장기 휴학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학교 전용 수영장과 거기에 딸린 소나무 숲속에 천막을 친 임간 학교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7월이 되면 10일 전에 수업을 끝마치고 방학까지의 20일을 수영장과 임간 학교에서 지냈었는데, 7월 초에 행해지는 교의(校醫)의 건강 진단에서 심장과 한쪽 귀가 시원치 않은 나는 언제나 탈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여 나는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도 수영장에도 소풍도 간 일이 없고 체조 면제, 소제 면제로 체조도 청소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4학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미술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단단히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나에게 잔인한 올가미가 씌워졌던 것이다.

건강은 얼마큼 회복되었다 해도 창백한 모습으로 암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어려서부터 나를 지극히 아끼며 내 성장을 지켜봐 주시던 김말봉 선생이 찾아오셨다. 일곱 살 때 부활절날 처음 교회에서 만나 줄곧 나를 귀여워해 주었던 그분과는 이 무렵 〈동아일보〉에 200여 회를 연재한 그의 장편 소설 〈밀림〉의 삽화를 내가 맡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친숙해져서 다정한 이모님과 이모님을 따르는 조카딸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의 좌절을 누구보다도 아

파하던 그는 영국 출신의 어느 여 선교사 한 분이 어찌 보았던지 나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철저한 서구 교육을 받게 하여 자신이 뜻했다가 이루지 못한 이 나라 여성 교육에 헌신케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때의 나에게는 뜻하지 않게 비추어진 한 줄기 빛이었다.

나는 새로운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일본은 개전 직전에 있었고 신약한 과년한 딸을 그렇게 먼 타국으로 선뜻 보낼 부모를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예측대로 내 소망은 일축당하고 말았다. 내 생명 자체의 몸부림 같은 열망과 김 선생님의 격려로 출분의 뜻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는 그러나 부모님을 끝내 저버릴 용기를 갖지 못했다.

이듬해 나는 아버지의 옛 친구라는 분의 아들과 얼굴도 잘 모른 채 ‘짜지어져서’ 새로운 운명의 가혹한 덫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양쪽 아버님들은 석학으로 이름이 높았던 박 진사라는 학자 문학에서 소시에 함께 수학할 하신 사이였다. 나라의 풍운이 험난해지자 우리 아버지 삼형제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시대는 더욱 고루한 수구 속으로 몸을 사리셨던 것이다.

시대는 누대 봉사의 대중가로 범절 높은 충충 시하였고 시어머님은 4년째 중환으로 내일의 목숨을 기약할 수 없는 용태 속에 계셨다. 묵은 집안의 인습의 무거움과 낙탁한 대가의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와 상봉하술의 생계의 어려움과 거듭되는 불운이 변질시켜 버린 잔인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인심의 시달림 속에 고달픈 신역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신랑은 효성 깊고 머리 좋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급격한 가세의 영락으로 성격이 약간 이즈러지고 지나치게 과묵하였다. 나는 결혼 후 4.5년 동안 그가 집에서 웃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 때만 해도 가계(家格)와 저력으로 다소의 무리는 통했던 모양으로 남편은 학령에 차기도 전에 장난삼아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 20세가

못 되어 벌써 전문 학교(경성고상=서울 상대의 전신)를 졸업하고 금융 조합 이사 시험에 합격하여 아버지 같은 직원들 뒷자리에 있었다. 일제하에서는 금융 조합 이사만 해도 경기도에는 한국인 이사가 몇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20세 약관으로 광주군 군지암 금융 조합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사가 되었어도 그는 3년 동안이나 총각으로 지냈기 때문에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시급했으나 결혼을 해도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했다. 차남이며 직장도 다른 고장이었으므로 우리는 이사 사택에서 살림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집안 형편이 신집살이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시어머님의 간병 때문이었다.

시어머님은 4년째 신장을 앓고 계셨다. 신혼 여행에서 돌아와서야 나는 신랑이 예정을 며칠이나 앞당겨 귀가를 서둘렀던 이유를 알았다. 우리 아버지는 오빠나 언니와 똑같이 우리들 신혼 여행의 코스를 잡아 주셨었다. 경주, 금강산, 주을을 거치는 3,4일의 여정이었다. 그러나 신랑은 그것을 다 버리고 인천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돌아왔던 것이다.

당시 시댁은 연천에 있었다. 대갓집이 몰락하면 으레 묘하(墓下)로 낙향하는 예대로, 서툰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벌였다가 크게 실패하신 시아버님이 선영인 연천으로 낙향을 하셨던 것이다. 집안이 몰락해도 그것만큼은 남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던 수백만 평의 산야에는 명당따라 수백 년에 걸친 선조님들의 산소가 산재해 계시고, 집 바로 뒤꼍에는 몇 대조 분인가의 산소가 계셨다. 항시 병약하여 유리 그릇 취급을 받고만 살아 왔던 나는 신혼 여행에서 돌아오자 곧지암 이사 사택에 어머니가 꾸며 준 살림을 만질 사이도 없이 남겨 두고 시어머님을 적십자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고 간병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전신이 임신부의 복부처럼 부어 터진 중환자를 보자 댁에서 식이 요법이나 하라고 하였으나 열흘 남짓 병원에 누워 계시게 하였다가 연천으로 모시고 돌아갔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집안은 수심에 싸이고 나의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님은 위장을 몹시 상하셔서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설사를 하셨다. 체소한 분이었으나 풍선처럼 부은 몸은 엄청나게 무거워 추스르지를 못하셨다. 몸이 너무 너무 부어 요강도 쓸 수 없어 대야에 받아내야 하는데 뒤를 보시고 나면 터지도록 부은 살 속에 대야전이 박혀 보기에 도 끔찍스러웠다. 하는 수 없이 대야전 위에 두 손을 얹고 그 위에 앉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힘을 주실 때마다 손가락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다.

신랑은 가끔 다녀갔다. 광주와 연천은 같은 경기도에 있는 멀지 않은 고장이지만 교통 수단이 시원치 않아 직장을 가진 몸으로 자주 오지는 못했다.

철도역이 있는 읍내에서 산길로 십 리 남짓 걸어가야 하는 연천군 통현리 건재동에는 그때 당시 전기가 없었다. 대청끝 높이 남포가 걸리고 각 방에는 옛날부터 써 내려온 유경에 등잔불을 밝혔다. 아침이면 날마다 남포(호야)를 닦고 심지를 자르고 등잔에 기름을 채웠다. 그런 일은 얼마 가지 않아 익숙해졌으나 아궁이에 불을 때는 일은 언제까지나 서툴러 무던히 고생을 했다.

부엌은 너무 넓었다. 그러면서 아궁이에 불이 잘 들이지 않아 언제나 연기로 차 있었다. 땀감으로는 삭정이일 때도 있고 마른 풀이나 장작일 때도 있었다. 어느 것을 때도 연기는 굴뚝으로 나가지 않고 아궁이로 나왔다. 그 때의 내 절실한 소망은 불이 꺼지지 않고 훨훨 타 주는 것이었다. 불이 잘 타주면 그것만으로 잠시의 작은 기쁨을 느꼈다. 불이 붙어 땀감이 잘 타면 그것이 사그러지기 전에 끌어 내어 청동 화로에 가득 담고 뜨거운 재를 꼭꼭 눌러 덮은 것을 할머니 방에 갖다 놓는다. 주무실 때와 잠수실 때 이외에는 입에서 담뱃대를 빼는 일이 없으셨던 이 어른은 초저녁에 꼭 한 번 가시는 뒷간 출입을 제외하고는 대청 아래 발을 내딛으신 일이 없었다. 불을 다루어 본 일이 없으셔서 화로가 불덩어리가 될 만큼 불을 피워 담아 드려도

15분이 가지 않아 불을 꺼뜨리셨다. 나는 15분에 한 번 꼴로 내게는 가장 어려운 불을 다시 피워 드려야 했다.

영락은 했어도 옛 제도와 관습은 그대로 지키는 덕이었다. 식생활만 하더라도 시아버님은 옛날 그대로 삼시 진지 이외에 아침 여섯 시 경에는 꼭 자릿조반을 드셨고 점심과 저녁 진지 사이에 주안, 밤 이속해서는 밤참을 드셨다. 몹시 기운 가세에 중환자가 계시고 시국이 점점 더 어지러워 가고 있어 가사를 거들어 주는 사람을 얻기가 힘들 때였건만 수다한 하인을 거느릴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하여 칠칠치 못한 맹꽂이 며느리는 찢찢매면서 아침에 입은 행주 치마 끈을 잘 때까지 끄르지 못했다.

시아버님은 대종손이신만큼 이른 아침부터 문안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꽤 있었다. 그 중에는 양근 할아버지도 계셨다. 이분은 증조부님의 아우님이시다. 아득히 높은 항렬의 어른이었으나 종손자이신 시아버님께 깍듯이 존대말을 쓰셨다. 고조부님 제사 때도 뜰아래 서지는 않으셨지만 제청 구석에 서서 참사를 하셨다. 서출이라는 이유에서였으나 증조부님은 출계 입후(出系立後=양자)하신 분이요 조부모님 기출(己出=친자녀)은 이분 한 분인 것을 알고 나는 민망하고 가벼운 의분마저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동색(同色=같은 파당) 혼인이라 관습과 제도에는 그리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일찍 개화된 집안에서 자란 나에게는 시댁의 이러한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와 가치관이 너무 거뒀다. 점잖은 집안인만큼 험한 말씀 한번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없었으나 약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너무 다른 강자의 의견이나 언동이 모조리 강제되고 관철될 때 ‘학대’를 느낄 때가 있다. 순종을 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절망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무에게나 골고루 배부되는 절망을 나는 일생을 통해 조금씩 맛보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들이마셨기 때문이다.

불이 잘 들이지 않는 아궁이와의 악전 고투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마련해야 할 음식 시중에도 조금씩 이력이 나고 역시 끊임없이 처리해야 하는 성인의 배설물을 만지면서도 처음처럼 소름이 끼치지 않게 된 무렵의 어느 날 나는 저녁먹은 것이 몹시 체해 밤새도록 설사를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단 하나의 며느리로 종부의 일을 맡아 하고 있었지만 지차였었기 때문에 살림을 낸 것으로 되어 있어 시댁에서 지내면서 내게는 방이 없었다. 어머님을 혼자 계시게 할 수도 없어 사실 필요가 없었다. 하여 몸이 아파도 피로해도 내게는 쉴 공간도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진짓상을 물린 뒤 뒤꼍 뒷마루에서 늘어져 있던 나는 어머니 병환 문안차 와 있던 오목어멈에게 들키고 말했다. 그녀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랫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나가 전곡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몹시 안쓰러워했다.

“이렇게 기진을 험서서 어찌시지 오닛까. 하오나 새애기씨 어찌면 입덧일지도 모르와요. 경사옵지요.”

그녀의 말대로 그것은 입덧의 시작이었다. 앓던 병이 도졌는지 발은 기침을 하고 혈담도 뱉었다. 물만 마셔도, 아니 먹지도 마시지 않아도 나는 자꾸만 토했다. 너무 약해 수태를 할 수 있을까 염려하셨던 시아버님은 은근히 좋아하시면서도 행여 큰 병이 난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셨던 모양이다. 오목어멈을 잠시 붙들어 놓기로 하고 중병인 같은 나를 친정으로 보내 주셨다.

친정으로 돌아가 나는 정말 중병인 것처럼 자리 보전을 하고 몹시 몹시 앓았다. 그러나 아직 채 추스르기도 전에 연천서 전보가 왔다.

“모 위독 급래”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쇠약한 몸으로 친정을 떠나 서울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연천으로 급행했다. 남편도 몹시 수척해 있었다. 오랜 우환으로 전 가족이 시달려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 일이 없기도 하였지만 원래 무뚝뚝한 그는 언제나 어두운 얼굴로 더욱 말수가

적어져서 쇠약한 신혼의 아내를 보아도 위로의 말 한 마디가 없었다. 남편이라 해도 얼굴도 잘 모르고 결혼을 한 데다가 익힐 사이도 없이 떨어져 살다 보니 나는 그를 잘 알 수가 없어 생소하고 무섭기만 하였으나 언제나 불룩해 있는 양복 주머니 속의 그 잡동사니들이 실은 모두 신문·잡지 등에 낳던 신장약 광고 조각이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는데 그는 진실로 효자였던 것이다.

시어머님은 또 오랫동안 사경을 헤매셨고 나는 미열이 내리지 않는 몸으로 또 자주 싸시는 뒤틀시중을 들어야 했다. 경황없이 지내는 날이 그렇게 계속되다가 어머님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셨으나 아버님은 주야로 약주만 마셨다. 견딜 수 없으셨으리라.

시어머님은 언제나 숨이 가빠 눕지를 못하시고 앞에 놓은 책상에 엎드려 허덕이시고 나는 낮이나 밤이나 그 등을 쓸어 드려야 했다. 그때도 나는 등을 쓸다가 깜박 졸았던 모양이다. 잠결에 아버님의 음성이 들렸다.

“애야 목이 좀 마르구나.”

대청에 걸린 패종시계가 세 번 울렸다. 나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대청이 캄캄하다. 남포의 석유가 다 된 것이다. 석유는 귀중품이었으므로 광 속에 두었다. 다행히 달이 밝아 불을 켜지 않고도 얼마큼의 석유를 따라 와서 남포에 붓고 다시 광으로 가서 술독에 박아 놓은 용수를 눌러 약주를 걸러 뜨고 언제나 대청에 놓여 있는 무쇠화로의 불씨를 헤쳤다. 그러나 화로의 재는 얼음같이 차다. 불이 꺼졌던 것이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피우기를 삼경이 넘은 그 시각에 해야 한다. 숯은 개와가마에서 가지고 온 손가락만한 뜬 숯인데 숯가마는 뒤꼍 굴뚝 옆에 있었다. 부엌 뒷문을 열자 칼날 같은 엄동의 새벽바람이 얼굴을 쏘았다. 나는 부르르 몸을 떨면서 뒤꼍으로 돌아갔다. 비석이랑 석물이 서 있는 능같이 의젓한

산소가 눈에 들어왔다. 달빛 아래 유령처럼 서 있는 석물은 너무나 무서웠다. 이를 악물고 숲가마를 헤치는데 목덜미를 찬바람이 마구 저민다. 손이 저절로 그리로 갔다. 순간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목덜미까지 드리워져 있던 머리털이 한 올도 만져지지 않는 것이다. 섬뚱하여 고개를 드는데 거대한 머리를 가진 도깨비가 부엌 뒤 벽에 붙어서 있지 않는가…… 나는 그만 눈을 질끈 감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눈을 떠 보니 도깨비도 주저앉아 있다. 두어 번 눈을 껌벅였다가 다시 노려보니 그것은 내 그림자였다. 머리털이 모조리 곤두서 있다. 가만히 머리를 만져 보니 내 머리털은 모조리 위로 뻗어 있는 것이었다. 감정이 격할 때, 특히 격심한 공포를 느낄 때 머리가 곤두선다는 말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것은 과장된 표현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이때 처음 알았다.

기절할 정도로 느낀 공포였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신기하게도 이때는 그리 애쓰지 않고 불을 피워 따끈하게 데운 약주와 북어포를 찢어 상을 보아 들고 마루를 돌다가 나는 그만 발을 헛디더 상을 든 채 뒷마루에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스물네 살. 나이는 다 차 있으면서 모든 것이 서툰 데다가 좀전의 충격으로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아홉 달 배불뚝이의 몸은 둔하고 뒤통스러웠던 것이다.

아찔하였으나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어 나는 곧 일어났다. 그릇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었는데도 할머니 방에서도 아버님 방에서도 아무 말쑤미 없었다. 어느 사이엔가 불도 꺼져 있었다. 나는 대충 깨어진 그릇들을 챙기고 가만히 방에 들어가 어머니 옆에 몸을 누였다. 좀처럼 잠들지 않으시는 어머니는 드물게 곤히 주무시고 계셨으나 나는 전신이 육신겨려 한잠도 이를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버님이 느닷없이

“이젠 너희 어머니두 그만하고 진흥(남편)이두 너무 오래 혼자서 어려웠겠다. 내일은 광주로 가도록 해라.”

하시는 것이었다.

담도 없이 덩그렇게 서 있는 곤지암의 이사 사택은 그 동네에서는 가장 큰 집이었고 오래도록 비워두기도 하였건만 경기도 시골은 인심이 순박해서인지 없어진 것이 그리 없었다. 다만 오래 청소를 안한 탓으로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 나는 우선 집치우기부터 해야 했다. 그러나 배가 몹시 당겨 나는 자꾸만 변소에 들락거렸다. “이사 시악씨가 돌아왔다.” 하며 날마다 마실꾼들이 왔는데, 내게는 겨웠던 연천 생활에 배만 부르고 팔다리는 새다리같이 여윈데다가 눈만 쾅하여 마치 개구리꼴 같은 나를 동네 사람들은 안쓰러워했다. 할머니들은 “새댁, 자꾸 뒷간에 가고 싶은 건 산고가 머지않은 조짐이라우. 서둘러 친정댁엘 가야지. 우리네야 누구나 삼할미 노릇을 할 수는 있지만 새댁은 몸이 너무 귀하구 약하단 말야.”

하고 걱정을 해 주었다. 곤지암은 읍내가 아니어서 병원도 공의도 천기도 없었다. 내 몸에는 그날 새벽 뒷마루에서 떨어졌을 때 든 멍이 마치 시커먼 먹구렁이를 몸에 감은 것처럼 끔찍스럽게 남아 있었다. 그 멍은 애기를 낳은 후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시댁에는 내 해산 구완을 해 줄 사람이 없기도 하였지만 아예 생각도 해 주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100리 길 산등 도로를 덜커덕거리는 버스에 태워 서울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거의 울고 있는 얼굴로 플랫폼에 초라하게 서 있던 그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스물다섯밖에 되지 않은 젊음에 벌써 주름이 잡힌 무뚝뚝한 얼굴에 가득 퍼져 있던 사랑에 찬 그 얼굴을. 창유리에 이마를 대고 그를 내다보고 있던 내 얼굴은 어느덧 눈물로 젖어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2년째에 들어서던 해였다. 부산까지의 천리 길은 멀고도 멀었다. 열차는 군용차를 우선시키기 위하여 교차점마다에서 한없이 머물렀다. 30시간 후에야 부산에 도착했는데 오랜 승차에 시달려 까만 털이 달린 풀색의 멧쟁이 외투는 걸레가 되고, 발이 너무 부어 등줄기가 터져 너덜거리는 버선을 신은 나는 아무도 마중나온

사람이 없는 플랫폼에서 눈물을 흘렸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니 모두가 유명이나 나타난 것처럼 놀랐다. 남편이 친 전보는 그 이튿날 아침에야 배달되어 나의 출현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긴장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나는 오래도록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나는 임신부가 아니고 중환자였다. 극진한 간호를 받으면서도 회복을 못한 채 산기가 왔다. 극도로 쇠약한 산모는 당시로는 더 바랄 나위 없는 의사와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경을 헤매는 난산을 했다. 간신히 출산된 아기는 시퍼렇게 사색이 되어 울지도 않고 눈을 뜨지도 못했다. 영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초산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애기가 울고 눈을 뜰 때까지의 사흘 동안을 미친 듯이 무당 판수까지 찾아 다니셨다 한다. 무슨 죄로 소경에다 말 못하는 병어리를 낳았단 말인가. 어머니 눈앞에는 산모의 배에서 허리에 걸쳐 검은 먹구렁이를 감은 것처럼 끔찍스럽게 들어 있던 검푸른 명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지나온 세월을 말아 두었던 피륙을 펴 보듯이 살펴보기도 하셨단다. 내가 남에게 못할 짓을 한 일이 없었던가?

아기는 외조부모님을 사흘 동안이나 초열 지옥에 빠뜨렸다가 비로소 약한 소리로 픽픽 울로 한 눈을 떴다가 곧 다시 감았다. 다음날 다른 한쪽 눈을 마저 뜬 아기는 닳새 만에야 두 눈을 다 뜨고 ‘웅아’하고 큰소리로 울었다.

애기가 정상아라는 것을 안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았다. 산모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당시 사망률 90 퍼센트라던 산욕열에 걸렸던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건졌으나 완전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애기의 백일까지는 조리를 하기로 하였지만 겨우 한 달 남짓해서 나는 또 연천으로 가야 했다. 임종에도 대어가지 못하리라는 급보가 온 것이다.

그러나 시어머님은 석 달 가까이 더 견디셨다. 그 동안의 그분의 언어를 절한 고통을 어찌 다 적을 수 있으랴. 그리고 곁에 모시고 있던 사람의 고통도 나는 다 적을 수는 없다. 말씀도 하시지 못하는 어머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을 세 개 세우셨다가 가슴을 치고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합장을 하시곤 고개를 자꾸만 숙이시는 것이었다. 남기고 가시는 미성년의 세 자녀를 겨우 이십을 몇 해 넘긴 변변치 못한 며느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이다. 그 처절한 모정에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미거한 며느리는 산때도 벗지 못한 몸으로 석 달을 뜬 눈으로 간병하는 동안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동네에서는

“저택에 줄초상 나겠네.”

하고 수근거렸다 한다.

번쇄를 극한 무의미한 허식투성이의 유교식 전통 양례(襄禮)를 치르고 혼백을 궤연(几筵)에 모시고 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숨을 돌리지 못했다. 궤연을 모실 사람도 종가의 살림을 맡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 때에는 더러 모이기도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상식(上食)은 혼자서 거행해야 했다. 망인(亡人)에게는 절대로 한번 썼던 것을 다시 올리지 못하므로 조석으로 올린 간장을 따른 것이 항아리 하나를 채웠다. 아버지께 한문깨나 배웠던 나는 성리학(性理學)이 왕조(王朝)를 500년이나 지탱시킬 수 있었다 할지라도 주자 가례(朱子家禮)란 허례 때문에 나라를 낙후시키기도 한 것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티끌만큼도 여기는 일 없이 어른들 말씀대로 순명하면서 불령한 며느리였다.

시골 집에는 육 남매 가운데 개구쟁이 막내만 있고 모두가 타처에 있었다. 막내는 생때쟁이 망나니였으나 형수는 지극히 따랐다. 나는 그가 가엾고 귀여웠다. 덩그런 집에서 가는 팔에 유난히 작은 시동생과 백날 지난 딸을 뉘고 옛날 이야기를 늦게까지 해 주다가 함께 잠들곤 하였다. 잠결에 짧은 팔이 머리에서 벗어나면 역시 잠결에도 그

는 내 손을 잡아당겨 손끝이 머리에 닿기라도 하게 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맑은 정감이 넘쳐흐르고 어린 그에게 절절한 애정이 솟는 것이었다. 그 비참했던 시절에 이 시동생마저 곁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삭막한 나날을 보내야 했었을까. 실로 그 시절 그와 나의 어린 딸은 나에게 위안이고 등불이었다.

얼마 동안 나를 도와주었던 정읍서 온 아줌마는 여섯 자녀를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고생은 삼국지 일곱 권으로도 다 쓸 수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 옛일을 더듬고 있노라니 평범한 인생의 일상만도 쓰려하면 실로 일곱 권쯤으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 인생이란 결국 ‘살다 죽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다. 더구나 눈이 빙빙 돌도록 바쁘면서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 되었던 괴롭고 고달프고 단조로웠던 그 술한 나날의 역사는 하루의 결과만을 적는 것으로 족했다. 그리고 그 어둡고 무거운 잿빛의 계절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무슨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다. 행복에의 의지라든가 희망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오히려 나는 철저하게 내 불행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학에 정열을 쏟음으로써 냉소적인 역설의 독이 가득 찬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전시하에서 사람의 손이 모자라 약한 머느리가 찢찢매고 있는데도 많은 하인들을 거느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른들의 생활 태도에서 오는 몰인정과 필요 이상의 과로, 가치관의 차이가 빚어내는 크고 작은 알력 등이 서글퍼서, 억울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낮에는 죽었던 감정을 깊은 밤에는 불러일으키는 버릇이 생겼다.

내가 하는 일, 당하는 일, 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여전히 남의 일같이만 느껴지면서 의식의 밑바닥 깊숙이 겹쳐진 채 깔려 있는 갈피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닌데’ 하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내 의지가 참가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이 절규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으나 내 심정의 음량을 최고로 높인 것이었다. 식은 잿속에서도 한 줌의 불씨가 거대한 도시를 다 태워 버릴 수도 있는 열원(熱源)을 안으로 다스리며 살아 있듯이 인간다운 삶에의 열망은 인습과 억압 속에서도 가냘프게나마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내 안에 깊숙이 묻혀 있었다.

성능이 시원치 않은 기계처럼 모자라는 실력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던 그 비정의 계절은 나에게서는 문화와의 단절의 계절이기도 했다. 활자와의 대면은 집에서 가장 깨끗지 못한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잠깐 치러졌다. 질박해 가는 전시하에서 종이조차 귀한 때라 신문 잡지 따위는 모두 휴지로 쓰여졌었다. 신문이 오면 할머니부터 차례로 보시므로 내 차례가 되기 전에 휴지로 쓰여졌던 것이다. 휴지가 되지 않더라도 짧은 며느리가 ‘떠억’ 신문을 펼쳐 본다는 것은 버릇없고 외람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여 나는 대문 밖에 있는 ‘그곳’에서 신문 조각을 주워 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곳’에서 너무 킁킁하고 기사들은 모두 동강이 나 있어서 무슨 내용을 쓴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곳에는 반은 찢어져 사용된 잡지가 한 권 매달려 있었다. 오랜만에 동강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을 주워 읽는데 장편 소설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1,500 매, 마감이 두 달 남짓 남아 있었다. 불현듯 쓰고 싶다는 생각이 불길같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싶다는 욕망은 팽개친 지 오래였다. 그것은 이미 난도질당하고 짓뭇개진 욕망이었다. 그림은 제작 과정부터가 나에게서는 너무나 과만하고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공간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 그런 사치를 언감생심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글을 쓰는 것은 아주 다르다. 종이와 연필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종이를 구해 오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쓴단 말인가. 내 마음은 조바심으로 탔다.

내 열망은 뜻밖에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아버님이 재혼을 하실 때까지 속절없이 종가 살림을 맡아야 할 처지였는데 남편이 고랑포로 전근이 된 것이다.

철케연(撤几筵)은 얼마 전에 끝났었다. 부재모상(父在母喪)이었으므로 졸곡(卒哭)날 케연을 철거했던 것이다. 이사를 한 후 다시 오기로 하고 일가 덕 혼자된 아주머니 한 분에게 살림을 당부하고 나는 연천을 떠났다.

그때 나는 또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린 것은 겨우 9개월이 되어 있었다. 아우를 보기에 너무 어릴 때라 모녀는 함께 무진 고생을 했다. 반주검이 되어 짐을 챙기고 임진강 낭떠러지 위에 산장처럼 지어진 이사 사택으로 이사를 하였다.

짐을 채 다 정리도 하기 전에 남편은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원고지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원고지는 뒤에 쓰러 하느냐고 하면서 그는 몇 장이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2,000장쯤——.”

“2,000장?”

그는 너무너무 놀랐다. 결혼 후 처음 하는 부탁이었으나 남편은 아주 질이 나쁜 원고지를 겨우 반 첩(50장)밖에 사오지 못했다. 전시의 종이난으로 그것도 간신히 구했다는 것이었다.

마감 날짜가 촉박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시험지를 구해와서 국민 학교 1학년 어린이가 쓰는 공책같이 바둑판 같은 칸을 쳤다. 등사판과 등사기는 조합의 비품을 잠깐 빌렸다. 그 때 내게는 만년필이 없었다. 잉크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극도의 결핍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꼭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이 가사를 제쳐놓고 글을 쓸 수는 없었다. 낙선일 것이라고 지레 정해 놓았으므로 아무도 모르게 써야 하기도 했지만 나는 글을 누워서 써야 했던 것이다. 나의 신역은 여전히 고달팠다. 우리가 이사오자마자 궁급해 하 시면서 아버님이 오셔서 오래 머무신데다가 적성에 사는 남편의 내

종 누님의 서방님과 두 자녀의 점심 식사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나루를 건너 통근과 통학을 하고 있었다.

절인 배추 모양으로 풀이 죽도록 피로한 몸으로 밤에까지 앉아 있을 체력이 없어 나는 모로 누워 종이를 벽에 대고 연필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아버님도 남편도 내종 시늉님 댁 삼부자도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몰랐다. 한 달 동안을 죽자 살자 쓴 글은 마감을 사흘 앞두고 〈신시대(新時代)〉사로 발송되었다.

나의 미숙한 작품 “등불 드는 여인”은 그때 행운스럽게도 더 잘 쓰는 이가 응모를 하지 않았던 덕택에 당선이 되었다. 당선 통지를 받아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통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우리 둘(남편과 나)만의 비밀에 부쳤다. 수상 시일을 알려 왔지만 나는 참석할 수가 없었다. 고랑포에서 서울까지는 그때 거의 하루해가 걸렸었다. 백여 리 안팎의 거리였으나 장단까지 버스를 타고 장단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 표사는 데 다섯 시간도 걸리고 여섯 시간도 걸리는 형편이었다. 아버님과 내종 시늉님 댁 식구들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심사 위원 중에 유진오 선생이 끼어 있었던 것만 알았을 뿐 다른 분은 누구셨는지 모른다. 둘 하나 던지고 만 격으로 나의 문학 생활은 그만 그것으로 끊어져 버렸다.

그 해 여름에 아들을 낳고 나는 여전히 고달픈 노역부(勞役婦)로 지냈다. 대종가인만큼 제사는 달마다 들었다. 그 술한 제사 생신 시향 등에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례해야만 했다. 어른들의 견식으로는 종가집 제사나 행사에 며느리가 불참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한 살과 두 살짜리 연년생을 안고 엽고 그렇게도 얻기 어려운 차표를 천신만고 끝에 사서 몇 번이고 갈아 타며 가야 하는 연천길은 나에게서는 형벌이고 고문이었으나 수하자 유구무언(手下者 有口無言), 말없이 분부를 받자와야만 했다.

그래도 나는 내 안의 문학에의, 삶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한 분의 스승도 한 사람의 문우도 가지지 않아 신문 잡지에 나오는 작품 모집 광고에 응모할 수밖에 발표 수단도 없었지만 이어 단절적으로나마 단막의 희곡 작품 “마음”, 4막 5장의 “서리꽃”이 조선 연극 연구회 작품 모집에 수석 당선하고 해방 후에는 <국제신문> 장편 모집에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붓을 꺾지 않고 살아왔다.

해방 후 이북이 되었던 연천에서 올라오신 아버님과 합솔하여 아버님이 92세로 하세하실 때까지 나는 줄곧 상봉하솔의 생활을 했다. 증손인 조카가 40세가 될 때까지 봉제사도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밤이면 벽에 원고지를 대고 누워서 글을 써 왔다. 일생을 노역을 해 왔기 때문에 험한 손을 하고 있다. 매니큐어를 하지 않아 거칠고 모난 손이지만 부끄러워한 일은 없다.

요즘은 신혼 때도 하지 못했던 남편과 둘만의 오붓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은혜스럽게도 아이들이 모두 각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해방 후의 혼란 속에서 월남해 오신 어른들과 여러 가족들을 모시고 거느리며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도 이제 모두 은혜로만 여겨진다. 그 질병과 실의와 가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는 인생의 저변을 알았고 가혹한 삶의 현장을 목격했고 사람의 마음의 심연에까지도 내려가 볼 수 있었지 않았던가. 지금와서 생각하니 완고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른들은 모두 세대와 사고와 가치관을 나와 달리할 뿐 범절 높고 점잖고 품위 있는 인생의 교사들이었다.

지금 나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있을까. 이 인생의 잔조(殘照) 속에 살면서 죽음의 덫이 보이지 않게 내 주변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어슴프레 느낀다. 그 덫의 매듭은 내가 귀착할 곳에서 풀릴 것을 예감하고도 있다. 그때까지 나는 문학에의, 삶 자체에의 불씨를 끄지 않고 간직하리라.

망상과 착각의 늪에서

어딘가 좀 잘못된 딱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성격이 곧 운명이 된다는 말대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칫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별 악의도 없으면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크게 잘못된 일도 없으면서 수모와 치욕 속에서 살아야 한다. 비극적인 인생이면서 불쌍하고 안됐다는 생각은 주지 않고 차라리 희극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다. 미워할 수는 없으나 지겨운 존재, 성가시고 귀찮은 사람이라 하겠다.

본인은 어디까지나 멀쩡하다. 어이없는 망상과 착각 속에서 산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되었으면 하는 자기'를 분간하지 않아 남의 비웃음도 눈치채지 못한다. 아무 재능도 갖지 못하면서 자기는 평범한 여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용모도 고운 자태도 아니면서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믿으려 한다. 이루어 놓은 것도 별 자격도 없으면서 마땅히 남의 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곁에서 보면 우스꽝스럽고 뻔뻔스럽고 기가 막힌다. 그렇다고 악질은 아니다. 한마디로 곤란한 여인이다.

꿈이 많다가에는 현실 여건이나 사람됨이 당치도 않지만 그녀는

그렇게 산다. 젊었을 때는 딱하게 보이고 나이 들어서는 지겨워지고 늙어 가면서는 측은함을 느끼게 하는 인간 실격자들이다.

이러한 여인들을 나는 몇 사람 보았다. 그 중의 두어 사람은 내가 얼떨떨해 하고 있는 사이에 순제 내 생활 속에 비집고 들어앉아 적지 않게 나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괴롭혔던 것만은 아니다. 일깨움도 얼마큼 주었던 것이다.

그 뻔뻔스러움과 망상에 기가 막혀 곤혹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찌푸리며 눈길을 돌린 일은 수삼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나는 내가 눈길을 돌린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묘한 느낌이었다. 거기 서 있는 ‘나’는 때로 내가 눈길조차 주기 역겨워하는 그 딱한 여인들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내가 경멸하는 그 착각에 어리석게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시각적 확신이었다.

물론 그것은 환각이다.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까닭인지 나는 곧잘 환각에 사로잡힌다. 그 환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젠가 나는 심한 기침으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다. 한데 나는 커다란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한 마리의 나비였다. 가슴에 꽂힌 그 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가슴 속에 가득 고인 기침을 시원스럽게 쏟아놓을 수가 없어 무던히 애썼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일직선으로 그어진 선이 무섭다.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선은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나를 친친 감으려 들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환각도 갖는다. 불란서의 랑스 대성당에서였다. 벽을 채운 고브랑의 아름다운 태피스트리에서 장미 한 송이가 정말 눈앞에서 떨어져 내려 났을 웅고 쳐다보고 있는 내 앞에서 떨어졌었다. 태피스트리 속의 공주가 들고 있던 꽃이다. 나는 몸을 구부려 그 꽃을 주웠다. 장미는 향기조차 가지고 있었다. 그 향기와 꽃빛은, 지금도 내 안에 또렷이 남아 있다.

이런 ‘경험’에 정신과 의사들은 흥미와 관심을 많이 갖는단다. 그러나 나의 경우 나는 그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저 그런 일들은 버릇이 된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버릇으로 나는 자주 나를 보게 된다. 어떤 때는 꽤 괜찮게 보일 때도 있고 그저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마땅치가 않다. 안타깝다.

특히 글을 쓰는 데는 신경이 곤두세워진다. 글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해진다. 붙잡고 해진다. 어이가 없어질 때도 있다. 내가 가장 서글프고 붙잡혀지는 것은 이럴 때이다. 그러면 나는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더욱 그 착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이 아쉬워 울고 싶을 때도 있다. 인간사의 번거로움이 빼앗아간 내 시간들, 내 모자람으로 하여 더 깊이 파내지 못했던 진실과 아름다움들, 내 우매로 말미암아 풀지 못했던 삶의 고귀한 뜻——목마르게 회구하며 기실 하나하나를 잃으며 왔던 것이 내 삶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물리적으로 살을 깎는 일이다. 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모자라는 수면 때문에 나는 낮에도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고 아득한 상태에서 살아온 것 같다.

정신적인 허덕임은 그 괴로움에 비길 바가 아니다. 선불리 탐해 읽은 것이 많아 그런 것들이 모처럼의 나의 창작욕에 재를 뿌릴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위축되고 회의에 빠진다. 어리석은 망상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외곬 생각으로 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종말감을 가졌었다. 무서운 이름이 붙은 병, 몇 시간이나 걸린 대수술 따위를 치렀던 까닭이리라. 언제나 죽음의 직전에 고향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얼마만큼의 감미로

움도 섞여 있는 어느 특수 감각 지대를 나는 그때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체조(體調)의 불순이 종종 심각하게 자각되는 이즈음의 초조와 공포를 그때는 몰랐었다.

많은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최후에 남은 몇 푼을 안타까워하듯이 지금 나는 진해가는 내 목숨에 매어 달려 있다. ‘조금만, 단 얼마 동안만이라도 참아 주세요. 쓰고 싶은 것을 쓸 동안만 참아 주세요’ 하고 절규하며 살고 있다. 이윽고 죽은 후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역시 이렇게, 허망과 착각에 빠져 글을 쓰리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다. 남이 웃을지 몰라도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며 나의 숙명인 것이다.

진실로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삶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하나의 비원(悲願)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업’이란 수밖에 없는 것일게다. 어쨌건 나는 플로베르가 “보바리는 나다.”라고 한 것처럼 단호히 말할 수는 없어도 낮은 소리로나마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딱하고 우스꽝스럽고 덜되고 못난 망상과 착각에 사는 여인, ‘축제(祝祭)와 운명(運命)의 장소’ 속의 전옥희 여사는 나다.”라고.

나의 문학의 스승들

온통 연녹색에 덮인 세계였다. 이름 모르는 나무들이 서로 정답게 가지를 섞으며 서 있고 나무 밑에도 연한 녹색의 풀들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가지마다에, 풀끝마다에 꽃들이 달려 있었다. 못 위에 떠 있는 부평초에도 연분홍 노랑보다 흰색의 꽃들이 피고 그렇게 곱게 꽃핀 부평초로 못은 덮여 있었다.

순이에게 업혀 간 나는 풀 속에 앉은 채 따듯한 햇볕과 맑은 공기에 취해 있었다. 녹색에 싸여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화롭고 행복했다.

산들바람이 지나갔다. 가벼운 소요가 일어나고 부평초들이 꽃을 단 채 조금씩 움직였다. 그러자 물꽃에 가리웠던 수면이 물꽃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내리쬐이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나의 최초의 기억은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전의 일들은 아늑하고 아득한 태 속같이 짙은 혼돈 속에 잠겨어 있을 뿐이다.

진주 상봉리를 떠난 것은 내 나이 네 살 때 가을이라 하니 이 최초의 눈뜸은 네 살 때 초여름이었으리라. 너무나 순수하고 청신하고 아름다웠던 이 광경은 아직도 내 안에서 선명하고 신선하다. 내 최초의

기억 속의 주인공은 자연이었고 순수함이었고 아름다움이었던 것이다. 이윽고 자연과 순수함과 아름다움은 황혼에 이르는 나의 긴 여정 속에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스승이 되고 지표가 되어 주었다.

열 살 때까지 아우가 없던 나는 어리광쟁이였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아름다우셨던 어머니는 책을 좋아하셨다. 흑공단 같은 머리에 철 따라 고운 비녀 같아 꽃으시고 남끝동 자주고름 예쁘게 단 연옥색저고리 동정니 꼭 맞게 단정히 입으시고 목청을 가다듬어 억양 붙여 읽어 내려가시던 〈옥루몽〉, 〈삼국지〉, 〈사씨남정기〉 예닐곱 살밖에 되지 않던 나는 어머니 무릎 베고 양창국의 호강, 제갈공명의 지덕, 사씨의 현숙과 교씨의 간지를 들었다. 이광수의 〈단종애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 나도 서럽게 흐느꼈었다.

동생이 없어 그런지 가냘프게 어리광만 하다가 학교에 들어갔으나 나는 결석이 잦았다.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집에서도 시간마다 치는 학교의 종소리가 들렸다. 그 종소리를 들으며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와는 다른 책을 읽었다. 〈아라비안 나이트〉, 〈그림 형제 동화집〉, 〈안데르센 동화집〉, 〈성서 이야기〉, 〈희랍 신화 이야기〉 등등이었다.

아주 갖지 못할 줄 알았던 동생은 뜻밖에 열 살 나던 해에 생겼으나 나는 여전히 몸이 약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았다. 집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책장을 뒤져 ‘어른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아이였었으리라. 어린 나이에 하얀 얼굴을 하고 눈만 큰 데다 땅뻘기, 돌차기, 공기놀이, 고무줄넘기 하나 못 하면서 체홉의 〈귀여운 여자〉를 읽고,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을 걸작이라고 탄복하곤 했었다.

국민 학교 5,6학년을 거의 다니지 않고 여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런

대로 건강이 웬만하여 나는 여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3학기의 성적이 다 기입된 통신표를 받았다. 언제나 장기 휴학으로 한 학기나 두 학기는 백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4학년까지 이 기적(?)은 계속되었다.

단순하고 꿈 많은 이 소녀기를 육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며 나는 마음으로 앓고 있었다. 잔잔한 표정 밑에 증오와 반항을 키우며 언제나 타고 있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완고한 거부증 증환자이기도 하였다. 내 개인의 개체에는 직접 절실한 손실을 입지 않았으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으로 내 마음은 항상 반항의 가시를 돌치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나는 언제나 외토리였다. 이윽고 이 외토리의 처지는 졸업반인 5학년 1학기부터 시작된 긴 투병 생활로 어쩔 수 없이 완전 무결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짜장 외토리였던가? 어느 성인 말씀처럼 고독은 나로 하여금 신을 만나게 해 주지는 않았지만 많은 스승과 벗을 상면시켜 주었다.

나의 병은 할머니 말씀대로 귀신 불은 병이 분명했다. 우럭우럭 앓는 일 없이 몰래몰래 와서 목숨을 쉼먹는 이 무서운 병은 간교한 농간을 부렸다.

맑은 심신으로 맞는 아침, 열이 올라 착 까부라질 수밖에 없는 괴로운 오후, 거짓말같이 평열로 돌아가는 밤, 이런 날이 되풀이되며 혈담,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생명의 소모는 급격히 착실히 진행되어 가는 것이었다.

혼수에 빠질 만한 고열도 아니고 몸을 뒤척 만큼 격렬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노곤하고 찌뿌드드 괴로우나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날이면 평열이 되는 오전과 밤에는 몸도 정신도 건강인 같은 느낌이 잠깐이나마 들기도 한다. 내가 많은 스승들과 벗들을 만나는 것은 이런 때였던 것이다.

일찍부터 장서로 유명했다는 집안과 잠시도 책을 곁에서 멀리한 일이 없으셨던 아버지, 문학 청년이었던 오빠 덕택으로 집에는 책이 많았다.

한창 나이에 생활을 잃고 횡와(橫臥)를 일상으로 살고 있던 나에게 책 읽는 재미조차 없었던들 그 긴 투병의 나날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다행히 나는 뛰어난 시력(視力)과 의사로부터 책망을 받을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곳에 골몰하는 집중력도 무한한 호기심도 있었다.

외로워서 심심해서 괴로워서 읽었던 것이 아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읽지 않고는 못 배겨서 꾸중을 들어 가면서 읽었다. 계통을 세워 읽었던 것도 아니고 인생의 의의를 묻고자 한 것도 아니다. 왕성한 지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다. 문학을 하겠다는 의지나 각오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앓고 있는 단순한 목숨 자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문턱에서 생활을 절단당하고 유폐나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따분함과 답답함을 그리 느끼지 않았다. 혼자 있는 일과 외로움에는 어느덧 익어 있었다. 유폐감도 고독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요양하고 있던 지리산 깊은 산속을 실지로 찾아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자유롭게 시공을 넘나들었고 내 곁에는 언제나 존경하는 스승, 친애하는 벗들이 있었다.

앞당긴 종말감(終末感) 속에서 얼마큼 감미로운 감상에도 젖으며 찻집 산중 아스라이 하늘 곁에 묻혀 가는 머언 봉우리 너머 있을 세계에 마음을 달리게 하며, 동경의 아픔을 배우고, 떴다 사라지는 구름에 허무를 배우기도 했다. 아직 이마에 솟털이 복실거리는 얼굴을 하면서 한세상 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곤 하였다. 질름발이 성장이나 마 나는 배우고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었다. 앓고 있는 질병도, 읽고 있는 책도, 산도, 하늘도, 구름도, 미숙하고 외로운 소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병자의 특권으로 나에게서는 의무도 책임도 없었다. 병자의 무책임으로 하여 의지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책도 되는 대로 기호대로 읽었다. 나는 결코 문학 소녀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여학교 교정 이외에는 문학을 위한 문학 강의를 한 번도 육성으로 들어 본 일이 없고 한테 모여 문학을 논하는 시간을 한 번도 가져 본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머리맡에는 항상 <광세>를 놓고 마음내키면 아무 곳이나 열어 읽곤 하여 어느 구절은 암송하고 있었고, 러시아 사람들의 낯선 이름의 그 복잡한 칭호를 힘들이지 않고 부칭(父稱), 부칭(夫稱), 애칭(愛稱), 비칭(卑稱)으로 구별해 부를 수도 있었다. 러시아 문학에 탐닉한 결과였다.

나의 지식은 체계가 서 있지 않고 가장 심오하고 높고 난해한 것을 쉽게 터득하는가 하면 가장 비근하고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도 하였다. 언젠가 병이 치유되어 인간을 회복하고 생활 속으로 복귀한다면 갈 곳은 그림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죽박죽의 지식을 정리하려 들지도 않았다. 하여 ‘스타브로킨’의 그 무서운 비정에 몸서리치면서 그의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좁은 문을 택한 ‘아리사’의 천상적인 사랑에 눈물짓기도 했다. 어제는 ‘무이슈킨’이 내 곁에 있었고 오늘은 시공을 넘어 복구의 라게르레프의 ‘늑가의 소녀’가 옆에서 애달프게 향수를 달래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혼미와 혼돈 속에 있었다. 병자의 웅석 때문이었으리라.

토마스 만과의 만남은 그의 처녀작 “환멸”을 통해서였다. 환멸은 그의 스물한 살 때의 작품이다. 우리 나이로 열여덟이었던 나에게 이 작품은 무척 충격적이었다. 나는 경탄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한동안 내 자신이 자꾸만 쪼그라지는 것같이 초라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러시아어를 모르면서 도스토예프스키에 탐닉했듯이 나는 독일어를 모르면서 토마스 만에게 경도(傾倒)해 갔다. 그와 만난 지 4년 만

에 나는 그와 더불어 ‘마산(魔山)’에 올라가 지드가 탄복한 대로 이 ‘비길 데 없는 소설’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의 극히 실재감(實在感)이 희박한 몽환 속 같은 계절이었다. 살고 있고 살고자 한 인간이 아니고 맡겨져 있던 목숨만으로 불가사의하게 자유롭고 분방하게 숨쉬며, 가득 차 있는 우물같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상태였었다.

그러나 눈뜰 때가 왔다. 그 특수 계절의 문은 닫히고 새로운 계절이 열렸다. 내 감성의 우물은 뒤집혀지고 정밀하게 충일된 기다림의 상태는 교란되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건강은 그런대로 회복되었지만 현실에의 적응에는 힘이 들었다. 그런 중에서 부모님들은 초조하셨다. 처녀 나이 스물둘, 거기에다 흠이 있었다. 4년이나 요양을 해야 했던 병력(病歷).

그러나 본인인 나는 어디까지나 태연하였다. 그 4년이 남들이 꺼리고 두려워하는 병고의 세월이었다는 실감과 열등감은 추호도 없고, 특수한 순수 공간을 살았던 특수한 순수 시간이었다는 느낌이 짙기만 했던 것이다.

연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병력이 있어도 좋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의 친구분의 자제였다. 알 수 없는 인연에 이끌려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나 신랑되는 사람은 나의 흠을 무릅쓰고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윽고 이분들과 연을 맺음으로써 나는 책과의 인연을 끊었다.

인생의 복귀는 나의 경우 노역과 봉사와 인종을 뜻했다.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충충 시하 시택 어른들은 내 몸을 아껴 주지 않았다. 건디다못해 내 병은 재발되고, 아프면 친정에 가서 병을 다스렸다.

내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쌓여 갔다. 파김치같이 지치면서 잠 못 이루는 나를 옛 스승과 벗들이 찾아들 때가 많았다. 신문 기사 한 줄 못 읽는 처지에서 “인생이란 완전하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비참한 것도 아닌 거야.”하는 <여자의 일생>의 잔의 달관한 말이 첫 전에 울리기도 하고 허망한 감상적 동경과 현실의 엇갈림, 공허한 흥분 속에서 파멸해 간 보바리 부인의 임종의 피로운 숨결이 들려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캔버스는 말린 채 먼지를 쓰고 물감은 딱딱해지고 이젤은 다리 하나가 부러진 채 굴러 나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했던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던 나는 이제 초조하면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다. 원고지도 펜도 어디론가에 팽개쳐졌던 나는 어느덧 시험지에 칸을 치고 여원 손에 연필을 들고 있었다. 실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스승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고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나는 문학에의 길을 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학은 고백에서 시작되나 자기를 말하면서(글은 그 사람이다) 끝없이 자기 탐구를 하는 것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 사람은 영육이 합한 것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아무리 승화된 영성(靈性)도 쉽게 보잘것없는 육(肉)에 끌려가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 모순에 찬 자기를 끝없이 탐구한다는 것은 도로(徒勞)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산다는 자체가 도로일 경우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을 방척할 수 있겠는가. 이 나이에 와서도 나는 아직 회의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고백이란 말도, 우리는 헤프게 쓰고 있지만 거짓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엄한 고해소(告解所)에서도 멈칫거려지는 인간의 허영을 신은 벌할 것인가, 불쌍히 여길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죄에 연결되는 인간의 약함이 슬플 뿐이다. 이 가없는 허영과 약함을 나는 묻고 캐고 이해하고 작은 위안이라도 갖게 하고 싶다. 그것은 독창이 아니고 내가 많은 스승들과 벗들로부터 분재(分財)받았던 과제와 관심일지도 모르나 사람은 모두 같은 노래를 자기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상반되는 두 가지를 숨기려는 속성을 갖는다 한다.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소중한 것, 즉 신체의 은밀한 부위라든가 부끄러운 행위 같은 것과 보석이나 돈, 재물 같은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석이나 재물은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이 기실 더없이 보배로운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의 비밀도 알아내고 싶은 것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그들을 이렇게 가르쳤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있어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떠나는 날이 가까워져 오는 이때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소녀 시절 창을 열면 눈앞에 펼쳐져 있던 바다를 떠올린다.

옆으로 길게 누운 새벽 구름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찬란했던 그 바다, 저녁놀을 띠고 황홀했던 그 바다, 은모래를 뿌리며 잔잔히 반짝였던 달밤의 그 바다가 흰 거품을 물고 무섭게 노도했던, 같은 바다였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바다도 나에게 주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스승인 것이다.

사노라면 은혜 입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실감한다. 하늘과 땅, 햇빛과 우로와 바람마저도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주었다. 병고의 순간에도 은혜는 풍요로워 괴로움과 외로움을 잊을 만큼 재미로움과 즐거움을 주면서 많은 문학 작품들은 나에게 인생을 강의하고 바른 것과 그릇된 것,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천상 천하의 비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를 내가 돌아갈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그리움의 소중함과 그 소재의 정처 없음을 가르쳐도 주었다.

어느 북쪽 나라에서는 그리운 집을 멀리 떠날 때면 정든 집 아궁이에서 한 줌의 식은 재를 떠서 새로운 고장 집 아궁이에 넣는단다. 그

래야만 그리움병을 앓지 않고 새집에 정을 붙인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떠나야 했던 소녀는 옮겨 놓은 그 재의 신비로 그 집을 그리워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 온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곳곳에 내 묵은 집 재를 떠 옮겨 놓고 곳곳에 그리움을 안고 산다면 남이 수다스럽다고 웃을까. 결별의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기만 하다.

나는 이제 단순과 정직을 배워야겠다. 죽는 날까지 날카롭게 보고 예민하게 느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이던가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물음에 대답했던 이성철(李性徹) 스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다.

기자가 물었다.

“스님은 거처하시는 암자에서 큰절까지의 이 길을 자주 왕래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아,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제.”

이 한마디에 나는 구원을 느꼈다.

표현이란 이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스승은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것이다.

해가 나면 해가 났다고 쓰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쓰리라.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조금은 얼떨떨하다.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내 문학 속에 뜬 달

나이 수만권의 마디로 묶은 책을 태우며 달에게 소원을 비는 보름달맞이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해본 일이 없어 벅차오르도록 가슴설레이는 경험이었다. 강도 산도 하늘도 얼어붙고 달은 매섭도록 밝다. 그러나 둥글게 찬 달이어서 겨울달이면서 옛 어느 문인이 쓴 것처럼 처참하지도 않다. 맑고 아름답다. 보름달이 저리 밝으니 올해도 틀림없이 풍년일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 달은 우리 모두의 첫 소원을 미리 들어준 것인가.

놀이가 아닌 간절함이 가슴을 채운다. 우리만의 이 민속에 의탁한 아득한 추억 같은 믿음에 어느덧 끌려드는 것 같다. 나는 타는 햇불을 바치듯 달 쪽으로 기울이고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인간사에는 완전히 무관심할 천체와 그 운행에 옛부터 사람은 인간사의 운명과 변천을 점치고 두려움과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껴 왔다. 그 중에서도 두렵고 신비스럽고 냉정하면서 정답고 가까운 것, 높이높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언제나 지켜 주고 마음을 알아 주고 위로가 되는 것이 달이 아닐까. 휘영청 높이 외롭게 던져진 모습이 내 외로운 마음과 맺어지는 신비스러움 — 그래서

거두망산월 저두사고향(擧頭望山月 低頭思故鄉)

(달은 언제나 외로운 나그네 위에 뜬다.)

—— 이 백(李白)

심림인부지 명월래상조(深林人不知 明月來相照)

(숲속 깊이 홀로 있는 시인을 찾는다.)

—— 왕 유(王維)

이렇게 시인의 감흥에 감응해 주는 것도 달이다.

달을 잊으면 시도 잊을 것만 같도록 시인은 항상 달과 함께 있었다. 달과 함께 있으려고 물 속까지 달을 쫓은 시인은 남의 나라 사람인데, 그가 읊은 한 줄의 시도 모르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달노래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자랐다. 노래라기보다 소원풀이 같은 소박하고 단조로운 이 달노래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 달과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시선(詩仙)의 이름을 전구자(轉求者)의 이름처럼 부르며 진귀한 옥도끼 금도끼로 찍어 내고 다듬은 귀한 계수나무로 짓기를 원하는 집이 겨우 초가 삼간——너무나도 겸허하고 무욕한 우리 조상의 소원은 그저 눈물겹다. 그러나 그런 누옥에서나마 양친 부모 슬하에서 오순도순 평화롭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염원했던 우리 조상들이야말로 군더더기없이 궁극으로 농축된 삶의 본질을 알던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태몽에서 달을 안으면 요조숙녀를 낳는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었다. 꿈속이 아니라도 고운 여인을 보면 ‘달덩이’ 같다고 찬사를 보낸다. 화용월태(花容月態)란 미인의 형용사가 아닌가. 그런데 서양에서는 ‘Moon face’라면 질색을 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고 ‘Cushing disease’라는 병의 한 증상이 나타난 병든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골격은 대체로 가름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달처럼 둥그렇게 붓는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그들의 문학 작품에는 우리 동양인들처럼 달에 대한 깊은 감회나 동경심, 신뢰에 가까운 간절함이 덜한 것 같다.

우리 동양에서야 달을 떠나 흥취를 얻을 수 없었고 시에도 그림에도 영감을 살릴 수 없었고 방향의 사무침을 저리게 느낄 수도 없었고 벗의 정, 술맛까지도 그저 덤덤할 수밖에 없었으니 달은 우리 정서의 바탕임에 틀림이 없지 않았던가. 취록색 소나무 가지에 고아한 학이 깃을 접고 앉으면 달이 비껴야 그림이 되었고, 이끼 낀 늪은 매화 나무에 꽃잎마다에 청아한 향기를 담은 꽃이 다소곳이 피어나도 옛 사람은 물기 머금은 봄달을 꽃그늘에 그려 넣었다. 달뜨면 벗 생각하고 벗 생각하면 술 생각하던 풍류어린 우정이 두텁던 그들은 진실로, 달 없는 세상은 삭막해서 살 수 없었으리라. 하여 초사흘 눈썹달, 초이레 열레빗 달, 보름밤 쟁반달, 스무날께 쪽박달, 뜨는 모습 지는 정취 하나도 빠지 않고 여러모로 관찰하고 완상하고 달 아래 벌어진던 사연이면 유달리 가슴에 새겼고 보니 달에 얹힌 이야기는 천하를 밤을 지새어도 못 할 것만 같다.

서양화에도 달이 보이는 그림이 있을까. 앙리 루소의 불가사의하게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림 “뱀부리기” 밖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그리 없다. 달빛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극치에까지 표현한 “월광곡”이라든가 유랑민의 애상과 낭만을 감미롭게 선율에 실은 “집시의 달”과는 달리 그들의 문학 속의 달은 그리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내 얕은 지식 때문일까.

헛릿이 망대 위에 나타난 부왕의 유령을 보았던 것은 어스름한 달빛 아래다. 망령이 입은 갑주에 어슴푸레 비치는 달빛, 창백한 얼굴—— 몸이 오싹해진다. 캄캄한 칠야에 어둠 자체가 웅고된 것처럼 서 있는 망령이라면 이처럼 무섭지는 않겠지.

오래 전 어느 여름밤 스트리트 포트에서 에이본 강에 비친 달빛을 아름답다고 보았었는데 그 고장 태생인 셰익스피어는 달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지 줄리엣의 방 창문에 숨어들어 테라스에 서 있는 그

녀에 흘려 있는 로미오에게 이런 혼잣말을 시키고 있다.

“밝은 태양아, 떠올라서 샘쟁이 달을 죽여다오. 달님께 시종하는 처녀인 당신이 달 자신보다 엄청나게 예쁘다 해서 달님은 이미 슬픔에 병이 들어 가지고 창백해 있소. 제발 달의 시녀 노릇은 하지 마시오. 달은 샘쟁이니까.”

꽃이 부끄러워하고 달이 무색해 한다는 우리 표현과, 달은 샘쟁이라고 몰아붙이는 단언(斷言)의 대조는 흥미롭다.

줄리엠티 우리네 소녀처럼 달에 하소연하고 달에 소원을 빌고 달에 맹세하지는 않는다.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달에 두고 맹세하려는 여인의 말을 단호하게 막는다.

‘아, 저 쫓대 없는 달님에 두곤 맹세하지 마세요. 그 천체(天體)는 나날이 변하는 달이라봐서 당신 사랑마저도 것처럼 변할까봐 두려워요.’

오늘 밤 저 달은 내가 없어진 후에도 천년 후 만년 후에도 변함없이 비치겠지 —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천체 운행의 신비로운 법칙에 따라 기울었다 찼다 하는 달을 쫓대 없다고 생각하는 동양인이 있을까. 찼다가 기울고 기울었다 다시 차는 그 모습에 우리는 오히려 시간의 소멸과 재생을 절감하고 만물의 변천을 일깨움받고 생명 속의 죽음과 죽음 속의 희망을 보고자 바라며 숙연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 하늘도 산도 강도 얼어붙은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경건한 마음을 햇불과 함께 태우며 소원을 비는 것이다.

달의 크기와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 한다. 어릴 적 늦은 여름밤 늦더위를 식히며 평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달을 반기며 각기 하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쟁반만하다 한 것은 언니였고, 접시만하네요 한 것은 나를 업어 기른 순이였다. 풋볼만하다고 오빠가 말하고, 땃방석만하다는 것은 외할머니의 말씀이었다. 겁 많은 어리광쟁이였던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내 눈에는 그때 그 달이 운동회 때 하늘에 띄우면 교정의 포플라 나

무보다도 높이 올라가다가 가운데서 꺾 갈라져 터지면 비둘기가 안에서 날아 나오며 오색 종이 가루가 흩어져 나오는 애드벌룬만한 그 큰 종이 공같이 보이고 달도 그 종이 공이 그랬듯 은빛 가루를 술술 뿌리고 있는 것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태몽 속에서 달을 안아 본 일은 없지만 현실에서 꿈속처럼 달을 안아 본 추억은 있다.

역시 늦은 여름의 일이었다. 우리는 한려 수도(閑麗水道) 안의 어느 자그만 섬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이 있었다. 내해(內海)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그 섬에 올라 낚은 고기를 조리해 먹었는데 섬은 한쪽이 트여 있고 뒤는 절벽인데 집이 꼭 한 채, 바다에 면한 쪽을 빼고는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초가 지붕 위에는 해풍막이로 새끼에 엮인 돌을 엮었고 그 집 마당은 모래 사장에서 장정 키 배반은 될 만큼 높았는데 마당에서 사장까지 직선으로 돌담이 쌓이고 가운데에 위태롭게 돌 층계가 놓여 있었다.

신선한 생선으로 저녁을 먹고 성가시게 덤비는 모기를 모깃불로 쫓다가 명석 위에 잠이 들었는데 껏전에서 속삭이는 형용키 어려운 오묘한 소리에 눈을 떠보고 녀을 잃었다. 바닷물이 그 집 마당을 넘을락말락 찰랑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형용키 어려운 소리는 밀려드는 바닷물의 한없이 깊으면서 조용한 속삭임이었었고 수평선에서 얼마 높지 않은 곳에 뜬 달이 그 집 마당까지 직선으로 은빛 띠를 던지고 있는 것이었다. 정녕 그 달빛은 내 몸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 은빛 달띠와 바닷물을 베고 있었다. 그때 그 황홀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신비롭고 오묘하고 선명한 기억으로 내 안에 남아 있다.

그런 귀한 경험으로 하여 달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20대의 미숙했던 장편 〈역사는 흐른다〉도 대보름달과 민속 줄다리기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은 음력 열엿새날, 마당귀에 놓인 오지자

배기 물 위에 달무리를 두른 달그림자가 떠 있었다. 스물을 얼마 넘기지 않은 어린 나이로 처음 직면한 죽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덧없는 인생과 천체의 무구함을 저리게 느끼고 숙연해졌었다. 그때부터 삶과 죽음, 꺼짐과 돌아남에 마음이 쏠리고 마음 갈피 속에서 오래도록 그 오지자배기 물에 떠 있던 달무리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목숨의 절대성과 존엄을 달무리에 얹어 <월운(月暈)>을 썼다.

내 나이 겨워 달빛이 그리워 달을 찾아 나가는 일도 없어지고 손바닥만한 한 조각 하늘밖에 허락되지 않는 좁은 공간과 시야 속에 살고 있지만 변함없이 또 어김없이 차고 기우는 달 모습과 낮 동안에 노출되었던 모든 더러움을 고운 은빛 가루로 덮어 유현(幽玄)한 아름다움으로 만상을 싸 감는 오묘함은 언제나 내 심안에 보인다. 에게 바다 절벽 위의 사이렌이나 라인 강변 로렐라이 바위 위의 금빛 머리의 마녀처럼 뱃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달밤 풍경이 아니고 작은 섬 위 가난한 초가 앞마당에 밀물에 실려 떠나와서 어린 가슴 속에 들어와 자연에 대한 경이와 겸허한 귀의심을 일깨워 주던 달밤의 신비, 내 상념은 달을 중심으로 회귀(回歸)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내 인생의 부서진 시간마다에, 기억마다에, 달그림자는 어려 있다.

인지의 극도의 발전과 심화가 그 달을 발 아래 밟아도 나의 달은 그곳을 떠나 더 높이 떠 있고, 오만한 인간이 다시 쫓아간다 해도 신비로운 힘으로 다시 높이 솟아 언제까지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정답고 오묘한 ‘나의 달’로 떠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어리석고 못한 인간 본성을 추구하며

어려서부터 골골 앓아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어느덧 혼자 있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 속에서도 오히려 외로리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혼자였을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독은 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고독은 나에 있어 신과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 자신과 또 직접 면대한 일은 없어도 내가 그지없이 경모하고 사랑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해 준 시간이기도 했다.

앓고 있다는 불행이 내게 마련해 준 시간과 공간—— 병마와의 대결 이외에는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는 공백의 시공에서 학교 종치는 소리에도 자기와의 관련이 있다는 느낌마저 희박해진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유일의 낙은 책 읽는 일이었다. 하여 아무도 병실을 찾아주는 이가 없는 날에도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자라서도 골골 앓았던 나는 18살부터 22살까지 오랜 투병 생활을 거친 후 병마에서 놓여나면 다시 시작하리라고 믿었던 그림 수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처녀로서 22살이란 나이는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다소 힘에 겨운 나이였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다. 시댁은 아직도 조선조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회로 애락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부도이며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이 부덕이라는 가치관이 이 댁에서는 수백 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었다. 누구하고 말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신문 한 장 못 읽는 날을 맞고 보내며, 나는 비로소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 고독에 겨워 내 안에는 하고 싶은 말과 깊숙이 파헤치고 싶은 일이 자꾸만 쌓여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리 청결치 못한 곳에서 휴지로 쓰여지고 있던 잡지를 보았다. 그 잡지에는 장편 소설 모집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 한 번도 글을 쓰려는 생각을 가진 일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흥분하고 있었다. 나는 쓰고 싶었다. 그림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는 그 여건이 불가능했다. 허나 글을 쓰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손쉬운 일이 아닌가. 종이와 펜이나 연필, 그런 것이면 족했다.

원고지를 구하지 못해 시험지에 칸을 치고 지친 몸을 누인 채 벽에다 종이를 대고 나는 가족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야심에 아무도 몰래 그 글을 썼다.

나는 사람의 성격이 곧 운명이 되고, 아집과 미망이 비극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그런 일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가 모순인 인간 모두에게 내잠(內潛)되어 있는 슬픈 본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게 쓴 이 소설은 더 잘 쓰는 사람이 옹모를 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당선이 되었다. 잡지 이름은 〈신시대〉였고, 작품의 제목은 “등불드는 여인”이었다. 당선 통지를 받고도 나는 시상식에 나가지를 못했다. 허락 없이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는 가풍이었던 것이다.

동인 활동은 물론 은사도 문우도 없고 당선 후에도 문단의 누구하

고도 만나 본 일이 없는 나는 여전히 외로웠다. 하여 글을 쓰고 싶으면 응모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회곡 두 편이 또 당선되었다.

문단 사람들과 알게 된 것은 역시 <국제신문> 장편 모집에 응모한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면서부터다. 외계와는 접촉이 없어 외롭게 살았던 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너무 적었고 독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만이 풍부했었다.

그래서 내 시선은 자연 내부로 향해졌고 사람의 심리를 파헤치는 데에 관심이 쏠렸다. <감정이 있는 심연>은 그래서 쓰여진 것이다.

어려서 병약했던 까닭에 내 자신의 무게 이상으로 고임과 위함을 받았던 나는 결혼 후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는 비로소 눈을 뜬 것이다. 그때부터 어리석고 어딘가 빠진 듯한 못한 사람에게 애정이 쏠렸다. 그래서 나지 나의 작중 주인공들은 대개가 어리석고 결점과 모순투성이의 치우(痴愚)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람이면 모두가 지니고 있는 슬픈 모순을 좀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을 뿐 그들은 비참하나 열심히 살고, 더러는 어두운 머리로 자신의 미망과 비극이 어쩔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상태로 죽어가기도 하고 더욱 아집에 사로잡혀 전략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상적인 인간들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서 악마의 영역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인간 본성이 언제나 나의 관심의 과녁이 되는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선과 악의 또렷한 선이 흐려져 가는 것은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에게서도 어찌다가는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못되고 추하다는 사람에게서 뜻하지 않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기 때문이리라.

내 감성이 무디어진 것이 아니고 그만큼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나는 내 작중 인물의 어리석고 못나

고 버림받은 가엾고 딱한 사람들의 그 비참과 불행과 우행(愚行)을 통하여 그들이 결국은 그 고뇌와 비참으로 터득한 어떤 예지로써 스스로 삶 자체의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는가!

얼마 전부터 나는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가는 것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것이라 함은 내 것에 대한 재발견과 회복—— 좀 거창한 말이지만 우리만의 특성, 우리만의 의식 세계, 우리만의 관심, 우리만의 역사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다.

〈한국문학〉에 연재한 장편 〈만남〉은 그런 절절한 심정에서 쓰여진 것이다. 어렵다. 나는 내 역량이 부족함을 요즘처럼 절감하는 때가 없기에 자꾸만 위축되어 가는 것 같다.

만 남

둘째아버지께선 언제나 바람같이 들르셨다가 바람같이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남루한 물결로 나타나셔서 며칠 묵는 동안에 때를 벗고 떠나실 때는 약간 기이한 인상을 주기는 했으나 귀티가 흘렀다. 카이제르수염에 술이 많은 눈썹, 쌍꺼풀이 진 커다란 눈 등으로 몹시 이국적인 얼굴인데 양인(洋人)으로 보기에 키가 작고 몸이 너무 빈약했다. 한일 합병 전에 동경 유학을 했던 분인데 나라를 잃고부터는 바람같이 떠돌아 다녀 우리는 방랑객 둘째아버지라고 불렀다. 나는 이 중부님이 정말 좋았다. 기막히게 유식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손재간이 뛰어나고 화제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천주교 순교자들의 치명 장면 이야기도 이분으로부터 들었다.

“그것들 참 천작(천주학,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당시 서울 사람들은 곧잘 천작한다고 하였다.)들이더라. 글썽 죽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망나니들의 칼춤 아래서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 어쨌건 천작이란 말야.”

냉소적으로 망국의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익살스러웠던 그의 얼굴에 이 순간 엄숙함이 깃들던 것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리하여 겨우 열 살을 넘긴 나이에 나는 그의 뛰어난 묘사력과 놀라운 기억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순교자들의 장렬한 치명 현장을 보고 전율했다.

몇 해가 지난 후 오랜 요양 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있을 때 나는 또 순교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즉 ‘우라와 와사브로(浦川和三郎)’라는 일본인 사제가 쓴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유래 조선인이란 그리 용장한 민족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순교자의 한 사람인 황사영 같은 사람도 그 백서 중에 아동인 유약(我東人柔弱)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유약한 조선인도 한 번 신앙을 고집하고 주의에 순(順)할 때는 그야말로 침착, 강담, 용맹, 장렬하여 그 흰 칼날을 밟고 물불을 무릅쓰며 만 번 죽는 것을 사양치 않는 열렬한 정신에 이르러서는 어느 민족 어느 국민에게도 단호코 뒤지지 않는다. — 내가 특히 순교담에 중점을 두고 되도록 상세하게 이를 기술한 것은 조선 신도의 장렬, 강담, 용왕매진, 불굴 불요의 신념에 감탄도 하고 경모도 하고 차후에도 여하한 난관에 부딪치고 간고를 당하더라도 십분 신뢰를 두고 기대를 걸 수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널리 세상에 소개코자 했기 때문이다.’

이 책 중에는 당시의 일인을 느끼게 하는 구절도 간간 있으나 진심으로 우리 순교자들을 찬양하고 경모하는 진정이 행간에 흐르고 있었다.

이 글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침략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을 열등화하려고 혈투고 있던 당시, 그런 글을 일인에게 쓰게끔 했던 천주교 순교자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증거했던 것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고귀성과 우수성마저 증명했던 것이 아닌가.

아무의 전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천주교에 입교한 후 나는 내 자신에게 숙제를 하나 과하게 되었다. 교우된 본분으로 꼭 순교에 관한

글을 써야 한다고. 그러나 80여 년에 걸친 대교난과 하나같이 숭고하고 장렬한 그들 순교자들 중의 어느 기간, 어느 인물을 택할 것인가. 하여 나는 시일을 끝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만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다. 어느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산은 천주교 신자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쟁을 듣던 순간 나의 주인공은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부터 ‘정(丁)’이라든가 ‘다(茶)’자만 들어도 그 글들을 마구잡이로 읽기 시작했다. 서점엘 뻗질나게 들락거리고 학술지 등에 발표된 논문을 구해 읽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의 저서를 더듬더듬 읽고 일화를 모으고 연고지를 찾고 후손들을 만나고……. 그러나 그의 학문은 너무나 높고 넓고 어려워 나는 수없이 내 한계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파고들수록 다산 선생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나는 한국 천주교사를 작은 논문까지도 살살이 살피면서 암답하게 병든 그 시대의 정치, 사회상, 부조리, 서민들의 참상, 낡은 이념과 고루한 편견 등등을 대충은 쓸어야 했다.

나는 몇 번이나 쓰러졌다. 무엇보다도 7년간이나 불란서에 가 있던 장남이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하필이면 발표를 시작하던 달에 돌아와 물리적, 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제한과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그곳에 남기고 오게 된 역시 어린 큰딸을 돌보느라고 아이들의 엄마가 오지 않아 나는 그가 귀국할 때까지 열 달 동안을 집안일을 혼자서 해야만 했다. 세상 인정이 각박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했던 이때, 90 할머니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많아 힘들다고 파출부들 모두가 하루 오고는 다시 오지 않았던 것이다.

조국에 돌아와서 오히려 생소해 하는 어린것들의 등교 시간을 맞추느라 날마다 새벽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오전 2시가 지나야 잠깐 눈 붙이는 생활을 하면서 그럭저럭 3,000매에 가까운 글을 마무리지었다.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시간에 쫓겨 소홀히 쓴 것 같아

아쉬움과 두려움이 짙게 남는다. 사실 문예지 연재여서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미룰 수는 없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라도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곳에 계신 그분과 어렸을 때 방랑객 멋쟁이 둘째아버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이후 줄곧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거룩한 순교자들의 덕분이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나는 이 작품을 끝맺을 수 없었으리라. 어쨌건 좀더 좋은 작품을 쓰지 못했던 아쉬움은 남지만 장하고 장한 순교자들과 얼마큼 인간적인 약점과 모순으로 하여 더욱 나를 사로잡는 위대한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깊은 신앙과 순결무구하고 굳건한 의지의 삶을 살았던 그의 조카 순교자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이제 나에게는 경모해마지 않는 위인들이 동시에 심리적 혈연으로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들의 만남은 그만큼 진실했던 것 같다.

아리랑 고개

언제부터 아리랑 고개를 이별의 고개, 슬픔의 고개, 어려운 고비의 고개라고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 넘는 야속한 고개, 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한 맺힌 고개가 아니면 태산 같은 어려움이 막아 서는 고개가 아리랑 고개란다. 그러면서도 곧잘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온다. 서러울 때만도 아니다. 한이 맺힐 때만도 아니다.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저절로 새어나오는 것이다.

아리랑 고개는 어디 있는 고갯길. 누가 아리랑 고개를 보았는가. 누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갔는가? 나는 모른다. 아무도 지리적인 위치를 알려 준 사람이 없다. 아무도 또렷하게는 모르면서 누군가가 그 실재를 실감하는 고개다. 아리랑 고개는 진정 우리의 한국의 고개일 것이다.

어떤 외국 친구가 물었다.

“아리랑 고개는 어디 있는 고개죠?”

나의 입에서는 자신도 예기치 않았던 대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리랑 고개는 아무데도 없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모두 아리랑 고개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내 대답이 있었다.

아리랑 고개는 아무데도 없으면서 어디에나 술하게 술하게 있다. 그 수는 한국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르고 열도 못 되는 수일 지도 모른다. 아리랑 고개는 단순히 수치로만 헤아릴 고개가 아니다. 미완(未完)의 수이기 때문이다. 열에 하나가 모자라는 아홉 고개, 아니면 만(萬)에 하나가 모자라면 9,999 고개, 10만에 하나가 빠지는 99,999 고개 — 언제나 하나가 빠져 확정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아리랑 고개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그 숫자, 찾지 못하고 있는 환상의 숫자,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신비의 그 숫자가 없으면 영영 완성되지 못하는 고개가 아리랑 고개일 것이다. 하여 아리랑 고개는 아무데도 없고 어디에나 술하게 술하게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아리랑 고개 환상은 가끔 나에게 과제를 느끼게 한다. 아리랑 고개는 이별의 고개, 슬픔의 고개가 아니고, 기다림의 고개이고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고개이며 완성의 고개다. 그 고개가 찾아져서 기다리고 있는 술한 고개에 엮어져 완성된 한 자리의 수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말을 연상하면 엉뚱한 망상이 될까? 그는 대리석을 다듬어 조각을 하지 않는다. 그는 대리석 결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끌어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여 위대한 모세상을 완성시켰을 때 그는 마지막 끝을 놓고 스스로 완성시킨 대 결작의 석상의 무릎을 툭툭치며 말했다.

“자아 이제 이야기를 하시오.”

로마의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의 모세상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내 가슴에 뜨겁게 남아 있

다. 이윽고 이 감동을 상기할 때마다 나는 우리 아리랑 고개를 연상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실존하면서 수수께끼처럼, 환상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리랑 고개, 마지막이면서 없어서는 이를 수 없는 소중한 그 한 고개를 찾아야겠다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속에서 그의 예술을 찾고 끌어냈듯이 나도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서, 내 문학을 찾아내어 나는 아리랑 고개의 그 모자라는 숫자를 채우리라고.

‘나’라는 존재

심한 심신의 부조에 시달리던 시인 릴케에게 당시 세인의 관심이 높았던 정신 분석을 권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릴케는 끝내 프로이트를 찾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으로 하여 모든 불가해한 것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하여 불가해에 차 있는 우주의 신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그의 말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한 철인(哲人)의 말과 함께 나에게 감명을 준다.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지만 관심하는 대상은 동일한 것, 즉 ‘나’이다. 두렵고 알 수 없고 변덕스럽고 믿지 못하겠으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껴지는 존재의 나. 살살이 파헤치는 것은 부끄럽고 두렵다. 생명의 근원부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다.

그러나 잠 안 오는 깊은 밤, 외로움이 빠져리게 느껴질 때 상념은 나에게로 모여질 때가 많다. 고독은 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한 성인의 경지에서는 거리가 먼 범인(凡人)은 때로는 괴물같이 느껴지는 발가벗은 자기 앞에 맞서게 된다. 신경이 특히 날카로울 때 마주보는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때문에 찌그러지고 비굴하고 흉악하다. 아무리 자애(自愛)의 본능에 의한 관용을 베풀려 해도 마땅한 모습은 아

니다.

거기다가 그 마땅치 못한 얼굴은 곧잘 나를 매도까지 하는 것이다. 내 자신도 잊고 있던 잘못을 캐내는가 하면 어쩌다 잘했다고 자부했던 일마저 위선이란 이름으로 꾸짖곤 한다.

하여 야행성(夜行性)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밤이 무섭고 고독이 두려울 때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둘 이상의 얼굴과 인격을 가졌다고는 하나 여러 개의 내가 서로 간섭하고 힐책하고 변명하는 갈등 속에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나친 자의식이 자초하는 고통일지 모르나 허술하고 실수 많은 나를 견제해 주는 소리로 들으려 하지만 나를 꾸짖는 나 역시 나이고 보니 그 말이 반드시 옳은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어떤 쪽이 난가? 알 수 없다. 자주 시달리는 꿈속의 내가 나인가, 깨어 있을 때의 내가 나인가 알 수 없듯이 서로 간섭하고 면책하는 두 개의 나의 어느 쪽이 나인지 알 수가 없다. 릴케처럼 나를 모르는 것으로 하여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불가해에 합일하면서 다만 그 신비에 젖을 수밖에 없다고.

같은 사실이라도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면 어리석음이 되고 이중 생활을 한다면 배덕이 된다. 어느 표현을 쓴다 해도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이중 생활을 나는 줄곧 해온 것 같다. 문학과 생활, 변변치도 못한 문학을 한답시고 내 내면은 온통 아수라장이면서 외면으로는 국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질서 유지에 나름대로 충실히 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거짓도 위선도 아닌 성실성으로 건강한 상식적인 보통 사람으로서 전체와 아무런 위화감 없이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 자질구레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저 그런 일상 다반사로 엮여진 인생이었다. 사실 영웅 호걸 대천체라면 모르되 인생이란 살다 죽었다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른까지만이라도 살아달라고 ‘서른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던 내

가 그 두 배를 훨씬 넘는 나이를 살면서 아직도 자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시 일인 교사가 신성한 교단에 서서 “산에는 나무 없고 강에는 물 없으니 사람의 마음도 황량함이 강산과 같도다.”라고 즐거운 노래라도 부르듯 비웃어도 그것이 사실인만큼 어린 마음에 비분의 눈물을 삼키던 때를 상기하면 나무가 우거진 푸른 산, 도도히 흐르는 한강의 맑은 물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 나이까지 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이제 내 인생 쇠잔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쇠한 대로의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고자 한다. 아직 미흡한 일, 아쉬운 일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계단이란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나의 내면과 외면은 여전히 갈등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의지이며 표방한 바일지도 모른다. 즉 정신과 예술은 분방하고 비범하게, 생활은 어디까지나 평범하게 살려고 뜻해 왔기 때문이다.

시간과 나

시간과 나

나의 시간의 박자는 언제나 고르지가 않다. 숨가쁘게 저미는 때가 있나 하면 한없이 느리게 침체할 때도 있다. 밀도도 공백인 양 희박할 때도 있고 진처럼 농후할 때도 있다. 놓여진 상황에 좌우될 때가 있나 하면 심정(心情)적으로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도, 십 년이 하루같다는 말도 모두 절실한 실감이 아닐 수 없다.

살아 오는 동안 받은 방대한 시간을 생각하면 살았다는 보람보다 낭비했다는 탄식이 더 큰 것 같아 회한이 가슴을 친다. 그저 같은 일을 되풀이하여 오랜 세월을 하루로 농축할 수 있는 무위의 시기를 몇 번이고 가진 일이 있으나 상실감과 허무감은 형용키 어렵다.

이제 해는 기울고 내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나 가난하다. 새삼 시간이 아쉽고 소중하여 오히려 막연해진다.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이다지도 많다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게 시간을……’, 하고 절규하면서 여전히 낭비하며 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치우(痴愚)의 되풀이이다. 아아…….

오래 살기보다 좋게 살고자

어느 미개족에는 왼쪽 어깨에 남의 손이 얹히지면 머지않아 크게 앓고 목숨을 잃는다는 미신이 있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해치려면 상대방의 왼쪽 어깨를 노리면 되고, 왼쪽 어깨에 적의 손을 느끼면 그것만으로 치명상이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신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고 그것이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질적으로는 아무 손상 없으면서 몹시 앓다가 죽어 간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미개인의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웃어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실지로 아픈 것인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내 친구 한 사람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야단이 났었는데 안과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어서 걱정이 대단했었다. 어느 날 입원중인 그를 문병갔을 때 내 앞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는 순간적으로는 눈을 떴다. 마침 의사가 회진 들어왔기에 그럼 또 오겠다고 일어난 나를 보고 그는 말했던 것이다.

“아직 세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

“아니 세시 십오분이야.”

그러자 그는,

“네 시계가 더 가는 거야. 봐 세시 십오분 전이잖아.”

하며 머리맡의 시계를 가리켰다. 시계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는 정확하게 바늘을 읽었던 것이다. 갑자기 온 노안 현상으로 그는 당황했고 먼 데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믿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한다. 마음 자체를 앓는 병(정신 질환 등)도 물론 있지만 마음으로 앓는 병도 많다. 그래서 Well Being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릴 때부터 골골거려 온 나는 염(炎)자 붙은 병은 거의 다 앓으며 살아 왔다. 유취돌기염으로 왼쪽 귀의 모든 기관을 다 빼내어 버린 나는 그래서 반 신체 장애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잘 잊어버리는 천성으로 청각의 부자유를 느낀 일은 없다. 바른쪽 귀가 충실히 일을 해 주는 까닭도 있지만 곧 잊어버려 부자유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 이리라.

주어진 상태에 익숙해 버린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이다. 나의 경우는 더욱 필요한 일이다. 십여 년 전에 척추를 다친 후 천기 예보는 내 몸이 정확히 해 주고 있다. 대수술을 받은 여러 군데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쭈시고 아픈 데가 너무 많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것은 질병이 아니고 내 불운인 것을……. 처음에는 애써 아픔을 참았고 이윽고 그 아픔에 익숙해 버렸다.

어려서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한 나는 또 의사들에게 대하여 어느 정도 교활해져 있었던 것 같다. 의사란 환자의 증상이 무거울 때, 어려울 때, 이상할 때만 환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오랜 투병에서 터득한 것이다. 대수롭지 않아 의사의 처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의 보챌은 의사를 성가시게만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어 의사의 입장에서 처치의 필요를 느끼는 한계까지는 참아야 된다고 내 나름대로 깨

닫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 건방진 일일 수도 있다. 나 자신 오래 앓던 만성 맹장염이 급성으로 변한 것을 미련스럽게 참다가 결국 그것이 터져 복막염까지 앓게 되어 사경을 헤맨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 몸이 약하다고 누워만 있는 것은 역시 싫다. 평생토록 아프다고 생각하면서 누워만 산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병상에서만 지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다소 몸이 불편해도 의지로 극복하고 적당한 배려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고 싶다.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달이 죽음의 벽을 헐어 버리지는 못해도 더 멀리 밀어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많이 늙은 사람이 더더욱 오래 살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것은 좀 딱하다. 적당히 절제하고 적당히 섭생하고 적당히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서 오래 살기보다 좋게 살고 싶다는 내 신념은 이미 늙고 있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2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

12월은 주부의 달이다.

했어야 했던 일, 해야 할 일이 현기가 날 만큼 그들 앞에 쌓여 있다. 세시의 어수선했음, 분주함이 송년의 감상조차도 허락하려 하지 않는다.

쫓기듯이 쫓는다. 떠밀리듯이 산다. 한 해의 가계부의 마지막 장(章)은 가는 해의 마무리와 맞이하는 해를 위한 준비로 어지럽게 채워져 있다.

하던 일을 끝맺지 않고 해를 넘기는 께름칙함이 싫어 밤을 지낸다. 묵은 먼지를 그대로 쌓아 둔 채 새해를 맞을 수는 없다. 입던 옷은 빨고 새해에 입을 옷을 짓고 이부자리까지도 깨끗이 해 놓고 싶은 것이다. 해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향을 향한 시작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날을 위하여 주부는 먹을 것도 마련해야 한다. 가래떡을 밀고 식혜를 삭히고 산적을 뜬다. 유과를 지지고 수정과를 담그고 편육을 누른다.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하노라면 생각나는 사람도 많이 떠오른다. 차례에 모실 가신님들과 평상시엔 잊고 지내던 사람들까지

도 돌아와 마음에 머문다. 춥고 을씨년스러운 한겨울 속에 다정한 정이 훈훈히 퍼진다.

12월은 가난한 마음이 한데 모이는 달이다. 멀리 집을 떠나 있던 사람도 세모의 찬바람이 살갗에 와 닿으면 고향을 생각한다. 아이들이 기나긴 겨울 방학을 그리 지루해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12월이 갖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이리라.

가는 해가 반드시 어렵고 고되고 불행해서가 아니더라도 가는 해는 잊고자 하는 것은 언제서부터 있던 관습일까. 다정한 친구끼리, 한 직장의 사람들끼리, 한 집안의 찻줄끼리 모여 기쁨도 슬픔도 고마움도 고까움도 흐르는 세월에 풀어 보낸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성탄절이 오면 다시 모이고 새해를 단 하루 앞둔 선달 대그름 절박한 시간에 묵은 세배로 또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다.

12월은 눈알이 돌 듯 바쁜 중에도 허전하고 아쉬운 달이다. 동지 팔죽과 함께 나이도 한 살 더 먹으면 와락 몰려오는 회한의 아픔—아름답게 기쁘게 지난해도 12월 막바지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에는 한으로만 남는다.

하물며 치러 온 해가 어쩔 수 없는 고해에 뜬 시간들에 있어서라. 했어야 했던 일과 해선 안 되었던 일들이 그대로 엉킨 한이다.

바빠바빠 쫓기듯 지내면서 한가하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없으면서 마음의 갈피, 의식의 틈바구니에 스며드는 아픔과 저리는 회한, 허무와 뉘우침이 어찌 없으랴. 새웃을 챙기며 새해를 바라보며 뒷머리가 끌리는 심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여 12월은 육체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신변적으로나 어지러운 달이기도 하다. 지나간 한 해를 애써 잊고자 짐짓 망년 모임을 갖는다는 것도 기실 잊을 수 없어 못내 애달퍼하는 몸짓의 변형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난날 서로 섞였던 마음을 새삼 아끼는 정을 세모의 선물에 얹어 가까운 이웃에게 보내는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이 달이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사

그라져 버리는 해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불사조가 뛰어드는 엄숙한 재생의 해임을 믿고 바랄 뿐이다.

이순(耳順)에 느끼는 신춘(新春)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고 한다. 새로운 시간이 자라고 있다는 느낌은 황당하지만 신선한 실감이다. 자주 눈이 내리고 예년보다 7~8도나 낮은 혹한이 계속되지만 겨울 한복판에서 계절의 바뀔과 봄을 느낀다.

창 너머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아랗게 얼어붙고 땅에는 눈이 얼어 깔렸는데 쏟아지는 햇살은 어찌면 이렇게도 맑고 신선할까. 햇빛조차도 새로워지는 계절이다.

준엄한 천체 운행(天體運行)의 질서에 따라 우리 지구가 1년 만에 돌아온 회귀점(回歸點)에서 일순의 멈춤도 없이 장중한 회전을 다시 시작하는 엄숙함을 새삼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얼음의 혹한 속의 이 시기를 신춘(新春)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기상도 시간도 온통 새로운 느낌 속에서 또 한 살을 더 먹었다. 나이 먹는 것이 기다려지고 나이 먹는 것이 대견하던 시절은 이제 너무도 아득히 떠나 버렸지만 나이 먹는 것이 안타깝던 마음도 없어진 지 오래다. 이순(耳順)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쫓기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 딱한 생각이 든다.

이 나이라면 ‘산중무력일 한진부지인(山中無曆日 寒盡不知人)’의 경지에 있을 수도 있으련만 격변하면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내외의 정세가 빠짐없이 마음에 꽂혀 와 불안을 몰고 온다. 혈관 속에 불안이라는 독소가 풀려 들어 격렬한 통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호흡 기관을 지그시 누르며 전신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빠근함이다.

거기다가 교통난, 물가고, 강추위, 이웃과의 사소한 불협화, 부부 자녀 문제 등이 민감한 말초 신경을 매섭게 건드린다. 아니 엄청난 굉음이라는 지구의 회전 음향보다 집앞을 지나는 차소리가 더 시끄럽게 느껴지듯이 말초적이라 할 수 있는 일상 생활이 우리에게는 더 긴박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상이 우리 생활의 내용이고 보니 해가 바뀌어도 또 지난해와 같이 청천 하늘의 별만큼이나 우리네 살림살이는 말썽도 많을 것 같다.

왜 나는 이 해맑은 새해 아침에 새로움을 느끼면서 이런 딱한 예감을 갖는 것일까. 수십 번 했던 스스로에의 약속을 번번이 어긴 민망한 내 잘못이 쓰게 상기되기 때문일까,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라고 미리 던져 버리는 까닭일까, 생명의 열기가 식어 버린 탓일까, 체념도 달관도 아닌 이런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던 일의 하나로 왈칵 들이닥쳐진 것처럼 깨우쳐진 것이 있다. 각종 모임에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얼굴, 신선한 분위기, 내게는 서먹한 반짝이는 눈빛——도도하게 조류가 바뀐 느낌이다.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축복을 해 주고 싶은 심정은 진정인데 내가 보내는 축복의 말이 낮은 말이나처럼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서로의 용어가 다른 것 같은 두려움이다.

나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낀다. 내가 자신의 말을 거두고 나는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나를 지나쳐 가고 있는 것인지 웬지 같은 평면(平面)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은 위화감을 갖는다. 여태껏 느끼지 않았던 세대의 격차가 강한 실감으로 와닿는 것이다.

하나 새로움이란 얼마큼 잔인하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미더운 것인가. 인류라는 거목(巨木)에 새로 돌아난 젊은 잎새들! 오랜 풍상을 이겨 익힌 거목의 슬기와 힘이 피어 낸 새로운 꽃들! 싱싱한 새로운 잎과 꽃과 그 사이에서 우짖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제 우리들의 잎과 꽃은 시들어 가고 노래부르기에는 목이 쉬어 잠겼지만 묵은 잎은 떨어지는 섭리에 담담히 순종하는 점잖음을 가지고 싶다. 내가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꽃은 지고 잎은 떨어지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그쳤지만 우리 시대의 피었던 이 꽃이 진정 아름답고 건전하고 우리 시대의 노래가 정말 훌륭했다면 탐스러운 열매 속의 생명에 찬 씨로 남아 새 영혼 속에서 다시 싹트고 새로운 노래 속에 영원한 섬들로 남을 것이다.

이윽고 세월이 흘러 같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사로 쌓여가는 것이다. 인간 세계란 어느 초인적인 천재가 간혹 나타나 단번에 몇백 년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인류 발전의 계단을 한숨에 뛰어 올라가게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저 비슷한 삶의 영위가 되풀이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런 반복성 자체에 인간의 죄도 구원도 함께 있는 것인지 모른다.

새해 아침이다. 오래 감회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다. 더구나 몇 살이 되어도 바쁘고 할 일 많은 여인의 새해다. 지난해와 같은 일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하고 세배받고——다만 어느새 어른께 세배드리던 입장에서 받는 쪽으로 옮겨져 있는데 놀란다. 이윽고 내 입으로부터는 얼마 전까지 들던 어른의 덕담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몸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소원 성취하고 가내 태평하고…….”

그분들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전날의 내가 했듯이 절하는 새 시대를 본다. 대견하면서 한 줄기 감개가 서린다. 사람은 바뀌고 생활은 남아 모든 것이 조금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갓 받은 새하얗게 깨끗한 새 시간에 벌써 생활의 때가 묻기 시작하고 있다. 무엇이고 새로 받았을 때는 소중히 하다가 얼마큼 때묻고 헐어지면 아무렇게나 다루듯 새해의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 또 부스러기가 되어 허드레로 쓰여지거나 앓을는지?

그러나 다시 지난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올해도 우리는 길가는 나그네, 가다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궂은일도 겪고 화려한 길도 걸어보고 험한 길도 헤쳐가야 하겠지.

내 마음은 첫 햇살을 보았을 때처럼 다시 밝아진다. 올해도 내 갈 길을 열심히 걸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종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맞는 계절

언제나 종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맞는 계절이다.

어두운 겨울 새벽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맑고 고요한 대기를 헤치며 곱게 울리는 종소리로 잠이 깨면, 기다림의 순수함, 새로움에의 기대가 향유를 바른 듯한 향긋한 짜릿함으로 가슴에 번져 오는 것을 느낀다.

이때만큼 “하늘 높은 곳에는 주께 영광, 땅에는 마음이 착한 이에 게 평화”라는 말씀이 실감될 때는 없다.

질은 어두움이 서서히 걷혀진 곳에 새로운 세계가 찬란한 햇빛처럼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가까이 오고 있는 크고 눈부신 일들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세로 숙연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어리석음으로, 거짓으로, 게으름으로, 사악함으로 종소리의 뜻을 거둬 버린다 하더라도 고요한 이 순간만은 진실의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종소리는 사라지고 소음과 오욕과 거짓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지는 크고 작은 죄로 영킨 삶이 가차없는 밝음 아래 노출되는 대낮, 외계(外界)의 밝음 까닭에 오히려 눈이 멀어 우리는 자칫 밝

은 판단력을 잃게 되고 같은 치욕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성탄 주간 어느 곳에서나 울리고 있는 경쾌한 징글벨 소리를 나는 좋아한다. 맑아서 좋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경쾌함이 좋고 저무는 한 해의 아쉬움과 분주함을 짜증스럽게 하지 않고 삶 자체의 박자로 울리고 있어 좋다.

그러나 때로 흥겨운 징글벨 소리, 세모 자선 냄비를 지키는 구세군들이 흔드는 작은 손종 소리가 도시의 소음 속에서 외롭게 들리는 것을 느낄 때 나의 마음은 언짢아진다. 이럴 때는 만종(晩鍾) 소리를 들어도 감사와 평화의 순수함만을 얻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삶의 오욕에 얽히며 불안과 뉘우침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현대는 만종과 함께 하루의 삶의 막이 조용히 내려지는 시대는 아니다. 숨가쁜 역사가, 음흉한 음모가, 치열한 경쟁이, 가증할 죄악이 때로는 더욱 짙은 농도로 행해지는 한편 많은 사람이 단란한 한때와 평화로운 휴식을 누리는 한밤, 불이 켜지지 않고 있는 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 북유럽의 어느 가없는 고아 소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 거룩한 성탄밤에 불빛이 휘황한 남의 집 창밀 चु고 어두운 자리에서 팔고 있던 성냥을 한 개비씩 그어 밝힌 가난한 밝음으로 천상(天上)과 죽은 어머니를 보며 죽어갔다는 슬픈 이야기를 나는 이 계절이면 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성냥팔이 고아 소녀는 아직도 떨고 있는 것이 아닐까.

뜻하지 않은 죄를 얻어 영어(囹圄)에 있는 사람이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맺힌 뉘우침과 혹은 억울함으로 듣는 종소리를 생각할 때 종소리는 나에게 한없이 무겁고 엄숙한 것이 된다.

인생의 종점에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모여서 부르는 성가를 들을 때 내가 듣는 종소리는 언제나 흐느끼는 것 같게만 느껴진다.

불꺼진 방에 등불하나 켜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종소리의 참뜻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쿠루지’의 뜻깊은 환상과 깨우침이 필요치 않은 성탄절 —— 워싱턴 어빙이 한없는 향수를 담고 그린 옛 영국 시골의 따뜻하고 풍요하고 인정에 넘쳐흐르는 즐겁기만 한 성탄절 —— 거룩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성탄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하할 수 있는 성탄절을 진심으로 원하며 어두운 겨울 새벽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 맑은 종소리를 언제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싶다.

다시 사무치는 분단의 한

백일을 붉게 피는 백일홍 꽃송이가 탐스러워지는 8월 —— 백일홍 꽃빛은 언제나 그 해 그날의 벽참을 새롭게 해 주는 환희와 감격의 꽃이다.

어릴 때를 남녘에서 보낸 나의 여름의 추억은 붉은 구름이 내려앉아 오래 머물 듯 피는 백일홍꽃 그늘에서 펼쳐진다.

그러므로 자라서 백일홍이 겨울을 건디지 못하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부터 백일홍은 추억의 꽃 그리움의 꽃이 되었었는데 어느 해 그 꽃을 이곳에서 보았다. 파주에 있는 최 판서 댁 아흔아홉 칸 옛집 사랑마당에 그 꽃이 피어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중순 어느 맑은 여름날 오후였다. 이윽고 며칠이 지나 해방의 벽참 감격과 기쁨을 가졌던 것이다. 하여 백일홍은 나에게 있어 언제나 환희와 이어져 더욱 귀한 꽃이 되었다.

올해도 백일홍의 계절이 오고 세월이 그들해도 퇴색하지 않는 감격의 날을 맞는다.

36년 —— 질곡(桎梏) 아래서의 햇수와 같은 세월을 우리는 보낸 것이다. 빠르고 높은 박자로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실려 분단의 비극

이 자아내는 모진 고비 고비를 넘으며 차마 못당할 일도 당해 보고 차마 볼 수 없는 일도 목격하면서 우리는 살아 왔다. 이만큼 국력도 신장시켰다. 스스로 장하다고 생각할 때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면서 뼈아픈 한은 역시 분단의 원통함이다. 누가 38선을 그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 한은 새삼 사무치고 사무친다. 산 사람을 산 채로 절단하듯 국토를 분단함으로써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한 이 기막힌 한을 아무도 어느 것도 다치지 않고 풀 길은 없는가. 잊으려 해도 의식의 심층에는 위기감과 불안이 깔려 있는 우리 모두의 목숨의 통일에의 절원이 성취될 날은 언제인가.

36이란 평범한 숫자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36이라면 일제의 통치 기간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거의 버릇이 되었고 그 숫자를 들으면 그들이 남기고 간 이 잔인하고 혹독한 잔류물에 새삼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소련이 참전하기 직전에만이라도 손을 들어 주었다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었겠는가. 약해도 가난해도 한 핏줄 모여 오순도순 살 수만 있었다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정당하고 순수하고 근본적인 바람은 그들의 그 악착 때문에 짓밟히고 만 것이다.

지난 일은 거울로 삼되 되씹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36이란 숫자는 오늘 이 절치(切齒)의 통분을 새롭게 한다.

그러나 그 36년 동안 우리는 반동강이 된 부자유한 몸으로 이루어 놓은 것도 많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산천은 별거송이여서 떠 같은 바다 하나 건너의 푸른산을 본 눈에 눈물이 고였었다. 이제는 그 같은 산천이 나무들로 질푸르게 덮인 것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린다. 내 생전에는 못 볼 줄 알았던 대견한 모습을 본 기쁨의 눈물이다.

외국 일류 백화점에서 부끄러울 데 없는 우리 상품들을 보면 해방 이듬해인가의 신문 기사가 눈에 떠오른다. 대문짝만한 활자의 ‘우리

도 광목을 짜 내었다!’ ‘우리도 연필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조선 중공업도 선진국에 근접해 가고 학예술 등 문화 전반의 발전도 괄목할 만하여 중진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실감을 갖게 한다. 우리의 아픈 여건을 생각할 때 스스로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수하고 희망이 있는 민족인 것이다.

큰 집의 거실 넓이도 못 되는 우리 마당에 심은 백일홍은 수백 년이 넘었다는 고목이다. 원둥은 완전히 죽어 마른 소재같이 보이지만 옆에 움이 나서 올해도 조출하게 꽃을 피웠다. 30년 전 이 나무를 심으면서 나는 어리석은 해석을 했었다. 이 꽃나무는 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는 나무라고. 한동안 목숨을 안으로만 다스리며 숨을 죽였다가 새로이 피어나 자라고 있는 모습에서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노령이면서 젊은 이 나무를 나는 아끼고 가꾸고 있다. 추위에 약하고 흰가루벌레 등에 약한 체질이면서 곱게 오래 피며 모진 조건에 죽어 가면서 필사적으로 움을 틔워 새생명을 가꾸는 성실함…….

언제나 광복절을 이 꽃과 함께 맞이하며 나는 꽃에서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1)

기다리다 못해 우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타고 왔던 버스의 엔진이 고장이 나서 운전사와 조수가 버스 밑에 누워 손을 보고 있는데 좀처럼 수리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돌뱅이투성이의 삼등 도로(三等道路)는 지나는 바람에 먼지가 일고 시간(時間)을 끌수록 어린 것은 자꾸 기저귀를 적서 처참한 생각이 들어 들판에 펼쳐진 가을을 감상할 여유도 없었다. 버스 둘레에 서서 운전사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물러나 부녀(婦女)들이 모여 앉은 곳으로 와서 재수없다고 혀를 찼다.

들에는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데 우리는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어린것들이 보채어 어머니들이 울상이 되었을 때다. 길 옆 무밭에서 무를 뽑아 이고 오던 젊은 여인이 우리 곁을 지나다가 발을 멈추었다. 두 손을 높이 쳐들어 이고 있는 광주리를 받친 모습이 놀랄 만큼 균형이 잡혀 그 서슬에서도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푸른 인조견 치마허리가 내려와 광목 적삼 도련 밑에 매끈한 살이 드러나 풍만한 유방이 보일 듯 말 듯 한다.

고갱의 그림 속에서 나온 것 같은 이 여인은 청얼대고 있는 어느

어린이 앞에 광주리를 내려놓고 갓 뽑아낸 무의 흙을 털었다. 이윽고 무를 손으로 썉썉 문지르더니 흙이 낀 손톱으로 재빠르게 껍질을 벗겨 어린이에게 건넸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옆에서 보니 쌍꺼풀진 큰 눈이다. 눈을 내리깔자 겹쳐졌던 쌍꺼풀이 풀리는데 거기만 별에 타지 않아 눈 위에 흰 아이새도를 칠한 것 같이 희한한 매력을 가졌다. 여인은 청얼거리지 않는 아이들에게까지도 고루 무를 벗겨 나누어 주곤 힘들이지 않고 무 광주리를 이고 논두렁길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따뜻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호뭇함을 느끼면서 눈으로 그녀의 뒤를 좇았다. 그러자 그때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초가집이 보이고 지붕 위에 널린 고추의 붉은 빛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다. 여인은 곳곳이 세운 자세로 논길을 걸어간다. 금빛으로 물결치는 들판, 초가지붕 위의 고추와 여인의 푸른 치맛빛——가을의 향연이 펼쳐져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나는 그 여인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내가 만난 아름다운 여인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인 (2)

아름다움이란 곱고 예쁜 것, 그리고 사물이 됴됨이가 기쁨과 만족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적혀 있다. 그러나 사람의 느낌이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개념도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잡지나 신문의 미용 지도란이라는 데서 아름다운 손을 가꾸는 방법을 읽는다. 손이야말로 가장 연령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미용 지도자들은 그 손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니게 하느냐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을 해 준다. 부드럽게, 마디가 생기지 않게, 살결을 곱게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아름다운 손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고아 소녀에 대한 이야기다.

어려서 고아가 된 이 소녀에게는 더 어린 동생들이 셋이나 있었다. 그녀는 그 동생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린 몸에 힘겹고 고된 일을 해야만 했다. 과로가 쌓이고 쌓여 드디어 그녀는 쓰러지고 만다. 워낙 병이 무거워 소생할 가망이 없자 신부님이 마지막 성사를 주기 위하여 그 병상에 불러 온다.

죽어 가는 소녀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게 애절한 걱정이 있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만 주일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느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그녀는 일에 쫓기고 쫓겨 성당에 갈 틈이 없었던 것이다. 너무나 애처로워 신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소녀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아아——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때 신부의 눈길이 소녀의 손에 머물렀다. 그 조그만 손은 험하고 고된 일에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신부는 감명을 받은 듯 그 손을 감싸쥐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앙리에트야. 하느님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시거든 아무 말 말고 이 손을 보여드려라. 이 아름다운 손을…….”

마음의 평화를 찾고 눈을 감은 소녀의 가슴에 얹혀진 마디가 불그러지고 군데군데 피까지 맺혀 있는 그 거친 손이 신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소녀의 손을 상기할 때 일하는 기쁨도 고달픔도 모르는 매끄럽고 곱고 예쁘기만한 잘 가꾸어진 손을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송구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란 보아서 곱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가시적(可視的)인 형상(形象)을 넘어 성실과 헌신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건 누구이고 간에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여인에 있어서라!

용자(容姿)가 아름다운 여인,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 행동이 아름다운 여인, 심지어는 백치미를 짓는 여인, 악

과 추(醜) 속에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 아래서도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되겠다.

우리는 문학 속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만나게 되는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대면할 때마다 예술이란 다각도(多角度)에서 모색한 아름다움의 탐구(探究)가 주제(主題)일 것이라는 느낌이 짙어진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좇을 수는 없다. 하여 우선 이른바 아름다운 구원(久遠)의 여인(女人)과 아름다운 이상적(理想的) 여인을 괴테의 작품 속에서 찾아볼까 한다. 괴테는 모든 방면에 걸쳐 위대한 천재성을 발휘한 위인이며, 대문호인 동시에 나이 여든이 넘도록 사랑을 한 영원의 청춘이며, 진실로 여성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괴테가 24세 때부터 82세까지 청년·장년·노년의 세 단계의 인생을 경과하면서 청년의 정열과 장년의 성숙과 노년의 예지로 엮은 생애의 대 노작인 <파우스트>는 독일의 옛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그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이라 하겠는데, 괴테의 구원의 아름다운 여인 ‘그레첸’이 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파우스트’에 상징된 사상은 곧 괴테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노력하여 마지않는 자는 궁극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이며, 완성된 높은 순간에 대한 동경이라고 한다.

‘파우스트’는 항상 향상하고자 하는 선(善)이다. 이에 대하여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항상 부정하려는 악(惡)이며, ‘파우스트’ 속에 있는 선과 고귀함을 절멸시키려는 흉악을 가지고 있다. ‘파우스트’는 이 악마와 혈판(血判)의 계약을 맺고 한 번은 악의 세계의 사람이 된다. 이 악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메피스토펠레스’는 끝내 ‘파우스트’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근본 문제이다. 전설의 ‘파우스트’는 멸망하고 말지만, 괴테의 ‘파

우스트'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신의 나라로 이끄는 것은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보속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여인 '그레첸'의 하얀 손이었던 것이다.

흔히 구원의 여인이라면 단테의 '베아트리체'를 들지만,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거의 신격화되어 버린 이 여인에게는 인간적인 그늘이 너무 없어 너무 높고 멀게만 느껴지는 데 비하여 '그레첸'의 비극과 구원은 박진하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여인의 기쁨과 슬픔과 어리석음과 죄, 그리고 속죄의 깊이 같은 것이 가슴을 파고든다. 여심(女心)의 연약함과 여체(女體)의 슬픈 약속, 사랑이 죄와 숙명으로 직결되는 여인의 비극——그 잘못, 그 죄까지도 죄라기보다 어떤 운명을 느끼게 하는 애처로운 소녀 '그레첸'은 악마의 힘으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의 유혹에 빠져 어머니와 오빠를 죽게 하고 아기를 죽인 무거운 죄인으로 옥중에서 죽는다.

'파우스트'는 순결한 여인을 이렇게 짓밟으면서도 한편 악마의 힘을 빌려 진실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심한 악마의 폭거에 상심한 나머지 소경이 되고 마는데, 어느 날 그는 자유의 땅 위에 자유의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 높은 이상을 향하여 노력하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느껴 드디어 자기의 지난날의 자취는 영구히 멸망치 않으리라고 믿고 여기 최고의 순간을 맞보는 동시에 죽어간다.

'파우스트'의 죽음은 그의 패배이며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한 악마는 옛날의 혈판(血判)의 증서에 따라 '파우스트'의 영혼을 자기 손에 넣으려 하지만 이때 죄를 보속하고 있던 '그레첸'과 더불어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 그의 영혼을 받아 안고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괴테는 인간의 노력하여 마지않는 마음이 드디어 하늘과 신과의 합일(合一)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높은 이상과 굳센 의욕과 줄기찬 노력에 지친 상처투성이의 영혼을 구하는 존재

는 ‘그레첸’ 같은 순일한 속죄에 사는 겸허하고 고운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스러움이란, 영원성을 지닌 것이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죄없는 상태로 이르는 경지가 아니고, 삶을 통하여 괴로운 영혼의 빛을 향하여 더듬어 올라가는 아름다운 경지라 하겠다.

구원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이러한 여인에게 준 괴테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여인으로 그의 작품 〈헤르만과 도로테아〉의 여주인공 ‘도로테아’를 꼽고 있다. 전란을 피하여 타 지방에서 흘러들어온 피난민에 섞여 있던 아름다운 ‘도로테아’에 반해 버린 그 고장 명가의 아들 ‘헤르만’이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여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지극히 단순하고 담담한 이 사랑 이야기가 이백 년이 지난 후인 지금도 아직 독일인들이 즐겨 읽는 작품이 되어 있는 비밀은,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독일 정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작품 속의 ‘도로테아’의 성격이나 태도·행동을 볼 때 우리는 괴테의 여인을 보는 눈의 정확함과 그의 건전한 정신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생애를 통해 수없이 많은 여인들과 연애를 한 괴테의 이상의 아름다운 여인은 보석과 모피와 향수와 그리고 기교로 간질거리는 대화와 허식에 찬 알상알상한 몸가짐의 여인이 아니고 ‘도로테아’처럼 행복한 시절에는 모든 사람의 기쁨을 더해 주는 존재가 되고, 고난에 있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여 삶의 의욕을 돋우어 주는 정숙하고 건강·건전하며, 사랑스럽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즉 여성으로서 지극히 정도(正道)를 가는 가정적인 여성이었던 것이다.

살아가는 자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성실과 건전, 근면과 헌신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닌가 한다.

얼마 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테레사 수녀는 입고 있는 옷을 빨 때 갈아입을 옷 단 한 벌을 넣은 작은 가방 하나의 맨발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 상처 같은 주름에 덮인 얼굴과 낡은 소박한 옷을 걸친 허약한 그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적었으리라.

스스로를 제물로 봉헌하는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적었으리라.

여름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광고가 요란한 것을 들으며, 보며, 우리 모두가 피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쓰는 것 못지않게 건강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우며 아름다운 마음을 닦는 데도 힘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레사 수녀가 주고 간 감동 때문일지도 모르나, 거짓 없는 실감이기도 하다.

삶의 진실된 주제

“나를 이토록 뜨겁게 열렬하게 맞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의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보이신 것 같은 관심을 가져 주시지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테레사 수녀의 이 말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 노수녀는 무관심이라는 악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지와 굶주림과 질병 속에 인간 쓰레기처럼 사회의 관심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끝내 사랑과 봉사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난과 절망, 피로움과 막막함, 힘에 부치는 노력과 간난이 새기는 깊은 주름을 그 작은 얼굴에 늘려가며 힘겹게 외롭게 견뎌온 그에게 이제 세계의 명사로 부상된 현재의 자기에 대한 열광적 관심과 칭송은 오히려 성가신 몸짓으로 보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의 심정은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의 흐뭇함보다 아직도 불행한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비정한 무관심에 대한 개탄과 안타까움으로 차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관심을 가진 것은 노벨상을 탄 화제의 살아 있는

성녀였던 것이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이것이 그를 서글프게 안타깝게 했던 것 같다.

요즘은 한자리 우스개로 놓고 있는 것 같은 년센스 코미디에 무식하고 모자란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주제 파악’이라는 어려운 말이 어렵지 않게 나오게끔 되어 있지만 기실 어느 대상 앞에서 그 주제를 파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매스컴의 주창 아래 개개인의 관심도 감정도 따라가게 되고 조절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이 이른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 있는 듯한데 어느 재벌의 딸의 유괴 사건이 크게 취재되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새롭다.

활자의 하나하나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보도는 어린이의 행방을 찾는 데 협조하는 열의와 함께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규탄이라던가 그러한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인도적 양심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호소 같은 것보다는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컸다. 어쨌건 어린이는 무사히 돌아왔으니 천만 다행한 해결이었지만 며칠이 못 가 유괴사건은 잇달아 일어났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독자 투고란에서 애절한 어머니의 호소로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의 느꼈던 씁쓸한 착잡함은 아직도 남아 있다.

“잘사는 집 자식만이 소중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자식입니다. 돌려보내 주세요, 돌려보내 주도록 모두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어머니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보다 큰 새로운 사건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 역사 속에 투입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기우뚱거리며 숨가쁘게 돌아간다. 어제 절실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은 잊혀지고 어느새 사람의 마음은 무디어만 간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병든 육체보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병든 마음

이 더욱 무섭다.”고 개탄하는 것이다.

무감각 무감동의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자극을 느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잔학한 폭력이나 황당한 무술, 무서운 괴담이 아니면 전율을 느끼게 하는 초자연적인 환상이 내용이 되어 있는 영화가 판을 치고, 천진한 어린이의 장난감에 까지 어른들의 일그러진 의식, 어딘지 잘못된 사회 현상이 반영되어, 드라큐라의 흉악한 마스크, 실물같이 생긴 끔찍한 수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이란 말에는 언제나 개탄이 섞이게 마련이지만 이 개탄은 이미 희랍 비극 중에도 나오고 있으니만큼 가장 오랫동안 실감을 갖고 쓰여지고 있는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말세를 느낀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환멸이라 하겠으니 인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희망과 기대에 살아 왔으며 또 언제나 그만큼 배신을 당해 왔다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하여 말세 의식에는 이미 익숙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가끔 듣는다. 시험관 속에 인간의 생명의 씨를 보관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며칠 전의 외신 기사에는 전율을 느꼈었다.

우리가 괴물 이야기 괴담 같은 것을 즐기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모두가 거짓, 가공의 이야기라는 안심이 있어서라고 하겠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과학은 그런 공포의 문을 열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단 말인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관심해야 될 것은 외면되고 그야말로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런 불안과 도착(倒錯)의 시대를 살면서 어찌다가 마음이 밝아 오는 일에 접할 때는 잠시나마 진정한 평안을 느낀다.

얼마 전 일이다.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해온 어느 고승(高僧)이 거

뉘 사양하는 것을 굳이 어느 종파의 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는데 이 스님의 어록과 생활이 TV에 소개된 일이 있었다. 그 중의 한 장면으로 스님과 기자가 산길을 걸으며 말을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 스님은 수도소인 암자에서 이 길을 걸어내려 가끔 큰절로 간다는 것이다. 기자가 물었다.

“이 길을 오가시며 스님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칠십 노구(七十老軀)가 장년처럼 젊게 보이는 스님은 담담히 말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지.”

멋진 선문답(禪問答)이었다. 고승이니만큼 기자는 좀더 어렵고 깊고 뜻있는 대답을 기대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때 차고 맑은 물로 마음이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다.

오랜 수도 끝에 터득한 소탈하고 가식 없는 단순성을 보았던 것이다.

옛 어느 성인은 성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입에서 장미꽃이 한송이씩 나왔다 하는데 테레사 수녀의 말을 들을 적마다 나는 그 장미꽃의 떨기떨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의 진실된 삶이 묵직하게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 남의 집 앞을 쓸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그 자리를 뜨십시오. ——

보잘것없는 일에 정성 다해

청상으로 늙으신 백모님은 솜씨가 없는 부인이셨다. 저고리 하나 지으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김치 한번 담근 일이 없고, 찌개 한번 끓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특기가 있었다. 버선 볼 대집기와 와이셔츠 다리기였다.

피꼬리 같은 기생아씨도 삼승 버선에 맵시 있게 불을 대어 기워신던 시절이다. 더러워지기 쉽고 떨어지기 쉬운 흰 무명 버선, 사흘이 가면 오래 신는 편이 되어 버선 수발드는 것은 지겹고 손이 타고 성가신 일이었다. 모두가 싫어싫어 하면서 하는 일이기도 했다.

백모님은 더러운 버선 솜빼기부터 깨끗이 하셨었다. 버선목을 뒤집어 솜을 빼고 나면 삶아 빨아서 얼음같이 다듬어질을 했다. 다시 솜을 두고 불을 대어 기웠다. 솔기가 버선 바닥에 꼭 맞게 형접을 붙이고 무명실로 촘촘히 감쳐 손톱에 힘을 주어 훑고 꿰맨 자국이 조금도 보이지 않게 만드셨다.

두어 번 신으면 이내 더러워지고 떨어지는 그 버선에 그토록 정열과 정성을 쏟는 것도 청상 과부의 청승이라고 아랫사람들이 빼죽거

린 것은 어쩌다 버선 일이 밀렸을 때 도울 양으로 다른 사람이 댄 볼을 백모님의 폐고 다시 대어 기우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린 눈에도 백모님의 버선볼 대는 솜씨는 놀라우셨다. 그는 집안 식구의 버선을 도맡아 남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꼼꼼히 기운 버선에 일일이 인두질을 하고 차곡 차곡 버선장 속에 챙겨 넣는 그 얼굴에는 긍지와 흡족감이 어리어 있었다.

삼십이 못 되는 젊은 나이에 순국하신 백부님은 개화를 일찍 하셨단다.

“이래 배두 이 손은 이 땅에서 쟈 먼저 와이셔츠를 만진 손의 하나란다.”

백모님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하셨다. 처음 보는 괴상한 옷이라 아랫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해 손수 맡아 만져 다렸던 것이 이력이 되었단다. 일류 세탁소에서 다리는 솜씨였다.

어쩌다 다른 사람이 와이셔츠에 손을 대는 일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입기도 전에 그것을 다시 물에 담그시곤 하셨다. 한 번 입으면 다시 빠는 것이 와이셔츠가 아닌가. 괴팍하다고 남들이 흉을 볼 만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확실히 일종의 명인 기질(名人氣質)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입곤 다시 빨아야 하는 와이셔츠, 두어 번 신으면 그만인 버선일망정 하찮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도로(徒勞)나 진배없는 단순한 그 작업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태도는 순수하기조차 하지 않은가. 그는 진실로 버선 불대집기와 와이셔츠 다리기는 조선이 넓다 해도 자기를 따를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였으리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잘해 보았됐자 별것 아닌 일을 자진 맡아서 정성을 다하고 이삼 일도 못 가서 지워질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졌던 것을 상기하며, 나는 아름다운 시를 써서는 이내 그 시고(詩稿)를 바람에 날려 보내곤 했다는 전설 속의 명시인을 연상할 때도 있다. 바

람에 날려 사라지듯 흔적도 남기지 못한 노고였지만 일을 마쳤을 때 마다의 성취감(成就感)과 충족감은 이 외로운 여인을 그때마다 가득히 채워 주었으리라.

일점 혈육 없이 남다른 장수가 오히려 더 가슴아팠던(그는 92세를 사셨다.) 백모님은 그 정성과 겸허와 희생으로 어느 은총을 받으며 살고 가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내 나이도 무거워졌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며 공지와 보람을 갖는 것은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금씩 못나지는
것도 하나의 지혜

조금씩 못나지는 것도 하나의 지혜

한 빌딩에 건축 설계소와 오파상 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이 소장과 김 사장은 주택도 이웃하며 살고 있다. 양쪽이 다 홀시어머니에 부부, 시누이 하나에 아들이 셋이다. 나이들도 모두 비슷비슷하고 강남에 새로 상당히 널찍하게 지은 집 규모도 비슷하다.

물론 다른 것도 있다. 집의 건축 양식이 다르고 외모와 성격도 다르다.

이 소장은 여원 편이고 큰 키에 약간 우울한 얼굴이고 김 사장은 작은 키에 탄탄한 체구이며 무척 낙천적이다. 같은 빌딩에 들어 있는 만큼 출퇴근을 함께 할 때도 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서 평상 말수가 적은 이 소장이 입을 열었다.

“김 사장 댁에선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그렇게 사시는 비결이 뭐시죠?”

김 사장은 대답하기 전에 우선 활달하게 웃었다.

이윽고

“비결이라뇨, 그저 모두 조금씩 못나지며 사는 거죠.”

“못나지다니요?”

“네 모두 자기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신 어머니는 당신이 구식이니깐 충분히 교육받은 젊은 사람들을 어찌 따르겠냐고 하시고, 아내는 오랜 체험에서 얻으신 어른의 생활의 지혜에 감탄하며, 누이는 올케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탄복하고 아내는 시누이의 발랄함과 분명한 점을 높이 사죠. 나는 뒤통맞고 데면 데면하니깐 아내의 알뜰 근면한 데 따라갈 수 없어 믿고 살림을 맡깁니다. 아내는 그래도 내 사업 수완이 대단하다고 추켜 주니 우습지요. 하하하…….”

김 사장은 또 활달하게 웃는다.

이 소장은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교양이 높은 어머니는 차고 비판적이며, 유학 경험도 있는 아름다운 아내는 시어머니가 갖지 못하는 어학력을 코에 걸고 있다. 국전 입선을 두 번이나 한 누이는 아무 특기 없는 올케를 무시하고, 올케는 추녀인 시누이를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모두 성적이 뛰어나면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벌써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통 따르지 않는 손자 녀석에게 할머니의 정도 가는 일이 없다.

핵가족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그런 알력을 겪고 있는 것은 남편의 우유부단 때문이라고 아내는 남편을 공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고집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이다. 실로 하찮은 일이 심각한 불화를 곧잘 일으킨다. 간밤에도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찌꺼기가 아직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압력 밥솥이었다. 일제 때 고등 교육을 받고 태평양 전쟁 때 결혼을 한 어머니는 절약이 몸에 배었다. 연료 절약으로 압력솥을 쓰자고 한 것은 어머니네 그 솥이 폭발한 것이다. 증기가 빠지기 전에 뚜껑을 열었거나 증기 구멍이 막힌 것이었겠지만, 별 사고도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주의와 무성의가 마땅치가 않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인색한 것 같아 밋다. 비꼬움과 앙갚이 집안 공기를

온통 바늘로 채웠었다.

“조금씩 정말 못나주지 못할까?”

이 소장은 긴 한숨을 쉰다.

이해와 양보 없는 대인 관계는 아무리 개개인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도 알력과 불화를 낳는다. 하물며 우리 모두 모자라는 인간들, 정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데 있어서라.

“내가 하는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좀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다. 나 자신 불확실한 행동을 하며 이 불확실 시대를 살면서 나만 옳고 정당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조금씩 못나지며 사는 것——겸손과 양보의 지혜를 익혀 갔으면 하는 것이다.

노모(老母) 저다 버린 지게는 자신이 얹혀 갈 지게

창을 닫는다. 굳게 닫고 문틈을 봉한다. 새로운 계절이 열릴 때까지 창은 그렇게 닫혀 있으리라.

창 밖으로 눈을 던진다. 건너다보이는 뜰은 겨울 속에 있다. 일찍 물려온 추위에 겁을 먹고 나무들도 겨울 대비가 끝나 있다. 역시 새로운 계절이 찾아 올 때까지 쉼단에 싸인 채 긴 겨울을 견뎌야 할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김장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의 하나로 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의 작업에 지나지 않았던 겨울맛이가 올따라 마음을 비창(悲愴)케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무를 싸 주면서 다시 만날 봄의 새싹을 생각했고 문풍지 떼는 날의 맑은 햇살을 기다렸었다. 올해도 같은 일은 하는데 섯바람처럼 스며드는 이 허무감과 종말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루 걸러쿰 부음을 들어온 것 같은 한 해였다. 잦은 조상에 점정 옷은 챙길 새 없이 솥재 걸어둔 채 지냈다. 무엇이든 거둬하면 익어 버리는 것인데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비장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는 것이었다.

여태까지는 드문 예외를 제치고는 대개의 경우 어른들의 장송(葬送)이었는데 올들어 너무도 여러 번 가까운 벗을 잃고 보니 내 나이 또래가 죽는 것은 이미 드문 일이 아니게 된 모양이다. 모두가 그들의 죽음을 아까워는 했으나 결코 요절이랄 수는 없다. 아차 아까운 나이일 뿐이다.

허전하고 두려운 이 마음은 90이 넘으신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다. 1세기 가까이를 사신 분이시니 향수에 부족은 없으시지만 오래 모셔 온 아랫사람의 마음은 허전하고 두려웠었다. 그때껏 나와 죽음 사이를 막아 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뒤늦은 깨우침이 었다. 어른이 안 계시게 되니 마치 알몸으로 죽음의 정면에 서 있는 것 같은 공포감마저 느끼게 된다. 나도 늙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이때 부터 절실했던 것이다.

늙음과 죽음은 접어 둔 종이를 찢듯 오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내 몸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옛날 고려장이란 잔인 무도한 풍습이 있었을 때 어느 아들이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갔다 버리고 돌아오는데 데리고 갔던 아들이 그 지게를 챙겨 지려 했단다. 아버지는 대경 실색하고 그 끔찍한 것은 버리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아들의 대답이 맹랑했다.

“이 지겔 잘 두어야 이담에 아버지가 늙었을 때 저다가 산에 갔다 버리죠.”

새삼 뉘우친 그 사람은 노모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잔인 가혹한 불효 자식에 비하여 어머니의 가엾은 자애는 같은 고려장의 악습에도 얹혀 있다.

고려장은 국법이어서 어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노모는 등에 업힌 채 지나는 길의 나뭇가지를 자꾸

만 꺾는 것이었다. 아들이 의아해 연유를 묻자 어머니는 “길도 없는 산속이니 네가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길찾기가 어려울 것이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 떨어뜨려 놓았으니 나뭇가지만 따라 가거라.”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통곡하면서 나라의 죄인되기를 각오하고 어머니를 도로 집으로 모셔갔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신적 고려장은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진종일 대화 없이 무언 고행(無言苦行)을 하는 노인, 옛 방법은 모두 비합리적이고 비위생적이라 하여 가사 실업자가 된 할머니, 며느리 눈칫밥이 어려워 백 원짜리 찌뽕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노인들, 그런가 하면 차남인데 시부모 섬길 수는 없다며 자살하는 며느리까지 있지 않은가.

노모를 저다 버린 지게는 자기가 얹혀 갈 지게인 것이다. 늙은 부모의 모습은 그대로 얼마 후의 자기의 모습이다. 한 치 앞을 모르고 발악하는 비정이 무섭다. 다만 우리는 자기를 버리려는 아들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길 표시를 해주는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과 나라의 죄인이 될망정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아들의 마음에서 구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공자도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 하셨다. 70에야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도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즉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로 70 산다는 것은 드무니만큼 인간의 완성도 극히 드물다는 뜻이 되겠다.

나이 먹으면서도 쓸모없는 폐물이 되지 않고 완성예의 의지를 끝내 버려서는 안될 것 같다. 새싹들이 자기가 돌아나온 늙은 나무를 미워하고 역겨워할까. 해마다 무성하게 잎을 다는 늙은 나무의 생리를 닮고 싶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가

처음부터 아들 내외는 판살림을 하게 하였다. 아들은 오히려 서운해 했다. 얼마 동안이라도 함께 살며 가풍도 익히고 정도 붙이고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의견은 달랐다. 내가 출가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서는 김씨 맥 사람이며 죽어서는 그 맥 혼백이니라.” 하고 일러주신 그대로 며느리 역시 이제 내 집 사람——성급해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성씨도 다르고 가풍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식성도 다른 집안에 들어와서 느끼는 충격과 위화감은 내 자신이 겪어 온 바이다. 명주치마 열두 폭을 눈물로 적시면서 눈멀어 3년, 귀먹어 3년, 병어리되어 3년을 참으며 고추당초 같은 매운 시집을 살아야만 익힐 수 있는 무섭고 어려운 가풍이라면 그 가풍부터 고쳐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잠깐 만나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고 죽어서도 추억 속에서 사는 사이다. 따로 산다고 남남같이 살까.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못마땅한 대로 흐뭇하면 더욱 간절하게 얹혀 산다. 정도 사랑도 어울려 지내는 세월이 키워 주는 것이다. 처음 갑자기 받는 충격을 오래도록, 어찌

면 영영, 의식의 갈피 속에 깔아 넣는 것보다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어설퍼하면서 홍보면서 닳는다는 속담대로 어느덧 익혀 가는 시집 가풍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정착되는 것이 아닐까.

이른바 살림을 내어 주면 자칫 자식을 끊어 버리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또 사실 살림 차리고 나가면 특별한 생사, 명절 때나 서로 보게 되는 것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한술밥을 먹지 않을 뿐, 한가죽임에는 틀림이 없다. 판살림을 해도 자주 만나야 한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 자식 서로 찾는 것도 번거롭고 일스러워 발길이 자칫 멀어지게도 되지만, 자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슬픈 소원(疏遠)의 큰 소인이 되는 것이다. 섭섭하건 어설프건 못마땅하건 자주 보아야 고운 정 미운 정도 드는 법, 서로 피부를 부비듯 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전화 한 통, 엽서 한 장 쓸 시간이 없을까.

효도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살뜰한 정성이다. 지나는 길모퉁이에 서 산 군밤 몇 알의 따스함이 얼었던 심장을 덥혀도 준다. 정은 잔 일에서 붙는다. 얼핏 버릇없어 보이는 거동일지라도 거기 꾸밈없는 친근감이 있으면 단정하고 이른바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것보다 어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저는 무채 써는 것 천재적으로 서툴러요. 어머니는 어쩔 그렇게 잘 써실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일세 서툴다고 나무라는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있을까. 귀엽다고 생각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을까. 팔이 아프도록 김치속 썰어 주면서 큰 효도를 받은 것 같은 호뭇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정은 깊어가는 것이다.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인 며느리가 어렵지 않고 눈치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말 한 마디, 싸늘한 몸짓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 일순에 하얗게 바래 버리는 것 같은 허무함과 외로움이 사무칠 때가 어찌 없으랴.

매섭고 섭섭한 말이지만 며느리는 내 집 사람이라 해도 남이다. 자식이라고는 하나 천륜(天倫)이 아니고 법으로 맺어진 인륜(人倫)의 부모 자식이다. 너무 바라지 않는 절도로 나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살뜰하고 자상하여 항상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손자녀들과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할머니가 뵙구 싶어요.” 하곤 하였다. 늙으면 떡 하나 가지고 손자하고 싸운다지만 어린이로 돌아가는 노년이 아니고 젊음의 탄력과 중년의 의지와 결단을 노년의 예지와 함께 응축시켜 멋진 여생을 살고 싶다. 다행히 두 며느리는 모두 검소 건실하고 처음부터 따로 살면서 가풍도 잘 익혀 주어 고맙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아들들을 하늘같이 알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손자녀들을 보석같이 사랑하고 위하지 않는가.

옛날 5대가 함께 살며 화목하였다는 당(唐) 나라 장공예(張公藝)는 화목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참을 인(忍)자 백 개를 써 보였다. 하지만 나는 다른 말로 대답하고 싶다. 사랑——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도 시새움도 오만도 불화도 없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는가. 함께 살고 따로 산다는 것은 문젯거리가 아닌 것이다.

부부, 운명(어느 무기수의 병실에서)

“저 꽃이 지면, 나는…….”

눈 언저리가 거뭇게 꺼진 남편이 중얼거렸다.

“진 뒤에 곧 열매가 맺힐 거예요.”

아내는 받아 말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빨리 창가에 놓인 꽃 앞으로 간다.

암이라는 몸쓸 병에 시달리는 남편은 몸쓸 죄를 짓고 복역중인 무기수.

잠시나마 할 수 있는 이 처절한 애정 생활은 병 때문이지만, 그 병은 또 영원한 이별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아내는 일순 일순이 아쉽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는 감시원의 날카로운 눈길 아래 조심스레 교환하는 뜨거운 애정—— 눈물은 쏟지 못하고 고이기만 해야 한다.

지나온 세월, 험난했던 일 중에서 기막혔던 일, 슬펐던 일, 고달팠던 일들은 깡그리 쓸리고 마음에 담지도 않았던 사소한 기뻐했던 일, 행복했던 순간이 꽃처럼 피어난다. 새삼 그녀는 남편을 잃는 것이 슬프다. 옥중에서라도 살아 있어 주어 그의 아내로 있고 싶다.

옛 신화처럼 갈려진 반쪽들이 서로의 반쪽을 찾은 것이 부부라면 어찌 꼭 완전한 인격, 평탄한 인생, 행복한 생활만을 갖는 결합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깨어진 냄비에 부서진 뚜껑도 한 쌍이요, 찢어진 신짚들도 어울려 한 쌍이 된다. 공리 타산(公利打算)으로 맺어진 다 하여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다. 그 행복 또한 타인의 척도로는 잴 수 없다.

공동의 운명, 공동의 자식, 공동의 이해, 공동의 생활을 살면서 ‘돌아누우면 타인’이라는 무서운 말을 듣는 것도 역시 부부, 부부는 운명이다. ‘칼로 물베기’를 거듭하며 연륜을 서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면 허락된 좁은 병실에서 울던 무기수의 아내의 심정을 뼈아프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의와 형식

오후 4시의 시장 앞,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길가에 상품을 늘어놓고 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잡상인들, 포장된 큰 상품 상자를 삼륜차에 올려 싣는 사람들, 갓 도착한 트럭에서 비슷한 것을 끌어내리는 건장한 장골들, 노상 주차장의 차 사이를 누비며 차 정리에 바쁜 교통정리원, 인도를 마구 달리는 위험한 자전거 등으로 아우성들이다. 와글와글 버글버글 별집을 쭉서 놓은 것 같은 소동인데 느닷없이 높은 노성이 터졌다.

“머라꼬? 내가 밟고 싶어 밟았나? 와아 그런데 서서 사람도 못 댕기게 하노?”

“오매 이사람 보드라고. 도둑이 매든다카더니 참말로 기가 차요잉. 나므 발을 요로콤 아프게 밟아 놓고 큰소리 친다요. 큰소리를”

“도둑이라꼬? 운재 내가 나므물견(물건) 똥치는 것(흠치는 것) 보았노? 사람 직이는(죽이는) 소리 그리 마구 하기가!”

먹살을 잡는다. 가뜩이나 혼잡을 극한 저녁 무렵의 시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불쾌감과 불편함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암상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무거운 야채 보따리를 추스르며 간신히 사

람들 속을 빠져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쉬고 있었다.

봄비는 잠담 속에서는 남의 발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미안’이란 말 한 마디만 했더라면 밟힌 발을 절을지언정 ‘괜찮다’로 끝날 일을 소동에까지 몰고 간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미안’이라는 말 한 마디를 하는데 그렇게도 인색할까. 고래로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만큼 새삼 부끄럽고 마음이 상한다.

조선조 중엽에서 말에 걸쳐 태어나신 분들을 여러분 오랜 동안 모셨다 하여 곧잘 ‘예의’에 대한 물음을 받고 있는데 본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대답을 하면서도 언제나 석연치 않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전하는 것은 결코 ‘예(禮)’가 아니고 ‘형식’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음은 흔히 제삿상 진설법이라든가 절하는 법, 조상법, 혼인 절차, 폐백 만들기 등등,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인데 날이 갈수록 그러한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형식으로만 느껴지는 것이다.

예란 결코 형식이 아닐 것이다.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 살 때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 필요성을 갖게 한 것이로되 본래 습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성현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도덕과 종교를 포함하고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법률을 포함하게 되었고 또한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관습, 도덕, 법률 등으로 점차 세분화하게 된 것이다. 예란 이러한 내용을 함께 갖추어 예교 또는 예속으로서 사회 생활의 제도를 성립시킨 것이라 하겠다.

옛부터 우리 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특히 예교에 힘을 쓴 것 같다. 퇴계, 율곡, 우암을 비롯하여 다산, 이덕무 등 많은 석학들이 예서를 펴내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예절은 점점 형식화하고 허례화되어 사람이 만든 이 예교에 사람이 얽혀 들어 심지어는 정치에까지 번져 처절한 당쟁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하여 국가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수많은 아까운 인사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효종 승하시에 그 계모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만 하더라도 3년상이나 기년상(1년상)이나 하는 따위의 의견 차이로 싸움이 벌어져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던가. 실로 우스꽝스러운 현학심과 자당의 이익만 탐내는 무의미한 소동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예의 개념과 형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것이 많다. 그렇게도 엄격하여 여기는 것은 때로 죽음에 직결되었던 ‘내외법’만 하더라도 남녀가 악수하는 것이 보통 인사가 된 오늘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예’는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히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는 이상 시공을 넘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형식에 흐르지 않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것, 즉 〈예기〉에 쓰여져 있듯이 예로써 몸을 거두고 의로써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예절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공자의 말씀은 그대로 “자기가 남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라고 한 예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고 사람이 집단 속에서 바르게 사는 법의 근원은 예나 지금이나 또 어디서나 같은 것이다.

사람이 예를 지키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다. 선고(先考)께서는 항상 “한 알의 쌀을 아끼는 것은 그것을 거두어 준 농민에 대한 예의이며, 한 자루의 붓을 소중히 하는 것은 그것을 매어 준 장인에 대한 예의이다.”라고 가르치셨다.

항상 삼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밀알 하나라도 아끼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곧 예의이다. 절을 몇 번 하고 상을 어떻게 보고 옷을 어떻게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깔고 정해야 할 형식일 뿐이지 예의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닌 진실된 예의지국의 국민으로서의 마음과 몸가짐을 다듬어야 하겠다.

우리는 실망 시대에 사는가

우리는 실망 시대에 사는가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국내외의 각종 각양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얼굴들을 본다.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에서부터 이름도 들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람들과 대면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 누가 일깨워 주거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외에는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다.

그런데 얼마 전 게재되었던 어떤 얼굴은 좀처럼 잊혀질 것 같지 않다.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이 거듭거듭 실렸기 때문일까. 그 까닭뿐만은 아닐 것 같다.

그 얼굴은 1면에 크게 나와 있었다. 눈을 크게 똑바로 뜬 정면 사진이라면 대개 뒤통하고 자랑스러운 경우에 쓰여지는 법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것은 도둑 형사의 얼굴이었다. 약간 미간을 접은 얼굴은 잘생긴 편인데 그 표정이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험악한 얼굴이 아니고 공허한 얼굴이었다. 부끄러움도 뉘우침도 없는 텅 빈 얼굴, 이것이 나다 하고 내 던진 얼굴이었다. 사람은 피로울 때 부끄러울 때 간절히 기구할 때 눈을 감는다. 그런데 이 얼굴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다. 나는 끝없는 무서운 심연을 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다른 지면에서 우리는 그의 다른 얼굴을 보았다. 윤(尹) 노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高) 여인이 현장 검증 자리에서 준엄하게 혐의를 다루고 있는 가차없는 험악하기조차한 무서운 얼굴이다. 그 몸짓과 표정이 너무나 냉혹하게 보여 변호인측에서 수사 과정에 관한 공판 증인으로 그를 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윽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같은 공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두 사람은 모두 수의를 입고 있다. 이런 광경을 소설로 썼다면 작위가 너무 심하다고 탓했을 것이다.

불신 시대를 산 지 오래지만 이토록 인간에 대하여 실망한 일도 드문 것 같다. 그가 경찰관이라서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인간성이 무서운 것이다. 견물생심은 약한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는 수도 있다. “사흘 굶어 담 뛰어 넘는다”는 말에는 얼마만큼의 동정도 섞여 있을 것이다. 박봉에 시달리는 눈앞에 존경받을 일로 번 것도 아닌 돈이 휴지처럼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오히려 분노를 느꼈으리라. 그 심정은 짐작이 가고 저도 모르게 빼낸 과정까지도 용서할 수는 없어도 무엇에 쓰였었겠지 하고 약간은 이해할 수도 있다. 이른바 제 정신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경찰관으로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 파렴치하게도 가차없는 수사관 행세를 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일이지만 어쨌든 피의자인 고 여인은 그의 고문이 가장 혹독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으로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는 냉정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같은 사건의 와중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떠올라야 할 양심이라는 말조차 잃어버린

채 실망과 두려움에 떠다. 닫혀진 마음을 여는 열쇠, 병들고 허물어진 마음을 고치는 약, 독에 전 마음을 씻어 내는 맑은 물을 찾고 싶다. 무서운 실망 시대를 막기 위하여. 잇따라 일어나는 강력 사건과 월동 걱정, 우울해지면서도 초겨울은 역시 계절의 정감을 안겨 준다.

쌀쌀해진 날씨에 오히려 은혜로운 얇은 햇살, 아직도 가을색이 남아 있는 나무들, 그리고 국화 향기. 서리를 이기는 꽃이라 ‘능상’이라고 불렀던 국화꽃을 보면 숙연해질 때가 있다.

원예가 요즘같이 발달하고 보면 사철 국화를 볼 수도 있지만 국화는 역시 가을과 초겨울에 맑은 하늘 밑 서리를 이기며 피는 꽃. 그리 화려하지는 않으나 점잖고 향기도 간드러지지 않고 그윽해서 좋다. 어떤 시인이 노랫하듯 긴 여름을 먹구름 소쩍새 울음소리로 목숨을 안으로 안으로 다스렸다가 가득해진 생명의 샘을 향기로 솟게 하는 꽃이다. 그윽하고 참된 것이 오래가듯 오래도록 피는 꽃이다.

원에 기술의 발달로 재배법도 숙달되어 꽃 모양도 다양해지고 부자연할 정도로 놀랍고 황홀하게 많고 큰 송이를 달게 하여 우리를 즐겁게 해 주지만 나는 국화는 꽃이 작은 것이 좋다. 조용한 울밑에 조출하게 핀 흰 국화꽃같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것도 드물다. 은은한 달빛이 어리고 그윽하면서 강한 꽃 향기로 찬 뜰 어디선가에서 다듬잇소리가 들려올 것 같다.

옛날에는 삼음(三音)이라는 것을 지락으로 알았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해 주셨었다. 사랑에서는 낭랑한 글 읽는 소리, 안채로부터는 다듬잇소리, 그리고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 집은 지복에 싸인 집이라고 했단다. 항상 공부하여 지식과 덕행을 닦는 남편과 알뜰하게 살림하는 아내, 건강한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관을 두었던 것이다. 해서 다듬이질은 옛 여인들에게는 단조롭고 고된 노역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듬이질은 대개 마주 앉아 장단을 맞추며 한다. 정답이 오가고 시름풀이도 오간다.

추워지기 전에 할 일들이 우선 화제가 되었으리라. 김장 걱정부터 했으리라.

옛날이라고 같은 지역의 날씨가 더 추웠을 리는 없었겠지만 김장은 꼭 입동 전에 해야 한다고 했다. 때를 놓쳐 입동을 넘기면 김치가 익지 않고 겨우내 날내 나는 김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입동 추위는 어김없이 치르게 되므로 초겨울은 언제나 바빴다. 우선 양념 마련부터 해야 했는데 맵고 매운 한초의 씨를 발라 말리고 절구에 뺨고 처음에는 굵은 체에, 다시 고운 체로 치는데 모두들 수건쓰고 숨으로 코막고 하는 작업이었다. 기침 재채기를 연발하면서 하던 그 광경이 눈에 선하다.

옛날이라고 일손이 많았겠는가. 김장 같은 거창한 일은 모두 품앗이로 집집마다 돌아가며 했다. 주부가 찬물에 손 넣어 본 일 없는 대가에서도 아랫사람 시켜 동네 품앗이에 끼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해서 김장은 아낙들의 행락과 같은 행사였다. 몇 백 포기씩 담그는 김장, 이른바 반년 반찬의 김장 김치였던 것이다.

가마솥 가득히 끓여 내는 배추 토장국, 햅쌀밥, 김치소쌈 등등 푸짐한 식사에 햇밤 삶고 고구마 찌서 곁두리도 나왔었다. 김장은 우리 세시 풍속의 초겨울 행사로 손끝 훌훌 붙여 가며 시끌시끌, 그런대로 다정하고 즐겁기조차 했던 것 같다. 젊은 장정들은 김장독 묻는 역할을 맡아, 들락거리면 남성이 떨어진다는 부엌과 마당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이 날만큼은 아낙들의 구박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입동 추위는 어김없이 하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나뭇가지가 더욱 앙상해진 것 같다. 숲속의 오솔길은 낙엽에 덮여 더욱 다정한데 입동을 맞는 거리의 가로수 낙엽은 쌓이지 않고 구르고 날려 스산하기만 하다. 아직은 향기를 지니고 있으나 국화도 늙어 가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으나 한국의 주부이기에 우리도 김장 걱정을 하게 마련이다. 옛날에 비하면 장난 같은 김장이지만 그래도 웬지 아득하

다. 그 옛날의 세시 풍경이 눈에 떠오른다.

노역을 오히려 동네의 즐거운 행사로 치렀던 생활의 지혜와 이웃간의 친화 협동이 아쉽다. 뒷집 갓난이 첫 이빨이 난 것도, 오동나무집 할머니 제삿밥 먹고 설사한 것도, 막다른집 총각 여드름 짜다 덧난 것까지도 알고 지내던 이웃들. 이제 우리는 누가 이사와 사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이에 얼마가 흘러 떠나버리고 새사람이 들어와도 얼굴조차 본 일이 없는 동네에 살고 있다. 인구가 천만 명에 가까운 서울에서 빠져리게 고독을 느낀다.

말다툼하는 것도, 자질구레한 말썽을 만드는 것도 서로 어울려 있다는 표정들일 텐데, 모두 문과 마음을 닫아걸고 냉랭히 살고 있다. 모두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며 여럿의 친목을 위하여 선뜻 나서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 나부터도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다. 그런 나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다. 나는 이미 실망 시대에 들어서 있는 것일까.

입동 하면 김장의 번거로움과 즐거움이 이내 머리에 떠오르곤 했는데 사회면에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 메마른 인심, 양심의 부재, 친화의 상실 같은 것이 김장 걱정보다 더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어 섭섭하다. 그러나 김장 때임에는 틀림없으니 궁상스럽지만 혼자서라도 꿈질거려 겨울 반찬 마련해야지.

내가 맡은 작은 일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야지. 바람이 더 매워지기 전에.

애 용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깨어진 바가지를 말려서 쪽을 맞추어 굵은 실로 꿰매어 쓰는 집이 흥으로 남의 입에 오르는 일이 없었다. 머슴들의 등거리뿐만이 아니라 여염집 아낙들의 모시 적삼에도 조각을 대어 입고, 저고리 소매 배래가 낡아 옷이 약해지면 안으로 배접을 해서 입었다. 시집을 때 가지고 온 몇 쌍의 바늘을 10여 년이나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몇 대를 내려온 장롱 함지 소반 유기 등이 손에 닳아 반질거렸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이같이 물건을 아껴쓴 것이다. 가난에서부터 온 습성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기계 공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손끝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의 번거로움, 엄청난 노력과 시간으로 물건들이 흔하지 않았던 까닭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은 그 물건을 아껴씀으로써 생산자의 노고에 보답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밭풀을 흘렸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땀을 생각하라는 꾸지람은 적지 않은 아이들이 들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서 바지 무릎을 기워 입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적삼 등 받쳐 입는 일도 없어졌다. 기계로 대량 생산

되는 물건은 범람하여 아직 쓸 수 있는 것도 예사로 버리게 되었다. 남용은 하되 애용하는 일이 없어졌다. 애용이란 말도 한 물건을 사랑하며 아껴 쓴다는 의미는 없고 어느 상표의 물건만을 골라 쓴다는 뜻만으로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애용이란 말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며 쓴다’는 뜻을 새삼 깨닫게 된다. 어느 물건을 사랑하며 아껴 쓴다는 것은 절약이라든가 자원 부족에의 대비라든가 하는 생활 방침에 앞서 좀더 고차적인 의의를 느끼게 한다. 즉 쓴다는 일상 행위에 사랑이란 심정이 얹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물건은 물질 이상의 것이 되는 일도 있다. 고이 간직된 옛 물건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이는 아늑한 향수 같은 것, 온고(溫故)의 정은 또 우리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어주어야 할 생활 전통이기도 하다.

물건을 애용한다는 것은 만든 이들에 대한 예의이며 쓰는 이 자신의 품성의 문제일 것이다.

반 말

반말지꺼리라는 말이 있다. 물론 공손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아하는 말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하여 곧잘 시비가 벌어진다. 친한 사이도 아니고 손윗사람도 아닌 사람이 반말을 쓰면 비위가 틀리고 울화가 터진다.

“당신이 뭘데 반말을 지껄이는 거야. 싸라기 밥을 먹구 사나. 원기가 막혀서.” 하고 핏대를 올린다. 들어서 이토록 불유쾌하다면 이 말은 확실히 좋은 말씨는 아닌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공댓말을 전혀 쓰지 않는 나라도 많은 모양이니 이런 나라에서는 반말 때문에 싸움이 난다면 뭐라고들 할까. 거친 말,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비아냥거림, 불필요하게 실랄한 비평도 아닌 데 말투 하나로 야단이 난다는 것을 이해 못 할지도 모른다.

말이란 살아 있는 것이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새로 생기는 말도 있고 죽어 없어지는 말도 있다. 오래 사는 말이 있나 하면 쉬이 없어지는 말도 있다. 사회 생활의 변화에 따라 관습 풍속의 변천에 따라 말도 말투도 변해 간다. 어느 때, 어느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품위 있고 공손하던 말도 다른 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담이 아니면

비꼴이 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누군가로부터 ‘옥안을 우러러 뵈오니 황공무지로소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우선 섬뜩하여 이 사람 제정신인가 의심하고 다음에는 ‘야 놀리지 마!’ 할 것이다.

말은 적절하게 써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르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말에서도 장유유서를 지킨다. 공댓말, 반말, 놓아야 할 말 등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 반말이라고 나쁘기만 할 수가 있을까. 친한 친구 사이에 해라, 하게 등 반말 섞어가며 말이 오갈 때 정은 더한층 두터워진다. 반말이 시비가 되는 것은 적절한 사람에게 쓰지 않는 까닭이다.

먼 훗날 우리 나라에서도 공댓말이 없어지고 따라서 반말이란 말도 무의미해질 때가 올지 모르지만, 때와 사람에 따라 정다워지기도 불유쾌해지기도 하는 뉘앙스 깊은 이 말투도 얼마 동안은 더 살아 있을 것 같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옛날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많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다. 원숭이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가서 그들의 먹이로 주인은 애를 먹어야 했다.

궁리 끝에 주인이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기로 해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골이 나서 야단을 쳤다. 아침에 겨우 도토리 세 개를 먹으라니 종일 그것만으로는 배가 고파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주인은 다시 골똘히 생각한 후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을 주기로 하지.”

원숭이들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흐뭇해 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는 거나,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는 거나 실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는 화를 내고 조사모삼(朝四暮三)에는 만족해 했다.

교활하고 슬기로운 주인이 어리석은 원숭이들을 농락해서 감쪽같이 자기 뜻대로 그들을 휘말아 버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냥 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 원숭이의 주인처럼 농락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지.

또 이 주인이 원숭이를 사랑하여 갖은 애를 쓰듯이 정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걸어 결국은 같은 일이 되는 것을 가지고 시비 분란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나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유물도 미래에 산다

우연히 지나던 길에서 도시 계획에 들었던 건물들을 허무는 것을 보았다. 캐터필러가 바퀴에 감기고 크레인이 목을 뻗친 육중한 기계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기계는 그리 바쁘지 않게 움직이는데 크레인에 달린 커다란 쇠몽치는 바쁘게 목표의 건물을 들이쳐 콘크리트의 탄탄한 집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앉는 것이었다. 길가던 사람은 모두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다보았다. 그것은 어느 장렬한 쾌감조차 주는 것 같았다.

낡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대로 앞날의 약속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나 과거가 미래의 장애가 될 때 그것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될 것이다.

흔히 하는 말이 모름지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을 전통이라 하고 전해져서는 안 되는 요소를 가진 것을 인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겨야 될 것도 많지만 뒷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도시 계획에 관해서는 시비들이 많은 모양이지만 헐리는 집들은 도심지의 경우 대개가 (내가 목격한 것은 반도 호텔 주변) 일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쓰라린 상처를 상기케 할뿐더러 건물 자체가 일본이 이지러뜨려 반 아들인 근대를 그대로 엿보이게 하는 추한 것이 많은 만큼 새로운 건설을 기대하는 데서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도시 계획 추진 과정에 따른 파괴(제거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에 비하여 가장 가슴 아픈 파괴가 있다. 우리 나라가 아무리 가난 속에서만 지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허다하게 가지고 있다. 지금은 거의 관광지나 환락경이 되어 가고 있는 고찰들의 가람이라든가 많은 미술품·공예품들, 그런 소중한 유물들이 뜻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살되어 가는 데는 분노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은 감동의 근원으로서 ‘조국’을 의식할 때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유물 속에 우리 선인들의 삶의 자취와 뜻과 뜨거운 호흡을 직접 느끼며 알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 의식의 확인일 수도 있고 또 민족에의 신뢰를 실감할 수도 있게 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나’ 속에 그들의 삶과 호흡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 남겨진 것을 아끼고 또 뒷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고고학자들의 직업적 관심과 전문적인 소임으로만 머무르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들에게 맡겨진 관리뿐이어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가 역사 속에 현대를 탐구하는 태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의 순화

우리말의 순화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 같다. 어떤 이는 세속이 험해진 까닭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너무 여러 사람이 뒤죽박죽으로 모여 살게 된 탓일 것이라고도 한다.

동란 후 모두 절박한 사정 속에서 그저 살기에 바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낸 것이 많은데 언어의 혼란도 그 중의 하나인 모양이다. 길에서 노는 아주 귀여운 어린이들의 입에서 “이새끼 꺼져 버려”라는 등 “꺼지지 않으면 없애 버린다”는 등 무시 무시한 말이 예사로 흘러 나오는 데는 한숨이 나온다. 일부 지각 없는 업자들이 함부로 찍어내는 만화책이라든지 텔레비전 프로, 그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말을 이렇게 살벌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이웃집에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동네 꼬마의 방문이 잦아 나는 어린이들의 연하고 고운 음성을 곧잘 듣는다. “혜자야 아 나와 놀자야” 하고 억양을 붙여 부르는 소리는 노래처럼 고운데 가끔 가다가 그 같은 고운 음성이 차마 들을 수 없는 외잡(猥雜)한 말을 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의 모든 시설은 방송국에 장치되어 있을지 몰라도 모든 프로가 과학적 기술을 떠나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은 어린이들이 자라는 가정에서인 것이다.

천진하야야 할, 그리고 사실 천진한 어린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프로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아기들에게 이른바 천재 교육을 시키려는 어머니, 또 일류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살림조차도 돌보지 않고 치마에 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들은 많아도 텔레비전 프로에 골똘히 유의하는 어머니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언젠가 어른과 어린이들이 모여 논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 차례가 왔을 때 부른 노래의 대부분의 가락이 처량하게 늘어진 사랑 노래 아니면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사나이의 녀두리인 유행가인 데 놀랐다. 나는 좀더 마음이 밝아지는 아기 노래, 동요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나 대체로 문제란 것은 어느 사정의 해결이 단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문제의 형식을 갖추어 나타나는 법만큼 이 경지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여 시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정리된 물음이란 거의 해답이라 해도 좋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싶다.

간사한 사과

불란서의 문호 아나톨 프랑스를 후원하고 있던 가이야베 백작 부인이 어느 날 그를 위하여 파티를 연 일이 있었다.

문명(文名)이 천하에 떨치고 있었던 때여서 파리의 귀현 예술가 귀부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성미에 맞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적이 당혹하고 있는 그에게 공작처럼 화려한 어느 귀부인이 다가와서 매혹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열렬한 독자입니다. 전 늘 선생님의 천재적인 글 솜씨에 탄복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글은 언제나 제 마음 깊이 파고들어 절 행복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곧 이 귀부인의 고운 살결과 값진 의상과 고가한 보석과 마음을 설레게 하는 향수 냄새, 그 어느 것에서도 진실됨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문득 장난기를 느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의 글을 그렇게 읽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작품 중에서 “간사한 사과”를 가장 좋아하는데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귀부인은 어깨까지 드러낸 백설 같은 두 팔을 곱게 가슴 앞에서 모으고 아름다운 눈을 꿈꾸듯이 위로 치뜨며 한숨쉬인 음성으로 말했다.

“그 간사한 사과! 전 그 작품을 한시도 제 곁에서 멀리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제 마음의 양식이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는 좀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경멸과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다. “간사한 사과”라는 책은 물론 쓴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부인은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살고 있다. 거짓과 아부, 진실성 없는 몸짓과 허식은 자신을 천하게 하고 돌레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덧 이 썩은 냄새에 익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누구나가 많고 적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얼마큼은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단 자살

자살이라는 것은 인생에 패배했다는 것, 혹은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글귀를 어디선지 읽은 것 같다. 개인의 사고와 자살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자살과 같은 행동은 위대한 작품처럼 심정의 침묵 속에서 준비된다는 것이다. 요즘 너무도 자주 우리 신문 지상에 집단 자살 기사가 보도되는데 이것은 거창한 사회 문제인 동시에 또한 개인의 사고와 죽음에의 감정의 경사를 숙고케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죽어 갔다는 ‘페트로누스’나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는 어딘지 일락적(逸樂的)인 도취까지도 느끼게 되며, 백제의 궁녀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을 감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름다운 낙화다.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은 죽음을 진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으리라.

그에 비하여 생활에 지쳐 스스로 죽어 간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다. 죽을 각오로 왜 살아가지 못했느냐는 힐책은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할 수가 없어진다. 다만 이러한 집단 자살의 경우 자식을 죽이

고 죽는다는 심리에 노여움을 느끼는 것이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별개의 인격이며 별개의 생체이다. 그들의 인격과 생체의 의지를 무시 혹은 강탈하여 죽음의 동반자로 한다는 것은 확실히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뒤에 남겨두고 고생을 시키느니 마음을 독사같이 먹고 —— 흔히 듣는 말이지만 들을 적마다 소름이 끼친다.

이러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드라크로와’의 명화 ‘메데’를 상기하는 것은 웬 까닭일까? ‘메데’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그와의 자식을 죽이는데 악마 같은 얼굴로 자기를 찌르려는 어미에게 자식은 더욱 애달프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필사적으로 어미의 옷자락을 휘어잡은 조그만 손에 나는 어느 ‘업’을 느끼며 전율을 느끼는 것이다.

어버이는 삶을 얻는 수단이되 삶을 말살하는 권리는 없다. 그들의 절박했던 심정에 동정은 할 수 있지만 용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어디까지나 매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비판한다면 혹 그들은 ‘메데’가 남편에의 복수로서 자식을 죽였듯이 원한 많은 인생에의 복수로서 자식들을 동반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너무나 몰인정할까?

준비된 자에게만 주는 행운

무서운 구균(球菌)을 죽이는 페니실린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발견된 것이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던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어느 날 아침 모처럼 배양시켜 놓은 구균 접시가 말끔히 씻겨져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조수에게 주의를 주었다.

“내가 씻어 버리랄 때까지 씻으면 안 돼요, 아직 실험 도중이니까.”

조수는 의아한 듯이 씻은 일이 없다고 했다. 약간 불쾌했으나 그는 다시 무서운 병균을 배양했다.

“실험중이라 했지 않아. 그건 무서운 폐렴균이란 말야.”

온후한 그도 좀 화를 냈다. 이윽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날마다 야단만 맞은 조수는 더 이상 그 실험실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나쳤다.

그때 번개 같은 생각이 박사의 머리를 스쳤다. 그렇다! 무엇인가가 그 병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박사는 그 무엇을 쫓았다. 그것이 바로 항생제 페니실린이다.

이 일화는 나에게 많은 감명을 준다. 아무렇게나 지나쳐 버리는 누구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광경, 무심히 던진 한 마디의 말, 아무의 눈길도 끌지 못한 일이 없는 대수롭지 않은 현상을 통하여 거기 깃들여 있는 ‘무엇’을 추적하고 그 과정을 더듬어 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캐내는 작업이 문학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사소한 현상도 육안과 심안을 동원하여 놓치지 않고 아무 뜻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란 없다는 확신 아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뜻을 찾고자 한다. “우연은 가장 축복된 순간이지만 그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플레밍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겠다.

우리 것을 먼저 알고

우리 것을 먼저 알고

20여 년 전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 서구 문명에는 어려서부터 얼마큼 익어 있어 책에서 읽어 이미 알고 있는 기성 지식을 확인하는 느낌인 경우도 많았지만, 공간과 물량의 관계라든가 자연과 사물의 규모, 기후의 체감도 같은 것은 실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을 새삼 실감케 하였다.

추운 것과 춥다고 느끼는 차이, 진짜 더위와 우리가 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더위의 다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과 사진으로 보아 익히 알고 있던 예술품의 크기 같은 것에도 의외감이 컸다. 광막한 사막의 불모의 공간, 고적과 사적, 교회와 궁정 등의 엄청난 규모 등등,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기실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마간산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은 내가 또 다른 착각 속에 들어가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식 유환(小識有患)이라는 말이 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서움은 짐작 이상으로 큰 것일게다. 해서 오히려 위대한 철인은 “나는 자신이 무지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다. 알고 싶어 한 권의 책을 종이가 뚫어지게 읽고 난 후에 얻는 것이란 한 권의 책 속에 들어 있던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한 권만큼의 모르는 것이, 알고 싶은 것이 또 쌓이는 것 같은 허전함과 궁금함과 안타까움뿐이다. 내 삶 속에는 너무나 ‘왜?’가 많고 아무도 해답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역시 여행 중에 느꼈던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내가 여러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우리에게 비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불리 이것 저것 주워 읽으면서 빠져 있었던 착각과 미망도 송구스러운 것이었지만, 내가 그들의 것을 착각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것을 아는 만큼 내가 우리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물음 앞에 얼굴이 붉어진 것이다.

금세기 초부터 시작된 근대화 운동의 기수들 중에는 어느 한때 옛것은 모두 낡고 어두운 것으로 전진의 장애물로만 처리하려 든 사람들이 있었다. 망국의 서러움과 애국의 열정으로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려 했던 뜻은 장했으나, 어느덧 우리는 버려야 할 유산과 함께 지켜야 할 유산까지도 버렸던 것 같다.

세월이 가도 시대가 변천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얼에서부터 올바른 규범·그윽한 문화·관습 같은 것도 잊혀져 가서, 뒤늦게 잊었던 것·잃었던 것의 소중함과 큼을 깨달은 이들의 손에 의해 ‘발굴’되고 있는 느낌이 크다.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버려야 할 ‘인습’과 지켜서 더욱 닦고 빛내어 뒷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할 ‘전통’을 가려 내지 못했던 잘못이 남긴 후유증의 뒷수습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옛것이나 우리 것에만 집착하고 안으로 문을 닫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구인이고 한국이라는 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방인인 동시에 인류의 구성인이기도 하다. “가장 개성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인류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주체성 있는 세계에의 참여의 자세를 일깨워 주
어 나도 가끔 인용하는 말이지만 요즘 와서 ‘……상으로의 첩경’이
나 ‘……로 가는 길’이니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은 좀 을씨년스럽다.

작가는 인간의 인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
다.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쓰는 이의 관심사는 인간이었고,
있는 대로의 인간과 도달해야 될 인간성을 좇고 파헤쳐 가는 것이었
다고 생각한다. 관습과 생활, 종교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달
라도 인간의 하는 일, 인간이 바라는 일, 사랑하고 미워하고 희망하
고 절망하는 일, 즉 인간성의 본질에는 그리 차이가 없는 것일게다.

그러므로 작가는 보고 느끼고 그리고 쓴다. 인간성을 파고든다.
프랑스의 어느 작가가 말했듯 모두가 난 자리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자리에서 판다. 농부가 아무리 변변치 못한 밭이라도 열심히 파고 갈
듯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을 파고 쫓는 것이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느 연관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작가는 아무의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본
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느낀
다. 그는 본 것을 말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가 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우주의 중심 같은 것을…….

그것은 거의 책임감과 흡사하다. 그는 이리하여 세계와 본래적인
인간성과 어떤 관련을 갖게 된다. 이 관련을 그는 작품이라는 것에
새기는 것이다.

독자는 작품 속에 썩어진 그러한 상황을 본다. 작중 인물들의 움직
임을 본다.

그리고 썩어진 언어를 통하여 보는 듯 느끼는 그런 사물들과 인물
들의 움직임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작가가 느꼈던 가장 소중한 것
을 보는 것이다. 쓴 이와 읽는 이는 이리하여 어느 내적인 필연성으
로 맺어진다. 공감과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른

바 국제성도 향토성도 없다. 있는 것은 인간성, 깊은 인간 관계가 있을 뿐이다.

〈순교자〉의 작가 김은국 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느 세미나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인간들의 참되고 적나라한 모습을 그렸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서 인정·인식의 충격을 느낌으로써 그들 인간들이 ‘눈에 보이게’되며, 그들과의 사이에 책임감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일종의 상호간의 정신적인 승락이 나타남으로써 이피퍼니(Epiphany)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속에서 소위 문학의 국제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문학이란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느끼게 한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아무 필연성 없이 작중 인물을 죽게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런 책임감·진지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어린 시절의 구정 추억

일제 시대에는 물론 해방 후 오늘날까지 공식적으로는 줄곧 외면을 당하고 뭇지 구박을 받는 듯하던 음력 설날이 금년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설날이라면 으레 음력 설날을 지키던 시절에 성장해 온 나로서는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요즘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린 시절 설날의 추억에 자주 잠기게 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초하루·이틀·사흘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중의 일점에 붙여진 명목일 뿐 운행하는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티끌만한 어김도 없이 운행하는 천체를 보고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을 맞고 보내며 인간이 시·일·년을 가려 새겨 역(曆)을 창시한 것은 자연스럽고도 놀라운 슬기가 아닐 수 없다.

역본의 제정은 해가 뜨고 지는 신비와 달이 차고 기우는 놀라움, 한서의 도래와 물러감, 건기(乾期)와 우기(雨期) 등을 기억하고 거기 의지하여 생활을 영위해 가던 원시를 벗어난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국 태음력은 중국에서는 상고 때부터 쓰여져 왔고 우리 나라에서도 어쩌면 유사 전부터 사용되었

던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우리가 현재 전세계적 상용력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레고리오력(태양력인 율리우스력을 1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개량한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 때부터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용이었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 받은 음력을 쓰고 있었다.

우리가 태음력을 고집한 것은 농경 민족으로서 달의 삭망 주기가 농사에 보다 적합한 점과 오래된 습성인 까닭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양력은 일본인이 쓰는 달력이라는 저항과 적의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어쨌든 내가 어렸을 때는 양력설은 ‘일본인들의 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 관습에 냉담했듯이 양력설도 우리에게겐 무관한 것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1월은 매서운 삭풍 속에 땅은 꿈뽕 얼어붙고 겨울은 아직도 깊어 새로운 계절은 열릴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닌가. 그러므로 추위도 얼마큼 누그러지고 하늘빛도 부드럽어지고 햇빛도 따사로워지기 시작하여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음력설이야말로 ‘새해’ ‘신춘’이라는 실감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의 송구영신(送舊迎新)에 쏟는 정성은 경건하고 극진했다. 구습과 전통이 거의 다 해체된 때였건만 내가 어렸을 때의 세시 풍속은 아직도 한 토막 정경 어린 옛이야기처럼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설맞이는 묵은해의 때와 부정을 씻어 내고 털어 내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납월도 하순에 가까우면 집 앞뒤를 말끔히 청소하고 흙이불을 빨아 시치고 하던 일은 해 넘기지 않게 마무리지어야 했다. 이런 습성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옛부터 있었던 모양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시간의 구분을 세는 것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캘린더’도 나전어의 Kalend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말은 로마력의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며 모든 셈을 정

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라는 뜻이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허접 쓰레기를 쓸어 털고 새날을 맞는데 그들은 새날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청산해 버리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앞뒤가 약간 바뀌기는 하지만 같은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쨌건 내 어린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설맞이 풍습 속에는 차례 준비와 벽사(僻邪) 풍습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다. 눈을 감으면 앞마당에 놓인 안반이 보이고 떡메로 눈 같은 흰떡을 치던 장정들과 부산히 김이 오르는 떡감을 나르고 떡메가 올라간 틈을 타서 떡을 이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던 아낙들의 거친 손, 그리고 안반 머리에서 야들야들 윤이 나는 떡을 밀어 가늘고 긴 가래떡을 만들던 모습의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부엌에서는 차렷상에 놓을 제물 준비에 도마 소리가 그치지 않고 지짐질하는 기름 냄새가 사방에 풍겼다. 한쪽에서는 기왓장으로 곱게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짚에 묻혀 제기와 일상으로 쓰는 유기를 은빛이 나도록 닦았었다.

대그믐날 밤에는 일찍 자면 눈썹이 센다 하여 어린 우리들은 눈을 비비며 잠을 참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정말 눈불일 틈이 없었다. 식구들의 설빔도 챙기고 차례 준비, 세배꾼 대접 마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면서 묵은해의 부정을 쓸어 내는 일까지 했다.

대그믐날 밤은 달 없는 칠야(漆夜)지만 어느 집이나 환히 불이 켜 있어 묵은 세배 다니는 사람들도 등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우리집에서는 이 벽사불 밝힘을 할머니가 맡아 하셨다. 안방, 사랑방, 아랫방, 아이들 방, 골방은 물론 다락, 광, 뒷간, 헛간, 뒤꼍에까지 환히 불을 밝히셨다. 겁이 많은 웅석받이였던 나는 언제나 어두웠던 곳에 켜진 불빛이 오히려 으스스 무서웠다.

몹쓸 해살 잡귀를 그렇게 하여 쫓아 낸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흥흥스럽고 무섭기만 했다. 할머니는 일 년내 빠진 머리카락을 유지에 모아 두었다가 중문 앞에서 태워 그 냄새가 무척이나 역했다. 그 지독한 냄새로 역시 잡귀를 쫓는다는 것이었다.

새 아침이면 아버지가 대문을 여시고 첫 물을 뜨고 아궁이에 첫 불을 지피셨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우리는 새옷을 입고 차례에 참례하고 세배를 하고 떡국과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다. 어른들은 세배꾼 대접에 부산했지만 우리는 널뛰고 윷놀이도 했다. 부녀자들은 초사흘이 지난 후에야 세배도 다니고 널도 뛰고 윷도 놀았으나 대보름 날까지는 간지 일친(干支日辰)에 따라 삼가야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어린 마음에도 언짢은 생각이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이 세시 풍속, 번쇄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요소도 많긴 하지만 어린 정서를 그런 일들은 얼마나 충일시켜 주었던가.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 때의 흐름, 가는 해의 아쉬움과 새로운 해에의 바람,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인정—— 그런 것들이 새로이 열리는 계절의 예감 속에 부산하면서도 그윽하게 깃들어 있었다.

이번에 음력 초하룻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제정한 데 대하여는 감회가 없지 않다. 햇살이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것 같은 이 절기는 내 안에서는 언제나 새해와 합일되지만 전 세계에서 상용하고 있는 역본을 홀로 외면하고 이 날을 일 년의 첫날로 굳혀 버리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민속의 날이란 명칭을 썼겠지만 역시 송구영신은 지구촌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이날은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축일로 즐기는 것이 어떨까.

조상을 받들고 옛 세시 풍속 중에서 지니고 싶은 민속놀이도 즐기며 뜻있게 지냈으면 모처럼의 배려를 십분 살리는 것이 될 것 같다.

새벽의 복조리 장사 소리

사위도 많고 꺼리고 지키는 일도 많이 있었다. 원단(元旦)에서부터 열이틀 십이지일(十二支日) 하루하루가 모두 뜻을 가지고 있어 아낙들은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었다. 초하룻날 새벽 복조리 장사 소리에 눈이 뜨면 머리말에는 엿이 놓여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기 전에 이것을 먹어야 명이 길다고 외할머님은 머리말에 앉아 우리가 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다.

번거로운 행사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모든 것에 정성을 드리는 귀한 마음이었다.

차례 세배 접객 등으로 진종일 지치면서 초하룻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훔친다는 야광귀의 해를 입지 않도록 식구들의 신발을 모조리 방안으로 들여놓는 것도 외할머님은 잊은 일이 없으셨다.

어른들의 신고는 알 길 없는 어린 나이여서 그저 즐겁기만 하던 추억 속에 우리 세시 풍속의 토막토막이 어둠 속에 반딧불처럼 떠오른다. 상자(上子: 쥐)날에 만들어 채워 주시던 진홍 염낭 주머니, 상묘일(上卯日)에 옷고름에 매달아 주시던 청색 명주 명사의 빗갈 등은 아직도 내 머리 속에서는 바래지 않고 곱기만 하다. 상인일(上寅日)

에 몸을 삼가던 그 엄격함과 상유일(上酉日)에 일하면 침선 솜씨가 없어진다고 화각 반질고리는 반침 속에서 아예 꺼내지도 않으시던 조심성도 내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연초에 장만한 시식들이 없어질 때는 대보름(上元日) 무렵이었다. 하루 전인 열나흘날은 오곡밥을 짓고 아홉 가지 나물을 곁들여 아홉 번을 먹어야만 했다. 방앗간에서 먹으면 그 해 무병하다 하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디딜방아 위에 나를 업어 기른 순이가 앉혀 주던 일, 그리고 이날은 다른 성을 가진 세 가구 이상의 밥을 먹어야 된다면 이웃들끼리 오곡밥과 나물을 나누어 먹던 일 등등——아득한 옛 이야기는 정겹기만 하다.

밀어닥치는 외래 문화에 위화감을 안은 채 서서히 익어 가면서 아직도 고래의 우리 풍속에 살고 있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염원 역시 옛날 그대로 소박하고 겸허하고 그러면서 절실하였다.

대보름날 아침 더위를 판 장난도 장난이면서 지겨운 더위에 대한 두려움이 밀바닥에 깔려 있었으며 답교의 흥겨움 속에도 놀이에 그치지 않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다리(橋)와 다리(脚)가 같은 음을 가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만 몇몇 특징인을 빼고는 모두가 거리(距離)를 다리(脚)로 다져야 했던 그 옛날, 약한 다리 다릿병은 사람의 행동 반경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사회로부터 탈락시키는 것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다리에 무던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상원일 아침에 나이 수대로 깨우는 부럼도 부스럼에 대한 예방이며 같은 날 차게 마시는 귀밝이술(耳明酒)도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듣게 해달라는 염원과 함께 1년 내내 컷병이 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 깃들여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세시 풍속은 주술적인 요소와 아울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많아 절실하고 자연스러우며 또 집단성을 띠어 생활에 윤기를 주는 동시에 이웃과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많다. 지신밟기, 줄다리기, 편싸움, 사자놀이 등등 모두가 모여 어울리고 즐기는

것들이다.

달 모습이 보이기 전에 벌써 산봉우리에는 달맞이 햇불이 타오르고 대청 아래에는 잣불의 오묘하며 가냘픈 불빛이 향기롭게 타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옷깃을 여미시고 떠오르는 달을 향하여 합장하셨다. 그 경건하시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달이란 신성한 것이며, 성실한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 소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만 믿었을 뿐 그 달이 사람의 발 아래 밟히는 것을 모르고 떠나신 그분은 행복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식(時食)

엄동 설한에 딸기를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은 곧 지난날의 만가(挽歌)를 상기케 했다.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허
동지 선달 설한풍에
명석 딸기가 열면 오나
어—허 어—허

눈 속의 그 빨간 한 떨기는 죽은 사람을 다시 오게 할 수 있을 만큼 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얀 접시에 파아란 잎을 곁들여 놓인 겨울의 빨간 딸기는 진정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20여 년 전의 일인데 그 색채는 아직도 눈앞에 선연하다.

그 후 나는 조금씩 계절을 잃어 오고 있었다. 옛 시인은 “겨울의 장미, 기적의 꽃”이라고 읊었지만 겨울에도 화려한 모임에서는 큰 향아리 가득히 백 송이에 가까운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의 장미가 대

수줍지 않게 꽃혀지게 되었다. 5월의 훈풍 속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뿜으며 피어나던 짙은 남색 창포꽃도 부드러운 봄 하늘 밑에 아물아물 피어 퍼지는 안개꽃도 어렵지 않게 한겨울 실내를 장식해 준다.

봄이면 작약, 여름이면 봉숭아, 백일홍, 가을이 오면 국화, 과꽃, 맨드라미, 계절을 떠난 일 없이 지켜 주었던 꽃들은 사람의 손으로 하여 그때 그때의 신선한 놀라움을 상실해 버렸다. 동지선달 꽃 본듯이 보아 달라던 여인의 애달픔도 맥이 빠져 절실성을 잃었다.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사실 별다른 것이 없다. 옛날 세시(歲時) 행사나 시식(時食)은 계절 따른 생활의 매듭이며 즐거움이며 자연의 순리와 은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흉내 아니면 장난만 같다. 옛날 보다는 엄청나게 호사스러워진 설빔은 어색하고 거추장스럽고, 갖가지 행사는 야단스러울 뿐 즐거움이 없다.

옛 사람들은 상상으로 못 했던 편리와 풍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무엇에든 삼가고, 어렵게 얻고, 시원하게 풀어 버리던 우리의 세시 풍속이 그리워질 때가 많다.

더워 더워 하면서 짜증스럽게 지낸 날이 유두날이었었다는 것을 나중해야 알고 마음 한 구석 죄스러움을 느꼈었다. 어른들은 가시고, 아이들은 멀리 나가 살고 노부부 쓸쓸한 살림에 달마다 시식을 장만한들 먹을 사람도 없지만, 유두면 수단(手團), 연병(連餅), 땀흘리면서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새롭다. 동류두 목욕(東流頭沐浴)이라고 동류에까지는 가지 못해도 머리 곱게 감겨 주시던 어머니 손길 간절해 추원(追遠)의 정이 샘솟는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마음을 열어 사귀는 벗도 그리 없으면서, 이러저리 얹히고 바빠바빠 지내노라 비중을 가졌던 날들도 잊고 지내기 일쑤가 되었다.

그래도 견우 직녀 만난다는 칠석이 오면, 글씨 솜씨, 침선 솜씨를 두 별에 빌던 어린 날이 생각나고 폭의(曝衣) 췌서시키시던 어른들 모습이 떠오른다. 견우 직녀 이별의 눈물인 칠석우는 대개 저녁에 내

린 기억이 나는데 여름내 습기찬 의복과 책 거품은 이날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벌써 백중절이로구나” 하시는 날에는 우리집에서는 소 염통구이를 먹었다. 복날에도 구탕(狗蕩)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 민어 조치에 채썬 호박을 넣은 밀전병이 아니면 염통구이를 하였다. 이 백중날에는 백중장이 섰고 농촌에서는 머슴들을 하루 쉬게 했다 한다.

맑은 하늘이 높아지고 간혹 비늘 구름이 깔리게 되면 추석이 왔다. 경기 지방의 추석은 남도 팔월처럼 으뜸가는 명절로 치지는 않았으나, 햇곡식, 밤, 송편, 토란국은 거른 일이 없었다. 자르르 윤이 흐르는 햅쌀로 햇밤, 풋콩, 풋대추, 햇깨, 풋팥 등으로 소를 넣고 빚는 조개 모양의 예쁜 송편 빚기는 여인들의 즐거움이였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한입에 먹혀 버릴 송편을 여인들은 하나 하나 공들여 빚었다.

남자들은 처넛 전유어, 산자, 송편 등 백과를 곁들여 차려 성묘를 했다. 여인들은 산행(山行)이 허락되지 않아 집에 남아 추석 성찬을 차리고 돌아오는 가족과 찾아오는 손을 대접하는 데 바빴다. 먼 곳에 나가 살던 사람도 정월과 추석이면 경향(京鄕)을 가리지 않고 본제(本第)를 찾았다.

가을이 가기 전의 여인들은 바빴다. 마른 야채 만들기는 추석 전에는 물크러지기 일쑤여서 찬바람이 난 후에야 호박오가리, 가지, 고구마순 말리기 등을 해 두어야 했다. 잔손이 가고 마음도 써야 하는 작업이였다.

양수(陽數)가 겹친 구월 구일 중양(重陽)절에는 국화주 국화전으로 즐겼다. 사랑에서는 국화주에 취한 시음(詩吟) 소리가 들리고, 오지화로에 소담하게 담은 숯불 위에 솔뚜껑 얹어 번철 삼고 고운 국화전을 지져 내는 것은 즐거운 유희를 하는 것같이 보였다.

철이 빠른 해에는 구월에 입추가 들으므로 김장·양념 준비는 일찍부터 해야 했다. 입추 지나면 김치에서 생내가 난다고 입추 안에 김

장을 끝내는데, 서로 품앗이로 김장을 거들어 온 마을이 마치 축제 같은 기분에 뜨고 한동안 배추속쌈 퇴를 내기도 한다.

시월은 상달, 집집마다 고사떡 찌서 동네방네 나눠먹고 시향(時享) 모시는 데 정성을 다했다. 여인의 노역은 끝이 없었다. 달마다 치르는 행사 사이사이 여름옷도 챙겨 놓고, 겨울 입성 준비하며 밤이면 다듬잇소리가 자르러졌다. 그러면서 항상 이웃을 잊지 않았다. 떡을 했다고 돌리고, 국수 눌렀다고 나누고, 식혜 삭혔다고 떠 보냈다. 동지 팔죽은 솥째 집의 것은 돌려 주고 얻은 것을 먹다시피 했다. 따듯한 이웃 정리였다. 하여 사위하는 것도 까닭 있는 연유에서였다. 이웃에서 산고가 있으면 기름질을 삼갔다. 해산끝에 약해진 산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였으리라.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을 하면 가나해진다고 일거리를 미뤄 놓았던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을 위로해 주고 손이 모자라는 초상집, 일 거들어 주라는 심려에서였었을 것이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단조로운 일상의 노고에 시달리면서도, 이웃에까지도 마음을 썼던 고운 여인들, 엄격한 유교적 제도는 솥째 질곡(桎梏)이었는데 용케도 견뎌 냈던 강한 여인들, 되풀이되는 노역을 오히려 가정과 이웃의 친화의 수단으로 돌려, 번거롭고 힘겨운 노동의 피로움을 덜었던 슬기로운 여인들, 옛 여인들을 생각할 때 머리가 수그러질 때가 많다.

자연의 은혜를 정감으로 받아 생활 속에 동화시킨 그들은 자연의 배품에 따라 달마다 다른 특징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삼월 삼짇날이면 꽃전 부치고 두견주, 도화주(桃花酒)도 담갔다. 봄이면 으레 애쑥탕, 냉이탕, 쑥바귀나물, 취나물 등등 자연이 베푸는 향연에 언제나 감사히 참여했던 것이다. 봄미나리가 살지면 임계 바치고자 했던 애뜻한 사랑의 여인들이었다.

창포물에 감은 머리에 창포잠 꽃고 김이 오르는 수리취떡을 고루 고루 썰어 베푸는 여인의 모습은 진정한 폭의 그림이었으리라.

비단 치마 열두 폭을 눈물로 적시면서도 이러한 풍아 정감을 잊지 않았던 우리 옛 여인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 메말라 가는 오늘의 우리 여인은 엄동 설한에 딸기를 먹을 만큼 무엇이든 손쉽게 얻으면서 잃는 것도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가끔 옛부터 내려오는 시식을 장만한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마음으로 시식을 든다.

옛날 옛적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젊어서 과부가 된 어머니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단다. 외롭고 가난했지만 아들은 아주 잘났었어. 옥을 깎은 듯한 고운 얼굴이면서 씩씩하고 거기다 글을 잘 했었지.

열여덟이 되던 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단다. 열한 살짜리 신랑이 많던 시절이라 열여덟이면 노총각이지. 워낙 흰칠한 데다 나이도 그만해서 아주 의젓했었지. 그래도 한양은 머나 먼 곳. 피나리봇짐 하나 동그마니 걸머지고 낯선 길을 걷노라니 아무리 젊다 해도 어려울 때가 어찌 없었겠니.

집을 떠난 지도 며칠이 지나 이제 한양에도 얼마만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어찌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았겠어. 해는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인가는 보이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동하지 않는 호탕한 젊은이였지만 아주 난처한 지경이 되었지 뭐냐.

그래도 워낙 담도 크고 침착한 사람이라 산길을 헤쳐 가는데 산모퉁이 하나를 돌자 저만큼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보이지 않았겠니. 총각은 걸음을 빨리 하여 솟을대문 앞에 섰지. 목청을 가다듬어 “이리 오너라” 했지만 대답이 없단 말야. 그것뿐인가. 사방은 괴괴하

고 인기척이 없어. 그런데 어디선가 젊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뭐냐.

총각은 잠깐 망설였지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 아흔아홉 칸 대궐 같은 집이 텅 비어 있는데 흐느끼는 소리는 후원 별당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어. 담대한 총각은 다리 아픈 것도 배고픈 것도 잊고 그쪽으로 다가갔단 말야.

저기엔 아아 정말 그림같이 예쁜 처자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거야.

“무례한 줄 알면서 감히 내정까지 들어왔소이다. 딱한 사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무방하시면 말씀하시오. 혹 힘이 되어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녀는 대답 없이 울고만 있다가 기막힌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단다. 그 집은 서울서 낙향해 온 송 대감 댁인데 얼마 전부터 도깨비들이 밤마다 나타나 집안 식구를 하나씩 잡아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날 밤이 마지막 남은 그 처녀가 죽을 차례로 되어 있었다는 거지. 처녀는 울면서

“도깨비 괴수는 대가리가 셋이고 그 아래 도깨비는 대가리를 둘 갖고 있다 하며 줄개들의 대가리는 하나뿐이라고 듣구 있습니다.”

영민한 총각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집에 있는 큰 갓을 네 개 가지고 오게 했단다. 그리고 막대기 네 개를 부채살 같이 벌려 밑둥을 한데 묶고 끝은 솜방망이처럼 입힌 후 흰 형겅으로 싸고 눈 코 입을 그려 넣고 갓을 씌웠어.

도깨비들이 나타난다는 자정이 가까워 오자 총각은 방마다 불을 켜놓고 큰사랑 다락에 처녀를 숨게 한 다음 자기는 다락문밑 보료 위에 갓을 쓰고 의젓이 앉았는데 등에다 옷 밑으로 그 한데 묶은 막대기를 깊숙이 꽂았던 말야. 그래서 마치 대가리 다섯을 가진 괴물이 앉아 있는 것같이 보였거든. 드디어 자정이 되었어. 갑자기 모진 회초리 소리 같은 바람이 휘익 휙 불더니 아 글썽 불이 모두 꺼지지 않았겠니. 총각은 일어서 그 팔뚝 만한 밑초에 다시 불을 켰지. 몇 번

을 불이 꺼진 것을 총각은 번번이 다시 켜단다. 그러자 어디선가에서. 아주 흥한 소리가 들려왔어.

“네 이놈들. 오늘 밤은 왜 이리 꾸물거리고 있는 거냐.”

“예, 예, 오늘 밤은 어쩐지 으스스한덥쇼. 통 가까이 갈 수가 없사 와요.”

“으스스하다니 뭐가 어쨌다는 거야. 썩 그 기집애를 잡아 오지 못할까.”

“무서워서 오금이 떨어지지 않는덥쇼.”

“못난것들. 그럼 내가 앞장서겠다. 뒤를 따르라.”

총각이 가만히 살펴보니 컴컴한 뜰에 서 있는 석류나무 밑에 흥한 꼴을 한 놈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모두 난발에 뿔이 달렸어. 그 중 한 놈의 대가리가 들이란 말야. 큰소리로 줄개들을 나무랐지만 이 놈도 큰사람 가까이 왔다가 대가리가 다섯으로 보이는 총각을 보자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

“두목님, 오늘 밤은 웬지 무시무시한덥쇼.”

그놈의 소리가 들려왔어. 그러자 굶다란 소리가 호통을 치는 것야.

“네 이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를 당할 놈이 이 집에 어디 있단 말야.”

호통을 치면서 그놈이 나타났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그놈은 대가리가 세 개야. 대가리마다 뿔이 있고 이뿔은 호랑이같아. 그놈은 큰사람방 문앞까지 왔지 않겠어.

그러자 총각은 큰 소리로 꾸짖었단다.

“이놈. 네 흥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에 그 추한 꼴을 보이려고. 무례하다.”

두목 도깨비가 아랫목을 보니 큰 갓을 쓴 대가리를 다섯 가진 괴물이 점잖게 앉아 있지 않겠어. 저도 모르게 멈칫했지. 그러나 총각이 또 크게 꾸짖었어.

“대가리 세 개쯤 가지고 흉측한 짓을 하며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 물고를 내려 왔노라. 써억 뜰아래 내려 석고 대죄 하렷다.”

맑고 쨍쨍 울리는 위엄에 찬 소리에 도깨비들은 모두 뜰에 꿇어 앉았어.

“네놈들 어디서 온 놈들이며 어떤 연고로 이 댁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느냐. 모두 이실 직고 하렷다.”

도깨비들은 벌벌 떨면서 자백을 하기 시작했지 뭐니.

대가리가 하나밖에 없는 놈들은 여럿이었는데, “네, 네, 저희놈들은 이 댁 선대감이 저 석류나무 밑에 묻어 둔 동전들이 둔갑한 놈들이옵니다.”

하는 것이야.

이어 대가리 두 개를 가진 놈들 몇이, “소인들은 장독대 옆 대추나무 밑에 묻혔던 은덩어리구요.”

하지 않겠어. 끝으로 대가리 세 개의 흉물이, “이놈은 광바닥 깊숙이 묻혔던 금덩어리의 현신이옵니다. 이 댁 선대감께서 워낙 인색하여 온동네가 굶어도 구휼할 줄 모르고 남몰래 재물을 묻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갔습지요. 재물이란 묻혀 해가 묵으면 샷덩이(邪덩이)가 되는 법입지요. 그래서 소인놈들은 재앙을 퍼뜨리는 사귀(邪鬼)가 됐지 뭐니까.

이때 닭이 울었단다. 그러자 그 도깨비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겠니.

총각은 다락문을 열고 기절해 있는 처녀를 부축하여 정신이 들게 한 후 날 새기를 기다려 도깨비들이 말한 석류나무 밑과 대추나무 아래 그리고 광바닥을 파헤쳤어. 그랬더니 아, 정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야.

총각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했지. 그리고는 그 금은 보화를 골고루 나눠 준 거야. 총각은 그 샷덩이들을 위로하는 제사도 정성껏

지내 주었다는 거지.

죽음은 면했지만 험험 단신 외로운 몸으로 남은 처녀를 총각은 홀 어머니 곁으로 보내고, 자기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는데 장원 급제를 한 거지.

금의환향한 총각은 그 처녀와 혼례를 올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부귀 영화 누리며 백년 해로하다가 오늘 죽어 어제 나갔단다.

정감어린 외할머니 음성

외조모님은 옛날 이야기의 보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다. 놀라운 기억력과 늙으셔도 신선한 감성을 지니고 계셨던 그는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듣고 기억 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옛 부인이라 문자를 많이 쓰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린 나에게 많은 질문을 연발케 하였지만 줄거리의 재미와 아울러 많은 의성어(擬聲語)를 구사하는 화법은 극적 효과가 컸다.

술한 옛이야기 속에는 도깨비가 많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도깨비란 장난꾸러기들이 많고 사람을 어지럽게는 할지언정 해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았다. 머리가 좋고 어느 만큼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실수가 많고 시끄럽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도깨비들이라 도깨비 잔치니 도깨비 장난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의 도깨비는 사귀(邪鬼)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린이에게 들려 주는 이야기라, 도깨비란 말을 쓰셨던 것인지 모른다. 어쨌든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여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재물은 사귀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

외할머니의 옛이야기는 언제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부귀 영화 누리

며 백년 해로하다가 오늘 죽어 어제 나갔단다.”로 끝났는데 “오늘 죽어 어제 나갔다.”는 시간 도착(時間倒錯)으로 이야기의 허구성을 밝힌 것 같아 성장 후의 내 흥미를 더하게 하였다.

외할머니께서 들려 주신 많은 옛이야기와 동요들, 그리고 고운 음성으로 낭랑하게 읽어내려 가시던 어머니의 옛 소설들의 기억은 아직도 내 정감의 원천으로 살아 있다.

모두 그분들의 부드러운 무릎을 베고 들은 이야기들이다.

〈삼국지〉 〈옥루몽〉 〈사씨남정기〉 등등. 심지어 이광수의 〈단종애사〉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시던 어머니의 음성을 통하여 나는 고전 문학을 귀로 읽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며 인쇄된 동화책이나 그림책 따위를 아이들에게 사 주었던 나는 그분들처럼 정서와 정감을 전해 주지 못한 것 같아 새삼 미안쩍다.

손자녀들에게라도 그래 주어야 될 텐데…….

세모시 가인(佳人)

옛부터 태서(泰西)의 화가들은 미녀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많이 그려 왔던 것 같다. ‘비너스의 목욕’이라든가 ‘호반의 비너스’라든가 ‘다이애나의 귀로’라든가—— 얼마든지 있다. 머리 위에는 무성한 나뭇가지가 드리워져 있고 기슭은 온통 풀꽃으로 덮였다. 미녀는 몸을 고혹적으로 구부리고, 꼬고, 아니면 반대로 눈길을 위로 몸을 펴고 있다. 물 속에 반신이 아니면 발목이라도 잠기고 풀꽃 속에 길게 몸을 누인 것도 있다. 무성한 녹색의 그늘, 작고 큰 꽃을 단 역시 녹색의 풀, 수량이 많은 강 혹은 호수, 한 오라기 실조차 걸쳐 있지 않은 풍만한 육체—— 그러니깐 계절은 여름일게다. 그리고 나무 밑 물가에서의 목욕이라면 더위를 씻는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게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을 보고 시원하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우선 오는 느낌은 짙은 관능의 냄새다. 물론 화가의 의도는 ‘시원해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녹음과 물과 풀속에 놓인 여체의 그지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는 데 있을 것임이 틀림없는 일이라, 보는 사람의 느낌에도 불만은 없다. 그렇더라도 배경과 인물이 모두 시원한 상황 아래서 무거운 관능의 압도는 오히려 어떤 열기마저 느끼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완전히 벗는다는 것, 몸 전체를 시원한 외기에 노출한다는 것이 반드시 시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한다.

동양의 옛 사람은, ‘탈건괘석벽 노정쇄송풍(脫巾掛石壁 露頂灑松風)’이라 하여 고작 머리에 썼던 건(巾)을 벗어 돌벽에 걸고 드러낸 이마에 솔바람을 받음으로써 시원함을 취했다. 이상한 것으로는 이 시구를 읽은 사람이 받는 느낌이다. 맑다. 시원하다. 몇 사람이라도 좋고 한 사람이라도 좋다. 한쪽에는 석벽이 서 있고 몇 그루의 장송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돌이 여기저기 물 위에 솟아 보이는 계곡 옆이면 더욱 좋다. 소매가 길고 넓은 도포가 아니면 쾌자를 걸친 선비가 민상투로 소나무 아래서 ‘시원’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도포나 쾌자의 끈띠는 맨 채인데 답답해 보이지도 않는다. 바람이 풍겨 주는 솔향기마저 느끼게 하여 이 시원함 속에는 향기조차 서려 있다.

문을 열어젖혀 놓되 바람은 발로 걸려 받고 시원함을 돕는 장치라야 겨우 한 잎의 돛자리, 남색선을 두른 초보료와 초방석, 문갑 위에 놓인 몇 개의 태극선이지만 조청색의 얼음같이 길든 장판 위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가. 진정 이래서 여름은 청량하고 맑고 향기롭기조차 하다.

세모시 생풀 먹인 적삼 치마 상큼하게 다려 입고 태극선 비껴든 가인이 발 앞에 서면 보일 듯 말 듯 비치는 살에서 향긋한 살 냄새가 맑은 바람을 풍겨 주는 듯 마음마저 청량해진다. 선풍기나 에어컨디셔너가 강제하는 ‘냉(冷)’이 아니고 여름의 정취가 은은히 풍겨 주는 ‘량(涼)’이다. 아슬아슬 급소를 가린 비키니 차림의 아가씨들의 통길듯 탄력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찬물 속에서 있되 시원해 보이지는 않고 어쩐지 허전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나이 탓인가, 낡은 눈 탓인가. 시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 역시 비키니만의 나신으로 시원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양으로 해방과 태양

과 건강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 여인들이 생필 먹여
은은히 비치게 다려 입은 세모시로 몸을 싸고 조용한 손놀림으로 청
했던 조촐한 바람——시원의 진미와 실감은 짜장 그런 데서 있었을
것이다.

낮은 초가 지붕에는 하얀 박꽃이 유현(幽玄)하고 저만치 삼발 위에
는 모기 기둥이 서 있는데 어두운 하늘에는 별빛이 쏟아질 듯 총총하
고 모깃불이 거우는 옆에 놓인 대로 엮은 허름한 평상 위에서 들던
무서운 귀신 도깨비 이야기들——어린 추억의 여름밤은 언제나 시
원하다.

휘황한 전깃불이 어둠을 앗아가면서 발불일 데가 없어진 귀신 도
깨비의 오싹하면서도 자꾸만 듣고 싶었던 이야기도 뭉개 버리고 독
한 농약이 푸른 반딧불의 신비를 꺼버린 지 오래인 지금, 어둠 속에
서 꿈속의 꽃같이 아스라이 청초하던 박꽃을 아쉬워한다. 소란하고
멋없고 무더운 이 여름밤을 허덕이며 시원함을 원하는 마음은 자꾸
만 지난 어린 시절로 달려가는 것이다.

석류가 익어 열릴 때

석류가 익어 열릴 때

— 아우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는 사람이 머리를 감고 있다고 하더구나. 오후 세 시 —— 한가하게 그런 시간에 머리 같은 것 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또 어느 구석 벽이 갈라져서 하고 걱정하고 있었으니깐 그런 것 손질시키다가 먼지 듬뿍 쓰고 씻는 중이었겠지. 말숙이가 살림꾼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한편 기특하고 한편 안쓰럽구나. 잘 먹고 잘 자던 잠보가 툭하면 밤을 새우다시피 한다니 철이 들었다는 생각보다 그만큼 시름도 늘고 할 일도 늘어난 게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웅석반이 막내로만 알고 있었던 형의 생각이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는 어떻게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여름을 보냈는데 거리 꽃가게 앞에 늘어놓은 국화꽃을 보아도 가을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제 의정부 부인이 문갑 위에 얹어 놓고 간 석류 몇 알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더구나. 언제나 새로운 계절을 느낄 때 갖는 아픔과도 같고 뉘우침과도 같은 그 느낌이다. 젊었을 때는 계절은 언제나 내 앞에서 열

리었는데 언제선가부터 그것은 닥쳐오더구나.

언제나 자질구레한 일로 채워져 정신차릴 새 없이 지나 버리면서 지나고 보면 그저 그날이 그날인 일상이라선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연히 아쉽고 초조해진다. 아직도 이 목숨에 인생에의 바램과 열이 남아 있는 탓인지 추운 겨울의 우리 삶의 종언의 투영을 막연히 느끼는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다.

내가 선머슴처럼 개구쟁이였을 때 너는 곧잘 정원 연못에 돌을 던졌었지. 그러면 연못 속에는 공황이 일어나고 갖가지 색깔의 금붕어들이 고운 지느러미를 흔들며 모였다 흩어졌다 갈 바를 몰라 예쁜 비단 리본이 어지러이 깔린 것같이 보였었다.

어린 너는 그것이 보고 싶어 돌을 던졌겠지만 그때 벌써 얼마큼 나 이들어 있었던 나는 그 어린 장난이 실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던단다. 정지라든가 평온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지만 소요(騷擾)에의 충동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은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값지고 힘찬 것의 비루이 되는 것일거라고.

우리 두 형제, 짙고 깊은 인연으로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삶을 얻고 또 겹쳐 짙고 깊은 인연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심상치 않은 전세부터의 약속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나 나나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 어쩌면 안온한 집안의 조용한 아내로 행복한 어머니로도 있을 수 있는 몸을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고독한 시간을 괴롭게 지낼 때가 많고 보니 시름도 괴로움도 또한 같구나. 말하자면 우리는 한결같이 가정의 안온과 창작의 회오리 속으로 시계의 추처럼 오가면서 시간을, 삶을, 저미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쪽에라도 머물고 말면 시계는, 삶은 정지하고 마는 숙명 속에 살면서 마음은 안주를 잃은 지 오래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아우야…… 이럴 때 나는 곧잘 반 고흐가 생 레미의 정신 병원에서 그 불안한 영혼을 요양하고 있을 때 그린 병원의 뜰의 그림들을 상기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는 가장 불안한 시

기에 가장 불안한 대상을 그림으로써 그 불안을 이긴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안온에도, 회오리 속에서도 머물지 못하는 숙명을 가졌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이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나를 다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자꾸나.

문갑 위 이조 백자 접시에 담긴 석류는 아직 익지 않아 꽃다지는 불그레 물들면서 줄기 쪽은 무엇인가를 거부하는 듯 푸른 채 딱딱하다. 그러나 나무에서는 떠났지만 이 석류는 머지 않아 익어 스스로의 성숙으로 입을 열 것이다. 잿불에 묻은 작은 불씨처럼, 희망처럼, 곱고 붉은 석류알이 보일 무렵에는 나의 스산한 마음에도 위안이 오겠지.

그 높은 담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빌며

높은 담 저쪽에 계신 여러분에게 !

진실 앞에서는 말을 잃는 것이 제 버릇입니다. 마음에 차 오르는 것이 너무나 벅차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뿐 한 마디의 말도 못하고 돌아온 것을 돌아와서 뉘우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끌어안아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을 전해 주고 싶었는데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문에 몸도 역시 말을 들어 주지 않더군요.

몇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 갖가지로 겪은 감동도 허다합니다만, 것처럼 뜨거운 눈물로 마음을 적신 일도 드물었어요. 여러분, 모두들 참 잘생기고 씩씩하시더군요. 보살펴주시는 분들의 정성도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느 장소에서라도 억누를 수 없는 생명력의 성장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건강한 육체, 티없는 표정들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척의 높은 담 안에 그리운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12척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12척이 의미하는 무서움에 저는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여러분을 탓하는 마음보다 저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칠세라 아플세라 소중하게 키워 왔어요. 제 자신의 모든 것이, 슬기로우거나, 사랑이나, 힘이나, 때로는 어리석음까지, 그들 위에 얹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고 뼈아프게 흘린 눈물은 회오의 그것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다’ 하던 여태까지의 제 보람이라든가 떳떳함은, 그 높은 담을 본 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변해 갔던 것입니다. 제가 작은 내 혈육만의 어머니로서 살아온 것이——즉 보다 큰 의미에서의 어머니, 사회적 모성이 되지 못했던 것이, 당신들을 가두고 있는 그 높은 담을 쌓아올린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타이름을 드리는 자격도, 또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자각하게 되셨으면 하는 일념으로 몇 마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흘린 뜨거운 눈물 속에는 앞에 말한 쓰라림과 뉘우침과 아픔에 섞여 보다 훌륭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축하도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갖가지의 그 묘기는 외국에까지 알려져 있고 육군 의장대보다도 훌륭한 것이라는 소장 선생님의 설명이 없으시더라도 우리는 그 놀라운 재주에 황홀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조차 여러분은 그렇게도 놀라운 것을 가질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고쳐 보아 주세요. 길가는 나그네도, 길옆의 낯 모르는 집에서 아들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 ‘아 참 잘됐군’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나, 날 때 누구나가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받으셨을 것이예요. 어찌 자기를 소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를 소중히 아껴 주세요. 소중한 ‘나’를 지키려면 누구나가 자기에게 책임을 갖는 법입니다. 자기에

게 책임을 가질 때, 선부른 짓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설명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한때라도 그 높은 담 속에 사는 사람이 되셨 습니다.

그 담의 높이는 무섭지만, 그것은 또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골똥히 눈길을 자기 내부로 돌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 속에서 아름다움과 흠을 가려, 아름다움만을 가꾸고 그것을 다시 잃지 않도록 하세요. 자기가 한 인격 이라는 것을 자각해 주세요.

여러분! 앞길에 험한 것이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씩씩한 모습과, 우리와 함께 노래하던 순진한 얼굴과 훌륭한 묘기를 눈으로 본 저는 걱정하지 않겠어요.

보다 큰 어머니로서의 우리 어머니들의 깨달음과 여러분의 자각으 로, 그 높은 담을 헐어 다시는 쌓을 필요가 없게끔 될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만날 날을 가져 보려 합니다.

복장 자율화 시대에 내 아들에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

학교가 많은 동네에 살면 아침 저녁으로 보는 광경이란다. 등·하교 시간에 혜화동 로터리에서 북쪽으로 들어서면 왼쪽은 남학생으로, 바른쪽은 여학생으로, 양쪽 보도가 꽉찬다. 늘 보면서도 언제나 조금씩 감탄을 하게 되지. 검은 힘찬 물줄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란다. 여학생들의 새하얀 칼라는 검은 물결 위에 뜬 하얀 꽃잎같이 느껴지고……. 아무튼 장관이지.

옛부터 사람 속에서 사람 고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획일적인 집단 속에서는 개인을 찾기 어렵다. 하여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교모를 눌러 쓴 남학생의 얼굴 모습은 한결같이 하늘색 꽃에 박힌 검은 씨같이 보이고, 흰꽃 꽃밭에서는 소녀들의 앳된 얼굴이 그대로 꽃술이 된다.

젊은 집단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지. 어쩌다 등·하교 시간에 나가는 일이 있어 이들의 물결을 보는 것은 진정 기쁨이었다. 대견함이라고 할까.

바로 며칠 전에도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 언제나처럼 새삼

약간 놀라며 전과는 다른 느낌이 컸지. 이제 얼마 안 가 이 길에서도 달라진 모습의 그들을 보겠지 하는, 얼마큼 섭섭함이 섞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제복을 입었을 때의 감격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새롭다.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동경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는 자각이기도 하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출발이었다. 모두가 조금씩은 몸집보다 큰 제복을 험령하게 입고 모였던 그 첫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남학생의 경우는 좀더 우스꽝스러웠지……. 머리를 뽀뽀 깎아 인상이 달라진 얼굴에 모표가 반짝거리면 신입생이었다. 그 귀엽고 어색하던 모습…….

학창 생활은 곧 제복 생활이었기 때문에 제복에 얽힌 이야기는 끝이 없다. 부모의 눈으로 볼때 사내와 계집애 제복 다루는 법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미소로웠다. 그리 바지런하지 못하면서 교복 칼라와 스커트 주름 세우는 데는 신경을 쓰는 딸들에 비해 사내들은 허술하고 지저분한 교복이 아니면 부끄러워했었지.

물자가 지금같이 흔한 때가 아니기도 했지만 제복은 내리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이 입다가 작아지면 그 옷은 으레 아우가 받아 입었지. 아버지 때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었다더라. 단벌 신사 아닌 단벌 학생의 몸으로, 키는 콩나물처럼 자라고 옷은 자꾸 작아지는데 크는 대로 제복을 새로 사 입을 형편은 아니어서 바지와 소매끝을 다른 형제로 이어달아 입으셨다는 것이야. 망가진 모자, 녹슬은 모표, 더러 해어진 교복이 남학생들의 멋이기도 했던 시대였지만 서너 층으로 이어진 바지는 진정 부끄러워 제복이라면 쓰라린 추억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을 들은 일도 있다. 좋았든 나빴든 그 시절 추억 속의 우리 모습에서 제복을 벗길 수는 없구나.

내가 여학교 교복을 처음 입었던 해였던가 보다. 강렬한 제복의 인상이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단다.

그것은 정연하고 씩씩하고 침착 일단의 제복의 청년들이었다. 하

나같이 1미터 80센티 가량의 훗칠한 키, 잘생긴 얼굴, 곧은 골격, 젊음과 힘과 아름다움을 단정한 제복에 싸고 일사불란의 보조로 행진하던 그 모습은 아름다움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유명한 일본 제독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부산에 들렀던 일단의 히틀러 유겐트였다. 어린 눈에 비친 그 집단과 제복의 행렬은 차라리 젊음과 아름다움 그것이었다.

우수한 청년들이었다. 두뇌 또한 명석하고 이성 역시 맑고 정서도 풍부하고 정의감도 강한 청년들이었겠지. 그들은 뽑힌 사람 중에서 다시 뽑혔다고 했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잔인하고 냉엄하고 광기어린 골수 나치 단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각자가 구비했던 모든 장점과 미덕을, 그 겉보기 단정하고 아름다운 듯한 제복을 입는 동시에 모두 펼쳐 버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집단적 동물인 우리는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규범에 매여 산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무질서는 집단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이 인격과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획일적으로 묶여 버린다면 사회는 탄력 없고 편협하고 창의성 없는 무기력한 것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야. 옛 성현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사회 생활의 참 자세라고 하셨다.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인격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서로 협동·융합하여 다양하고 평화로우며 활기찬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복 착용이 폐지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첫째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대 용단을 내리게 한 분들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복장에 있어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가진 셈이다. 너는 워낙 과묵하여 아직은 한마디도 이에 대한 소감을 말한 일이 없지만, 그래서 해방감을 느끼는지 오히려 당혹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머니의 희망은 그것을 계기로 하여 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정서와

개성을 닦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인생에는 옷차림 같은 걸치레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차원 높은 가치관을 정립해 주기를 바란다. 누구의 강제도 받지 않으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지 않는 양식, 학생 신분을 명백히 자각하여 스스로 검약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의 친구에 대한 배려와 겸허를 배워 주었으면 싶다.

참 이젠 머리도 뺄 필요가 없다지. 제복 폐지에는 착잡한 느낌이 약간은 섞였지만 머리를 적당히 길러도 좋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구나. 작년 봄에 입학식을 하루 앞두고 이발소에서 돌아온 네 어색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불가(佛家)에서는 머리털만큼이나 많은 온갖 번뇌를 말끔히 털어 버리고자 비통하게 칠혹머리를 깎는다고 하지만, 싹 밀어 버린 네 머리를 보며 성장의 의지와 희망의 싹이 무참하게 싹삭 깎여져 나간 것같이 가슴이 쓰릿했었다. 세상을 버린 승려나 죄수가 아닌 바에야 목숨의 왕성함을 증거하듯 잘도 자라는 머리를 적당히 길러 다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유는 어느 경우에건 또 어느 조건에서건 귀한 것이다. 그러나 너도 이미 알고 있듯이 자유를 갖는 것은 힘겨운 일이기도 하단다. 마땅히 자유에 따른 책임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책임이란 어디까지나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배우는 사람들에게 복장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니. 청결하고, 입어 편하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제복이라는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머물지 말고 복장에 대한 관심에서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에게는 젊음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왕성하게 자라는 머리털만큼이나 괴로움을 이기고 생의 기쁨을 구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며 항상 향상하려는 의지에 살고 뼈를 깎는 노고도 서슴지 말아라. 생활은 건실하게 이상은 높게 어떤 옷을 걸치든 높이 솟아라. '높이 솟아다오.'

서울을 동경하는 시골 소녀에게

희숙에게 !

오늘 우연히 나도 도심지의 어느 건물 삼 층에서 얼마가를 혼자서 지내야 될 일이 있었지. 만나자는 사람보다 먼저 간 건 시간을 잘 몰랐던 탓이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피로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순수한 공백으로 남겨 두려 했었지. 상념이나 초조 같은 것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말이야.

눈을 창 아래로 던진 것도 거리를 보려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창 옆에 앉으면 창 밖으로 시선이 가는 습성이 그런 방심 상태에서도 저절로 작용을 한 걸거야.

술한, 술한 차들과 사람들이 밀리고 와글와글 끓고 있더구먼. 보고 있노라니 현기가 나서 눈을 감아 버렸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번에는 눈 높이와 눈 아래에 깔린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어.

편편한 콘크리트 지붕, 낮은 기와 지붕, 슬레이트, 양철, 철거를 앞둔 판자 지붕, 형형색색의 지붕들이 마치 헌데 딱지같이 느껴졌어. 징그러워서 얼른 시선을 돌렸는데 순간 분명치 않은 채 미루어 두었던 희숙에의 대답이 확정되었던 거야.

한마디로 티없이 깨끗하고 가냘픈 회숙이를 이 잡담 속에 던지기는 싫다! 이런 생각이었어.

남쪽 땅 바다가 보이는 풀동산에서 처음 본 소녀이기에, 언제까지나 그때의 하늘빛마냥 맑고 아름답게만 두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그러면서 답장이 이다지 늦은 것은 회숙이의 소망이 너무나 뜨거운 걸 안 때문이었어.

들에서 봄풀을 보고 돌아온 마음에는 여름이 되어도 그저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정만 아껴지고, 여름 들어 무성해진 풀들의 의욕을 모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저어되었던 거야.

그러나 지금 회숙에게 보내는 내 말에는 내대로의 정성이 어린 것이라고 받아 주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런 말들이 어느 결단을 앞에만, 한 목숨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는가는 모를 일이고 또 그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나는 회숙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깐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좀더 시야를 넓게 가져 보자는 뜻에서 내 말을 회숙이가 듣기 좋은 혹은 더 생각을 요구하는 말들 틈에 끼워 주었으면 하는 거야.

동경이란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바라보는 먼 거리에 켜진 불이고, 이 불이 꺼지는 날 삶의 의미도 열도 꺼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회숙이의 동경이 겨우 도회에 있다면 이것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물론 도회라는 건 이 경우 도회에서 자기, 그러니깐 그 곳에서 가능할 수 있는 보다 보람 있는 자기 인생——그런 것일 거지만 내 생각으로선 그 곳이 어디고 간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충만해 있는 목숨——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빛이 어디 있고 그늘은 어디 있는가는 아무도 모를 일이야. 도회고 시골이고 간에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내부의 힘일 것이니깐.

안정은 되어 있으나 따분한 시골 공기가 숨막힐 것 같아 환경을 갈

아 보고 싶다는 짧은 솟구침을 왜 모르겠어? 그러나 제삼자의 냉정이라고 섭섭해하지 말고 들어 주어. 꼭 알아 보아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고 회숙이 자신의 생각일지도 모를 일이 아냐?

회숙이의 젊음은 조용하고 행복한 현재가 침체로만 여겨지고 분명치 않은 설레이는 미래가 아쉽기만 할 거야. 내게도 체험이 있어요.

도회란, 더구나 이 혼란의 지도 위에 그려진 서울이란 도회는, 어느 의미에서 인생의 투기장일지도 몰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말려들어, 저마다 다른 미지의 운명을 더듬고 있는 거야. 행복과 절망, 진실과 기만, 괴로움과 기쁨이 서로 엉켜 동거하여, 어떤 것이 본질인지 알 수 없는 괴물이 즉 서울일거야. 그런 괴물이 다만 동경 하나만 안고 오는 순진한 회숙이를 따뜻하게만 맞이해 주리라고 확언할 자신은 없어.

회숙이! 적어 내려오다 보니 회숙이를 실망시킬 말만 한 것 같아. 행위한 후에 지치는 것이 아니고 행위하기 전에 지쳐 버리는 연령 때 문일 것이라고 회숙이는 오히려 외면을 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광명은 어디 있고 그들은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어. 선 그 자리에서 자기를 풍부하게 하고 행복해 주었으면 좋겠어. 놓치고 난 후에 그 가치를 알고 아쉬워하지 않도록 우선 현재를 잘 알아 주었으면 좋겠어.

말이 자꾸만 두서를 잃어 가니 그만 쓰겠는데 하여간 이런 말들이 결국 어느 결의 앞에는 무력할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깐 부질없는 말을 늘어놓았던 것인지도 몰라. 사람이란 자기 운명이 정해지려는 때도 자기 몸을 지킬 힘 없이 그저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회숙이, 오늘도 남쪽 바다는 푸르고 넓겠지. 바다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리처럼 된 회숙은 바다에서, 내가 보내는 가난한 말보다 더 슬기에 찬 위대한 말들을 배울 것 같아.

초겨울 밤의 긴 대화

H…… 솜씨 좋은 박 부인에게 초대받아 맛있는 김치 대접을 받고, 모처럼 조국의 맛을 즐겼다는 글월 반갑게 읽었어요. 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나그네는 먼 하늘 가에 고향을 느끼는 법,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 부인의 살뜰한 김치 솜씨에 초겨울이라는 계절이 김장을 연상시키고, 우리나라 독특한 계절의 풍취가 온통 밀물처럼 가슴을 채웠다고요.

집에서도 어제 김장을 마쳤는데 잎끝이 노오란 배추 속잎에 양념 소를 싼 속쌈을 팔밥 위에 얹어 먹으며, 속쌈을 좋아하던 H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고. 떠나간 지 어언 5년이 넘었지만 매양 김치에 조국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H가 적어도 기호에 만큼은 그곳의 것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군요. 그러나 사람이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리고 아무리 그 환경에 아무 마찰 없이 적응해 갈 수 있더라도 어떤 점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대’라고 하지요.

H가 떠날 때 나는 여러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런 말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옛말로 청운의 뜻을 안고 나라를 떠나, 앞섰다고

생각하는 고장에서 학업을 계속할 마음이라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각을 버리지 않되, 하루바삐 그곳 생활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를테면 음식 같은 것을 예로 들더라도 언제까지나 우리 나라 것만 그리워하고 그곳의 것을 비위에 거슬러 하면 살기 힘들 것이라고.

그러나 어느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는 것은 가졌던 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오래 살며, 그곳 습관에 어느덧 젖어 버렸을지도 모를 H를 우리는 우리 뒤를 잇는 2세로 생각할 수는 없지 않아요? 시대나 환경의 변천이 아무리 새로운 인간에게 새로운 요청을 하더라도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사고 방식의 기준 아래 강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전진의 자세를 갖추려 하더라도 우리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단층을 만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하는 어찌면 버리는 쪽이 우리 생활을 연결 수월케 할지도 모르는 식성일망정 시간이라든가 거리를 넘어,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 것은 오히려 흐뭇한 것일 거예요. 아쉬움이 김치에만 머물리라고는 생각 않아요. 김치——김장철——초겨울의 맑은 하늘——그 하늘빛을 더욱 그윽하게 담은 고려 자기——우리 문화——그러면 우리 낡은 세대가 느꼈던 같은 감동을 그대들도 그대로 가질 것이며 감동의 근원적인 거점으로서 ‘조국’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는 단층이란 있을 수 없고, 자연스러운 계승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넓어진 그대들의 견문, 새로운 지식이 더욱 한없이 기쁘게만 느껴질 것이예요. 그대들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희망인 것이예요.

우리가 사랑하던 로터리에 가을 꽃이 시들고 플라타너스의 잎도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분수 물이 솟아오르는 형태로 얼어붙는 것도 멀지 않겠지요. 우편국 창문의 군밤 장수는 그때의 그 영감님이건만, 변함없는 모습 같으면서 가까이 가 보면 쓰고 있는 방한모도 그

얼굴도 부쩍 늙었군요. 그 옆에 엇판을 벌이던 털보 옛장수 아저씨는 어디론지 가 버리고 그 대신 못 보던 소년이 호콩을 실은 수레를 놓고, 손님이 없어도 명랑한 얼굴로 멋드러지게 ‘대머리 총각’을 부른다오. 봄부터 꽃을 팔던 꽃장수 아주머니의 모습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요. H를 좋아하던 아주머니만큼 그가 다시 로터리에 나타나는 봄이 기다려지네요.

H가 떠나기 전 우리는 초겨울 밤이면 곧잘 긴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의 그 버릇으로 사연이 길어졌군요. 마음은 아직 미진하지만 밤이 깊었소.

그대에게도 건강한 안면을 바라며 펜을 놓아요.

잊지 못할 사람들

한여름의 하얀 꿈

한여름에 올해는 갈 수 없는 바다를 그린다. 그러면 언젠가 그와 함께 남쪽 바다에 갔던 때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 내 가슴은 예리한 연장으로 도려내듯 아파 온다.

그때 그는 의예과 1학년 아직 소년티가 그냥 남아 있었다. 장난꾸러기이기도 하였다. 바다가 마냥 즐거워 그는 진종일 지칠 줄을 몰랐다. 언제나 틈만 있으면 첼로를 켜지 않으면 시를 읽던 아이여서 수영 팬티만 입은 몸이 전해보다 몰라보게 완강하게 어른이 되어 있는데 놀랐다. 대견하다는 생각보다 차라리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었다.

바닷가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루 배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하였다. 육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나가 물고기를 낚았다. 처음하는 낚시였건만 그의 먹이는 잘 먹혔다. 크고 작은 물고기를 그는 헤아릴 수 없이 잡았다.

그때의 그 흥분된 얼굴…… 푸른 바다에 태양이 퍼붓듯 내리쬘고 그 반사로 물 위는 어른거렸다. 옷통을 벗은 허연 등이 분홍색으로 타고 있었다. 노상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던 그 소년스런 얼굴…….

그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그 바다 위에서 즐거워하던 싱싱한 여름의 얼굴이다. 그때부터 8년 그의 얼굴에서 애티가 가시기 전에 그는 영원히 가버렸다. 그리고 그가 간 후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가 없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꽃이 피고 불이 켜지고 하는 것이 기이하기만 한 이 세월 속에 산다. 운행조차도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이 혼돈 속을 쉽사리 헤어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한여름이 되어도 더운 줄도 모르고 나무들의 푸르름, 여름 실과들의 싱그러움도 감각되지 않고 이 생활 밑에 깔려 있는 심연(深淵)으로만 마음과 눈이 쏠린다.

그는 겨울에 죽었지만 자꾸 여름에 죽은 것만 같은 착각을 갖는다. 청춘을 채 못다 살고 간 까닭일까? 삶을 소멸시키지 않고 부풀은 인생이 처절하게 한숨에 절단되어 버린 때문일까? 남 유달리 강했던 그의 삶에의 의욕이 여름을 사는 나무들의 의욕을 방불케 해서인가. 그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청풍 속에 흩어진 꽃잎 같은 느낌을 갖는다. 죽음의 음산함 어두움은 느껴지지 않고 밝고 맑고 허망하면서 한없는 애상을 안겨 준다.

왜 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일까? 태양이 너무 강해 명암이 너무나 뚜렷해지는 계절이기에 밝음과 어두움이 다른 것이면서 밀착해 있는데 왕성한 생명 속에 투영되어 있는 죽음을 보는 것일까. 이런 상념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곧잘 나를 사로잡는다.

여름은 나에게 있어 언제나 고요한 여름이다. 젊음이 터지는 해변의 여름을 몰라서가 아니다. 강렬한 원색의 청춘이 꽃피는 바닷가에서 난무하는 젊음 속에 묻히면서 내 젊었을 때도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면 모든 음향은 하얀 모래에 빨려 들어간 양 나는 인물들이 우글거리는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었다.

여름에 곧잘 찾았던 산사의 정적을 깨는 것은 느린 불경 소리와 울창한 숲속에서 여름을 우는 쓰르라미뿐, 그러나 그 소리들은 청산의 정적을 깨는 것이 아니고 그 고요를 더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름의 명상은 가을처럼 스산한 가을 바람 까닭에 갖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아 소스라쳐 잠기는 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가을의 그것처럼 한탄이 아니고 하얀 백몽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여름 한낮 한더위에 곧잘 나만의 몽상에 잠긴다. 백일홍이 피고 봉선화, 패랭이, 이슬꽃 등이 고요히 피고 지는 하얀 모래가 깔린 하얀 뜰,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던 우리는 가서는 안 되었던 기생 조합의 뜰, 소꿉친구가 동기(童妓)가 되어 종아리를 맞아 가며 가무를 익히는 것을 숨어서 보았던 그때, 나는 어린 마음에 하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태서의 문인 시인들은 한여름 밤의 꿈을 많이도 노래했지만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여름밤 으스스름의 감정을 향갑에 싸 넣은 향같이 그윽하게 간직하고 산다면 남이 웃을까? 으스스름 속에 박꽃이 유현하게 피고 마당에는 명석이 깔리고 모기 쫓는 불이 풀내음을 내며 타는 저녁, 명석 위에서 둥그런 숯다리미에 불을 담아 다림질하는 여인들 옆에 평상이 놓이고 그 위에서 오가는 여름 저녁 이야기는 별을 헤는 데서 시작되었다. 뒷산에서 우는 부엉이 소리처럼 이야기 소리도 여름 초저녁 정경의 일부일 뿐 역시 묵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이웃나라에서는 납량으로 짐짓 소름끼치는 괴성을 내어 심리적으로 더위를 쫓는다 한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 악취미는 없는 것 같다. 별 아래 앉아 인정어린 옛이야기, 악의 없는 이웃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그런 광경을 보면 더위는 쫓는다는 것이 아니고 잇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시골에 간 지도 오래되었다. 집을 떠나 휴가를 가도 옛 같은 정취를 이제는 맛볼 수 없게 되었다. 봄비는 호텔 로비에서는 서울서 본

얼굴들이 서로서 불 때보다 좀 망측스런 모습을 하고 있는 데 부딪친다. 피서지에 와 있다는 데서 어느 해이를 느끼는지 행동들이 눈에 띄이게 거칠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그 와글거리는 소음이 귀에 들려 오지 않고 난잡한 판토마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나도 알 수 없는 심리다.

바다 위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도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호텔이나 해변에서는 아주 당혹해 했었다.

허전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은 나는 그 어쩔줄 모르던 얼굴까지도 생생하게 그리며 이 생명에 찬 여름을, 삶과 죽음을 주체 삼아 산다. 하기가, 삶과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며 낳았다가 죽는다는 이 부조리는 우리 인간의 조건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고는 하나 조금이라도 죽음의 벽을 멀리 하는 데 자신을 바치겠다고 한 그는 겨우 25년 6개월을 살고 여름의 죽음을 죽었고 나는 여름 한낮에 하얀 꿈을 꾸다. 깨고 보니 그의 죽음은 꿈이었더라! 그런 꿈을 꾸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진 분

10월 25일 아침 9시, 전화벨이 울렸다. 짐작한 대로 청운동에서 걸려 온 전화다. 1955년부터 1986년인 올해까지 그분이 국내에 있는 한 번도 빠진 일 없이 이날이면 걸려 오는 전화다.

통화 내용도 수십 년을 통해 같다.

“오늘 생신날이지? 우리 점심 같이합시다.”

이리하여 그 후 30년을 나는 생일날이면 이분과 점심을 같이해 왔다.

1954년 11월초의 일이다. 그분이 회현동에 살던 때 그 댁에 간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며칠 전에 그냥 지나쳐버린 생일이 화제에 올랐다. 시하에서 남편은 무심하고 아이들은 아직 어려 짧은 주부가 자수 삭발격으로 제 손으로 제 생일 차릴 수도 없어 생일은 본인조차도 잊고 지내기 일쑤라고 웃었던 것이다.

하여 다음해 이날 아침 전화를 받고 나는 정말 정말 놀랐었다. 간곡한 말씀에 그 댁에 간 나를 위하여 그분은 성찬을 차리고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까지 끄게 해 주었다. 뜻하지 않았던 만큼 나는 너무 감격하여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남편도 그때

벌써 중역이 되어 있었으나, 그때만 해도 어른 아래 아내 생일차리기 송구스럽기도 하거나 곰살궂게 아내의 생일 기억하는 성격은 아니다. 내가 먹지를 못할 정도로 감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해에도 나는 그 댁에서 생일 점심을 먹었다. 이때는 바쁘신 부군(故 金裕澤 씨)도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지냈었다. 그리고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이윽고 오늘날까지 나는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생일 점심을 그분과 함께 하고 왔다.

이 꾸준한 보살핌이 말하듯이 나는 이제껏 이분같이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높은 지위의 부군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오만한 일이 없고 언제나 겸손하며 조용하고 성실하다. 딱 할 정도로 순진하고 마치 안방에서 한 번도 밖에 나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사를 모르고 산다. 나도 어지간히 딱하도록 세지(世智)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분 앞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남편의 선배 부인인 이분과 처음 만난 것은 해방 후 2년째 되는 해였다. 한국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학교여서 동창생들의 우의가 두터웠다. 그 선배님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 남편은 그 댁에 나를 인사시키려 데리고 가면서 선배 내외분의 굉장한(?) 로맨스를 들려 주었다. 개성 갑부의 따님인 부인은 황해도 시골 청년인 부군과 열렬한 연애를 했더라. 부모님들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식장에 신부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결혼식장 광경은 꾸민 말일지 몰라도 굉장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나보다 얼마 손위인 그 부인의 열정과 용기에 감탄하였다.

얼마나 활달하고 침단적이고 화려하고 멋드러진 신여성일까 하고 기대했던 선배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적지 않게 놀랐다. 경성 여자 고등 보통 학교(경기 여고) 재학시 학교 학예회 때마다 언제나 독창을 했다는 미성의 소유자, 부모님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쓴 연애

결혼을 한 정열적 여성, 그러나 그런 편린조차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겸손하고 어질어 보이는 부인이 온화한 얼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0년, 우리는 한 번도 언짢은 사이가 된 일이 없다. 섭섭한 말이나 야속한 행동을 한 일도 없다. 언제나 감싸 주듯 아껴 주는 그분(박홍득 여사)의 너그럽고 따뜻한 사랑 덕분이다.

40년간의 우의를 통하여 나는 그분에게 배운 것이 많다. 성실, 꾸준함, 어진 마음, 매운 살림 그리고 놀라운 노력 등등이다.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부군을 잃었을 때 이 단정한 부인은 전후를 잃고 비탄에 잠겼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단 둘이라는 그런 태도여서 두려움조차 주는 비탄이었다. 나는 조금은 의아해 했던 두 분의 로맨스의 격렬했음을 이때 절감하였다.

그 비탄을 넘어 그분은 지금 곳곳이 살고 있다. 이순(耳順)이 지난 나이에 시작한 그림에 정열을 쏟고 그 무서운 노력으로 착실히 화업을 이루어 가고 있다. 나는 아직도 이분에게 배울 일이 많은 것을 느낀다.

강인한 끈기와 정열의 소유자

유주현 씨와는 작품으로 먼저 만났다. “장씨일가”이다. 제각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쳐 좌절하는 장씨 일족——동난 후 한때 우리 사회 일부에 팽만했던 퇴폐와 무기력과 부조리를 차게 극명하게 예리하게 그려 낸 이 작품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직접 그 작자와 만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유주현입니다 하는 부드러운 말소리는 나에게 뜻밖이었다. 나는 무척 날카로운 사람으로 그를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태양〉의 주간으로 있다면서 같은 회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여성지 〈여상(女像)〉에 소설을 연재해 달라는 것이다.

나의 큰 결점의 하나로 무엇이든 부탁을 받으면 우선 가슴이 덜컥 덕하는 버릇이 있다. 이때도 달마다 써 나갈 수 없겠느니 뭐니 하며 슬슬 꿈무늬를 뻗던 것 같다. 하여튼 좀 만나자고 하여 덕수궁 맞은편에 있는 신태양사를 찾아갔다. 2층에 있는 편집실 한 모퉁이에 놓인 책상 앞에 앉아 있던 그는 내가 들어서자 일어서서 의자에서 서너 발쯤 걸어 나와 나를 맞았다. 이때도 나는 어리둥절한 느낌을 가졌었다. 그는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중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단정하고 평범하고 수수하고 건실한 회사원 타입의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모범적이라고 말한 그런 형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인상은 그가 세상을 뜰 때까지 바뀌어지지 않았다. 언제나 말수가 적으면서 어두운 데가 없고 크게 웃는 일이 없으면서 얼굴에서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난 일이 없는 성실성과 온화함이 대하는 사람에게 훈훈히 번져 오는 것 같은 그의 성품은 무개성적인 느낌을 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강한 개성으로 굳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에 대한 경탄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리 바빠하거나 일에 쫓기는 인상을 전혀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작품을 쓴 끈기와 정열에 있다. 또 다작하는 작가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안이성이 조금도 없는 그의 성실성과 그 관심의 다양성도 놀라웠다. 어느 작품을 보아도 쫓겨서 써 넘긴 흔적은 없고 그 구성력의 특이성이라든가 골똘히 조타하는 매물진 문장의 특징은 흐트러진 일이 없었다. 역사 소설을 써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그 깊은 역사 지식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피나는 공부를 했을까? 물론 소설은 역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엄연한 기록이 있는 이상 어찌 창외와 상상만으로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하물며 모든 사람이 공인하듯 인간과 역사 관계를 깊이 파헤친 그의 역사 소설은 흔히 씌어지고 있는 흥미 본위의 옛이야기가 아니었음에 있어서라. 그가 육십을 갓 넘긴 나이로 앞으로 더더욱 무게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는 실력을 넘치도록 지닌 채 아깝게 세상을 떠난 까닭도 나는 충분히 아프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가 병을 얻어 연세대 부속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을 때 그의 모습은 처절을 극하고 있었다. 수술 후 나홀이 지났다는데도 그의 고통은 보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의 수양·인격·인내력이 한계에 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는 끝내 흐트러지지 않았었다. “정말 좀 견디기가 어렵군요.” 남의 일같이 말하는 그의 이마에는 옆에서 부인이 연신 닦아 주고 있어도

기름땀이 자꾸만 자꾸만 솟아났었다.

그 고비를 어렵게 넘기고 그런 대로 회복이 되어 가는 듯 했었는데 그는 이미 그의 냉철하고 정예하고 깊은 눈으로 안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그를 보내면서 새삼 조용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요란을 피우지 않은 사람일수록 거창한 것과 과감하게 대면할 수 있고 온화한 사람일수록 차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짙어진다. 유주현 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했고 조용했고 온화했고 따뜻했었다. 그는 갔지만 우리는 그의 작품과 함께 있으며 그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제상(朴堤上)의 부인

아내는 날마다 해변가에 나갔다. 눈앞은 눈길이 미치는 한 망망한 푸른 바다다. 통한의 바다다. 남편은 그 바다를 건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약 없는 그 뱃길을 그는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려 했었다.

고구려에서 위험한 소임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노독도 채 풀리지 않은 몸이었다. 아녀자의 몸으로 염치 체면 다 버리고 말리려 달려왔던 이 해변——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고 남편의 모습은 배위에 있었다. 목이 터지도록 불렀던 그 외침은 무정한 바람이 날려 보내고 외로운 여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라주(插羅州) 태수였던 남편 박제상(朴堤上)은 지모와 용기를 아울러 가진 사람인데다가 우직하리만큼 충직한 사람이었다. 그때 그 길은 진정 죽음의 길이었건만 “쉽고 어려운 것을 생각한 후 여행하면 불충스러운 것이고 사생을 도모한 후에 움직이면 용기가 없는 것이오.” 하며 쾌연히 왕명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신라 19대 눌지 마립간에게는 한맺힌 원이 있었다. 선왕 실성왕에 의해 볼모로 고구려·왜·양국에 보내졌던 두 아우 미사흔(末斯欣)과 복호(卜好)를 찾아오는 일

이었다. 아무나 맡아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의논한 끝에 적임자로 뽑힌 것이 박제상이었던 것이다.

지모가 뛰어난 제상은 곧 고구려에 들어가 무사히 왕제 복호를 구출해 내었으나 왕은 왕제 환국 축하 연석상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우 미사흔을 못 잊는 까닭이었다. 제상은 왕의 비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왜국으로 떠났던 것이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 한 길뿐, 장한 남편이 차라리 야속하다. 대장부의 의(義)의 삶이 안타깝다. 그러므로 국대부인(國大夫人)의 영예도 왕제의 장모의 위치도 달갑지 않다. 그는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내의 모습은 언제나 남편의 배가 떠난 밤포 바닷가에 있었다. 기약 없는 사람이지만 그녀는 기다린다. 바람으로 파도가 높을 때에는 창파(滄波)가 무는 흰 거품이 하얀 돛대로 보여 가슴이 뛰고 고기잡이 배조차 그의 배로 보여 달려가도 본다. 그것은 진정 애달픈 모습이었다.

제상의 죽음은 이제 모두가 안다. 서라벌 반신(叛臣)을 가장한 그가 왜왕을 교묘하게 속여 탈출의 기회를 얻었으나 두 사람이 함께 달아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왕제만 탈출시키고 자신은 모진 악형 끝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오래전에 들어와 있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아는지, 알고도 설마에 기대는 것인지 국대부인으로 봉해진 대접받는 몸으로 바닷가에 나간다. 제상의 공을 잊지 않는 왕의 배려는 커서 남편 목숨 대신 돌아온 미사흔이 이제 그의 사위가 되었지만 남편으로 향하는 마음은 외곬로만 나간다.

기다리는 아내의 시야는 너무나 좁다. 아내는 동해가 가장 잘 내려다보인다는 치슬령 높은 고개로 올라가기로 했다. 여인의 걸음으로 오르기 힘겨운 그 험한 길을 그리움이 쉽게 넘게 하였다. 아내는 만경 창과 넓은 바다 저쪽에 눈을 던진다. 그리고 영영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영원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망부석(望夫石)으로 굳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돌이 되어 버린 여인들의 애달픈 이야기를 더러 듣고 있다. 하느님의 사자의 말을 어겨 돌이 되어 버린 소돔 성의 의인 롯의 아내, 일곱 아들과 일곱 딸을 눈앞에서 잃고 애통으로 돌이 된 그리스의 슬픈 어머니 니오베, 장자못가에 돌로 굳어 서 있는 착하고 소심한 며느리 등등 모두가 애절하고 안쓰러운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는 이 박제상 아내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그녀는 그리움과 기다림을 아는 여인이었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 반대다. 믿음이고 사랑이다. 끈질김이고 인내다.

기다림은 희망이며 삶의 탄력이며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진정이다. 얼마큼은 남편의 죽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짐작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내의 사랑이다. 직정(直情)과 순정에 산고대 여인의 꾸밈없는 사랑의 모습을 본다. 그녀가 이조 여성이었더라면 어땠을까? 슬픔도 그리움도 안으로 드리우고 말없이 상봉하술(上奉下率)의 부도를 지켜갔을 것이다.

오늘의 눈으로 볼 때 박제상 부인의 직정은 차라리 부럽다. 그러나 그녀는 18세 소녀는 아니다. 왕제를 사위로 가진 국대부인의 신분이다. 연령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직정으로만 내달 수는 없는 처지다. 같은 일을 당하는 여인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진정 사려깊은 사랑의 여인이라면 장한 남편의 아내답게 슬픔과 그리움을 보다 뜻있는 일로 승화시켜 자신을 바침으로써 남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움 속에서 자신을 키우며 하나가 될 날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저물어 가는 바다를 향하여 역광을 받고 서 있는 치슬령의 망부석은 역시 애절하고 아름답다.

서울 여인

출생지를 고향이라 할 것인가 성장지 혹은 오래 거주하던 곳을 고향이라 할 것인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처럼 부모가 어디서 왔건 그곳에서 출생한 사람이면 무조건 그곳 국적을 갖게 하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뿌리를 더 존중하여 타향에서 출생하여도 그 곳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서울 토박이를 부모로 가진 서울 태생이면서 얼마 동안 서울이 고향이라는 실감이 없었었다. 돌도 되기 전에 아버님 직장이 있는 경상도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상도 어느 특정 지역이 고향같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아버님이 전근되시면 즉시 자리를 떠나 하는 떠돌이 생활이었던 것이다. 정도 들기 전에 이별을 하다보니 옮겨 다니던 그 술한 고장의 어느 한 고장에도 뿌리를 박을 새가 없는 어지러운 유전이었다.

생소하다는 것은 간 곳마다에서 받은 마음의 저항이었다. 그러므로 이 특이한 사정이 습성화되어 버려 누구와도 그리 마찰 없이 사귀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느 때나 어느 특정한 고장의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고 보면 나는 우리

나라에 많은 실향인(失鄉人)이 아니고 애초부터 잃을 고향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본적은 어엿이 서울이고 남들은 나를 서울 여자라고 부른다. 쓰는 말 역시 깍듯한 서울말이며 집안 범절이나 관습이 수백 년 내려오던 서울 풍습 그대로이다. 부모님의 고향인 서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서울 풍습에 동화되었다기보다 지방의 낯선 풍습 속에서 섬(島)같이 떠 있던 우리집의 지방에선 이질적이던 풍습을 시대에서 재발견했다고 하는 쪽이 옳을 것이다.

하여 어머니와 그리고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신 남편을 여의고 여든여덟이 되는 오늘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오신 큰어머니의 사랑을 모으고 자라 온 나는 지리적으로는 실향인일지 모르나 기실 한 번도 고향 밖을 나간 일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열여덟에 결혼하신 후 예순여덟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청상으로 늙으시는 큰동서님과 떨어져 사신 일이 없으셨다. 그러나 보기 드문 아름다운 우애의 동서들이라고 남의 입에까지 오르내린 이 서울의 두 여인은 펍 형이 달랐다.

큰어머니는 모습으로부터가 부잣집 만머느리시다. 비대한 몸집과 점잖고 너그럽고 수수한 태도가 언제나 많은 슬픔을 견디고 있는 느낌은 없고 유연하게 보였다. 그와 반대로 암전하고 분명하고 깔밋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는 가녀린 몸매에 반듯한 이마, 면빛질이 잘 간머리는 칠혹으로 홀은 머리칼 하나 없는 단정함을 지니고 계셨었다.

일세에도 대범한 일을 칠칠하게 처리하시는 큰어머니와는 달리 어머니는 꼼꼼하시고 바느질 솜씨는 ‘뚝 만것 같다’는 칭찬을 들으셨다. 하여 이 두 여인은 서울 여인의 두 가지 전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작고한 어느 작가가 평한 일이 있다.

그러나 나는 두 분 사이에 많은 공통점을 본다. 생김새와 성격의 차이로 무척이나 달라 보였으나 두 여인은 하나같이 알뜰하고 경우 밝고 부지런하셨다. 다만 같은 일처리를 하실 때도 주는 인상이 달랐

다. 큰어머니는 절약심이 많고 공정하고 부지런하시나 어머니는 알뜰살뜰하고 경우 밝고 바지런하셨다. 또 이 두 여인에게에는 조금씩 각각 미련하게 ‘매련’한 데가 있었다. ‘미련’이나 ‘매련’이나 어리석고 밝지 못하다는 뜻을 가진 같은 말이다. 그러나 어감은 상당히 다르다. 규중 부인들로 어수룩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은 두 분이 매한가지였으나 남에게는 무척 다른 느낌을 주었다.

미련하신 큰어머니는 정말 당하고만 계셨던 것 같다. 우리 큰아버지는 구한말에 벌써 구라파에 가실 만큼 개화꾼이셔서 멋쟁이셨다는데 그런 만큼 19세기 구라파적인 ‘깁슨트리’도 가지고 계셔 큰어머니의 속을 무척 상하게도 하신 모양이었다. 그러나 미련하도록 정숙한 큰어머니는 외박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제일 먼저 양जू을 내드리고 보제로 몸을 돌우시고 외도하러 나가는 남편의 속옷을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거두셨다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여성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비하라기보다는 여권 유린의 자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큰어머니에 한한 일이 아니고 서울 여인 전반의 미덕의 하나로 여겨졌던 것 같다.

두 식구 살면서도 두 가지 국, 즉 고기가 든 국과 들지 않은 솥국을 끓여 남편만을 봉양하는 알뜰하고 살뜰한 서울 여인——이것은 차라리 ‘매련’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루면 더러워지는 삼승(三升)버선에 불 대느라고 삼경을 밝히는 깔밋한 서울 여인, 쉼 찬밥을 물에 행구어 먹고 배탈이 나는 매련한 살림꾼 서울 여인——무명 옷에 명주 안 받쳐입고 행주치마에 군패도 묻히지 않았다.

평상 이웃집에 맡가는 일도 없으면서 고사떡이라도 얻어먹으면 부리나케 떡 쳐서 반례를 하는 경우 밝은 서울 여인——한마디로 소극적이며 주체성 없고 진취성 없이 여필종부로 늙어 시아가 좁으면서 철저하게 남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서울 여인들. 그러나 이러한 서울 여인 기질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다.

그만큼 여권 신장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면 경하할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나다니는 여성들을 간혹 볼 때는 자기 희생적이며 알뜰하고 사리 밝고 얼마큼 땀땀이 같았던 옛 서울 여인들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서울 여인의 매력

프로 야구 게임이 서울서 있을 때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많아도 서울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청룡팀과 라이온스나 타이거스와의 게임이 벌어진다고 하자. 홈팀인 청룡을 응원하는 사람의 수효는 상대방 팀에 훨씬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다른 곳이라면 모르되 바로 홈그라운드인 서울 한복판에서이다.

서울 사람은 걱정을 보이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지, 서울에 살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고장인 서울에는 털끝만큼도 정을 주지 않으려는 지방 출신 사람들의 뜨거운 애향심 때문인지는 모르나 청룡팀이 외로워 보여 서울 토박이인 내 마음은 언짢아질 때가 많다.

각 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서울의 인구는 바야흐로 1,000만에 육박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서 자꾸만 외로워만 간다. 1,000만이 모여 북적거리면서 사람의 용광로 같다고도 할 수 없다. 쇠도 한데 녹이는 것이 용광로지만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녹아 엉기지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때로 이 거대한 도시가 거대한 쓰레기더미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도 서로 쌓이고 엉겨붙어 한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드리면 대그락거리는 차들같이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가

버릴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한 찢줄들이 모여 얹혀 살면 미움조차도 사랑의 한 가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고향의 정일 터인데 이 도시는 너무나 삭막하다. 친화와 협조는 없고 비정한 무관심만이 팽창하고 있다. 하여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두고 온 고향을 뜨겁게 그리면서 현재 몸을 의탁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고개를 돌린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의 교육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등등으로 서울에 산다. 그들에 있어 서울은 이용하는 곳이지 살고자 하는 곳은 아니다. 확실히 말하여 서울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 사람을 쓰라면 소위 서울 토박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 여인이라고 모두들 한 묶음으로 엮을 수는 없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성격과 형상과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공통점이 고향의 기질이라는 것일게다.

서울의 여인은 한마디로 싹싹하고 깨끗하고 각뚫하고 산뜻하고 무엇보다도 경우가 밝다. 그러면서 어딘지 매련(미련)한 데가 있다. 흔히 '서울 각쟁이'란 말을 하지만 우리 어머니 말쑤를 빌리면 '서울 감쩍이'란다. 각쟁이란 말에는 감쩍이의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색'이란 느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 여인은 그리 욕심이 없다. 야심도 없고 더더욱 인색은 모른다. 질곡임에 틀림이 없는 부도라는 올라미에 얹히면서 그 올라미의 매듭을 스스로 더 탄탄하게 조여 매는 맹꽂이들이다.

알뜰하고 바지런한 것은 팔도의 어느 여인들에 뒤지지 않으리라. 묵은 김치 한 줄기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이용하여 별미라는 반찬을 만들고 군내나는 오이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생각해 낸다. 북어 한 마리를 가지고도 살을 다 발라 내고 난 대가리, 왕가시, 껌질로 구수한 국을 끓이는 것이다.

자연 음식 솜씨는 늘어만 갔다. 밥풀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물에 담가 모아 무명 바지, 모시 적삼에 풀을 먹이던 백모님의 모습은 아

직도 내 눈에 남아 있다.

남의 것은 절대로 거저 받는 일이 없는 결곡함도, 경우에 없는 일은 하는 일이 없는 깔끔함도 서울 여인의 범질이고, 한 마디 말에도 조심성을 잊지 않는 삼감도, 맺고 끊은 듯한 분명함도, 모두 서울 여인의 체질이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와 살게 되면서부터 앞뒷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게 된 지금과는 달리 산구완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친정 어머니가 미처 오기 전에 해산을 하게 되어도 새댁은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이웃에는 삼줄 끓여 줄 누군가가 있었다. 그뿐인가 이웃에 산고가 나면 갓난아기 몸에 부스럼이 난다 하여 튀김질이나 기름질을 삼갔다. 초상이 나면 동네가 일제히 침선 일을 멈추고 상제들을 위하여 죽을 쑤어 상가에 보냈다. 이사를 해도 같은 마음씨를 써 주었다. 엄동 설한 새벽에도 제사 음식은 이웃 모두에 골고루 나누어져 동네가 함께 음복을 했었다. 인정 많던 시절이었다.

서울 여인에 여결은 그리 없다. 치마를 두르고도 남자 못지않은 일을 할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조용히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곁에 없으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서울 여인이다. 인생을 극채색으로 살지 않고 담채(淡彩)로 사는 그런 태도가 서울 여인의 매력일 것이다.

불국생 보살과 그의 아들

인터폰을 통하여 귀에 익은 음성이 흘러들어 왔다.

“신문로에서 왔습니다.”

“신문로?”

“네, 집니다. 김 회장님 댁 운전 기사입니다.”

“아!”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낮익은 운전사는 반가움이 가득 찬 얼굴로 커어다란 박스를 안고
뜰에 들어섰다.

“회장님이 보내드리시는 집니다.”

상자는 굉장히 크지만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그것이 가정
에서 일용하는 티슈, 종이, 냅킨, 두루마리 휴지 등이 들은 상자라는
것을 안다. 운전 기사는 그것을 뒷마루에 놓고는 부리나케 밖으로 나
갔다. 이윽고 이번에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오히려 약간 무거워 보이
는 상자를 안고 들어왔다.

“요번에 신종을 좀 만들어 보셨지요. 알이 아주 작은 달고 맛있는
종류랍니다. 좀 잡수시라고…… 감귤입니다.”

나는 어리벙벙하고 서 있었다. 신문로 친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회장님도 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생전에 철철이 보내 주었던 그 요긴한 일용품이 같은 시기에 당도한 것이다. 나는 눈속이 뜨거워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아, 친구가 극락에서……”

이런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운전사가 의아한 얼굴로 일깨우듯 말한다.

“회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나는 그에게 수고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내 귀에는 그 친구가 생전에 하던 말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 그의 친지 중에 노망한 노부인이 있었다란다. 아주 총명하고 호탕한 부인이었는데 노령은 이기지 못했는지 치매(癡保)가 되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아들이 그 방에 들어가도

“어서 오세요요. 근데 어디서 오신 누구시지요요?”

한다는 것이었다. 그 노부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던 만큼 김 회장 댁에서는 화제가 되었었다.

모처럼 가족이 모인 데서 이 얘기가 나와 모두 어이없어 웃는데 친구의 장남인 석원 씨가 갑자기 엄숙한 얼굴이 되더니

“엄마, 난 엄마가 노망이 나서 날 못 알아보고 ‘누구시지요?’ 하셔도 좋으니 그분만큼 오래오래 살아만 주세요.”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나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석원 썬 참 효자야.”

하고 감탄했던 것이다. 친구는 쑥스러운 듯,

“원체 외롭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일을 맡았으니 막막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안쓰러워서.”

하곤 추연한 얼굴이 되었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성스러운 아들, 그것은 한 토막 아름다운 일화였다.

어머니가 아까운 나이에 돌아갔을 때의 큰 상주 석원 씨의 애통은 보기에 애처로웠다. 망령이 나서 치매 상태에서서라도 오래 살기만 빌었던 어머니의 타계는 그에겐 그렇게도 큰 타격이었으리라. 어머니의 생전의 옛 친구에게 보내는 이 선물도 그의 절절한 사모곡의 한 구절이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그리워, 어머니가 안 계신 몸이 외로워 어머니가 생전에 정답게 지내던 그 옛 친구까지에도 얼마만큼의 마음이 간 것이라고 생각하자, 내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살아 있는 친어머니조차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세태에 모처럼 고가한 향을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김미희 씨와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은 20여 년 전의 가을이었다. 외국 여행에서 갓 돌아온 나는 어느 국제 자선 단체의 강인한 부탁으로 이재민을 위한 모금 운동의 책임을 떠맡게 되어 친구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처지에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 댁의 어느 부인이 찾아왔다. 내 처지를 알자 그는

“김미희 씨한테 가서 협력을 청해 보세요.”

하는 것이었다.

“김미희 씨가 누군데?”

“김성곤 씨 부인이지요.”

나는 그때 김성곤 씨가 누군지 진정 몰랐다.

“김성곤 씨가 누군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던 그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공화당의 우두머리의 한 사람이구 재벌이 아녜요? 참 언니두. 아무튼 그인 그런 일 참 잘 도운대요.”

이리하여 나는 그를 따라 신문로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신문로 저택은 넓기는 하나 옛날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을 그대로 쓰

고 있는 오히려 소박한 짜임새였다. 웅장실도 수수하고 가구들도 그리 호화롭지 않아 위화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안주인은 곧 나타났다. 어줍지 않은 위치의 사모님들도 찾아간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예사라 마치 우리를 뒤따라 오듯 방에 들어서는 소탈함은 가벼운 놀라움이었다.

“어서 앉으세요. 날씨가 참 좋지요?”

정답게 말을 건네는 그를 보니 낯선 얼굴이 아니다. 남편따라 나간 공식 모임에서 자주 본 얼굴인 것이다.

“아, 우리 많이 만났지요? 인사는 없었지만……”

그쪽에서도 나를 보았다고 친근한 얼굴이 되었다.

남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심한 내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자리에 있었던 일이 꽤 많았던 모양이지만 그이는 한 번만 보아도 잊지 못할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가름한 얼굴에 깊이 쌍꺼풀 진 커다란 눈, 자연스럽고 수수한 머리 모양, 예쁜 코 그리고 컷밥이 만든 것처럼 통통한 특색스러운 귀에 언제나 조용하고 세련된 담색(淡色) 차림의 우아한 그 모습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두드러져 보였다.

그러나 자택에 있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그는 꽃자주 치마에 노랑 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자기 차림새를 의식했던지 묻지도 않는데

“미국에 사는 딸이 잠깐 다녀갔는데 이 옷을 벗어 놓고 갔어요. 그냥 넣어 둘 수도 없고 두 번쪼박에 입지 않아 빨기도 아깝고 해서 입어 더럽혀 빨려고 입었죠.”

하고 밝게 웃었다. 이 한마디로 나는 그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유난히 난한 빛의 꽃자주 회장을 단 노랑저고리, 아무리 곱다 해도 40대 여인이 입을 옷은 못 되는데 이 대재벌 부인은 태연히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날 그는 꽤히 내 어려운 청을 들어 주었다. 이윽고 그 자선 행사

진행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 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동창도 없고 서로 집을 찾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없는 나에게 그는 정말 크고 작게 마음을 써 주었다. 특히 내가 아프다던가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그가 우리집을 찾는 때였다.

그는 불국생(佛國生)이라는 불명을 가진 독실한 불교 신도, 나는 글라라라는 본명은 받았으나 어설픈 천주교 신자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존경했다. 하여 그의 거액의 회사로 대장정의 재간행이 실로 수백 년 만에 이루어졌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찬사와 감사를 보냈던 것이다.

진정 그것은 공감과 기쁨의 만남의 계절이었다. 우리는 자주 함께 다니고 특히 생일이 한날(음력으로 9월 21일)이라는 신기한 우연으로 음력 생일날의 점심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들었다. 양력 생일인 10월 25일은 점심을 박흥득 여사께서 함께 해 주시니 나는 한 해에 두 번 생일 점심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과, 정답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들어 온 것이다.

친구의 고운 얼굴에 잡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50을 얼마 앞에 둔 나이 때부터였다. 그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병마(간경화증)가 흉흉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는 병마와도 잘 싸웠다. 자주 만나는 우리도 그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자칫 잊을 때가 많았다. 그는 그 고통 중에서도 언제나 명랑하고 솔직하고 자상스러우면서 크고 자연스러웠다. 술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고 문화 사업에도 많은 협조를 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까지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곧잘 장난스럽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예쁜 꽃이 좋으니 참 주책이제?”

하면서 예쁜 꽃으로 방을 장식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서민 주택에도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앓는 사람에게는 너무 떨어진 곳에 있었다. 뒤늦게야 그의 방 옆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는 이

화장실을 얼마 쓰지 못하고 극락으로 가버렸다.

내가 교통 사고로 아들을 잃고 불행 속에 있을 때 그는 나를 자주 찾아 주었다. 내가 적지 않게 도와준 일이 있는 사람들도 내 불행이 오래 끄는 동안 대개가 냉담 무심해졌었는데 그는 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었다. 고마운 우정이었다.

깊은 불심을 지닌만큼 남의 불행, 남의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대범하고 시원스러우면서 섬세하고 모든 기미를 잘 살피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이 변을 당했을 때 그는 보스턴에, 나는 워싱턴에 있었다. 우리는 그곳 체제 중에 서로 자주 통화를 했었는데 이때는 통화 시간이 한 시간이 넘기도 했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건 전화의 통화가 길어지자,

“내 이 전화 끊을란다. 한꺼번에 너무 길어요.”

하고 이내 전화를 끊어 버렸다. 아쉬워하며 수화기를 놓자 벨이 울렸다. 친구의 밝은 음성이 들려 왔다.

“통화 계속합시다. 끊어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 여행자 아닌가요? 한 사람만 장거리 통화료 너무 많이 내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하는 것이었다. 정답던 그 친구, 그를 잃고 나는 그 후 아직도 그런 친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를 두 번 아프게 보냈다. 한 번은 부군과 함께 이른바 정치 망명을 할 때이다. 역시 조용한 옅은 중간색 의상에 베이지빛 백을 들고 있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쓸쓸하고 처참하고 외로운 나들이였다. 어딘지 분위기가 살벌하고 배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친구라면 당연한 배웅이었는데 그는 이때 일을 잊지 않고 자주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조그만 우정의 표시를 말하며 고마워했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간간이 보내는 편지 끝에는 언제나

“보스톤에서 우우(愚友)”

라고만 써 보냈었다.

‘내 이름을 쓰면 당신한테 해가 될까 봐’ 그랬다는 것이다.

아프고 아픈 마지막 배웅은 그를 국민 대학 뒤 언덕 장지에 모시던 날이었다. 예쁜 꽃을 좋아하던 영령답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무덤 앞에 서서 한없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던 아드님의 모습을 지켜 보며 나도 자꾸만 울먹여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뜻밖의 선물을 앞에 하고 그에 대한 추모는 끝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의 명복을 비는 일뿐이다. 그의 불명 그대로 이미 불국(佛國)에 태어나(生) 불토에서 영락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눈짓처럼 손짓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는 것

그분의 고향 사람들

사람은 너무 먼 곳에 있는 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를 잘 모른다고 한다. 먼 곳에 있는 이는 그 언동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기회가 없으니만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자연 관심 밖의 사람으로 머물게 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가를 가려 내지 못한다.

악성 모짜르트의 아내 콘스탄스는 언제나 농담을 즐기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남편이 천재였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산이라도 그 산속에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무와 계곡, 바위나 풀포기 따위일 뿐 해발 몇천 미터라는 높이를 실감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출생 성장을 알고, 먹고 자고 서로 견고 말하고 일하는 일상을 접하고 있노라면 사람의 위대성도 시야 밖에 있기 일쑤인 것 같다.

고향 사람들 눈에는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도 그래서 고향을 떠나시며,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영원한 생명을 지니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이 말씀에 깃든 개탄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두려움을 안겨도 준다. 지존하신 분의 외로움이 사무쳐 온다.

언제나 우리 사이에 생활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고향 사람이랄 수도 있다. 모처럼 찾으신 그분의 지존하심에 우리는 마땅한 공경을 하고 있을까. 그분이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있을까.

마땅한 예의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예언자의 외로움과 슬픔 속에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들의 외로움은 물론 엄청난 거리를 갖는다.

지고 지존하신 분의 외로움과 비천하고 가난한 이의 외로움이 마음속에서 겹쳐지는 것은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알고 있는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리석고 아둔한 까닭인지 나에게는 언제나 성서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며 동시에 무척 어렵다. 읽고 읽어도, 듣고 들어도 깨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 같은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의 참뜻은 어디에 계시는지.

공간(空間)

파스칼이 새삼 외포(畏怖)했던 무한대의 공간은 잠시 생각지 않더라도 공간의 뜻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신비스러움과 함께 지극히 비소한 포근함과 친밀감을 갖는다.

옛 철인은 유용은 무(有用無)라고 무엇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그만 종지 하나라도 외곽에 싸인 비어 있는 곳이 있기에, 종지의 존재가 성립되고, 창 하나라도 창틀에 둘러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창이 되는 것이다. 꼭 차버린다면 그것은 종지가 아니고 사기 덩어리일테고, 창이 아니고 막힌 벽이 되어버린다.

사람도 비워둔 곳이 마음이고, 꼭 막혀 버린 사람은 마음도 영혼도 없는 사람일게다.

좁다는 것은 공간에 놓인 물건이 있기 때문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좁다는 개념은 없다고 한 사람이 있다. 한 칸짜리 방에 손그릇 취사 도구, 옷걸이, 세면 도구까지 두면 발 들여놓을 곳도 없어, 좁다는 짜증밖에 나지 않지만, 그저 비워 두면 다섯 자 세 치 몸 누긴 넓을 지경이다. 해서 무일물인 그는 한 번도 그 방을 좁다고 생각한

일이 없었던단다. 듣기엔 도통한 이야기 같지만 제 몸에서 털이 저절로 나서 추위를 막아 주지 않는 한 겨울옷도 있어야 하고, 생쌀 먹고 생식한다는 신선이 아닌 이상 끓이고 익혀 먹을 도구도 있어야 한다. 너절하게나마 생활 도구를 단칸방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활과 공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이(所以)이다.

젊은 시절 돈암동에서 살 때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집들이 모두 작았다. 우리집으로 들어가는 어귀 모서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았다. 언제나 열려진 문틈으로 들여다보이는 그 집은 안방 마루 건넌방에 부엌뿐이고 화장실도 잘 보이지 않았다. 수도나 펌프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손바닥만한 마당 한복판을 조금 비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것이 하수구였다. 그러나 그 집은 숨이 막히게 작아 보이지는 않았다. 어디에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마루는 말끔히 치워져 있고 수채 가도 깨끗했다. 무엇보다도 이 집에는 화단이 있었다.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것이다. 그 좁은 마당에 장난감 같은 장독대가 있고 그 아래가 바로 수채인데 남은 데는 밟아 다져져 시멘트같이 딱딱해져 있는 그 집의 화단은 담 위에 있었다. 서리가 올 때까지는 언제나 곱게 피는 과꽃, 분꽃, 봉숭아는 깡통에 심어져 담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먹을 물도 길어 와야 하는 처지에 그것은 얼마나 고달픈 작업이었을까. 나는 크지도 않은 깡통 속에서 아름답게 피는 그 꽃들을 볼 때마다 그것은 작업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며 지극한 봉사라고 느끼곤 했었다. 한 바가지의 뜨물도 아껴 열심히 꽃 가꾸던 그 초로의 단정한 부인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아주머니를 상기할 때 이어 생각나는 분이 있다. 바로 앞집에 살던 분이다. 동서로 길어 해가 잘 드는 조출한 한옥이었다. 가족은 초로의 양주뿐으로 가끔 조카딸이라는 분이 다녀갈 뿐이었다.

노인은 3·1 운동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약 30년 후에 귀국한 분으로 뜰에 불두화 목련 심고, 봉숭아 옥잠화 창포를 손수 가꾸었다. 사랑을 받으며 한동안을 마주 보는 집에서 살았는데 웬지 겨울의 기

억은 없다. 항상 새하얀 모시 고의 적삼 차림의 체소한 노인은 열어젖힌 문에 발을 드리우고 조용히 독서를 하기도 하고, 나무 손질을 하기도 하였다.

두 분 사이에는 자손이 없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때를 놓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외로워 보이지는 않고 무슨 전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은 늙어 돌아와 늙은 아내와 고국 속에 안겨 비로소 삶을 찾은 듯한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다. 30년 가까운 타국살이라면 식성도 그 쪽 것이 됨직도 한데 된장국 장아찌 젓갈 배추김치가 아니면 식사를 못 한다고 웃었다. 할머니는 그런 것을 장만하는 데 보람을 느꼈고 할아버지는 다시 찾은 고국의 식성에 흐뭇해 하였다.

오랜 세월을 남편을 위하여 비워 두었던 할머니의 생활과 마음 속 공간에 할아버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돌아와 앉은 느낌이었다. 그 비워 두었던 자리가 없었다라면 30년이란 세월을 견뎌 낼 수는 없었으리라. 그 긴긴 세월을 할머니는 언제나 할아버지를 맞을 수 있게 잔머리칼 한 올 흐트리지 않고 기다렸단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념이나 포기가 아니고 바람이며 그리움이며 희망이다. 할아버지를 위하여 비워 두었던 그 언저리를 감싼 사랑이었다.

크게는 우주, 작게는 조그만 종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간을 지니고 있다. 내 내부의 공간은 얼마큼의 크기일까. 어쨌건 내가 없어져도 빈 공간이 조금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저물어가는 인생이지만 정성과 슬기로 내 주변의 물리적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속을 무한대로 비워 두어 내 내부에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다.

사랑은 잃은 후에도

별이 잘 들지 않는 좁은 뜰이라선지 우리집의 봄은 좀 늦게 온다. 다른 곳에서는 꽃이 지게 될 무렵에야 철쭉꽃 눈이 트는 것이다. 오래 살고 있는 집이라 그런 것은 변연히 알면서 혹한에 죽은 것이나 아닐까 안타까워하다가 뒤늦게 꽃이 피면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은 듯 기쁨을 느낀다. 산에 들에 넘칠 만큼 피는 흔한 재래종 꽃이지만 내 손으로 심고 내 손으로 가꾸는 꽃이라 사랑도 그만큼 더 가는가 보다.

딸의 철쭉꽃 눈이 틀 무렵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K는 그때 이십사오 세의 신경질적인 청년이었다. 유복한 멋쟁이 시인의 장남으로 명문 중학을 다니다가 졸업반에서 서리를 맞았다. 6·25가 터진 것이다. 아버지의 행방은 묘연하고 가산은 모조리 흩어지고 생활력 없는 어머니와 어린 네 동생이 열아홉 살의 그에게 남겨진 전부가 되었다.

그 동안 겪었던 고생을 그는 그리 말하는 일이 없었지만 겨우 스물을 넘긴 지 사오 년밖에 되지 않는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두 줄 깊게 패여져 있고 어두운 눈매와 여자같이 작은 입은 금방 울음을 터

뜨릴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웃는 얼굴을 보인 일도 없고 말수도 적었지만 그는 가끔 찾아왔다. 줄곧 눈길을 아래로 깔고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이마 너머로 눈을 치며 상대방을 보곤 하는데, 그런 버릇이 젊은 이마에 흠을 파게 한 모양이었다. 30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에게 어떤 때는 옛 돼 보이기도 하고 때론 한 고비 넘은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이 청년은 묘한 분위기를 가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였다.

그 해도 늦게 꽃눈이 튼 철쭉가지를 매만져 주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불쑥 들어선 사람이 있었다.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K였다. 언제나 누군가 하고 함께 오는데 그날은 혼자였고 찌푸린 이마 밑의 눈이 이상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서도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적이 당혹을 느끼며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요. 그 동안 어떻게…….”

“한 선생님…….”

갑자기 그는 내 말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절규하듯 말했다.

“한 선생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말이죠,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돌아서서 그렇게 못되게 욕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는 광기를 띤 채 마구 덤벼들었다.

“마음이 변한 건 할 수 없죠. 그래도 그때 그 사랑은 진실했었죠. 지나 버려도, 그 한때의 진실만은 그대로…….”

말을 잊지 못하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실연했다는 말은 나도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우의 딸로 그녀 역시 가족을 잃고 외롭고 가난한 몸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달래 주며 살 수 있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운 자태를 가진 그녀는 가난에 지쳤던지 돈 많은 중년의 후처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얼마를 간장이 끓어질 듯 울다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난이 지겨워진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지겹고 지겹거든요. 어머니두, 주렁주렁 매달린 동생들두, 지겹구 미워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깨끗이 보내 준 거죠. 그런데 그런데, 개는 나를 헐뜯구 헐뜯구…….”

그는 허덕였다. 나는 더욱 당혹감을 느끼며 사랑과 미움은 한 선의 끝과 끝 같은 거여서 말하자면 같은 감정의 표리에 불과하니 그렇게 미워하는 건, 그만큼 사랑의 농도가 깊은 것이며,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는 증거이니 뭐니 뭐니 하며, 위로라기보다 격한 그를 달래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자 그는,

“미워한다구요? 개는 나를 미워도 하지 않아요. 내 결점 내 모자람 내 못난 데…… 내 아픈 모든 것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억을 위해서두 그럴 수가 그럴 수가…….”

나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찾아오지 않았고 마구 허물어져 갔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나쁜 소식이 들릴 적마다, 험한 성격과 못된 소행을 탓하는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래도 나는 그 애를 나쁘겐 말하기 싫어요. 한때 진실로 사랑했으니깐요.”

하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다.

그도 이제 50 고개를 넘었으리라. 나이 들고 때묻은 그 인생의 어느 한 구석에 아직도 잃은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배반을 노여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기간을 아프게 서럽게 성숙으로 얻은 관용이 결국 파국으로 끝난 연인의 운명을 아파해 줄 수도 있음직하지만, 격랑에 시달리고 비바람에 닳아 싸늘하게 식은 마음이 무관심의 폐허로 화해 버리지나 않았는지…….

사랑은 잃은 후에도 많은 사연을 갖는다. 사랑을 잃음으로써 어떤 이는 인생을 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깊고 큰 것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잃진 얻진 사람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한다. 테니슨의 말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잃은 자는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생존의 확신이며 삶 자체를 뜨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샌 들

멋으로 샌들을 신은 것은 여학교 2학년 때였었다고 기억한다. 7월에 들어서자 바닷가의 소나무 숲에 임간 학교를 만들어 본교에서는 수업이 없었다. 임간 학교의 수업은 스케치·수예·가벼운 문학 작품의 감상과 수영뿐이었다. 학기말 시험도 끝나 방학을 기다리던 우리는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삼복 중에도 소매가 긴 하늘색 세일러 제복에 하얀 무명 양말 까만 구두를 신고 둥근 파나마모로 빈틈없이 몸을 가리고 다니다가 수영복이 아니면(상학년과 하학년이 교대로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줄곧 수영복만 입고 있었지만) 간단복(주로 소매가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바뀌어지니 소녀들은 해방을 맞는 것처럼 개운해 했다.

짧은 소매의 간단복을 입고 보니 흰 무명 양말이 쑥스럽고 윤나는 까만 구두가 유난히 무거웠다.

임간 학교가 시작된 지 사흘날 양조장집 아이가 보지 못하던 신발을 신고 왔다. 발바닥 크기만큼 발바닥 모양으로 깎은 나무 판때기에 흰색과 하늘색의 체크로 된 텐트 천이 가로 걸쳐지고 하얀 맨발이 그 천피에 꿰어져 있었다. 모여든 아이들에게 그는 득의를 억지로 누르

고 말했다.

“이거 샌들이야. 요시에네 집에서 샀어.”

양품점집 딸인 요시에가 이튿날 노란천의 발걸이가 달린 샌들을 신고 왔다. 시원해 보인다고보다 무척 멋이 있어 보였다. 며칠 가지 않아 우리 반에는 샌들을 걸치지 않는 아이가 거의 없게 되었다.

풀 속에 독충이 숨어 있기도 하는 임간 학교에서는 구두가 훨씬 안전한 신인지도 몰랐지만 얼마 안 가 전교생의 거의 전부가 바닷가에 서는 샌들을 신게 되었다.

사실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 젖은 발에 구두같이 기분 좋지 않은 것은 없다. 젖은 발을 닦을 번거로움도 없어져서 샌들은 인기가 높았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저 편편하였던 바닷나무 뒤가 약간 높아지고 갈색 순색 흑색을 칠해 나무결을 둔구기도 하고 발걸이 천도 여러 가지로 고운 물감을 들여 그것이 멋이 되었다. 샌들은 임간 학교에서만 애용된 것이 아니고 집에서는 물론 대수롭지 않은 외출에도 곧잘 신겨졌다.

간편하고 가볍게 신겨졌던 샌들에 전 체중을 의지하게 된 것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부터다. 극도의 물자난에 고무신 구두는 귀중품 중에도 으뜸을 닦는 귀중품이었다. 힘들여 손에 넣은 구두 고무신을 아끼기 위하여 마지못해 샌들을 신었다. 전쟁이 치열해지자 샌들 만드는 솜씨는 형편이 없어져서 툭하면 발걸이가 떨어졌다. 겹다가가 이 발걸이가 떨어지면 아무렇게나 못으로 두들겨 박곤 하기 때문에 발걸이 천이 이내 망가졌다.

귀찮고 번거롭고 을씨년스러운 일이 샌들로 인하여 자주 생겨 샌들이라면 결핍의 상징같이만 느껴졌었다. 그래서선지 해방 후 다른 신을 것이 손쉽게 얻어지고부터는 샌들을 신을 생각이 없어졌다.

샌들은 누가 먼저 신었던 것일까? 희랍 조각을 보면 비슷한 것이 발에 신겨져 있는데 물론 현재 것과 꼭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원은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맨발로 걸어도 무방한 남구(南歐)에서 신은

것 같기는 하지만 고미술에서 보는 회랍 조각의 의상 주름이 주는 중후함에 비해 신고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발알개로 보여 너무 초라하다. 심지어는 투구 갑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도 샌들 비슷한 발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 사람의 발바닥은 우리 것보다 훨씬 두꺼웠던 모양이다.

며칠 전 양화점 앞을 지나노라니 실로形形色색의 샌들이 수없이 진열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다. 그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그 앞에 서는 사람이 드물다. 이제 샌들은 신기한 것도 아니고 또 전 체중을 담아야 할 만큼 불가결한 것도 아닌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웬지 반가웠다. 며칠 후 바닷가로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고르지 않고 한 켤레를 사기로 하였다. 마닐라 삼으로 발걸이를 만든 수수한 것이다. 맨발에 까실한 삼의 감촉이 신선하였다. 처음 샌들을 신었을 때의 감촉이 어렴풋이 되살아나 그리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바다행이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남자의 원색 옷차림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종로에 명물 사나이가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본 일이 없었지만 그의 이름 ‘깍두기’와 그의 유명한 차림은 익히 알고 있었다.

깍두기는 날마다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독특한 복장으로 종로에 나타나 서성거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곤 한다는 것이다. 몇 년을 그러는 동안 종로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놀리면서 아꼈다. 어쩌다 모습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깍두기의 차림새는 유명했다. 타는 듯한 빨강 넥타이에 까만 모자·까만 양복, 그리고 가느다란 단장——그래서 어쩌다 야한 차림새를 보면 “깍두기가 뭐, 빨간 타이를 매구……”들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말이 없고 행인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웃어도 전연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어린 마음에 나는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그를 상상했는데 자라서 보들레르를 읽게 되고부터 그는 어쩌면 세인들의 웃음거리의 바보가 아니고 보들레르의 심취자였으며 댄디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댄디즘이 무엇인가 나는 잘 모른다. 보들레르에 의하면 댄디란 돈

많고 틈 많고 너무 놀아서 감각이 둔해져 있기는 하지만 행복을 좇는 이외에는 아무런 직업도 갖지 않는 사나이, 젊어서부터 남들로부터 공대만 받고 멋이란 직업밖에, 몸에 붙인 것이라곤 없고 언제나 남과 전혀 다른 특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나이. 자신 속에 미의 관념을 육성하고 정열을 만족시키며, 느끼고 생각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않는 사나이. 예의·범절이라는 외적 제약 속에서 독창성을 갖추려는 열렬한 욕구를 안은 사나이. 그러므로 그는 어느 면에서는 정신주의나 스토아파 철학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단연코 비천한 인간일 수 없는 것이 댄디다. 그는 죄를 범할지라도 명예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각두기가 댄디일 수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를 눈으로 본 일도 없고 그의 내용을 모르는 나로서는 알 길 없지만 사촌오빠의 말로 미루어 보면 그는 정신적으로는 댄디일 수 있었지만 조건적으로 댄디가 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이 댄디란 말은 죽어 없어진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이다.

“저 젊은이 좀 봐, 빨간 셔츠에 파란 양말. 제판은 댄디인 척하지만…….”

이런 말을 곧잘 듣는다.

“그 꼴에 노랑셔츠는 쫓쫓…….”

이런 말도 흔히 듣는다. 듣고 보면 꼴불견이란 생각도 가끔 든다.

이 시대에 댄디란 시대 착오며, 또 공간 착오랄 수밖에 없는데다가 하물며 그 댄디즘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데 있어서라.

그러나 요즘 거리에 흔히 보이는 남녀들의 다채로운 차림새를 나는 댄디와 결부시킬 생각은 없다. 그들의 차림새는 제 멋에 한 짓이지 댄디의 무겁고 까다로운 제약에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하긴 모두 단정하게 수수하게 차리고 다니는데 원색이 불룩 솟아 보이는 것은 약간 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젊음의 창일이라고 너그럽

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넘쳐 흐르는 젊음의 처리가 음습한 곳으로 몰릴 때에 오히려 위험을 느끼게 된다. 누적된 것이 크게 터지는 것보다 작은 발산으로 처리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와 경우라는 것이 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무엇을 하든 자유라고들 하지만 남이 불행을 당했을 때 빨강 셔츠를 입고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인격 내지 심정을 의심케 한다.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상갈 때 화려한 차림새를 하는 사람은 흔히 보는데, 깃옷 입고 침줄과 새끼줄을 몸에 붙인 죄인의 모습을 한 상주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한다.

말이 자꾸만 빗나가는 것 같지만 젊은 남성들의 원색 차림은 그들의 감정 표시라고 본다. 떠들고 싶은 연령이니깐 그런 색깔을 몸에 택하는 것이 아닐까. 무방하다면 무방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해변가나 산이 아닌 이상 내 아들들은 너무 눈에 띄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원색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차림은 아니니만큼 왕년의 깍두기만큼도 제 것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깐 ‘아 요즘은 원색을 많이 입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또 가볍게 이렇게 덧붙여 보면 어떨까.

“허나 저런 빛을 대낮에 걸치고 거리를 쏘다니는 걸 보면 좀 딱하군…….”

끝으로 멋을 부리고 싶은 친구에게 내가 읽은 정말 멋쟁이의 취미를 전해 주고 싶다.

제정 러시아의 대 귀족인 그는 야회복 속 셔츠에 침 한 방울이 튀어도 단추를 끼다가 다시 벗고 갈아입지만 사냥을 갈 때는 갈기갈기 떨어진 옷과 혁대에 총만 보석으로 상감한 것을 애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멋일 것이다.

얼 굴

누구나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가 술한 사연을 안고 산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괴로워하며 또 즐거워하며 산다. 사랑은 꼭 로미오와 줄리엣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발코니의 위아래라야 하는 법도 없다. 미남 미녀일 필요는 물론 없다. 구점스레한 창고 앞에 굴러 있는 토관(土管)에 앉아 여드름투성이의 직공이 죽은개가 파리똥같이 뿌려진 여직공과 나누는 밀어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다.

사연은 어디에나 있다. 이 술한 사람들의 술한 이야기들이 실체(實體)를 가진다면 사람 무게보다도 무거워 지구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가슴 속에 사연을 접어 넣고 산다. 그러나 어찌다가 마음의 갈피 속에서 접어 두었던 사연을 꺼낸다. 그리고 이런 충동은 전연 모르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갖는 때가 많은 것 같다.

몇 해 전 일이다. 나는 북(北)이태리를 도는 관광 버스를 타고 있었다. 동양인이라고는 나 한 사람뿐인데 그래서 나는 버스 속의 사람들을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었다. 노경에 든 부부가 몇 쌍, 역시 늙은 여인들이 몇 사람, 파파 늙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운명할 것 같은 80

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신혼 여행인 듯한 두 쌍의 젊음이 그리고 친 구끼리 함께 다니는 듯한 젊은 여성이 넷——알맞은 인원이었다.

이미 노경에 들어 있지만 피칠을 한 것 같은 붉은 입술의 할머니는 점잖게 늙은 할아버지에게 노상 갈라지는 높은 음성으로 웅석 비슷하게 지껄이고 있고, 또 다른 할머니는 처진 양볼을 심술스럽게 움직이며 무어라고 투덜대고 있었다. 여자끼리 여행하고 있는 듯한 그룹은 대개가 둘씩이 짝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살펴보니 둘 중 하나는 모두 다른 하나를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파파 할머니는 뼈와 가죽만 남은 팔에 괴상한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팔찌를 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녀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 장식은 열네 개이며 손자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산 것이라는 것이다. 열네 사람의 손자녀를 가져 장식이 열네 개란다. 열네 개의 팔찌 장식으로 하여 간신히 인간과의 유대를 지니고 있는 이 노파는 이제 잔해(殘骸)라는 말로밖에 표현(表現)할 수 없는 처절(淒絶)한 모습으로 별정계 충혈된 주름에 싸인 눈을 꺼벅거리고 있었다. 얼굴을 덮은 주름살은 상처로만 보였다. 술한 사연들이 무자비하게 칼질을 한 그런 얼굴이었다.

그 잔해(殘骸) 뒷자리에는 꽃이 핀 듯한 젊음이 있었다. 휴가를 이용하여 다니는 모양으로 20 전후의 꽃다운 아가씨가 넷, 재잘거리며 매양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그 중 한 아가씨는 진주빛 살결을 가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인은 웬지 다른 아가씨들보다 명랑하지가 못하고 조용하여 오히려 눈을 끌었다.

버스가 플로렌스에 도착하자 너무나 볼 것이 많아 우리는 차에 올랐다 내렸다 해야만 했다. 파파 할머니는 마른 가지 같은 다리를 휘청거리면서도 기를 쓰고 일행과 행동을 같이했다. 그녀는 자주 넘어졌다. 보다못해 부축해 준 것이 잘못(?)이어서 나는 그때부터 줄곧 이 할머니의 상대를 해야만 했다.

“어디서 왔수? 젊은이가 기특도 해라. 이런 늙은이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니.”

주름살투성이의 늙은 얼굴에 쪽고른 의치(義齒)는 오히려 섬뜩하다. 그녀는 그 의치가 끼워진 주름투성이의 입술을 오물거리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죽기 전에 다시 이태리엔 와 보구 싶었다우. 나는 캘리포니아에 줄곧 살고 있지만 신희 여행을 구라파로 왔었지. 그이가 스물다섯, 내가 열아홉 때였지——아참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어.”

그는 뼈만 남은 검버섯투성이의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핸드백을 더듬더니 노오랗게 변색된 엽서 크기의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나에게 건넸다.

사진은 프레비 판타나를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남녀가 미소하고 있는 것이었다. 청년은 밀집 모자를 쓰고 검은 보타이를 매고 여인은 챙이 좁은 모자에 웨이트 라인이 쳐진 원피스 차림이었다. 행복에 취한 듯한 얼굴에 보조개가 퇴색된 사진이지만 귀엽게 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주 예쁘셨군요.”

하니깐 할머니는 무표정한 채,

“그랬지.”

하면서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낸다.

“이건 우리 결혼 사진이지.”

그 사진의 얼굴은 좀더 크게 찍혀 있었다. 미인이었다. 아름다운 큰 눈, 달걀형의 윤곽, 도톰한 작은 입, 알맞게 높은 예쁜 코——할머니 뒷자리에 앉아 있는 소녀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정말 미인이십니다.”

노파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모두들 그랬지.”

“바깥어른도 참 멋지시군요.”

“그렇구말구.”

“참 행복하셨나 보지요?”

“그렇지도 않아. 그야 얼마 동안은 행복했지만…….”

할머니는 망설이는 듯하다가 갑자기,

“옛이야기지만 들어 줄라우?”

하는 것이었다. 구라파로 신혼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유복했던 그의 남편은 셋째 아이를 낳고 난 뒤 갑자기 증발해 버렸다. 갱에게 살해(殺害)되었단 말도 있었고 정부(情婦)와 도망을 쳤다는 말도 있었지만 진상은 아직도 모른다. 그녀는 열심히 자녀들을 길렀다. 아름다웠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유혹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재산(財産)과 자녀들을 끝내 지켰다. 그리고 현재 손자가 열넷 ——

“손자가 열넷이지만 외로워.”

노파는 한숨을 쉬었다. 상처 같은 주름이 움직였다.

갑자기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뒷자리에 앉은 소녀들이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름다운 얼굴이 새침을 떼고 있었다. 그 얼굴이 웬지 퇴색된 사진의 노파의 젊은 시절의 얼굴로 보여 나는 앞자리의 노파의 얼굴로 시선(視線)을 옮겼다. 그러자 언젠가 읽은 호돈의 소설이 머리에 떠올랐다.

늙는 것을 한탄하던 옛날의 미인이 젊어지는 약을 먹고 다시 젊어 아름다워진다. 동시에 그녀는 젊었을 때처럼 경박(輕駁)해진다. 그러한 그녀 뒤에 거울이 있다. 거울에 그녀의 모습이 비친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약을 먹고 젊어진 모습이 아니고 늙고 추한 노파였던 것이다.

나는 앞자리의 노파의 얼굴과 뒷자리의 소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자 앞자리의 노추(老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울에 비친 뒷자리의 소녀의 아름다운 얼굴로만 보였다.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처음 보았을 때는 신기하기만 하였다. 파아란 잎 위에 떨어진 진홍 빛 새의 깃털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눈에 익고 보니 자연이 피운 꽃이라기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차라리 인공의 미를 느꼈다. 이제 할머니들조차도 ‘포인세티아’라는 이국 발음이 서툴지 않은 계절의 꽃이 되고 한겨울을 따스하게 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보는 이 꽃! 나에게서는 아픈 아픈 진홍 빛이 되었다. 처음 그와 함께 이 꽃을 보았을 때의 그 반짝이던 눈은 영원히 감기고 그를 생각할 때 이 진홍은 나를 경건케 한다.



팻단과 경찰관

자동차들은 먼지에 싸여 달려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그 먼지를 안으로부터 밝히고 있어 먼 데서 보면 오렌지빛 거대한 솜사탕이 굴러오는 것처럼 보였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솜사탕 속에 박혀 있는 씨같이 보였던 검은 물체——자동차가, 정확히 말하여 군용차들이 먼지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 곁을 지나갈 때는 무서운 음향과 숨이 막힐 것 같은 먼지를 사정없이 끼얹고 바람같이 스쳐갔다.

우리는 두 사람이었지만 나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꼬리를 이어 달려와서 스쳐가는 군용차를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앞을 서고 K 씨 부인이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다 30을 갓 넘은 나이에 두 사람이 다 몹시 여위어 있었다. 그 위에 우리들은 둘이다. 3관쯤이나 되는 파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발에서 갓 뽑아 흙도 채 털지 못한 팻단을 그쯤이나 많이 머리에 이고 있었다. 두상(頭上)은 완전히 가려져서 마치 파같이 생긴 얼굴을 가지고 사람 몸을 한 괴물같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우리는 젊었고 그리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 고난의 백 일을

견디어 낸 우리는 인생의 기쁨에 설레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실감이 한 호흡에 절절이 맺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전 영혼이 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다.

아직 전방에서는 전투가 치열했다. 질풍(疾風) 같이 스쳐가는 군용차는 모두 북진중에 있는 것을 알고 머리에서부터 — 아니 파에서부터 먼지를 뒤집어쓰면서도 그저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그 당시 우리는 항상 흥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수복의 감격과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허물어졌던 모든 것을 다독거려야 해서 의욕에 차 있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허물어진 곳을 못질해 고치는 것도 벽과 창호를 바르는 것도 모두 나였고 날마다 분탄을 개어 뭉쳐 햇볕에 말리어 겨울에 대비하는 것도 나 자신이 했다. 이부자리며 옷가지를 챙기고 심지어는 많은 가족이 3개월 이상이나 채운 변조(便槽)를 혼자서 쳐내기까지 했다.

먹을 것에 대한 준비에는 굶주림의 공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 더욱 신경을 썼다. 11월에 들어서자 김장 걱정이 앞섰는데 누군가가 의정부에는 밭에 놓고 파는 김장이 있다 하여 이웃의 K씨 부인과 어울려 몇 고랑을 사서 아침부터 진종일 무·배추를 뽑아 천신 만고 끝에 빌린 지프차와 트레일러에 김장을 싣려 보내고 우리는 차에 채 싣지 못한 팻단을 이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초겨울 스산한 옅은 해 밑에서 바람도 쌀쌀한데 변변히 먹은 것도 없이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면서 사기 어려운 김장감을 산 기쁨과 김장에 쓸 것과 겨울 움파를 내먹을 파를 많이 그것도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기뻐, 우리는 그리 피곤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재재거리던 도수는 점점 떨어져 갔다. 얼마를 걸었는지 보름 가까운 달이 왼편 하늘에 제법 높이 떠 있고 바른편에는 파귀신 같은 그림자가 둘, 길의 고저에 따라 굴절하며 길 옆의 논두렁에까지 뻗쳐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서울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K씨 부인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길로 곧장 가면 되겠죠, 머.”

“좀 쉬고 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팻단이 험거워 한 번 내리면 흩어져 다시 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힘없이 K씨 부인은 단념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이 적어졌다. 갑자기 피로가 덮치고 팻단을 인 목이 어깨 사이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팻단을 내동댕이칠 수는 없었다. 팻단은 점점 더 무거워 온다. 좀 앉아 쉬고 가려고 해도 한번 앉으면 팻단 무게 때문에 다시 일어나질 것 같지가 않았다. 팻단 밑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방향 감각이 둔해져서 나는 서울쪽이 아니고 의정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었다.

감은 눈시울 속에서 작은 별들이 몇 개나 아른거렸다. 이제 김장도 움파도 다 싫어졌다. 풍선의 팽창에 한도가 있듯 긴장과 인내도 한계가 있었다.

그때였다. 바로 뒤에서 클랙슨 소리가 났다.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은 극히 드물었는데 그 드문 차가 바로 우리 뒤에 머무는 것이었다. 역시 군용 스리쿼터였다.

“어디를 가시는 거죠?”

달을 등져 온통 그림자가 된 남자가 굵은 소리로 묻는다.

“서울에……”

우리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타시죠. 서울까지 태워다 주지요.”

우리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주저할 사이도 없이 하나씩 육중한 팔에 부축되어 차 위에 올랐다. 팻단을 내려놓을 기운조차 없는 우리

를 도와 그들은 머리 위의 짐을 내려놓아 주었다. 짐이 내려지자 오히려 현기가 더 심해졌다.

“하하하하…… 우리는 파가 걸어가는 줄 알았죠.” 한 사람이 웃으며 말하자 모두 “와하하하” 하고 웃었다.

그들은 운전사를 빼고 5, 6명이었으며 군용차를 타기는 했지만 군인이 아니고 경찰관들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머리의 흠을 털어 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한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팻단을 이렇게 많이 이고 밤길을 가야 할 분들 같진 않은데.”

하고 의아해 한다. K씨 부인이

“아 모르세요. 이분 한무숙 씨예요.”

그러자 운전석 가까이 앉아 있던 점잖아 보이는 중년이,

“그러셨습니까? 〈역사는 흐른다〉를 감명 깊게 읽었죠.”

“네?”

어리둥절해 하는 나를 보는 그는 새삼 놀란 듯이 “그런데 이 먼 길을 무거운 걸 이고 —— 댁이 어디십니까,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덕분으로 우리는 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을뿐더러 집까지 편안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경찰관 중에도 신간 소설까지 읽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친밀감을 가졌다.

올해도 김장 걱정을 해야 할 계절이 되었다. 이 계절이 오면 나는 그 팻단의 중량감과 친절한 경찰관들의 호의를 되살리고 자칫 태만해지려는 내 자신에 채찍질을 하는 동시에 그때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며 궁금해 하기도 한다.

그날의 찬란한 바다, 지금은 수심만이……

내 기억 속에 무수히 산재하고 있는 용기 중에서 그 해 여름의 모습은 그 해맑은 햇빛과 푸른 물결을 배경으로 싱싱하고 생명력에 차 있으며, 아름다운 것이었다.

용기가 대학에 들어간 후 처음 간 휴가였다. 그렇게 휴가객이 붐빌 줄은 모르고 예약도 없이 간 해운대에는 묵을 곳이 없어 우리는 짐을 든 채 송도로 갔다. 그러나 송도는 아예 콩나물시루였다. 아침 식사를 설치고 떠난 길이라 무척 시장했으나 요기할 곳도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송도였다.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나갔다. 택시 잡기가 힘이 들어 광복동에 도달했을 때는 모두가 늘어져 피서객이라기보다 피난민의 몰골이었다.

겨우 점심을 들고 거리에 나갔을 때다. 호들갑을 떨며 달려온 초로의 부인이 백 여사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었던 백 여사는 우리들의 몰골을 보고 찔찔 뛰었다.

“시사아나(세상에) 아는 사람도 많을 끼인데 이기이 무신 꼴이고.”

그는 마다하는 우리를 다방에 앉혀 놓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던 본의와는 달리

부산의 손님이 되었다.

이튿날 남편의 친구분이 배를 한 척 빌려 왔다. 그리 크지는 않으나 근해에서 고기잡이하기엔 알맞은 배였다. 아이들이 흥분하여 전날의 고초를 깡그리 잊고 발이 땅에 붙지 않을 지경이었다. 감천을 돌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낚시질을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찬란한 태양, 녹색이 감도는 푸른 물결은 부서지는 햇빛을 깔고 잔잔하였다.

나는 완전히 ‘손님’이었다. 처음 몇 마리 걸린 물고기가 즉석에서 조리되었으나 도마를 만질 필요도, 칼질을 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인지(아마 뱃사람이었을 것이다) 건장한 중년의 남자가 뱃바닥에서 익숙한 솜씨로 생선을 다루고 아직도 세포가 살아 있는 생선회는 알루미늄 접시에 담겨 미리 마련해 온 듯한 초고추장을 곁들여 우리 앞에 놓여졌다.

햇볕이 점점 더 강렬해져 와서 나와 두 딸들은 신문지로 고깔을 만들어 썼다. 그러는 우리를 웃던 남자들도 하나씩 둘씩 신문지를 서투르게 접어 머리에 썼다. 해는 높이 떠서 우리들 정수리에 있고 20명 쯤 되는 배 위의 사람들은 오무라든 각자의 그림자를 발 밑에 감으며 뱃전을 오갔다. 고기잡이는 차차 가정에 들어갔다. 우리 세 모녀를 뺀 모두가 낚싯대를 물 속에 드리웠다. 고기잡이 경쟁이 되었다. 찌가 물릴 때마다 환성이 울랐다.

통통거리는 발동기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은 가린 것 없는 물 위에서 또렷하게 들리고 어찌다가 울고 가는 갈매기의 소리가 거기 섞였다.

호기는 좀 점잖고 봉기는 너무 어리고 영기와 현기는 생글거리며 보고만 있었으나 열아홉 살의 용기는 어쩔 줄을 모르며 좋아했다. 물 위는 그리 더웁지도 않은데 그는 웃옷을 훨훨 벗었다. 여자같이 흰 살결이 드러나고 이내 그 흰빛은 벌겍게 물들었다.

“야…… 서른 마리째다……”

용기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예쁜 색깔을 가진 조그만 것이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건 먹지 못해.”

누군가가 편잔을 놓았다.

“먹어야만 하나 뭐, 잡는 재미지.”

용기는 사뭇 불만이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은 별정계 타서 콧등이 번질거린다. 그는 다시 온 정신을 낚싯대와 물 속에 쏟으며 결눈질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괴상한 고함소리가 들렸다.

“야아 잡았다. 잡았다. 강아지만 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고함소리였다. 그 쪽을 보니 은빛 비늘을 햇빛에 반짝거리며 두 자쯤 되는 물고기가 낚싯대를 휘면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용기는 그래도 결눈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용기가 괴상한 소리를 냈다.

“잡았어! 큰 것, 정말이야.”

정말이었다. 아버지가 잡은 것 못지않게 큰 물고기를 용기는 잡았던 것이다.

용기의 눈은 버얼건 얼굴에서 빛나고 쪽 고른 하얀 이가 표간(標看)해 보였다. 그것은 소년으로만 알았던 내 아들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수확은 모두 합해 2백 마리가 넘었으나 큰 고기는 부자(父子)가 낚은 것뿐이고 먹을 만한 것이 스무 마리 남짓—— 나머지는 색깔만 곱고 먹을 수 없는 잡어들이었다.

용기는 그날 밤 끄끙 앓으며 그대로 끓아떨어졌다. 드러내었던 등에 물집이 생겨 아팠지만 낮의 피로를 이기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이제 배낚시를 주선했던 백 여사도, 우리 용기도, 이 세상에 없다. 그 해 그 여름 그리도 싱싱한 젊음에 넘치며 생명을 구가했

던 우리 용기…….

다시 또 여름을 맞으며 그를 서러워한다.

죽음이란 정녕 누군가가 말하듯 항상 처진 그물인가. 어떤 큰 뜻으로 그물이 올려지면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것인가.

나는 모른다. 다만 그 찬란한 햇빛을 깔고 잔잔했던 물 위에서 그와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그가 간 후에도 세월이 흘러간 후에도 나에게 는 뿌듯하게 아프게 얹혀 있을 뿐이다.

죽 음

— 상념이 떠나지 않는 곳

전능하신 창조주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번째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좋으니라.” 하셨다. 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도 “저들이 좋으니라.” 하셨다. 이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모두 좋으니라.” 하셨다. 그러나 맨 마지막 날인 제육일(第六日)에 당신의 모상과 같이 만드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이 좋으니라.”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창조주가 인간을 완성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신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완성시켜야 하고 또 세계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만들어질 때부터 완전치 못했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신께 죄를 얻는다.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죄에 약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애초부터 모순과 부조리와 죄 속에서 살며 언제나 죽음과 대면하고 있다. 절대로 면할 수 없는 죽음이고 보니, 산다는 것은 유한(有限)의 생명의 하루를 없애는 것이며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에의 하루만큼의 길이의 접근이며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불태운다는 말이 실상 어리게 쓰여지는가 보다.

장자(莊子)는,

“인간은 영접의 강에 흘러가는 나그네다. 그 어느 지점에서 배에 몸을 싣고 하류에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 주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배를 내리는 나그네와 같다.”

고 하였지만, 살아 오는 동안의 그 수없는 그네들의 하선(下船)을 보아 오면서 더욱 두려움이 커진다.

죽음,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항상 죽음과 인접하고 있었던 까닭에 어느덧 죽음에 익숙해 있었다고 외람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새삼 송구스러워졌던 것은 스물넷 되던 해에 오랜 병고 끝에 시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다. 아직 어린 나이에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나는 죽음과 주검을 그때까지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떠한 숭고하고 존엄한 죽음도 하루바삐 처리해야 할 끔찍한 물체에 지나지 않는 주검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에 빠졌었다.

어려서부터 집에 드나들던 대구 떨꾸지 할머니는 관상을 기막히게 떨꾸 잘 본다고 그런 떨꾸지 별명을 가졌는데, 항상 하는 말이 육신은 혼(魂)집이라는 것이다. 육신과 영혼은 따로 있는 것이어서 영혼이 잠깐 빌리어 든 집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이다. 집이 낡거나 싫어지면 혼은 그 집을 떠난단다.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을 드릴 때 이외에는 그는 머리도 잘 빗지 않고 이도 닦지 않고 얼굴도 잘 씻지 않았다. 가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약간 황당하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이 말의 뜻을 실은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절감했던 것이다.

6·25 동란으로 가족 중에서 열세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도 남은 목숨을 위하여 서둘러 피난길을 떠났던 모진 마음과 그 목숨들을 이어가기 바빠 역올하게 간 사람들을 어느덧 잊고 있었던 무정함을 뉘우

친 것은 어느 만큼의 안정을 얻은 후였으니, 장차 내가 떠난 후도 내가 차지했던 공간 역시 이내 메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해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을 떠나니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을 견잡을 수 없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가엾은 백모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심히 귀가 울리나, 아무개가 갔나 보다.” 하고 서러워하시던 생각이 난다. 동갑네가 떠나면서 옛 친구에게 그렇게 알림장을 준다는 것이다. 요즘 와서 백모님의 이 서러움을 실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저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까닭일지도 모른다. 길게 살기를 원하지만 외롭게 남는 것도 역시 슬픈 일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잊고 지내는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것은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이다. 그럴 때는 장자가 말한 인생의 강, 허무의 강 위에 뜬 위태로운 배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나그네’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내 자신의 모습도 보인다. 각자가 형형색색, 같은 모습은 없다. 릴케가 말하듯 사람은 그 모두가 자신의 죽음을 가지기 때문이리라. 나는 역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다.

순교는 그 사람의 각오라든가 의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 즉 은총인 것이다. 누구나가 대왕생(大往生)을 하고 싶지만, 죽음 역시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한다. 유기체의 육신은 육신으로서의 슬픈 약속과 의지가 있고, 그 사람의 정신력 밖에 있을 때가 많은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어느 사형수의 죽음은 나이 어릴 때 읽은 후부터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진지한 인도주의자였는데 정치범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옥중에서의 깊고 괴로운 사색 끝에 조용히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스물세 살의 젊고 건강한 육신은 집행인을 놀라게 할 만큼 완강한 저항을 보인다. 이 슬픈 죽음은 그의 의지와 정신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뜻밖인, 약하고 추한 죽음은 남는 사람에게 큰 실망과 배반감을 주는 것이지만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은 출발점부터 늙도록 서서

히 연소시켜 쇠잔의 재로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젊어서 죽는 것을 요절(夭折)이라 하여 아파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목숨과 절정에서 절단되는 목숨을 같은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젊은 죽음이 남기는 애상(哀想)과 상실감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과 죄스러운 입에 올리기도 차 두렵고 죄스러운 것이다. 다만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에서 죽음은 떠나는 일이 없다. 작고한 김말봉 선생이 가엸은 딸을 잃은 후 “보옥이가 간 곳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시던 말이 내 자신의 심정이 될 줄이야 짐작조차 했던가. 아들 ‘용기’를 잃은 후부터 내 상념은 죽음 언저리를 떠난 일이 없다.

저물어 가는 인생의 길목에 서서, 아직도 자질구레한 인생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자신이 민망할 때가 많다. 피안을 믿기에 죽음은 삶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허무도 완성의 다른 형태라고 풀이하면서 돌이켜보는 지난 길은 구겨진 낙서장이 굴러다니는 지저분한 길같이만 보여 소연해진다. 고운 글씨로 쓴 값진 삶의 기록을 차곡차곡 싸두지 못하고 헛되게 헤집어 본 삶을 낙서로만 적었다가 구겨 던져 버린 데 대한 잘못이 뉘우침만으로 보속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드실 때 짐짓 미완성으로 남기시고, 스스로 완성시키기를 바랐던 창조주의 큰 뜻에 보답한 삶이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어미는 앞서 간 아들의 영혼의 맑고 아름다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구드릴 때 대원자(大願者)로서 성인들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을 부른다.

죽음이 그와의 재회(再會)를 뜻하는 것이라면 내에 있어 죽음은 재회의 기쁨을 열어 주는 소중한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은 그의 아름다운 영혼을 슬프지 않게 할 것이며, 하늘 높은 분의 뜻에 늦게나마 따를 일이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겸손하게 그러나 떳떳하게 하선(下船)할 준비를 하면서.

속옷만 걸치고 계셨던 박용원(朴鏞源) 박사님

UN군의 폭격은 그날따라 유독 치열했다. 공포에 떨면서 아이들은 엄마 옆으로 다가붙는다. 아홉 살을 맞기로 젖먹이까지 연년생이 아니면 한 해 건너 어린것들이 다섯 — 남편은 어디 가서 숨었는지 며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품어 안았다. 초롱초롱한 열 개의 눈들이 공포와 불안과 신뢰를 담고 엄마를 쳐다본다. 그러나 내 초라한 날개는 다섯 어린것들을 감싸주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병들어 있었다.

무서운 폭격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데 나는 어린것들을 품어 안은 채 의식이 가물가물해 갔다. 아득히 들리는 아이들 우는 소리와 격심한 통증에 정신이 들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을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 그러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위언저리를 짓이겼고 고열로 나의 여윈 몸은 타고 있었다. 나는 또 정신을 잃었다.

언제나 어른을 뒤흔드는 몸이었는데 그때따라 집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제 나이도 모르는 좀 덜된 일하는 사람과 열 살도 못 되는 아이

들뿐이어서 그런 상태로 시간이 자꾸만 갔다.

집에 드나들던 성씨가 찾아온 것은 오후 늦게였다. 의사는 모조리 징용되어 가서 동네 병원은 모두 비어 있고 월 새 없는 공습으로 경보가 나 있는 동안에는 통행이 금지되어 왕진을 청하러 갔던 성씨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의사 한 분을 모셔 왔다. 증상을 묻고 그녀는 위경련이라 하며 모르핀을 놓고 갔다.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열은 계속되고 있는데 성씨가 연락해 둔 이 규원 선생이 체신 인민 병원의 근무에서 늦게 돌아오셔서 피로하셨을텐데 와 주셨다. 그는 급성 맹장이 틀림없는데 이 판국에 수술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고 긴 한숨을 쉬었다.

완전히 어두워지자 공습이 뜸해졌다. 다리를 다친 것처럼 위장한 성씨는 남이 볼 때는 절고 안 볼 때는 뛰어 세브란스 병원의 박용원 박사님을 찾아갔다. 박 박사님은 우리 나라 굴지의 외과 의사다. 병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그분은 그래도 나를 박사 자택에 가 있으라고 이르고 병원을 ‘탈출’하기로 하셨단다.

우리집이 있는 돈암동에서 신당동까지는 무수한 관소(關所)가 있었다. 인민 위원회, 여성 동맹, 청년 동맹, 내무소 등등 성씨가 빌려와서 끌고가는 인력거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서 시간은 자꾸만 지체했다.

긴장과 송구스러움으로 아픔을 얼마큼 잊고 있던 나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받는 것이 진실로 미안하여 이제 아프지 않다고 굳이 사양했지만 두꺼운 방공 커튼을 첩첩이 치고 검은 천으로 짠 전등 아래서 수술은 시작됐다. 1950년 7월 31일 밤의 일이다.

삼십 분 이내에 끝날 것이리라는 수술은 세 시간 가까이 걸렸다. 모르는 사이에 만성으로 앓았던 모양으로 맹장은 유착이 심했고 터져서 복강 속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몇 시간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나중에 안 일이었다.

완전 소독이 된 캡과 마스크, 수술의를 입고 집도하는 박 박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막히는 더위를 못 이겨 역시 의사이신 부인에게 몸에 걸쳤던 옷을 하나 하나 벗기게 하셨는데 부인은 가위로 그 옷들을 잘라 내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수술이 끝날 무렵에는 병원을 ‘탈출’할 때 데리고 오신 조수(누구신지는 아직도 모른다)와 함께 그는 팬츠 하나만 걸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지금 성장한 아이들을 대견하게 생각할 때마다 나는 박 박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으로 정신을 잃어 가며 있던 내 눈에 비친 팬츠 하나의 그 모습을 더없이 성스러운 것으로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리 선생과 나

—— 그분의 회갑을 맞이하며

나는 ‘김동리 씨’에게 원한이 있었다. 만나 본 일도 없고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역겨워하고 있었다.

1949년 —— 동란이 나기 전해 일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노발대발하셨다.

“애! 얌전하게 살림이나 살고 있으면 이런 봉변을 할 까닭이 없잖니…… 공연히 규중 부인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뭐냐. 또 글을 썼다만 봐라.”

하면서 잡지 한 권을 내던지셨다. <문예(文藝)>지였다. 충충 시하, 대가족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던 나로서는 처음 보는 책이었다.

나는 깡그리 무식했다. 그런 문예지가 있다는 것도 김동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문단적 지위가 어떠한가도 감감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접어 두신 데는 작품 월평의 페이지였다. 서너 사람의 좌담 형식의 합평인데 김동리 씨, 곽종원 씨만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몰래 글을 쓰고 있었다. 어른들이 아실세라, 남편이나 시동생들이

눈치챌세라, 심야에 일어나 누운 채 글을 썼다. 문학 소녀 시절이 없었던 나는 글을 쓰려는 생각도 없이 외국의 문학 작품들을 탐독하면서 국내 작품을 몰랐다. 낯선 이름들이 내 작품을 가지고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金東里：‘민성(民聲)’의 “램프”를 읽었는데 이 작가를 아직 본 일이 없지만 좀 재치가 지나쳐요. 신인이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

문학이란 재치라던가 기교가 그리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郭鍾元：나는 ‘모파상’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라고 좋게 생각했는데요.

순진한 시절이었다. 어머니의 꾸지람도 꾸지람이거니와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눈에 띄면 큰일이었다. 나의 의기는 지극히 저해되었다. 다행히 아무도 〈문예〉를 몰라 별소동은 없었으나 나는 기가 죽었다.

김동리 씨란 누굴까. 바깥을 모르는 신인에게 가차 없는 평을 한 그 사람——모질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김동리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 신문〉 사장실에서였다. 사장실에는 박 사장(月灘) 외에도 몇 사람이 있었다. 생소하여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 키가 자그마한 동안의 미청년(?)이 들어왔다.

“아 참 인사가 없으시지, 김동리 씨예요. 이분은 한무숙 씨——〈역사는 흐른다〉의…….”

박 사장이 말했다. 나의 눈은 저도 모르게 휘둥그레졌다. 신인에게조차 가차없이 매섭고 날카로운 김동리 씨는 무척 착하고 수줍어 보였기 때문이다. 함평에서의 발언을 잊어버렸는지 또 개의치 않는

지 발성이 힘든 사람처럼 띄엄띄엄

“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하였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는 인사였다(귀가 나쁜 사람에게 흔히 있는 일인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내 의기가 저하된 것은 시대 식구들이 그 합평을 읽으면 어찌나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고비를 넘긴 뒤였고 또 첫인상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나는 마음이 풀렸다.

두번째로 그를 만난 것은 노상에서였다. 방앗간에 가는 길이었으므로 나는 식모와 함께 머리에 떡쌀을 이고 있었다. 가는 목이 휘어지도록 인 쌀자배기 무게에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는 나를 보고 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섰다가 갑자기

“핫핫 하하하……”

하고 웃었다. 나는 당황하면서 ‘명랑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다시 놀랐다.

동란이 터졌다. 그는 숨어 있었다. 우리는 이웃에 살고 있었다. 일본말로 방송되는 UN군 방송을 몰래 듣고 거의 날마다 나는 전황을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나를 무척 기다렸다. 그는 내가 전하는 전황으로 일희 일비(一喜一悲)했다. 소년같이 순진한 천성이었다.

그러는 동안 어처구니없게도 그는 인민군 의용군으로 붙들려 갔다. 호주 ‘김창귀’의 이름으로 아무도 김동리와 ‘김창귀’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전국에 수배되어 있는 이 인물은 몸이 약해 쓸모없다는 이유로 풀려나왔다. 이 일은 나를 미소롭게 했다. 어쩌면 그렇게 재빠르지 못하고 서툰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호감이 가고 또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컸다.

오래 앓고 또 불행도 있어 나는 그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얼굴을 잊어버리게쯤 되었을 무렵 자제의 약혼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몸이 좋지 못해서요.”

만나면 으레 하는 말을 그는 이때도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름살 하나 없는 동안이다. 수줍은 듯 말을 떠엄떠엄하는 버릇도 전과 같았다. 가차 없는 잔인한 세월도 그 곁을 스쳐만 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불빛 까닭인지 나는 그의 안색에 놀랐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기마저 도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자 눈등 위의 상처가 미묘한 음영을 지었다. ‘이분은 정말로 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앓고 고민하고 성숙한다. 일견 변함없이 젊은 얼굴을 지닌 이분의 내면의 표정을 누가 알 것인가? 인간의 심도, 문학인으로서의 고뇌와 피나는 정진을 나는 그 찢기 없는 얼굴에서 느꼈다.

아프고 고되게 스스로를 익혀 온 60 성상—— 지나고 보면 꿈결 같겠지만 울울이 맺힌 한이 어찌 없으랴. 회갑을 맞이하는 김동리 선생에게 무한한 치사를 드리며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여 마지 않는다.

벗

어미 팔아 벗 산다

옛 여인들은 할 일도 많았는데 겨울이면 꼭 옷에 두어 입었던 솜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먼지를 털곤 손으로 고루 펴서 다시 썼었다.

몽친 솜을 손끝으로 정성스레 풀어 발이 고운 돛자리에 바르듯이 펴고는, 돛자리 표면이 편 솜으로 얹게 고루 덮이면 조심스럽게 돛자리를 한 끝에서부터 만다.

얼마 두었다가 다시 돛자리를 펴면, 햇솜에야 따를 수 있으라마는 빛깔만 약간 사납다뿐 훌륭히 재생되어, 빨아 짓는 옷 같은 데 다시 두어 입었던 것이다.

손을 많이 타는 일이라 솜 펴는 일은 할머니들이 심심풀이로 했던 것 같다.

외할머님은 이 솜 펴는 솜씨가 뛰어나셨다. 아랫사람도 많았건만 곧잘 손수 이 일을 하셨다.

연세가 높으셨지만 인근에서 미인으로 소문이 나셨더라는 이 노녀(老女)는 기름상치 같다고(기름을 바른 상추잎처럼 곱고 윤이 흐른다는

표현이라 했다.) 남들이 감탄을 한 고운 살결을 그대로 간직하였고, 얼굴에 주름 하나 티 하나가 없으셨다.

그런 고운 할머니는 숨을 펴시면서 어린 나에게 술한 옛이야기를 들려 주셨고, 출처를 모르면서 세대와 국세를 예언 혹은 빙자한 동요——누가 부르기 시작한 것인지 알 길 없으면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노래를 잘 기억하여 불러 주시기도 하였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요——

이것은 숙종비 민씨와 후궁 장희빈의 운명을 예언한 동요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가끔 외할머님은 재미있는 놀음을 하듯 재치있게 놀리던 손을 귀로 가지고 가시며,

“아아, 오늘은 왜 이렇게 귀에서 소리가 나지? 아마 동갑네가, 내 벗이 또 한 사람 가는가 부다.”

하고 슬퍼하셨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벗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멀리 있는 벗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언제나 밝고 맑은 얼굴에 서렸던 그 슬픈 표정은 어린 내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

옛 여인이라 직접 사귀고 어울렸던 벗이 많았을 리 없었으련만 그는 이명(耳鳴)이 일어날 때마다 ‘벗’의 별세를 서러워하셨다. 그에게 있어 벗이란 동시대인(同時代人), 그것도 나이가 엇비슷한 동시대인을 뜻하는 것이니 직접 사귀었건 아니 사귀었건 간에, 같은 성진(星辰) 아래서 함께 살던 ‘벗’이었던 것이리라.

우리 속담에 “어미 팔아 벗 산다.”는 말이 있다. 애기들은 아장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같은 또래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엄마와 단둘일 때에는 보채던 아이들도 같은 또래의 꼬마와 함께 두면 자주 싸우면서도 곧잘 어울려 노는 것이다.

김치 익으면 벗 생각을

아기들은 자란다. 가정에서 가족들과만 어울리는 데 무료와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다. 보다 새로운 것, 보다 큰 것, 보다 놀라운 것,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리고 밖의 세계가 궁금해진다. 혈연(血緣)에서부터 사회로 시선과 관심이 바뀌는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벗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미 팔아 벗 산다.”는 것은 어머니보다 벗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벗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한 사람의 사회 탄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건 벗을 만난다는 것은, 벗을 가진다는 것은, 즐겁고 뜻있고 중대한 일인 동시에 한편 두렵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벗으로 하여 신의(信義)의 귀함을 알고, 공감의 기쁨을 나누고, 상호 협조의 든든함을 실감하고, 위안의 고마움에 젖으며 고독의 무서움을 잊을 수 있지만 또 한편 벗으로 인한 배신이나 모함의 함정에 빠져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벗이란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배신의 쓰라림에 아프게 눈물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하여 사람은 인생의 복잡한 본질을 얼마큼 깨닫게 되는 것이며, 또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좋은 친구의 진실된 우정을 입어 인생의 보람됨과 환희를 같이 하며 더불어 향상하는 행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못된 친구의 유혹과 위협으로 죄스러운 길을 걷는 참담한 경우도 있다. 그래선지 옛사람들은 흔히 벗(인간)을 외면하고 자연에 묻혀 흰 달, 지나는 바람, 피는 꽃, 나는 새를 ‘벗’ 삼았던 것 같다.

홍진을 다 떨치고 죽장 짚고 망혜 신고
거문고 들어메고 서호로 돌아가니

노화에 때많은 갈매기는
제 벗인가 하노라

강호에 버린 몸이 백구와 벗이 되야
어정을 흘려놓고
옥소를 높이 부니
아마도 세상 흥미는
이뿐인가 하노라

풍류의 극을 터득한 심정 같지만 한 가닥 외로움과 못다한 정이 마음 갈피 속에 스며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뿐일까.

늙고 병든 몸이
초당에 누웠으니
청풍은 문을 열고
명월은 방에 든다
두어라 청풍명월이
내 벗인가 하노라

이렇게 달관(達觀)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고시조(古時調)는 읽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남으로 생긴 중에 벗같이 유신하라
내의 원일을 다 날오려 하노매라
이몸이 벗님곳 아니면
사람됨이 쉬울까

라든가

남으로 친한 사이 벗이라 일렀으니,
유신곳 아니하면 사귄줄이 있을쏘냐.
우리는 어진 벗 알아서
책선을 받아보리라.

같은 훈민(訓民)조보다 나는 역시

자네 집 술 익거든 부디 날 부르시소
내 집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하옵세
백년 덧 시름 잊을 일을
의논코자 하노라.

꽃피면 달 생각하고
달밝으면 술 생각하고
꽃피자 달박자 술 얻으면
벗 생각하네
언제면 꽃아래 벗 다리고
완월 장취하려뇨.

이런 꾸밈없는 절절한 정이 좋다. 타이름을 받아서가 아니고 이치를 따져서가 아닌 마음에서 자연히 샘솟아 나온 정이 좋은 것이다. 이른바 ‘막역어심 수상여우(莫逆於心 遂相與友)’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일 없는 경지로 벗과 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좋은 것을 보면 벗과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나는 여인이라선지 술맛을 모르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가 알맞게 익으면 항상 벗 생각이 난다. 그 맛있는 김치를 혼자 먹기가 서운하여 다정한 벗을 불러 함께 먹고 싶은 것이다.

옛 말씀에

성현의 말씀이라면 옷깃부터 여미며 들어야 할 것 같은 것에서 친밀감과 전폭의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논어(論語)〉의 개권(開卷) 제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위낙에 학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중시했던 분이라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라 시작하셨지만 바로 뒤를 이어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라고 한 것이다.

그는 첫째로 ‘학문의 기쁨’을 말하고, 이어 “먼 곳으로부터도 친구가 찾아오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라고 했다. 학문 자체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님은 학문을 벗과 더불어 강습 논의할 수 있는 기쁨을 역시 지락(至樂)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나에게는 좀 너무하신 것같이 느껴지는 이 현인(賢人)은 이 말씀으로 하여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와의 거리를 약간 좁히고 계신 것 같다.

동서 고사(東西故事)를 살펴보면 우정에 대한 일화가 너무도 많다. 삼강 오륜이 무너진 지 오래인 오늘날이지만 오륜 중의 붕우 유신(朋友有信)은 역시 귀한 가르침이다. ‘어제의 벗은 오늘의 적’이란 섭섭한 말이 예사로 쓰여지는 한심한 세대에 아버님께서 들려 주신 관포 지교(管鮑之交)는 부러운 옛이야기이다.

제(齊) 나라에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라는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없는 친구였는데 여러 곡절 끝에 결과적으로 환공(桓公)의 패업을 도운 공신들이다. 환공의 패업은 관중에 힘입은 바가

많았는데 환공으로 하여금 관중을 중용케 하도록 한 것은 포숙아였으며, 그는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친구 관중을 넓은 도량과 깊은 이해와 종생 변함없는 우정으로 도왔던 것이다.

관중이 포숙아의 우정을 감격 감사하며 했던 말은 너무도 길어 생략하거니와, 친구의 잘못을 낱알이 들추어 내기 일쑤인 우리로선 머리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포숙아의 우정이다. 본인이 말하면 군색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사를 그는 일일이 깊은 이해로 설명해주고 합리화해 주는 관용을 가졌었던 것이다.

또 스스로의 행적을 솔직히 고백하며 친구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관중 역시 신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어 3천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도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막역지우(莫逆之友)는 장자(莊子)의 대종사편(大宗師編)에 같은 형식으로 말한 두 개의 우화(寓話)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과 함께 잘 쓰이는 말에 문경지교(刎頸之交: 죽고 살기를 함께 하며 목에 칼이 들어가도 변치 않는 우정)에 얹힌 일화는 2천 여 년이 지난 지금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조(趙) 나라를 강국 진(秦)으로부터 지킨 용맹한 무장 염파(廉頗)와 지략이 뛰어난 선비 인상여(藺相如)는 나라를 위해 함께 전력을 다했지만, 조의 혜문왕(惠文王)이 상여를 너무 후우(厚遇)하는 데 염파가 불평을 하게 되어 그를 해치려 하였을 때 상여는 그저 피하기만 하였다 한다.

가신이 주인의 그 태도를 비겁하다고 간하자 상여는 진왕(秦王)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기가 염 장군을 피하는 것은 나라를 위함이라 한 것을 듣고 염 장군은 심히 자괴하여 스스로 맨살에 회초리를 지고 상여의 집을 찾아 매질해 주기를 청했다. 양웅(兩雄)은 기꺼이 화해하여 그때부터 문경지교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리움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역시 생명을 건 우정이라면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상기한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가 아름다운 포셔에게 구혼하기 위하여 천 더커트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기의 살[肉] 한 파운드를 저당으로 하여 유대인의 고리 대금 업자인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돈을 기일 내에 갚을 수 없어 일어났던 위기는 포셔의 기지와 명석한 판단으로 무사히 처리되었지만 생각하면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억지와 부자연한 데가 많은 이야기이기는 하나 어쨌건 목숨을 건 우정이 아닌가.

이렇듯 죽고 살기를 거친 분이 아니더라도 벗이란 그리움의 근원이 된다. 고향 떠나 떠돌이로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모진 세파에 시달린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망향(望鄉)의 애뜻함이 있고, 고향 산천을 그리고 보면 뒷동산 소나무 밑, 고개 위 바위 위에서 함께 뛰놀던 어릴 적 그 친구의 장난기어린 그 얼굴, 반짝이던 그 눈동자가 눈앞에 떠오른다.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자란 도시 아이들이라고 어릴 때 추억이 다닥다닥 붙은 숨막힌 집들이라든가 무미 건조한 시멘트의 숲뿐이겠는가?

좁은 골목에서 함께 뛰놀던 철이, 명식이, 놀이터 철봉에 같이 매달렸다 떨어졌던 호연이, 응철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겪은 조그만 모험들과 비밀들이 그리움으로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러므로 어릴 적 친구는 그 사람의 삶의 시발점에 언제까지나 영주하며 그리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 옛날 중국 삼국 시대의 위(魏)나라 고관이었던 제갈탄(諸葛誕)의 아들 제갈청(諸葛淸)은 그 아버지를 죽인 폭군 진왕(晉王)을 아버지의 원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볼모로 가 있던 오(吳) 나라에서 재

상을 지낸 후 오의 멸망으로 진으로 돌아갔으며 출사(出仕)는 물론 진왕의 아들 무제(武帝)의 간청에도 면회를 사절했는데, 무제는 여러 모로 손을 써서 “죽마(竹馬)를 함께 타고 놀던 우리들 사이가 아닌가.”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와 만났다는 것이다.

이 고사로 어릴 적부터 사귀 친구를 죽마고우(竹馬故友)라 한다지만 여성인 나는 소꿉친구란 말이 더욱 실감에 와 닿는다.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정교하고 기동력 있고 과학적인 장난감이 많아 여백(餘白)과 정서의 결여라 할까, 말하자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없는 기능 위주와 실질적인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적에는 (특히 여아들은) 노는 양상이 좀 달랐던 것 같다.

우선 조그만 판대기를 깎는다. 그것이 방이 된다. 그 위에 조그만 거울을 비껴 놓는다. 크기가 다른 조그만 상자를 몇 개 옆에 놓으면 그것이 안방이고, 형겅 조각을 두어 개 깔면 이불·요를 펴는 것이고 그 옆에 누우면 누운 아이들은 그 형겅 조각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작은 돌을 주어다 양쪽에 놓고 그 위에 장난감 솥(웬지 이 장난감 솥은 정말 솥같이 만들어져 있었다.)을 건다. 사기로 만든 앙징스러운 그릇이 몇 개, 그 그릇에 노오란 민들레 꽃잎을 담아 그것이 반찬이고, 냉이 하얀 꽃잎은 밥이 되는 것이다. 쪼끄만 쟁반에 받쳐 놓고 아이들은

“냠냠.....”

하면서 먹는 시늉을 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그릇을 둘러싸고 “냠냠” 하고 맛있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는 설거지까지 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두 ‘하는 시늉’뿐이지만 여아들은 방 치우고 밥해 먹고 송늬까지 마셨다. 작은 판대기 하나의 그 쪼끄만 방에서는 아빠, 엄마, 언니, 누나 모두 함께 살고 있었으며 외출도 하고 집을 지키기도 했다.

“순아 장에 갔다 올게 집 잘 지켜.”

엄마가 방문 닫는 시늉을 하며 말하면 ‘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는 것이다. 한참 있다 엄마가 돌아온다. ‘문 밖에서’ 엄마가 소리를 지른다.

“순아, 문 열어라.”

‘순아’는 뛰어나가 문 여는 시늉을 이속고 한다.

“엄마 인제 왔어?”

하며 반기는 것이었다.

웃는 눈에 어린 물기

이렇게 함께 놀던 소꿉친구 무복이는 지금 파리에 살고 있다. 그와 처음 사귀는 것이 일곱 살 때—— 그때까지 이름도 신발도 없었던 나에게는(이름은 애기고 어리광쟁이로 업혀만 다녔던 나에게는 신발이 없었다.) 최초의 친구였다. 그로부터 수십 년—— 그와는 타생에 어떤 인연을 맺었던 것인지 그 어린 우정을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년 전 초여름 그와 나는 몽파르나스의 ‘돔’이라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가난한 모델리아니가 그 기막힌 그림을 헐값으로라도 팔려고 구걸하다시피 손님들 앞에 내밀고 다녔다는 애절한 이야기를 그가 썼던 자리일지도 모르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며 박복했던 천재의 생애를 애석해 했었다. 창 밖에는 아름다운 촛불을 운이 흐르는 잎 사이사이에 꽂아 놓은 것 같은 마로니에꽃이 한창이었다.

무복이는 파리의 하늘이 이처럼 맑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 문득 한숨을 쉬었다.

“그재 무숙아.”

그는 충청도가 본적이지만 성장한 고장인 경상도 사투리가 심했다. 그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새삼 간곡히 부르고 나서,

“무숙아, 니캉 내캉 무슨 인연이 그리도 깊어 내가 조국을 떠나 있

어도 이리 자주 보게 데노. 내가 동경에서 살 때도 니는 안 찾아왔나, 그재?”

“그래 오십 년이 지났구나.”

“그래 얼라아(애기) 때 만나 우리 한분(한번)도 사암(싸암)도 안 했재? 그재?”

“니가 워낙 착해서지.”

“어언제(아니) 니가 참해서지. 그래도 옛적엔 내사마 니가 부러바서(부러워서).”

“어쨌건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 무복아 천주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감개를 가지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돌고 있었다. 그나 나나 눈이 커서 닳았다고들 했는데, 그 눈은 주름에 싸여 있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나는 북바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러움 같기도 한 애정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늙고 억센 손이었다.

“무복아 우리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날까지 이렇게 지내자, 응?”

“그래 그래, 그리 살자.”

“그래 마로니에가 필 때 또 올게. 또 여기 앉아 모딜리아니 이야기나 하자.”

나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일그러진 얼굴로 보였으리라.

애기를 낳아 보지 않은 그도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다 되었지만 마음은 소녀같이 청순하고 젊어 그를 만나면 나도 민들레, 냉이꽃 성찬을 차려 먹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만날 약속을 한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를 남겨 놓고 나온 나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창가에 바짝 다가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보내는 그를 보며 나는 지난날 외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 동갑, 내 벗이 또 하나 가나부다.”

그 서러워하시던 모습을 상기하며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먼 파
리에서 내 벗 무복이도 이명(耳鳴)을 느끼며,

“내 벗 무숙이가 인자아(이제) 떠나는구나.”

하고 서러워해 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였다.

순간 윤이 흐르는 잎 사이사이에 꽃혀 있는 아름다운 촛불 같은 마
로니에꽃들이 일제히 불을 꺼버리는 것 같아 나는 가벼운 현기를 느
꼈다.

초파일의 추억

해마다 4월 초파일이 돌아오면 고우셨던 어머니의 아름다운 자태와 남녘 나라의 해맑은 햇빛, 연록색의 눈부신 신록(新綠)과 싱그러운 바람이 되살아난다.

어머니는 60을 넘어 돌아가셨지만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젊고 곱고 단아하시다. 살쩍을 곱게 민 흑공단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쪽찌고, 자주댕기 물려 비취비녀 꽂으신 그 자태는 어린 눈에도 아름다웠다. 의복이나 패물도 계절따라 바뀌었던 시절이라 남끝동 자주고름의 흰 저고리에 받쳐입은 월남 옥색 준주사 치마가 질푸른 젓송이가 진 파릇한 비취비녀와 더불어 더없이 화사했다.

여인들의 외출이 그리 잦지 않던 때라 어머니의 단장이 여느 때보다 더 고우시면 그날은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날이었다.

가시는 절은 동래 범어사(梵魚寺)였다. 통도사처럼 낙락장송(落落長松) 소나무 사이를 시원스럽게 흐르는 맑은 계곡은 없어도 구십구절(九十九折) 고갯길을 굽이 돌아 오르는 산중의 늦봄은 무르익어 한가한 뻐꾹새 소리에 섞여 봄노래에 지쳐 목이 쉰 피꼬리 소리가 쉰 대로 아름답게 산속에 퍼지고 눈앞은 온통 꽃보다도 고운 새잎에 덮

여 있었다.

해묵은 산문(山門)을 지나 높이 솟은 대웅전 앞마당에 이르면 마당을 덮은 각양의 종이등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등은 나뭇가지마다에 달려 있고 또 이날을 위해 특별히 매어진 밧줄에도 달려 꽃잎을 뿌려 놓은 것 같았다.

등불 너머로 이끼낀 석가탑이 눈에 들어오고 오랜 풍마 우세(風磨雨洗)를 견딘, 단청이 얼마큼 벗겨져 오히려 그윽한 대웅전이 이날은 꽃살무늬의 무거운 문짝을 활짝 열고, 각처에서 모여든 선남 선녀들로 붐볐다. 아스라한 기억 속에 삼위(三位)의 부처님이 보인다. 가운데 연화대(蓮花臺) 위에 홍비단 방석을 세 개 포개 깔고 백호 나발(白毫螺髮)의 석가모니가 앉아 계시고 양옆에는 화관 쓴 아름다운 부처님이 시립해 서셨다.

조각과 이색으로 찬란한 천정 아래 연분홍으로 물들인 종으로 만든 고운 연등이 수없이 달려 있고 엄청나게 큰 향로에는 끊임없이 향목(香木)을 피워 보라색 향연이 서서히 올라가 부처님 얼굴 근처에서 아롱거리며 흩어졌다. 불단 앞에 밝힌 팔뚝만한 황초 불꽃이 때때로 흔들려, 그럴 때마다 황금색 부처님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였다. 어떤 때에는 엄숙하게, 또 어느 순간에는 자애롭게도 보이고 미소짓는 얼굴인가 하면 중생들의 잘못을 슬퍼하시는 표정으로도 보이는 것이었다.

심중한 스님들의 독경 소리, 목탁 소리 속에서, 크게 벌렸던 양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 합장하고는 꿇어 절을 하는 사람들의 경건한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던 나는 열 살이 채 되지 못한 동녀(童女)였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어른들의 예불에 지쳐 밖으로 시선을 던지면 밝은 맑고 아름다운 늦은 봄, 절 마당은 깨끗하고 하얗고 부처님 머리 모양을 한, 하얀 불두화(佛頭花) 꽃이 한창이었다. 장엄하고 어둑한 본당 안과 밝고 맑은 절 마당의 대조는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선명하여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어른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날은 신성한

기쁜 날이며 지루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긴 예불이 끝나면 산채 튀각 실과의 깨끗하고 산뜻한 공양을 받고 해가 질 때까지 산 속에 흠어져 있는 암자들을 찾았다. 저녁 전에 돌아와 또 예불이 있고 저녁 공양을 마치고 어둑해지면 절 마당은 온통 불꽃으로 덮였다. 나뭇가지에 달린 등에도 밧줄에 달린 등에도 불이 켜져 질어 오는 어둠을 밝히고 깊은 산속 적막이 한때 축제 기분으로 흔들렸다. 앞을 막듯이 서 있는 잠목산은 가을이면 비단을 입힌 듯 곱게 단풍이 들어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었으나, 초여드렛달이 어스름 밝혀 꿈속같이 유현했다. 초저녁 잠이 많은 동녀였으나 이날 밤은 애초 잠을 쫓고 본당 앞 월대에 앉아 저녁부터 일기 시작한 봄밤 실바람에 보일 듯 말 듯 흔들리며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의 물결에 넋을 잃었다.

등마다에는 등을 바치는 이의 염원이 서려 있었다. 4월 초여드레, 부처님 오신 날 밤을 밝히는 이 행사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경건한 마음으로 이날 밤을 밝히던 선남 선녀의 염원은 부처님을 위함 이요, 또 진세(塵世)의 어두움과 무릇 중생과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함께 밝히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느긋한 봄밤의 헤아릴 수 없는 등불들은 상들리에처럼 휘황하지도 않고 네온사인처럼 경박하지도 않다. 은은한 지등(紙燈)은 불빛을 안으로만 다스려 겸허한 영혼이 부의의 불심을 정성들여 조심스럽게 태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초파일 밤을 밝히는 것은 부세(浮世)에 뜬 영혼이 부처님을 맞이하며 깊고 그윽하고 밝은 경지에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부처님께 바치는 종교적 행사인 동시에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물시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도 어렸을 때 산사의 봄밤을 밝히던 그 등불들은 아직도 내 추억 속을 밝히고 있고 자주댕기 비취비녀 단장의 고우시던 우리 어머니 생각도 초파일 날이면 아프게 절절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씨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가와바타[川端]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일본 펜클럽의 망년회에서였다. 사진에서 본 대로 키가 작고 무척 약질로 보였다. 문단에서 가장 큰 행사의 하나인 이 석상에서 회장인 씨는 통 발언이 없고 얼마 전 작고한 고아순(高兒順) 씨가 모든 절차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그 큰 눈으로 말없이 한구석에서 이 문단의 잔치를 지켜만 보고 있는 씨의 얼굴은 무표정하였지만, 그 큰 눈은 장내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키고 있었다.

그 큰 눈은 통 깜박거리지 않으면서 대상에 따라 동자만이 굴렀고 따듯하면서 날카롭고 어딘지 허허롭기도 하였다.

잔인한 직시가 ‘취’의 끝까지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취’의 끝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한 가닥 아름답고 청순한 것을 발견하려 하는 씨의 문학적 자세는 이 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나는 느꼈다.

며칠 후 나는 씨를 호텔 ‘오쿠라’에서 만났다. 쓸 것이 많아 호텔 방을 빌렸노라고 말하는 그의 여윈 얼굴은 온화하였다. 안내해 준 이

에게 30분쯤밖에 시간을 낼 수 없겠다 했던 가와바타 씨는 이날 밤 5시간 반을 우리와 함께 지냈다. 그는 듣는 명수였다.

내가 입고 있는 한복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풍속, 문화, 역사 그리고 문학에 대하여 차근차근 묻고 열심히 들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에서 온 여성으로부터 듣는 그 나라의 사물에 관한 이야기에 그 자신이 항상 말하는 ‘꿈임없는 호기심’을 가진 까닭인지, 낯선 나라에서 간 나에게 대한 대접이었는지는 모르나 부드러운 그의 태도에 긴장 없이 몇 시간을 지냈던 것이다. 말을 좀 많이 한 후 나는 언제나 후회하지만 이날 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정말 가슴을 열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말들은 그에게 모조리 흡수되어 후회할 찌꺼기가 남지 않았다.

그를 대하면서 나는 그의 처녀작 “이즈의 무희”(소녀 사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지만)에서 “설국”에 이르는 작품을 일관하는 강한 서정을 상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민한 감수성과 명철한 이지와 감각의 표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생각할 때 서정이란 그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인 생명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씨의 소설은 그의 실생활을 떠난 가공의 세계에 이룩되어 있으면서 이 세계는 작자의 육신의 호흡과 미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설국”은 씨의 섬세한 감각으로 씻기어 낸 것 같은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 같은 등장 인물의 선명한 자태에 매혹되어 저도 모르게 그 가공의 세계 속에 이끌려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설국”의 남주인공(엄밀히 말하면 주인공이라기보다 여주인공을 살리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은 “이즈의 무희”의 ‘나’ 성숙이며 작자의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즉 방관자, 설주자(說註者)인 것이다. 그 큰 눈으로 그는 보고 그 민감한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종시 버리지 못한 시정으로 다듬어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 후 씨는 가마쿠라(鎌倉)의 자택으로 나를 초대하였다. 순일본식의 정취 있는 저택이었다. 이날 씨는 우스갯소리를 곧잘하고 식사에도 특별히 마음을 써 주었다.

이 독자적인 작품을 가진 고독한 서정가(抒情家)의 거처답게 집안은 조용하고 ‘도코노마’에 놓인 키가 큰 흰 꽃병에 담긴 보지 못하던 꽃이 고요히 향기를 뿜고 있었다.

고미술품 수집가로도 알려져 있다는 씨는 내가 작별을 고하자 일어서서 옆방으로 건너가더니 한참만에 돌아왔다. 손에는 자색 끈으로 묶은 조그만 오동 상자가 들려 있었다.

“기념으로 이것을 드리겠소. 이조 백자기로 내가 아꼈던 것인데 정말 입자를 만난 것 같아서.”

연봉이 꼭지로 붙어 있는 뚜껑의 고운 백자 향아리였다. 어떠한 곡절을 겪고 내 손에 들어왔는지 모르면서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에 나는 고맙게 받고 다시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였다.

씨의 이번 수상은 동양인으로서 기쁜 일이다. ‘문학적 자서전’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즉 “호기의 촉각(好奇의 觸角)을 섬세한 관찰차(觀察車)에 싣고 이생도 문학도 지나쳐 버렸다.”고 하고 있지만 그는 시대와 함께 살고 함께 추이하면서 그 소음 속에서 스스로의 숙명을 모색하고 실현해 갔다.

그러기에 ‘지나쳐’ 가려는 그에게 이번의 영예가 주어진 것이고 그의 작품과 이름은 세계 문학사에 남을 것이다.

내가 만난 가와바타 야스나리

— 그의 자살 소식을 듣고

가와바타 씨는 그의 ‘무서운’ 소품 “말기의 눈(임종의 눈)”에서 대정 연간(大正年間)에 자살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설사 그 밖의 길이 없었다 하더라도 옳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또 작년 가을에 그를 만났을 때도 연전에 할복 자살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죽음을 통탄하면서 “그저 곤혹할 따름이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어둡고 통분한 표정을 지었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학같이 마른 몸에 짙은 고동색 화복(和服)을 입고 일본식 ‘자노메가사(蛇之目傘)’을 쓰고 뜰에서 정원사를 시켜 나무를 심고 있었다.

멀리 다카노 산(高野山)에서 가지고 왔다는 500년 묵었다는 비스듬히 누운 향나무를 그는 흥분된 눈으로 보고 또 보고 있었다.

넓은 정원 한 모퉁이에 돌을 배치하고 이끼를 깔아 이끼정원(苔庭)을 만들고 귀한 나무들을 심어 그 뜰이 새로 지은 신관 창을 통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여 여생을 한적하게 운치 있게 살고자 하는 의장(意匠)이 엿보였다. 몇 달 후에 자살할 사람이 하는 짓은 아니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잃고 16살에 마지막 남은 조부를 잃어야 했던 그에게 있어 죽음은 너무나 가까운 것이었고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아쉬운 것이어서 삶과 죽음이란 너무나 신성하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한다.

16세의 소년이 마지막 찢줄인 조부의 죽어 가는 모습을 극명하게 써내린 “16세의 일기”는 그의 처녀작인 동시에 유일하고 진지한 자전이며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강하고 정확한 필치이며 그 스스로가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소년의 맑은 오성에 투영된 죽음은 깊은 이해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 마음으로 이 손자는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조부의 노취도 절망도 불만도 또 얼마큼 우스꽝스러운 점도 선량함도 자비심까지도. 진지한 어린 소년의 사랑과 슬픔이 움직이는 곳,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대할 때 우리는 가와바타 씨 개인이라기보다 소년 전반의 무서움을 감지하는 것이다. 인생의 첫발에서 빠져리게 체험한 이런 사실이 그의 인생과 정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는 기술사(奇術師)라는 말을 들을 만큼 언제나 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좇은 구도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신기(新奇)’를 애호하고 신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역시 “말기의 눈”에서 그는 ‘나는 새로운 것을 좇았기 때문에 기술사’라고 불리는 광영까지 갖는다. 그

러나 나는 과연 ‘기술사’일 수 있었을까. 상대는 나에게 경멸을 퍼부었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나 나는 ‘기술사’라는 이름을 받고 속으로 웃는 것이다.

중맹(衆盲)의 한 사람인 그에게 나의 가슴 속의 아픔과 한탄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진정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나에게 손쉽게 희롱을 당한 바보다. 나는 사람을 희롱하기 위하여 ‘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슴의 한탄과 악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무노출(無露出)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무어라 한들 내가 알 바 아니다.

남이 무어라든 자기에게 충실했던 정신,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은 좇아 마지않았던 그는 칠순이 넘어도 뜰을 가꾸고 ‘하와이’의 ‘가하라 힐튼 호텔’ 창 앞에 놓인 ‘글라스’들에 비친 남쪽 나라 태양의 아름다운 광선조차 놓치지 않았다. 아름다운 것은 도처에 있다 하고 그 아름다움의 발견을 사명으로 알았다.

16살 때 벌써 삶과 죽음의 관조를 익히고 자살을 혐오했던 그가 칠순이 넘어 원인을 모를 자살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억측은 구구하지만 그는 역시 ‘내 가슴 속의 아픔과 한탄’을 누가 알 것인가 하며 ‘가스’관을 입으로 가지고 갔을까.

마지막 헤어질 때 그는 문 밖까지 우산을 받고 나와 내가 탄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전송하였다. 그때의 의롭고 따듯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진심으로 명복을 빌 뿐이다.

펜의 형제 자매들

1965년의 유고슬라비아의 볼레드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에 참석한 후부터 나는 많은 펜 회원과 사귀게 되었다.

그 해는 우리 나라가 월남전에 파병을 시작하던 해였고 공산권 내의 나라여서 거북한 질문이나 신랄한 비난 같은 것에 물리거나 앓을까 적지않이 염려를 했었는데 연단을 내려오자 몇몇 낯선 회원들은 박수를 하며 나를 포옹까지 해 주었다. 이윽고 내가 귀국길에 여러 나라를 보고 갈 예정이라고 하자 그들은 자기들 나라에 들르면 꼭 자기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주소와 전화 번호를 적어 주는 것이었다. 도착 시간을 알려 주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주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인사치레만이 아닌 것같아 몇몇 회원들과 그들의 나라에서 만난 바가 있다.

영국에서의 일이다. 런던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파블로 페르난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쿠바의 시인이지만 영국에 산다고 하였다. 아서 밀러와 친분이 두터운 모양으로 나를 그에게 소개해 준 것도 그 사람이었다.

전화를 받은 그는 그쪽 사람 특징인 열정적 어조로 무척 반가워하

였다. 곧 만나자는 것이다. 그는 장소를 지적했는데 그곳은 내 옆에 있던 이종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페르난도 씨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되었다. 리젠트 스트리트의 카페 로열에서 오후 3시에 —

내 이종은 그 시간에 맞추어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카페 로열은 거리에 면한 쪽은 좁고 속으로 긴 곳이었다. 페르난도 씨는 먼저 와서 입구 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으로 내가 들어서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왔다.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나를 자리에 인도했다. 낯선 신사가 두 사람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고 커피가 앞에 놓였을 때 그는 그때까지의 어조를 약간 바꾸었다.

“마담 한. 지금 당신은 어디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 당신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바로 오스카 와일드가 날마다 오후 3시 — 그러니까 바로 이맘때 날마다 이 카페에 나타나 앉았던 그 자리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자리에 나를 앉히고 싶어 그는 약속 시간 보다 훨씬 먼저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국제 펜 본부 사무국장 데이비드 카버 씨는 외국 여행을 떠나면서 비서인 미스 로저스에게 당부를 한 모양이었다. 미스 로저스는 나를 위하여 조출한 각테일 파티를 베풀어 주었다. 그곳이 펜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어느 회원의 집인지는 잘 모른다. 하여튼 아늑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가진 가정집이었다. 여름철이라 휴가를 떠나지 않았던 런던과 주변에 산다는 열대열 명 가량의 시인 작가들이 참석한 기탄없으면서 다정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모임이었다. 우리는 모두 중정(中庭)에 있는 큰 뽕나무에서 까맣게 익은 오디를 따먹었다.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미스 로저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아파트로 나를 데리고 갔다. 사양하는 나를 자꾸만 가자 하기에, 나는 그의 아파트가 아름답게 정리되고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곳은 발을 들여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흐트러져 있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화

장실에는 흙투성이의 장화랑 더러운 옷가지들이 널려져 있었다. 그는 너털웃음을 치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난 낚시질을 좋아해요. 저번 주말에도 낚시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걸리지 않더먼요.”

키가 시원하게 크고 재치가 넘쳐흐르는 그녀는 말 잘하고 술 잘 마시고 담배는 용굴뚝이었다. 도와 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나는 그 어지러운 방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졌었다. 나를 진실로 ‘펜의 자매’로 생각해 주었기에 그는 꾸밈없는 진정으로 그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던 것이다.

당시의 이태리 펜 본부 회장은 여성이었다. 꼭 들러달라고 하기에 나는 지나는 길에(로마에 17년이나 체류중이던 김분도 신부님의 안내를 받고 있었는데 주소를 보이자 지나는 길이라고 들러보자고 했던 것이다.) 시내의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예고없이 찾은 무례는 두 번 건 전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 구실이 되어 쉽게 양해되었지만 회장은 없고 우리를 맞이한 검은 눈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은 수심에 찬 얼굴이었다. 그러면서,

“한국서 오셨지요? 회장님이 보여 주신 사진으로 뵈는 일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며 반겨 주었다.

“회장님은 댁에서 이 며칠 사이에 꼭 찾아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다가 말끝을 흐렸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요. 조카따님이 투신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장례날…….”

그의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가톨릭 신자와 자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나는 잘 안다. 그 경황 중에서 나와 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배려해 준 그 신의와 친절을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것

이다.

뉴욕 본부의 회계를 맡아보던 아이잭 씨와 조각가인 그의 부인이 ‘My PEN sister’라고 부르면서 베풀어 주던 추수 감사절의 칠면조 요리, 함께 갔던 현대 미술관, 조각 전시회, 소극장 등등 나의 추억에는 다정한 펜의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정이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도 상기할 때마다 가슴이 뻘근해 오는 추억으로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대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의 잊을 수 없는 온정이 있다.

그 해 2월에 아들을 잃고 잠시 실명하고, 이어 시원치 않은 시력 때문에 떨어져 척추를 다쳐 나는 그때 병상에 있었다. 회의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나의 안부를 물은 펜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불행을 알고 바쁜 스케줄을 바꾸면서까지 나를 찾아 준 것이다. 펜의 형제 자매이기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의 병상을 찾아 우리 집은 마치 국제 회의장의 느낌마저 주기도 하였다.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정세가 다르고 역사와 풍습이 다르고 생활 감각조차 다르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연대 감각으로 우리 회원들은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감격하며 고마움에 나는 눈물지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My dear PEN sister’라고 쓴 편지를 여러 곳으로 부터 받는다. 쓴다는 외롭고 고된 작업이 이처럼 많은 정다운 형제 자매들과 결연케 해준 것이 새삼 고맙고 같은 핏줄인 국내 형제 자매들은 물론 전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회원에게 혈육과 같은 살뜰한 정을 느끼는 것이다.

숨겨진 마음을 비단실로 아로새겨

숨겨진 마음을 비단실로 아로새겨

부귀와 영화를 담아서

사람은 언제부터 오색으로 실을 물들여 정성스레 수를 놓게 되었을까? 잘은 몰라도 고대 로마의 귀인들은 옷옷으로 걸치는 자색 토가에 금실로 수를 놓게 했다는 것을 어디선가 읽은 일이 있다. 적당한 간격으로 놓여진 탐스러운 포도 송이와 깊게 파들어간 넓은 잎 사이에 아름답게 얹힌 덩굴 문양이라든가 양식화된 덩굴 안의 당초 무늬, 동물의 연속 무늬 신화의 한 장면, 신들의 얼굴 등등 갖가지 문양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곧 자수의 하도(下圖)로도 쓰여지지 않았나 할 때가 있다.

영화를 극했다는 솔로몬의 왕의(王衣)도 현란 중후하게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탄불의 토포카피 옛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왕들의 옷옷과 터번에는 기가 질렸다. 헤아릴 수 없는 수량의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등을 넓은 옷자락 전체에 눈이 부시도록 뿌려 넣은 정교 섬세한 그 솜씨—— 오직 값진 보석의 고귀한 광휘(光輝)만을 위해서인지 세월의 탓인지 찬란한 보

석으로 아로새겨진 그 무늬는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면서 어디까지나 다소곳이 가라앉아 보였고 수실 색깔 역시 차분해 보였다.

누구나가 보석의 놀라운 수량과 신비로운 빛깔과 광택에 넋을 잃을 뿐, 그 뛰어난 수 솜씨를 눈여겨보려 하지 않았지만 실로 놀라운 기교이며 기막힌 노고의 결정이었다.

토프카피의 수 보석 왕의뿐이라! 전세계에 널리 있는 옛 궁전의 전시설이라든가 박물관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섬세 정교한 아름다운 수옷들이 있다.

어느 여왕이 대관식 때 입었다는 우아 화미(華美)를 극한 로브, 어느 공주의 결혼 축하 무도복, 어느 왕의 야회복, 심지어는 장갑, 실내화, 손수건에까지 수솜씨가 미쳐 있다. 그러나 누가 아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이 꿰어졌을 슬리퍼, 고운 때만 묻어도 벗어 던져졌을 내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팽겨졌을지도 모르는 허리띠 등에 새겨진 수실의 한 땀 한 땀의 슬기와 노고를. 찬란 정교한 수옷들로 과시되는 부와 귀와 권력 그들에 피맺힌 손끝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시름, 기쁨, 한을 담아서

날이면 날마다 수만 놓고 살아야 했던 수방 나인(繡房內人)은 사십이 되기 전에 바늘 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렇게나 걸친 옷에 흐트러진 머리, 그 머리 쪽에 오색의 수실이 꿰어진 바늘을 꽂고 목에까지도 고운 수실을 걸고 먼 발치서도 보지 못한 압존(壓尊)들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수손을 놀려야 했던 여인들의 안쓰러운 모습이 이스탄불 뒷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깊은 눈에 목이 밟으나 잘생긴 터키 여인들의 둥근 등 옆에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다. 고운 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고운 손, 햇별을 보지 못해 세어 버린

창백한 안색, 과로로 눈만이 먼저 늙어 버린 얼굴, 젊어서부터 구부러져 버린 등, 그런 모습들이 어른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찬란한 수 보석 왕의, 언젠가 본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정교하고 현란한 극채색의 역대 청국 왕들의 기적 같은 수옷들, 영구히 헤어지지도, 닳지도 않을 성실하게 단단히 꼰 실로 치밀하게 수놓은 둘레에 더욱 단단하게 수선을 둘러뒀던 이조 궁수들을 볼 때 나는 야릇한 감동을 느낀다.

이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었고 고운 수실의 한 땀 한 땀은 기계의 단조롭고 무심한 반복이 아니고 아름다움과 창조의 손놀림이 아니었던가. 누가 입어도, 누가 써도 무방한 것이었다. 눈앞에 놓여진 비단폭에 무지갯빛보다도 다양한 색실로 시름을 놓고, 기쁨을 놓고, 한을 놓고, 꿈을 놓고, 인생을 수놓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 옛날, 서구 중세의 어두웠던 시절, 싸움터에 보낸 남편들을 기다리며 여인들은 남편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하층민의 여인들은 고된 농사와 힘쓰는 일을 맡았고 지체 있는 여인들은 자녀의 교육과 문화의 전통을 지켰다. 고된 노동은 숙수(熟睡)를 주지만 지체 높은 여인에게서는 깊은 잠이 없는 대신, 시간이 지겹게 길었다. 시름 끝에 그들은 수틀에 천을 끼운다. 살아서 돌아올지, 영구히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오색실을 십자로 교차시키며 그리움과 심려와 불안과 허전함을 검은 바탕에 아로새겨 갔다. 오늘에도 이름 높은 비엔나 자수——여인들은 여인의 그리움과 정결(貞潔)과 미더움을 자수로 달래며 또 표현했던 것이다.

자수는 여인의 인생 자체

자수가 여인의 숨겨진 마음이 배어 나온 은은하면서 강하고 애절한 호소력을 가졌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다. 〈박씨 부인전〉을 보면 갑자기 입결하게 된 시아버지 조복을 천대를 받고 있던 추악한 용

모의 머느리 박씨 부인이 하룻밤을 새워 꾸며 놓는다. 그러나 신통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솜씨로 수놓은 흉배의 쌍학은 중국 사신의 눈에는 굽주린 학들이었다. 시가와 남편의 천대와 학대에 그녀는 항상 굶주려 있었던 것이다.

자수는 색실 울울에 얹힌 여인의 정성이다. 유럽의 해묵은 성당에 남은 제의(祭衣)에 놓아진 경건하고 정교한 수들——신심 깊은 여인들이 기구하는 마음으로 수놓았던 성물들이다. 그것은 작업이 아니고 마음을 바친 신공(神功)이었던 것이다.

딸을 시집보내며 어머니가 수놓은 어설픈 연꽃 무늬 수저집이라든가 비단 조각보에 달린 홍공단 긴 끈 끝에 놓은 촌티나는 모란꽃 수를 볼 때 나는 유럽의 해묵은 성당에서 본 그 세련되고 정교한 제의의 자수를 곧잘 떠올린다.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 연상이지만 천주께 바치는 경건한 신공과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하루의 노고에 지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바늘귀에 색실을 꿰는 어머니의 정성, 그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언뜻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기능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일고의 가치도, 필요도 없는 것일지도 모르는 자수,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에 정성을 쏟고 힘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구현될 때, 그것은 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술로 승화될 때, 인류의 유산으로 길이 남는 것이다. 남이 보지 않는 내의에 놓은 한 송이 장미꽃——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만이 가지는 기쁨이기도 한 것이다. 무엇이든 정서를 풍부하게, 메마른 생활을 윤기나게 할 때,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수 침선에 힘쓰는 것은 여인의 본분이며 정성들여 건네는 한 바늘 한 바늘에 차분히 여인의 목숨을 확인해 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들은 우리 나라 두메 대치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도 처녀 있

는 집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치를 극한 프랑스 옛 귀족의 화려한 살롱 한 구석에서도, 왕족의 거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황제 나폴레옹을 잃은 서러운 폐황후 조세핀이 외로움과 슬픔과 시름을 달래며 만년을 살던 말메존의 살롱에는 연분홍색 바탕의 꽃수가 미완성인 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듯 영원한 여인의 한을 탄식하듯 남아 있어 찾는 이의 가슴에 감회를 안겨 준다.

자수 —— 그것은 어쩌면 여인의 인생 자체며 조세핀의 미완성의 꽃수처럼 우리는 시간이란 바탕에 무지갯빛보다도 다양한 색실로 인생이란 수를 놓다 완성을 보지 못하고 떠나 버리는 것이나 아닐는지.

모란꽃과 노랑나비

— 민화 모란 병풍 환상

흔레, 환갑 등 큰 잔치에만 썼던 까닭인지 모란 대병은 자주 쓰는 것이 아니어서 광방에 있는 다른 물건보다는 퇴락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홍, 청, 록, 황색 등 채색의 현란함도 세월에 어느 만큼 가리워지고 접어 놓은 사이사이로 앉은 먼지에 얹게 덮이며 군때가 묻은 데다가 얼룩마져 드문드문 저서 술한 사연을 느끼게 한다.

필법은 치졸하다. 색조는 촌스럽다. 정연하게 이어 그린 도안 같은 그림이다. 그러면서 어찌면 이렇게도 화려 찬란한 꽃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옛사람들의 정감과 생활의 자취가 물씬거리는 것 같다.

모란이라면 이런 촌스러운 진채의 진홍색깔이어야 하며 이렇게 어설픔게 너울거리는 꽃잎이어야 하고 서투르게 꽃힌 등황빛 꽃술이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의, 우리 방 앞의, 우리 뜰에 피는 꽃중 왕(花中王)이 우리 모란이며, 당 나라에서 보내 왔다는 나비가 없는 모란이 아니고 꽃 언저리에 역시 도안같이 그려진 노

랑나비를 뇌살시키고 있는 우리 나라 모란인 것이다.

꽃잎은 너울거리는데 노랑나비의 날개는 조용하다. 꽃의 현란함에 한때 숙연해지는 나비를 본다. 치졸하고 서투른 숨씨에는 틀림없으나 희한한 미의식이다. 불가사의한 환상의 꽃이다. 꽃들에 둘러싸이고 꽃 위에 앉고 꽃을 이고 꽃에 묻혀 있는 꽃잎 같은 새색시를 그려 본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 초라한 떠돌이 환쟁이의 쇠잔한 모습이다.

원칠하게 생겼으나 그는 그리 젊지는 않다.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닌 이 무명 화가는 어느 날 이 고을에 당도했던 것이다.

행랑채 한 방에 기거하면서 다락문이나 방문 두겹닫이에 화조, 기명 절지, 호랑이, 까치 그림 등을 그려 주고 얼마만큼의 폐백(그림 값)을 받고는 또 정처없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신세다.

한 고장에 오래 머물 수는 없으나 때로는 대방마님 방에 연병이라든가 월방아씨를 위한 화조병, 큰사랑의 산수병, 작은사랑의 책거리 병 등을 그려 주다가 해를 넘길 때도 있다.

이번에도 그러그러하다가 어언 일 년 남짓이 지났다. 주인은 이조 참판을 지내다가 이곳 청풍으로 낙향해 온 김 참판이다. 글 잘하고 사군자 잘 치고 술 좋아하는 풍류객이다. 주인 후하고 화구 등속도 풍족하여 모처럼 아늑한 나날을 지냈다. 그런데 불혹이라는 40 가까운 사나이 가슴에 물결이 일었다.

그 규수——이 때 막내 작은아씨를 본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다. 한 집에 기거한다 해도 마당 쓰레질하러 비부가 잠깐 들어갈 수 있을 뿐 내당은 가족 이외에는 금남의 집이다. 어쩌다 내행이 있을 때 대청 밑에 대령하는 교군꾼이 잠시 드는 것이 드문 예외인 것이다.

어느 날 대방마님이 작은매에 가는데 교군꾼(역시 비부지만) 하나가 급한 배앓이를 앓았다. 장난기도 약간 섞여 화공은 그를 대신하여 자

진하여 교군을 메고 나섰다.

그 대청에서 그 규수를 본 것이다. 봄이면 서울 서씨 대 도령과 초례를 올리기로 되어 있는 그녀는 열세 살의 동녀(童女)였다. 아담한 키에 달걀 모양의 얼굴인데 은행 모양의 검은 눈꺼풀이 섬세했다. 작으면서 도톰한 입술과 어린 얼굴에 기품을 주는 오뚝한 코가 절색이라는 느낌을 더해 주는 것이었다.

딸과는 달리 수수하게 점잖기만 한 어머니의 스란치맛자락을 가마 속에 차분하게 다스려 넣는 품이 자상하고 민첩했다. 그 모든 자태와 거동은 그곳에만 강렬하게 빛이 비춰져 있었던 것처럼 떠보이고 중년의 화공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하여 대례 때 쓸 병풍을 그리기 시작했다. 있는 정성을 다하여 현란한 꽃병풍을 그렸던 것이다. 진홍꽃 꽃잎을 포개고 포개어 그 하루를 장식할 꽃, 꽃들을 그리며 그의 마음도 꽃 속에서, 환상 속에서 살았다.

작은아씨의 모습은 청초하고 우아한 백목련이어서 진홍을 칠할수록 백목련의 청아함을 더해 갔다. 그는 자신이 그리는 노랑나비처럼 매혹된 영혼이 되어 자꾸만 자꾸만 무한하고 화려한 꽃 속에 묻혀 가는 것이었다.

꼬박 서른일곱 날을 —— 그의 나이와 같은 날 동안을 그는 스스로가 그리는 꽃 속에 파묻혔다. 너무나 높이 피는 꽃이기에, 너무나 청아한 모습이기에 사념을 지우려 하면서도 백여덟이라는 번뇌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안고 화려한 지옥을 헤매는 것이었다.

혼례날의 신부는 아름다웠다. 꽃 속에 앉아 어느 꽃보다도 아름다웠다. 모인 사람들은 꽃병풍과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꽃병풍은 신부의 칠보 단장의 한 귀퉁이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세월이 지나 떠돌아다닌 세월이 무거워 환쟁이는 이제 늙은 몸이었다. 어느 날 그는 청풍 고을을 지나다가 김 참판 댁을 찾았다. 김

참판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나 가세는 그대로인 모양으로 때마침 청지기가 상노와 비부들을 지휘하면서 수많은 서화를 거풍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거기서 지난날 자기가 그린 모란꽃 병풍을 본 것이다.

모란꽃빛은 그대로 찬란하였다. 꽃밀을 받친 바위의 군청빛도 선명하였다. 꽃술의 등황빛도 금새 묻어날 것만 같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물지으며 스스로의 손을 보았다. 늙어 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마르고 주름진 손을.

“아 그것 참 닮아 그리신 것이죠.”

늙은 청지기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

“네.”

대답하면서 그의 눈은 또 다른 말을 묻고 있었다. 이심 전심으로 청지기가 말했다.

“작은아씨는 돌아가셨어요. 오래 전에 열아홉 꽃 나이에.”

순간 환쟁이는 비틀하였다.

“네?”

현기가 심해졌다. 스스로가 그린 병풍 속 많은 모란꽃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그는 꽃보라 속에, 환상 속에 서 있었다. 백목련 같은 동녀의 품위에 찬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랐다. 모란꽃도, 아름다운 동녀도 그에게는 화려한 환상 속의 꽃들이었다.

현란한 혼례용의 모란대병에는 이런 이야기도 얹혀 있을 것 같다. 불가사의한 그 진홍빛 원색의 너울거리는 모란꽃 송이들이여.

백색(白色)의 철학

새하얀 종이를 펼쳐 놓는다. 무한한 가능성과 기다림으로 내 앞에서 잠잠한 한 장의 하얀 종이——그 앞에서 나는 언제나 잠시 망설이게 된다. 조각가가 한 덩어리의 돌 앞에서 망설이듯이 돌 속에는 무수한 형태들이 숨어 있는 것이고 조각가는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뜻있는 것을 그의 창조력과 예술성으로 돌 속에서 끌어 내는 작업에 몸과 영혼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얀 종이를 대할 때 나는 같은 경건함을 느끼는 것이다.

백색은 순수함이고 시작이며 기다림이다. 어떠한 색소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삼가는 마음과 망설임이 나를 사로잡는다.

갓 태어난 아기를 깨끗이 씻고 입히는 사람이 입는 첫 옷인 배내옷(産衣)은 으레 흰옷이며, 무슨 불길한 조짐이나 예언을 두려워했던 아기에게만 무색옷(주로 남색)을 입혔다고 옛 어른들에게 들은 일이 있다. 깨끗한 흰옷은 가난한 초생아(初生兒)에게 가장 위생적인 의복이라서겠지만 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상징성도 짙게 느껴지는 것이다. 홍공단에 찬란한 수를 놓은 활옷, 영락이 하늘거리는 화려한 화

관으로 신부를 성장시켰던 옛 혼속(婚俗)은 여인의 인격을 인정치 않았던 그 옛날 혼례날 하루만이라도 화려하게 찬란하게 치장하는 것을 허락하는 뜻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모습으로, 한 여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기보다 어느 가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날이 환영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큰 데 비하여 오늘의 신부는 순백의 결혼의 상으로 순결함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인상을 짙게 준다.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에 잘 융합되어 가통을 지켜가야 했던 옛 여인과 한 인격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가야 하는 오늘날의 여성의 모습이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과민 탓인가.

어쨌건 옛부터 순백색 옷을 신부 의상으로 하고 있는 서구에서도 재혼인 경우에는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순결을 잃은 사람에게는 흰색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흰색이란 그렇게도 준엄하고 어찌면 두렵기조차 한 빛깔인 것이다. 일념지사 불부소(一染之絲不復素: 한 번 물든 실은 다시 희어질 수 없다.)는 말은 옛 사람들이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었다. 일단 물든 흰빛은 찢어 버려도 조각마다에 물감이 묻은 채로 있는 것이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빛깔—— 그것이 흰빛이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남은 사람은 이내 새하얀 형묘으로 그 얼굴을 덮는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을 흰 형묘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흰색은 작별의 빛이며 슬픔의 빛이며 애도의 빛이며 기구의 빛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우리는 흰옷을 입음으로써 애도하며 망자의 영혼을 위하여 삼가며 기구하는 것이다.

옛부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을 때 사람은 목욕 재계하고 흰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렸다. 멀고 먼 옛날 한낱 돌덩이를 신성시했던 때에도 그 돌덩이 앞에 엎드린 기원자의 옷은 흰옷으로밖에 상상이 되지 않는다.

신들의 의상, 천사의 옷자락, 신선의 길고 넓은 소매의 옷, 선녀의 하늘거리는 치맛자락——그 모두가 내 상상 안에서는 흰빛뿐이다. 황금빛으로 선을 두르되 황제의 대관식 때 정장은 흰빛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흰빛은 것처럼 신성하고 고귀한 색깔인 것이다.

해서 중세 때 건립된 고성에서 죽어도 잠들지 못한 원한 맺힌 영혼이 무겁고 어두운 성 안을 헤맨다고 생각할 때 그 사령(死靈)이 입은 옷은 흰빛일 것이고 우리 나라 두메 허물어져 가는 물레방앗간에 머리를 풀고 나온다는 유령도 할머니들의 옛애기로는 흰옷을 입었다. 흰빛은 원한의 빛인가. 공포의 빛인가.

죄를 얻어 머리 풀고 흰옷 입고 대죄하였던 옛 풍속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꺼리는 일, 삼가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흰옷은 사람의 마음을 고즈너기 가라앉히며 숙연케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듯 흰빛 속에는 모든 것이 담아질 수 있고 그 색깔은 모든 것을 상징, 표현할 수가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서 자란 친구가 처음 귀국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강물이 푸르른 점이었다고 한다. 황하(黃河)의 탁하고 푸른 물과 황사로 덮인 황량한 풍토에서 자라던 눈에 고국은 실로 산자수명(山紫水明)의 금수 강산이더라고 하는 것이었다. 봄 진달래, 초여름 찔레, 한여름 푸른 초원, 가을 단풍, 겨울 눈산——어김없이 철을 찾아 장식해 주는 자연의 색채 속에서 사람이 스스로 택해 입은 것이 흰옷이었다면 우리 민족의 미의식도 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푸른 풀밭에 피는 새하얀 한 떨기 백합꽃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옛부터 예절 높기로 이름났던 나라에서 순수하고 단정하고 항상 삼가는 마음을 그대로 색깔에 싣고자 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인지 내 눈앞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여인은 항상 소복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생을 받은 까닭인지 나는 백색을 사랑한다. 하얀 꽃 찔

레가 피는 하얀 길을 사랑하며 하얀 백사 마당에 피고 지는 우리 나라 꽃들을 사랑하며 새하얀 커튼을 항상 드리우며 순백의 옷을 즐겨 입는다.

어떠한 색깔에도 쉽게 물들어 버리는 약하고 여린 속성을 가지면서 다시는 본색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매정스러우리만큼 깔끔한 빛깔, 단 한 가지 빛으로 수만 가지의 인생 문양(人生文樣)을 상징 표현할 수 있는 복잡 무쌍한 빛깔——백색은 표면은 단순함과 내면의 복잡성을 아울러 지닌 빛깔이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한 장의 흰 종이——마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는 이 새하얀 종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을 캐내고 싶다.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존재의 뜻과 보람을, 사랑의 아픔과 기쁨을, 만남의 즐거움과 별리의 애달픔을, 삶의 충일과 죽음에의 귀착을——그 모든 것을 캐내고 싶은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내 마음 속에 묻어 둔 나 스스로의 물음이고 부르짖음이며, 새하얀 종이를 앞에 할 때 그것들은 그 하얀 색 속으로 옮겨가서 나에게 진지한 발굴 작업을 강요하는 것이다. 백색의 환상, 백색의 두려움에 젖으며 나는 무엇인가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하얀 종이 앞에서 얼마간 망설인다.

흰빛이란 진정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새삼 느끼면서…….

히랍의 묘비(墓碑)

1969년의 ‘아테네’의 늦은 여름은 더웠다. 그러나 정면 중앙에 네 개의 ‘이오니아’식 대리석 원주, 양익에는 대칭(對稱)으로 여러 개의 ‘도리아’식 각주(角柱)를 세운 단아한 ‘아테네’ 박물관 안에 들어서자 나는 더위도 시간도 잊어버렸다. 거기에는 아득한 그 옛날 피었던 예술의 꽃들이 꽃피던 그때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는 이에게 절절한 감회를 전하며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깊은 감명을 준 것은 고대 히랍의 비길 곳 없이 아름다운 묘비들이었다.

고대 히랍의 신은 인간과 동형 동성(同型同性)이었다. 그리고 신은 하늘 높은 곳에 오직 한 분 계셨던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신들이 인간과 거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면서 분방히 교류하고 때로는 대항해 싸우기도 하면서 별주고 사랑하고 공경받고 의지받아가며 신인(神人)이 혼연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신과 달리 인간은 늙어야 했고 죽어야만 했다.

아무리 무훈이赫赫한 역발산(力拔山)의 영웅 호걸도, 꽃이 부끄러운 절세 가인도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

썩썩하고 수려한 청년의 얼굴에도, 밝아 오는 새벽 하늘처럼 곱던 소녀의 뺨에도 어느 날 늙음이 가차없는 자국을 판다. 늙음의 절망, 삶의 허망, 죽음의 공포는 예나 지금이나 동녘에서나 서녘에서나 인간의 변함없는 영원한 회의이며 오뇌이며 운명이다. 그러나 면치 못할 운명인 줄 알면서 사람은 언제나 늙음이 서럽고 죽음이 두렵고 이별이 아쉽다.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보내고 남은 이는 허망을 씹으면서도 애도와 추억과 사후의 명복을 빌며 무덤을 가꾸는 것이다.

회랍의 묘비에는 ‘드라마’가 담겨 있다. 사자(死者)의 생전의 일상, 죽은 이와 남은 이의 사랑에 찬 대면과 애절한 이별, 비탄에 잠긴 장렬(葬列), ‘하데스(冥府)’로의 불안과 공포의 여로(旅路) 등등이 새겨진 군상(群像)에도, 고인을 반신화(半神化)하거나 과도하게 영웅화시킨 단신상(單身像)에도 인생의 ‘드라마’는 듬뿍 담겨 있다.

회랍의 장식 묘비의 인물들은 파풍(破風)형 지붕을 두 개의 각주 내지 원주로 받친 소신전(小神殿) 속에 절묘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자는 살아 있는 어떠한 우수한 사람들보다, 지복(至福)의 가치를 가진 영웅들보다 행복하다는 고대 회랍인의 사상이 이 소신전형(小神展型)의 신성한 묘지의 형식을 취하게 했던 까닭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경에 제작된 투명에 가까운 아름다운 ‘펜테리콘’ 대리석에 부각된 유명한 ‘아리스티온’ 묘비의 직립 측면(直立側面) 부각의 청년 무사상이라던가 기원전 370년경의 ‘아테네’의 노신사의 품격을 고조시킨 측면 좌상 ‘툰니아스’의 묘비, 일군의 진두에 서서 용맹하게 돌진하고 있는 장면을 조각한 무장 ‘아리스토나 우테스’의 묘비, 전몰 전사들의 영웅적인 전투 장면을 소재로 한 묘비 등에는 그런 사생관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묘비에는 역시 아쉬운 이별과 죽음의 비애, 삶의 허망이 새겨져 있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복수 인물——사자와 생자를 배치한 회랍 장식 묘비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절절한 사랑과 끊지 못할 인간 관계,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

는 원재(遠在)를 본다.

‘아티카’ 예술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이 ‘아티카’ 묘비는 기원전 318년에서 317년에 걸쳐 끝을 맺게 된다. ‘팔레론’의 ‘데메트리우스’의 새로운 금령으로 ‘아테네’에서는 사치스러운 장식 묘비 건립이 금지된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를 과시했던 것을 공격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산과 메마른 땅의 나라 희랍에서는 당연한 처지였겠지만 이 금령은 ‘아티카’의 조형 예술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희랍에서는 기원전 500년경에 장식 묘지 건립이 법령으로 금지되었다가 기원전 440년경에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데메트리우스’의 금령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때까지 약 1세기 반에 걸쳐 그 독특한 고전적 양식을 형성하여 발달시켰다.

기원전 4세기의 ‘아티카’의 장식 묘비는 ‘나이스코스[小神展]’형의 고풍스러운 형식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르카이크’ 시대보다는 묘석이 많이 두꺼워져 소신전은 깊어지고 조각도 더 두께를 가져 부각이라기보다 본 조각 같은 것이 많다. 또 단신상보다 군상(사자와 그의 가족, 노비(奴婢) 등으로 구성된)이 많다. 이것은 폴리스(都市)의 제도가 약화된 이 세기에 가정의 더욱 긴밀한 것이 되어 갔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원전 4세기의 아름다운 묘비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서는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어린 자식을 두고 간 어머니와 애절하게 매달리는 어린 자식, 젊은 목숨을 잃은 청년과 그 부모의 슬픔, 꽃다운 아름다움을 지닌 채 간 소녀와 부모의 애통, 시녀들의 비탄, 심지어는 생전의 그를 따르던 소동물(小動物)까지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이미 ‘하데스(冥府)’는 ‘아르카이크’ 시대와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사자는 행복한 자가 아닌 것이다.

“하데스(冥府)의 깊은 나라는 무섭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비탄의

길이다. 한 번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은 단혀 버린다.”

라고 ‘이오니아’의 시인 ‘아나크레온’이 읊은 절망과 공포와 비탄의 나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데스’로 인도하는 명부의 사자 ‘헤르메스’에게 안내를 받는 ‘미류네’의 힘없이 고개를 떨군 슬픈 모습은 축복된 사자가 간다는 ‘엘류시온’에의 길이 슬픔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미류네’의 묘전에 있던 이 부각은 대리석 ‘레큐토스’ 둘레 속에 새겨진 것이며 ‘레큐토스’는 목과 몸체가 긴 병으로 옛 회랍에서는 묘전에 이것을 봉안하였다.

이 시대의 ‘아티카’ 묘비에는 거의 다 죽은 이와 산 이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 얼마큼의 예의를 빼고는 대체로 사자는 앉고 생자는 서있으며 서로 마주 서 있는 경우조차도 생자의 시선이 만면의 슬픔과 애석을 담고 파고들어갈 듯이 사자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죽은 이는 초점을 흐트리고 허공을 보고 있다. 죽은 이는 크게 산 이는 작은 비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자에의 예의이며 사자와 생자와의 세계가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한다. 더러는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 몸에 손을 댄 것도 있지만 양자간의 공간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한 동작이 보이는 친애와 긴밀한 인간 관계에도 불구하고 역시 양자는 별개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한 것이리라.

아름다운 ‘펜테리콘’ 대리석에 새겨진 유명한 ‘헤게소’의 묘비의 아름다움은 비길 데가 없다. 보존 상태가 좋아 묘주의 이름이 상부의 박공(樸拱) 밑 배내기 위에 또렷이 남아 있는데 ‘프로크세 노스의 딸 헤게소’라고 써여 있는 것을 보면 미혼의 처녀였을지도 모른다.

등과 다리가 흰 아름다운 의자에 ‘헤게소’는 앉아 있다. 그 앞에 머리 모양과 착의로 보아 시녀에 틀림없는 여인이 작은 상자를 주인 앞에 내어밀며 서 있다. ‘헤게소’는 그 장신구함임 듯한 상자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는데 목걸이인지 반지인지 그것은 없어져서 그저

손 동작만이 남았다. 물결쳐 흐르는 아름다운 의상, 고운 옆 얼굴, 교묘하게 판 머리 모양——아름다운 조상이다. 그러나 기원전 400년경에 제작된 이 묘비 속의 ‘헤게소’나 그 앞의 시녀의 얼굴에는 비애와 시름의 표정은 없다. 남은 이의 마음에 남은 그녀의 생전 일생의 모습이 아름다운 돌 위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 발을 옮기면 이름을 알 수 없어 그저 ‘여인의 묘비’로만 불리는 역시 ‘펜테리콘’ 대리석 묘비 속에 깊은 시름과 비애에 잠긴 여인을 본다. ‘헤게소’ 묘비보다 불과 2,30년 후에 건립된 이 묘비의 구성도 ‘헤게소’의 묘비와 같은 구성으로 두 여인이 하나는 앉고 하나는 서 마주보고 있는데 죽은 이는 허망을 가득 담은 눈을 뜬 채 고개를 떨구고 바른 손을 턱에 고이고 깊은 우수와 비애에 잠겨 있으며 시녀는 장신구함 뚜껑을 열기는 하였으나 슬픔에 잠긴 주인에게는 차마 건네지 못하고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두 묘비 사이의 시간은 불과 수십 년이건만 그동안 당시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달라 갔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조적인 묘비들이다.

희랍의 묘비 조각은 초상 조각이 아니고 남은 이 마음에 남기고 싶은 죽은 이의 생전 일상의 모습을 새긴 것이라선지 늙은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무덤의 임자가 모두 미혼의 처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슬픔과 애석과 사랑에 잠긴 부모인 듯한 육친이 간절히 응시하고 있는 여인이라면 젊은 죽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부의 박공 모양이 없어진 대리석면에 세 사람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묘비에서는 죽은 딸은 서 있고 남은 어머니는 등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다. 마주보며 악수를 하고 있는 모녀 뒤에 왼손으로 턱을 고인 아버지가 비통한 얼굴로 딸을 보고 있다. 딸의 눈길은 여기서도 허망하고 부모의 얼굴에 깃든 애석과 비애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기원전 4세기의 희랍의 묘비에서 보는 ‘드라마’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다.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 ‘폴록크세

나'는 두고 가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쓰라림이 그대로 응고된 것 같은 모습으로 등을 구부리고 고개 숙여, 허망하게 뜨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입은 비통으로 일그러뜨리고 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애통하는 딸, 뒤에 시립해 선 시녀도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이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젊은 죽음은 형용할 수 없는 정취(情趣)와 애상을 준다. 역시 같은 시대에 제작된 '아메이노클레이아'의 긴 나그네길에 오르는 모습은 아름답고 애처롭다. 그의 마지막 단장을 위하여 한 시녀는 장신구함을 들고 대기하며 서 있고 다른 시녀는 아름다운 발에 샌들을 고쳐 신고 있다. 곱게 단장하면서 '아메이노클레이아'의 얼굴에는 애처로운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유명한 '일릿소스'의 묘비 앞에서 나는 죽은 젊은 아들을 깊은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크나큰 비애에 싸인 모습에 가슴이 아파졌다. 19세기 후반 '일릿소스' 하상(河床)에서 출토된 이 아름다운 '펜테리콘' 대리석 묘비는 묘주의 이름을 알 길 없어 출토지의 이름을 따서 '일릿소스의 묘비'라고도 하고 '젊은 수렵인의 묘비'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은 없어진 양팔에 수렵에 필요한 창 같은 것이 들려져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되고 그의 발밑에 슬픈 듯 겁먹은 듯 웅크리고 있는 엽견(獵犬)과 옆에 세워 놓은 붉은 막대기 등으로 그가 생전에 수렵을 즐겼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년은 전라(全裸)의 빛나는 아름다운 육체를 갖고 있다. 흐름이 아름다운 의복을 뒤에 있는 얇은 나뭇가지 같은 옷걸이에 걸어 놓고 왼발을 앞에서 약간 꼬이며 정면을 보고 시선을 허공에 던지고 있다. 그의 바른편에는 기품이 넘쳐 흐르는 노인이 왼손으로 짚고 있는 지팡이에 몸을 실리며 바른손으로 턱을 고인 옆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태도는 다른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아들뿐이라는 듯 전심 전력을 깡그리 아들에게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들의 죽음이란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참한 모습

의 그는 늙은 눈에 가득히 비통을 담고 아들을 응시하지만 아들은 그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슬픔 속에 잠겨 먼 허공에 눈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정면을 보인 젊은 아들의 아름다운 육체와 완전한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잔(老殘)의 아버지—— 삶을 주고받은 부자이 풀을 수 없는 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핏줄이 이처럼 멀리 있어야 하는 존재의 비애와 애통을 이 묘비는 너무나 아프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왜 나서 또 반드시 죽어야 하나? 나는 박물관 독특한 여름에도 써늘한 공기 속에서 새삼 어리석으면서 심각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박물관 앞뜰에는 큰 나무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옛날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인간인 ‘트로이’의 왕자를 연모하여 ‘올림피아’의 주신 ‘제우스’에게 빌어 그를 위하여 불사의 선물을 얻어 주었는데 신들과 같이 영원의 청춘을 함께 받는 것을 잊었던 까닭에 왕자 ‘티토노스’는 너무나 늙어버려 드디어는 소리만 남았기 때문에 여신은 그를 매미로 만들었다는 희랍 신화가 머리에 떠올랐다.

사람은 신들과 달리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운명의 변천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떠한 종말이 올지 모르면서 인간은 무의미하게 허덕이며 바라며 기다리며 그날그날을 산다. 이것은 불로 불사(不老不死)의 신들이 모르는 비애이고 처참이고 숙명이지만 멸망을 잉태한 인간은 신들보다 더 많이 사색하고 더 많이 괴로워함으로써 어쩌면 신들보다 더 깊고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늦은 여름을 울며 보내는 매미가 된 ‘티토노스’는 그 단조한 울음 소리로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불사(不死)는 그에게 있어 차라리 저주였기에 그는 죽을 수 없는 운명을 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차에 오른 후에도 내 마음 속에서는 옛 희랍 묘비의 그 술한 드라마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간음한 여인

— 나의 생에 찍힌 한 폭의 그림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도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요한 복음 8장 7절)

그림은 이 준엄하고도 감동적인 장면을 주제로 하고 있다. 성전의 천장은 높고 어둡다. 그 높고 어두운 천장이 부끄럽고 두려운 죄지은 여인의 외로움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속절없는 단죄를 떨며 기다리는 죄인은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옷자락을 끌어당겨 부끄러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는데 가차없는 율법학자의 손은 냉정·잔인한 힐책의 표정이다. 한 줄기 빛은 그 비정의 손과 죄의 무거움에 떠는 가련한 죄인과 그 앞에 선 예수를 어둠 속에 떠올리고 있다. 가볍게 가슴 위에 놓인 예수의 손은 빛 속에서 부드럽다. 진실을 위해서는 얼음같이 냉철·준엄하면서 통회의 죄인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다. 의연하면서 위엄에 차 있고 긍연의 정과 관용이 서린 성스러운

모습이다.

설교를 들으려 모여든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로 차 있는 성전은 짙은 음영 속에 잠겨 그 어두움이 공간의 깊이를 더욱 실감케 한다.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둠 속에 군중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의 긴장과 기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빛과 어둠은 강렬한 대조를 보이면서 신비롭게 융합하여 이 명암의 깊은 호흡은 영혼에 직접 울려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애처로운 죄인의 옷과 그녀가 무릎 꿇고 있는 계단의 흰빛, 그리고 렘브란트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어둡고 깊은 붉은 빛의 대조 역시 절묘하고, 빛에 끌려들어가고 빛과 서로 호흡하는 색채의 신비로움은 감동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공간의 어둠 속에서 색채는 계시받은 영감같이 스스로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잠겨들면서 동시에 빛과 색채는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빛과 어둠과 색채의 불가사의한 대비와 친화——그것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남이며 영혼의 호흡 그 자체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에게 바쳐진 평가(評家)들의 말을 우리는 새삼 실감하게 된다. ‘빛의 화가’ ‘빛의 마술사’ ‘영혼의 화가’——그리고 이 평가는 어느 특정인의 감식을 통한 말이 아니다. 그의 그림에 접하는 모든 이가 감동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입에 올리는 말일 것이다.

내가 렘브란트에 심취하게 된 것은 10대 소녀 때 어느 외국 화집에 수록된 “야경(夜警)”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부터다. 빛과 어둠의 그 장대한 ‘드라마’에 압도되었던 나는 그 그림이 어느 극적인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위촉받아 그린 집단 초상화인 것을 알고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 “성 바오로로 분장한 자화상” 역시 나에게 큰 감동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은 같은 무렵 ‘살리아핀’의 그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은 저음이 부르는 “비가”를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충격과 동질의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그가 솔하게 그린 자화상과 여러 사람들의 그 수많은 초상화가 성화 못지 않게 주는 감동은 그 그림들이 외양상의 유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며 대상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생명 자체를 추구한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의 실감인 것이다.

너무나 탁월한 천재성과 너무나 개성적인 해석과 너무나 독특한 표현으로 하여 시대의 흐름을 넘어 존재했던 그는 세인의 이해 밖에 있었으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명성과 물질을 모두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별리의 아픔을 견뎌야 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고독과 화구조차 구하기 어려운 가난 속에서 순교자처럼 그리는 데만 몸과 전 혼령을 다 바쳤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만년의 자화상은 나에게서는 성자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의 만년의 자화상이 보이는 정신성——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독을 그대로 잠잠히 담은 그 얼굴은 또 모든 것을 견디어 온 극기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의 넓음을 보이고도 있는 것이다. 고독과 가난 속에서 유태인의 빈민굴에서 눈을 감은 그의 심정은 생명의 원형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용서’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간음한 여인”을 그린 것은 1644년이라고 한다. 그는 2년 전에 그린 대결작 “야경(夜警)”의 불평(不評)으로 내리막길을 내딛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당한 이해를 받지 못하는 아픔, 배신의 쓰라림, 생명처럼 사랑하던 아내 사스키아를 잃은 슬픔을 견디면서 그린 영혼의 표현이다.

길이 81.5센티, 폭 64센티에 불과한 크지 않은 이 그림을 런던 국립 미술관에서 직접 대했을 때의 감동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10대 소녀 때부터 실로 램브란트는 내 감동의 원천의 하나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중세의 미니아튀르

한 번도 문제가 된 일이 없는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느 미술 지에서도, 복사판으로도, 나는 그 그림들을 본 일이 없다. 두 장이 같은 사람의 손으로 그려졌다는 설명도 증거도 없다. 크기로 가로 20센티, 세로는 22~3센티쯤이고 다른 한 장은 가로 세로 19센티 정도의 정방형에 가까운 것이며, 의장도 도양(圖樣)도 판이하다. 지나치게 농밀하고 복잡 괴이한 것과 선에서 훨씬 긴장이 풀리고 단순하며 더 좀 치졸해 보이는 것과의 대비는 어쩌면 너무 두드러진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장이 다 다른 사본 장식용 미니아튀르와는 규격이 다르고 당초와 꼬인 끈 모양의 틀 속에 각종 도형을 그려넣은 점과 두 장 모두가 뛰어난 솜씨라고는 할 수 없는 점이 라고나 할까.

그러면서 나는 이 두 장의 미니아튀르에게 몹시 끌리는 것을 느꼈다. 바티칸 미술관 속의 도서관 한구석 유리장 속에 아무렇게나 처럼 놓여 있던 그림들이었다.

내가 중세 미니아튀르에 끌리는 것은 그 예술성보다 정신성과 제작자의 자세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복음서본, 성서

본, 시편본, 전례서본(典禮書本) 등의 사본들을 장식한 미니아튀르 제작의 발족은 6세기 중엽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당초 서방의 수도사들의 손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한다.

교회 기구와는 전혀 관련 없이 속세와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고립된 은둔 생활 속에서 금욕, 명상, 근로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완덕을 성취하려 했던 이집트를 시점으로 한 동방과는 달리 서방에서는 수도사(首長)들이 5세기 중엽 이래 한 사람의 수장에게 복종하면서 각 수도원에서 공주(共住) 생활을 해왔으며 수도원들은 교회 기구에 편입되고 수도사들은 임야의 개척과 농경이라던가 포교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하였다.

성무 일과의 합송 기도는 ‘끊임없이 천주를 찬미함이며 끊임없는 천주에의 찬미’야말로 이들 수도사들의 핵심적인 생활 내용이었다. 모든 것은 천주를 찬미하기 위해서였다. 천주를 찬미하고 기도를 합송하기 위하여 장대한 부속 성당의 건립이 필요했고 각자는 나름대로의 재질과 능력에 따라 성심껏 봉사함으로써 천주께 찬미와 영광을 바치려 했다. 학예의 연수 역시 신에의 봉사였으므로 수도원에서는(특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수사본 제작이 왕성하여지고 그 수사본들을 장식하는 다채롭고 독자적인 미니아튀르도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책의 장식용이니만큼 미니아튀르는 일반 회화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첫째, 화면이 작다. 단순한 장식에 그치지 않고 그 작은 화면에 어느 정도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징도 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한 그림이 그려진다. 한눈에 공들여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 중세 미니아튀르는 그리는 것이 아니고 천주께 바치는 신공(神功)이었던 것이다.

선 하나 긋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물감을 칠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복의 범열에 황홀에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었으리라. 겸허한 그리스도의 종은 바쳐

도 바쳐도 다시 모자람을 느낀다. 그 아쉬움, 송구함이 또 하나의 선이 되어 그어지고 뜨거운 신앙의 정열이 화면 위에 없어도 좋은 도양을 아로새긴다. 복잡한 화면, 오히려 전체의 균형을 해치고 있는 성가신 군더덕지를 우리는 미니아튀르에서 간혹 보지만 이것은 그림의 정성이 그런 모양으로 넘쳐 흘렀던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중세의 미니아튀르는 우리에게 찌릿한 감동을 준다.

카롤링조(朝) 이전부터 중세 전 기간을 통하여 제작된 미니아튀르 중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 많다. 8세기 중엽 북동 프랑스에서 제작되었다는 ‘켈라시아눔’의 전례서도 역시 바티칸 도서관에서 보았는데 마치 칠보 세공을 보는 느낌이었다. 도안화된 꽃, 물고기, 새, 짐승들의 모습을 또렷한 선묘(線描)로 아치형 속의 십자가 안에 그려 넣어 아치와 함께 장식하고 황, 녹, 주, 청색을 칠한 간결하면서 전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광대한 프랑크 제국을 세운 카롤 대제는 동방의 비잔틴 문화에 필적하는 서유럽 문화 건설을 위하여 공헌한 바 다대하며 고대 부흥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 건설을 목표로 한 강대한 정책을 세웠다. 제왕 자신과 그의 근친자, 측근자가 장이 된 대수도원이 문화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약하였고 성서를 비롯한 각종의 기독교 수사본의 제작과 그 수사본들을 장식하는 미니아튀르도 눈부신 발달을 하게 되었다.

8세기 말에 강력한 제국으로 출발한 후 10세기에 멸망할 때까지의 이 카롤링조의 미니아튀르의 원화를 나는 볼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대제의 고대 부흥 정책 아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양식과 아울러 게르만적 요소와 아일랜드 켈트적 요소와 시리아, 회랍의 동방적 전통이 엮보이는 복잡하고 호화로운 것이었다는 것은 사진 복사를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미니아튀르는 고딕 후기에는 제작소를 수도원 화방에 국한하지 않고 세속의 화방에서도 생산하게 되었고 카롤링, 로마네스크 시대처

럼 종교적 정열이 넘쳐 흐르는 작품들과는 달리 세속적인 현란함과 세련된 취미의 우아한 양식이 품미하게 된다.

왕후 귀족을 위한 경전 사본을 장식한 고딕 미니아튀르는 현재 유럽 각지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격 묘사가 두드러진 인물상과 생활 환경, 자연 묘사 등이 정확한 데생으로 표현돼 있고 세련된 화풍과 사실주의적 경향의 융합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중세 미니아튀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두 장의 그림을 보고부터인데 어느 시대의 어느 유파에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얼마큼 유치한 그 작품들은 웬지 로마네스크 시대의 것이며 바티칸의 수장품인데 또 웬지 북구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우선 약간 작은 쪽 화면의 구도가 로마네스크적 구성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 듯했던 것이다. 주제는 막연한데 고대 로마식 당초 무늬와 꼬인 끈 무늬로 몇 개의 아치형의 틀을 만들고 복잡하고 긴장된 선으로 괴수, 새, 물고기, 꽃 등을 중앙에 그려진 어린양을 향한 자세로 틀 속에 그려 넣었는데 새나 물고기, 괴수들은 자연 형태를 지니지 못하고 틀의 선에 복종하여 변형이 심했다. 틀 선에 따라 앞발이 극단으로 짧고 뒷발이 길게 뻗어졌는가 하면 동체가 꼬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는 괴수의 발톱은 앞발만 큼이나 길다.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변형이 아니고 독특한 구도상의 약속에 엄격히 따른 것임에 틀림이 없어 내 가난한 지식 속의 선입주(先入主)로 하여금 ‘로마네스크’를 느끼게 했던 모양이다.

어떤 양식이건 간에 이 그림의 선은 긴장된 채 복잡하게 얽혀 불안감마저 자아내고 있었다. 당초 무늬 틀 속에 갇혀 있는 작은 몸이면서 괴수들은 무수한 선에 뒤얽힌 당초 무늬와 문양화된 털에 어지럽게 엉킨 채 괴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북구에서 본 바이킹 선(船) 뱃머리에 달려 있던 괴수의 머리와 분명 같은 것이었다. 인간

의 상상력이란 어렵지 않게 일치되는 까닭인가, 아니면 괴수에 대한 개념에는 어떤 원형이 있기 때문인가. 이 유사는 나에게 적지 않은 의외감을 주었고 이어 북구의 옛 수도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좁은 해협에 대안은 스웨덴이 되는 덴마크의 끝, 비극의 왕자 햄릿이 태어나고 죽기도 했다는 크로인보 성 가까이에 그 수도원은 있었다. 종교 개혁 후 수도사들은 떠나갔다 하지만 중세의 이 수도원은 옛 수도사들의 뜨거운 신앙과 경건한 귀의심과 준엄한 규율, 초인적인 극기의 생활을 지금도 말없이 전해 주고 있어 찾은 이들을 숙연케 한다.

살을 에이는 북해의 얼음바람 속에서 수도사들은 겨울도 불기 없이 찬 돌바닥 위에 놓인 관(棺)만한 크기의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다.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그들의 방은 한쪽에는 중정(中庭)을 향하여 창이 나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넓은 복도로 나가는 좁은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에는 문짝이 없고 커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검소한 천이 걸려 있었다. 묘실만한 방의 생활은 밀폐되어서는 안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 앞에서와 같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가려야 할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고뇌와 갈등, 생체의 어지러운 욕망이 빚어 내는 마음의 티는 하루에도 일곱 번씩이나 가슴을 치며 통회를 한다 해도 말끔히는 털어 낼 수 없었으리라. 젊은 화승은 그 어지러움을 미니아튀르에 새기는 것이다. 어지러운 선의 긴장이 그려 내는 복잡하고 괴이한 괴수는 그것을 천주의 전능하심과 지전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귀의시킴으로써 천주의 영광을 현양코저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번뇌가 고통으로 몸을 비트는 순간마다의 신음소리를 저도 모르게 그대로 형상화시켰던 것이나 아니었는지? 당초와 꼬인 끈 무늬의 틀 속의 괴수, 새, 인물들의 변형은 화면의 구성 질서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뇌하면서도 회의와 갈등에 괴롭게 얽히면서

도 끝내 천주를 떠날 수 없었던 중세인의 피어린 고해의 내용이며 죄인의 통회와 봉헌의 기도이기도 했다면 지나친 망상의 말이 될까?

어쨌건 젊은 화승은 이미 너무 복잡해져 있는 화면에 또 하나의 괴수를 그려 넣는다. 그 옆에 당치도 않은 꽃 한 송이를 또 그려 붙인다. 축복된 가난한 마음을 찾으려는 목마름이요 몸부림이다. 모처럼 지키려 한 화면의 해조(諧調)는 이런 군더덕지로 자칫 무너지려 하지만 그는 감히 개의치 않는다. 다듬고 정리하기에는 종교적 정열이 너무 벅찬 것이다. 이 미니아튀르가 주는 감동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복잡하고 괴이하게 얹히면서 칙칙한 파계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거칠없는 통회와 벌거벗은 영혼의 절규와 절절한 기구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장은 아주 다르다. 같은 작자의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화면은 허전할 정도로 간결하다. 선은 부드럽고 느슨하다. 역시 당초와 꼬인 끈 무늬에 둘러싸인 활처럼 흰 틀 속에 십자가와 인물들을 그려 넣었다. 아무 장식 없는 간결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네 사람의 인물이 양 옆에 상칭으로 서 있고 인물들 사이에는 줄기가 달린 꽃이 한 송이씩. 그 틀을 떠받듯 화면 아래에는 가운데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지키듯 복종하듯 두 마리의 괴수가 양 모서리에 양전히 앉아 있다. 어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다 만 것 같기도 한 영성한 구성과 필법이다. 그러나 치졸한 대로 구도상의 약속은 어느 만큼 지켜져 모필로 그린 것같이 느슨한 선의 영성한 당초 무늬 틀 속에 수직으로 내리그은 두 줄의 옷주름으로 하여 평면화된 인물들이 틀의 선에 따라 역시 변형된 모습으로 서 있다. 인상(人像)이지만 인간의 자연적 외관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틀 선에 복종시키려는 구성 질서이기도 하지만 이 변형은 너무 치졸하다. 같은 평면에 설 수는 없어 모두 조금씩 떠 있다. 두 발은 하나같이 밖으로 벌리고 있는데 그 발이 흡사 물오리의 물갈퀴 같다. 그러면서 단순한 상형 문자적 인체상이 아니고 정신이라든가

감정 같은 인간의 내용을 얼마큼 간결하고 직선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묘하게 감동적이다.

하나같이 초점 없이 영원을 응시하는 것 같은, 이른바 비잔틴의 눈을 가지면서 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변형을 통하여 내면을 표출하려 했던 것인지 순종과 정결, 평화와 법열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뛰어난 기법을 애써 누르고 짐짓 치졸한 표현을 빌어 오히려 효과를 내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줄 것이다.

나의 상상의 날개는 좀더 넓게 퍼진다. 갈망과 갈등과 회의와 두려움에 얽혀 몸부림치던 젊음에서도, 젊음의 괴로움에서도 놓여 나고 신의 노여움보다 신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중세의 노수도자의 지복에 찬 심상을 나는 보는 것 같았다.

누가 중세를 암흑 세계였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 전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존재의 확신은 은총이며 권세와 야욕을 모르는 겸허한 사람들은 그 은총을 입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정성들여 공들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세부에까지 골똘히 마음과 손을 쓰고 그래도 모자라 자꾸자꾸 군더덕지까지 붙여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열과 지성이 20세기 말의 불안과 불신 속을 사는 나에게는 부럽다. 자신을 봉헌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이 부럽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던져 버리고 싶도록 불안에 시달리고 절망에 빠질 때, 초조에 사로잡힐 때, 자주 미술책을 뒤적여 중세 미니아튀르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 그루 나무를 가꾸는 마음

한 그루 나무를 가꾸는 마음

김포 가도를 달릴 때마다 갖는 것은 나무란 심어서 해치지 않으면 자란다는 느낌이다. 몇 해 전만 해도 가냘프던 도로수(道路樹)의 그 버드나무들이 곱게 실가지를 늘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부드럽고 풍부해진다. 금수 강산이라고 불리던 우리 나라의 황폐는 나무 없는 데서 온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가지만 꽃아 심어 한동안 물만 잘 주면 잘 자라는 버들, 미루나무, 개나리 같은 나무도 차차 줄어만 가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촌을 가보면 한눈에 가난이 가슴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몇 대가 이어 살았다는 집 마당에 그 흔해빠진 버드나무나마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스산해진다. 벌거벗은 산천, 벌거벗은 메마른 마음, 생각할수록 서슬퍼지지 않는다.

언젠가 일본 하코네(日本箱根)에 갔을 때 일이다. 11월도 하순이어서 산 위는 벌써 겨울 추위였는데 난방이라곤 사기 화로 재에 묻은 약한 숯불밖에 없어 나는 몸을 떨 수가 없었다. 그때 생각한 것은 일본 국민들이 그 많은 천재(天災)(일본은 화산국이니만큼 지진이 많고 도서국이니만큼 태풍이 많다.)를 겪으면서도 재기하고 또 재건한 데 대한

내 나뭇의 해석이었다. 하코네(箱根)는 80리를 가도가도 아름답지 나무로 차 있는 험준한 명승지이다.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 대거목(大巨木)들에 싸여 길을 찾기조차 어렵다. 그렇게 곁에 나무들을(연료가 될 수 있는) 세워 두며 추위를 극복하고 있는 그들의 극기심과 근면과 산림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그들의 원천이 아닌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북구를 돌고 와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북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삼국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수해(樹海)란 말에 실감이 가는데 어느 집에 가도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정답게 타고 있고 그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지낸다 한다.

물론 전력이 풍부한 까닭도 있겠지만 그들의 산림 정책의 합리성과 그 실천의 철저함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면 반드시 그만큼 더 심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산림은 산림대로 보호하고 일본처럼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도 쾌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낀다는 것은 손대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면서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나는 배웠다.

남구(南歐)에는 꽃피는 가로수가 행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데가 많았다. 우리도 가로수 하면 플라타너스나 미루나무니, 그저 앞만 보는 나무만 심지 말고 무궁화 같은 것을 심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과수(果樹) 같은 것도. 감나무는 3년이면 열매가 여는 나무라는 데, 그리고 그리 손이 타지 않는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우리 모두 나이들어 그 나무에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 손자들이 어느 초겨울 저녁놀을 뒤로 물든 나뭇잎과 몇 개의 열매를 웃가지에 남긴 높은 감나무를 쳐다보며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보도 위에는 아기들의 걸음마다에 꽃잎 같은 단풍진 잎이 깔리고 아기들 위에는 역시 귀소(歸巢)를 재촉하는 새들이 날고—— 결코 실현성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나무를 심어 아껴 가꾸어 그 옛날

처럼 우리 산천을 나무로 수놓아 다시 금수 강산이라고 불리고 싶은
소원 간절하다.

성경(聖經)

이 가을에는 성경을 권하고 싶다. 성경을 읽는 일은 가을에만 가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처음부터 순서를 따라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몸 가까이 한 권의 성경을 두고 아무데나 열고 읽는다.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고 외로울 때는 위안을 길을, 잃었을 때는 지침(指針)을,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평화를, 그리고 미움에 찬 마음을 풀어 주고 흉악한 생각을 씻어 준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을 열면 거기 길이 있을 뿐 아니라 읽을수록 진미가 있고 문학적 감흥도 어느 문학 작품보다 높다.

만서(萬書)를 독파했던 파스칼도 일서지인(一書之人), 즉 성경 한 권만 일생을 두고 읽고 읽은 드 사시 후작의 견식을 따르지 못했다고 듣고 있다.

우리는 좀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난해한 데는 풀어 줄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것도 좋고 마음을 울리는 성구를 외어 살아가는 슬기로 삼는 것도 좋다.

고요한 가을밤 평화 속에서 성경을 읽노라면 삶의 기쁨과 존재의 무게와 끝없는 열락을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는 것이다.

충직한 곰

만사에 지친 사람이 있었다. 권력도 쥐어 본 일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 본 일도 있는 사람이었다. 갖고 싶은 것은 모조리 가져도 보고 아름다운 여인도 품에 안아 보았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사람들의 부끄러움 없는 배신, 추악한 욕심과 몸서리 나는 모략을 겪어 속절없이 갖게 된 불신이었다. 남들은 달관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기실 그는 아주 공허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경치 좋은 곳에 산장을 짓고 살기로 하였다. 철저하게 염인가(厭人家)가 된 그는 산장에서 한 마리의 곰과 함께 살았다. 곰은 건강하고 근면하고 거짓없고 충직하였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곰은 어느덧 주인의 마음을 안 듯하였고 주인의 기호와 생활 습성을 익혀 그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해주었다. 곰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유모처럼 그를 돌보는 것이었다.

세상을 멀리한 주인은 평화와 정숙과 평안 속에서 공허하나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온을 느끼며 긴장도 흥분도 또 절박한 용무에 따르는 곤욕이나 피로도 없이 그날그날을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무더운 하오 주인은 정원의 나무 밑에 편안한 의자를 놓고 비

스듬히 누워 쉬고 있었다. 나무 밑은 시원하고 하늘은 맑고 꽃향기조차 가득하여 흡사仙境(仙境)인 듯한 그곳에서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은 그 옆에서 그를 지키며 커다란 파초선(芭蕉扇)으로 날아드는 벌레를 쫓고 있었다.

그러는 중 벌 한 마리가 주인의 콧등에 날아와 앉았다. 꿈은 이내 그 큰 손으로 벌을 쫓았다. 벌은 잠시 날아올랐다가 다시 또 콧등에 앉았다. 꿈은 이번에도 곧 벌을 쫓았다. 그러나 벌은 또 다시 잠시 피곤했다가는 콧등에 돌아와 앉았다.

이러기를 몇 번 하는 동안 미련한 꿈은 머리끝까지 약이 올랐다. 불같이 화가 난 그는 마침내 정원에 있던 바위만한 돌을 종이같이 가볍게 들어 벌을 내리쳤다. 벌은 재빨리 하늘에 날아오르고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주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돌 밑에 깔려 숨져 있었다. 충직한 꿈은 너무 충직한 나머지 주인을 무참히 죽여 버린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적이 있게 마련이다.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어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와 의견 견해를 달리하고 자기를 역겨워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심화(深化)하고 또 자신을 다듬는다. 전혀 독성이 없는 약이 없듯이 인생이란 거침없고 밋밋하고 편안한 것만으로 차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생은 싸워서 이기는 것

— 어느 소녀에게

경아!

어머니의 병환은 어떠시지? 날씨도 점점 따뜻해 오는데 하루바빠 회춘하시기를 빌 뿐이야. 어머니 병구완하며 어린 동생들 수발, 아버지 시중 등 경아는 참 큰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여 어제 경아를 보고 탄복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렸댔어.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남달리 성적이 좋았던 경아가 진학을 단념하고 가사를 보아야 하니 얼마나 한스럽고 안타깝겠어. 경아의 윤기 흐르는 갈래머리가, 가냘픈 어깨가 소녀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고 있는 내 가슴이 더욱 아팠어. 그림 솜씨가 놀랍다고 했지? 문학 소질도 풍부하다고 들었어. 모두 펴보고 길러 보고 싶은 재주였겠지. 참 안됐어.

그러나 경아…… 나는 어제 경아와 경아 집에 놀러 온 역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회사에 취직을 한 경아의 친구 연숙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 대학 진학은 못 하였지만 이들은 철없고 들뜬 일부

여대생보다는 진학을 단념했다는 점에서 벌써 한 걸음 앞선 것이라고. 희생이라는 귀중한 체험을 한 것이니깐. 그리고 너의 그 살뜰한 마음 쓰임과 날렵한 몸 움직임, 또 연속의 어울려 보이는 몸가짐과 의젓한 말씨 등 모두 어떤 틀을 잡은 모습이었어.

경아…… 결코 입에 발린 위로의 말이 아니야.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대학에 들어갔다 하여도 일부 물지각한 학생들은 경박하고 내용 없는 학생 시절을 보내기도 하는데 경아나 또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취직을 했다는 연속은 불운한 현실을 극복하여, ‘간판’만을 걸고 살려는 허영심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지와 결의와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 사임당은 기막힌 가혹한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출중하게 기르시고 자신도 불후의 작품을 남기셨어. 몇 굽이 꺾어야 했던 고난은 그를 옥으로 다듬었던 거야.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역사에 남은 위인이나 빛나는 학자, 예술가 중에도 최고 학부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 티없이 맑고 즐거워야 할 나이에 좌절감(挫折感)을 느끼는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그만큼 너희들은 젊어서 벌써 인생의 무게를 얼마큼 지니게 된거야. 너희들은 아직 인생의 문턱에 있는데 경아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의 등불이 되어 있고 연속이는 동생들의 힘이 되어 있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간난(艱難)은 너희들을 옥으로 닦아 주고 시련은 너희들의 투지(鬪志)를 더욱 왕성케 해주리라 믿으며 인생이란 싸워서 이기라고 주어진 과제(課題)라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참 고맙겠어.

악역(惡役)

— 어느 연예인을 만나 보고

내가 악역(惡役)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산 피난지에서부터인 것 같다.

장난감도 놀이터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허술한 차림새와 때묻은 얼굴로 잘도 놀았다. 노상에서, 좁은 방에서, 자리를 가리지 않고 노는 것이 곧 성장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놀이 중에는 ‘도둑놈 잡기’ ‘호랑이’ ‘문둥이’ —— 이런 따위도 있었다. 전시의 어지러운 사회상이 그대로 어린이들 세계에까지 반영되었다면 좀 신경 과민일 것이다.

아이들의 판단이란 의외로 준엄하여 나는 한 번도 그 놀이에서 ‘악(惡)’이, 도둑놈이, 호랑이가, 문둥이(이 경우 악의 상징)가 —— 즉 ‘악(惡)’이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자면 선(善)을 강조하기 위하여 악을 가설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이에 적지 않은 애로(隘路)를 느끼는 모양이었다. 도둑놈, 호랑이 역 —— 악역을 맡겠다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골목 대장이 강제로 지목을 하는데 지목받은 놈은 언

제나 불만이어서 그역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놀이는 그만 김이 빠져 버렸다. 그런데 나의 둘째놈이 언제부터인가 이 악역을 자진하여 맡게 되었다. 이놈은 갖은 흉한 역을 혼자 도맡아 아이들의 놀이는 이놈으로 하여 언제나 활기를 띠었다.

그 후부터 나는 악역이라면 그 악역을 맡는 너그러움을 느껴, 그 인간성의 풍부함에 연기(演技)를 떠난 호감을 가졌다.

이예춘(李藝春) 씨를 처음 본 것은(나는 영화를 잘 안 본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에서였다. 분장에서부터 인간의 체취가 물씬 났었다. 좀 비대한 편인 체구에 약간 좁은 듯한 군복을 끼어 입은 모습에 ‘모리 사병’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악’을 전연 자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그래서 악이란 상징이 아니고 인간의 슬픈 약점이라고 느끼게 하는 연기였다. 더구나 뒤에 가서 그가 보이는 비굴성을 잘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엄존하여 사람이 거기 지배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의 명암(明暗)이 선과 악을 상징 구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가 ‘악’을 설정하고 거기 맞추어 행위할 때 우리의 감명은 옅어진다. ‘악(惡)’과 ‘악인(惡人)’과는 다르다. ‘악인’의 일상도 이른바 선인과 마찬가지로이다. 악인이라고 입으로 밥을 먹지 않고 코로 먹는 것은 아니다. 코로 먹는다면 이상 생리자이지 악인이 아니다. 즉 악인도 인간이다. 이예춘 씨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악인’이 되는 ‘인간’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박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이씨를 만나고 나서 나의 ‘악역관(惡役觀)’은 부동(不動)한 것이 되었다.

박래(舶來) 구두

일본의 서구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국산 애용’을 목말라 외쳐댔건만 일본인들은 박래품(舶來品, 외래품)만을 제구실을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일산(日産) 구두라면 얇잡아 보는 형편이라 어느 제화업자(製靴業者)가 궁여지책으로 내건 간판이 ‘박래구두제작소’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우스꽝스러운 광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특하면 ‘그거 어딴제지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딴제죠?’ 한다.

이 경우 진짜는 외제고 가짜는 국산을 말하는 것 같다. 외국제면 무엇이든 좋은 줄 알고 외국서 사가지고 온 물건을 보니 한국제였다는 ‘넌센스’는 이제 흔한 일이 되고 말았다.

어느 고도(高度)한 문명권 주변의 민족들의 중심 문화에 대한 동경과 대항은 어디에도 있다. 서구 문명에 대한 ‘슬라브’ 민족이 그렇고 ‘게르만’에 대한 ‘폴란드’, ‘루마니아’의 ‘프랑스’ 문명에 대한 태도 등등이다. 그리고 아시아를 보면 일본은 한문화(漢文化)와 서구 문화를 대해야 할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은 특이한 역사 경험으로

하여 이중성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즉 한문화, 서구 문명 외에 일본의 영향을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대항하면서도 받아들였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

한 민족이 어느 고도한 이문화(異文化)에 접했을 때 일어나는 알력, 반발, 혼란은 불가피하나 그것은 민족의 정신, 지성, 생활에 활기를 넣어 주고 그 민족을 보다 고도한 민족으로 성장시킨다. 올바른 이해, 정확한 판단, 타당한 섭취가 가장 중요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은 외래의 것이라면 우선 숭배, 종속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구두’뿐이라. 모든 분야에 있어 떼떽하게 내것을 내세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박래구두제작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몹시 안타깝다.

어록(語錄)

영 기

—머루치 모가지

영기는 너무 일찍 아우를 보았다. 남유달리 유도가 흔해 젖 이외에는 과즙 한번 먹은 일이 없었는데 젖은 입덧이 시작하자마자 야속할 정도로 뚝 끊어져서 아이와 엄마는 무진 고생을 했다.

아이는 무엇을 주어도 도리질을 하고 먹지를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물만 먹어도 심한 설사를 하였다. 젖 이외에는 받아 본 일이 없는 위장은 아예 기능을 잃은 것만 같았다.

몹시 일되어 여덟 달에 벌써 걸음마를 시작하고 “맘마 쥐” “이이(이리)가” “시여(싫어)” 등 말을 하게 되어 쟁그럽다고들 하던 것이 한 달도 못 가서 앙상하게 말라 돌상을 받을 때는 앉지도 못했다.

아기가 겨우 암죽이라도 받아 먹게 되었을 때는 벌써 동생이 태어나 체질적으로 유도가 흔한 엄마는 젖 주체를 하지 못했으나 아우 본 아기에게는 먹이지를 않았다. 짜버리는 것이니깐 하고 젖을 먹였더니 아이는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젖에만 매어 달려 다시 물도 마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갓난이보다 겨우 십사 개월 먼저 태어난 누나는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간 밀친’인 만딸 노릇을 곧잘 하였다. 저보다 더 살이 찌고 큰 아우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애기보기를 해주어, 약하고 바쁜 엄마의 힘을 덜어 주었었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아우와 자기가 찰 기저귀도 엄마 옆에서 제법 쓸 만하게 함께 개어 주기도 했다. 신체 발육은 아우를 본 타격으로 지위가 졌지만 두 돌 전에 벌써 웬만한 말은 다 할 만큼 지능은 발전되어 엄마가 빨래 간 사이에 애기도 집도 곧잘 보았다.

고랑포라는 고장은 임진강을 따라 이루어진 곳이다. 아름다운 고장이었지만 모든 수맥을 큰 강이 모두 흡수한 모양으로 발 아래 큰 강을 굽어보면서 식수 곤란이 극심했다. 젊은 엄마는 두 아이가 휘질러 내는 빨래에 시달렸다. 동네 아낙들이 모이는 빨래터는 장거리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 서울서 내려간 새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 아래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빨래를 하곤 다시 그 절벽을 기어올라 와야 했다.

어린것을 업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두 살짜리와 한 살짜리만을 커다란 사택에 남겨 놓고 절벽을 타고 강에 빨래를 갈 수밖에 없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물이 차서 손끝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기어오르면서 붙잡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한 고비를 넘기고 사택 마당에 발을 올려놓은 순간, 엄마는 불에 데인 듯이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는 한 놈의 것이 아니고 두 놈이 다투듯이 우는 심상치 않은 소리였다.

빨래통을 팽개치고 뛰어들어간 엄마 앞에 벌어진 광경은 어이없는 것이었다. 백 날을 며칠 앞둔 발육이 뛰어난 갓난이도 비리비리한 누이도 모두 똥투성이가 되어 소리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것이다.

꼬마 누이는 엄마를 보자 서럽게 울면서

“오기(호기)가 똥 찼져(쌌어). 찌주기(기저귀) 가야(갈려)는데.”
 하고 호소를 하는 것이었다. 아우인 호기는 저보다 마르고 작은 누이가 기저귀를 갈려 하자 싫다고 발버둥이를 친 모양으로 입은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이불, 요, 포대기가 똥 두루마리가 되었던 것이다.

엄마는 어린 영기가 너무나 기특하고 가엾어서 똥투성이의 어린 것을 품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영기는 두 돌을 지나고부터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충실하게 자랐다. 심부름도 곧잘 하고 엄마가 없을 때 찾아온 사람의 인상을 착의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전하곤 하였다.

어느 날 엄마가 빨래터에서 돌아오자 영기가 쪼르르 뛰어나와
 “손님이 오졌쨌요.”

한다. 누굴까 하고 고개를 가우똥하는 엄마에게 꼬마는

“까아만 소리를 하는 아저씨야.”

“까아만 소리?”

“응, 까아만 소리 했지.”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자 그녀는 장난감 탁상 피아노 쪽으로 가서 최저음을 눌렀다.

“이언(이런) 소리야. 까만 소리지? 그지?”

하는 것이었다. 꼬마에게는 저음은 까만색이고 고음은 빠알간 색이며 하얀색은 약음이었다. 어린 직감으로 음을 시각화시킨 것이다.

영기는 만 세 살도 되기 전에 동생이 둘이 되었다. 삼십 분만 내쳐자도 셋 중의 하나는 요에 지도를 그리는 연년생을 데리고 손대기도 없이 매달 며칠은 큰댁에 가 있어야 하는 엄마의 고통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엄마뿐인가, 어린것들도 시골서 버스타고 삼등도로를 수십 분을 흔들려 철도역까지 가서 하늘의 별따기 같은 기차표를 몇 시간이나 걸려 사고 서울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연천 가는 표를 천신만고로 입수하여 경원선으로 갈아타 연천역에서 내려 묘화에 낙향해 계시는 시대까지 산길을 십리나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오

죽하면 그 산골에서 조석상식 모시며 살던 때를 오히려 그리워하며 다시 합솔했을 때를 기뻐했을까. 전시 그 무서운 시절에 젊은 여자가 네 살, 세 살, 한 살의 아이들을 업고 안고 손 붙잡고 몇 번이나 차를 갈아타 가며 대종가 덕 그 술한 길흥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해야 하는 고통은 비길 곳이 없었다. 이윽고 아우보다 겨우 십수 개월 먼저 태어났다 하여, ‘큰놈’이 된 영기는 어린것이 가엾게도 그 고통의 일단을 말아야 했던 것이다.

패색이 역연해짐에 따라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들어갔다. 농촌에는 징용으로 장정들이 징집되어 가서 일손이 극도로 달리고 정신대라는 데에 처녀들이 끌려가 아기보는 사람 하나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농촌에 사는 덕택에 주식은 그럭저럭 얻을 수 있었으나 야채밭을 ‘채마’라고 하는 것도, 김맨다는 말도 처음 듣는 서울 색씨는 가족의 부식과 연년생 아이들의 영양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일을 했다.

넓은 사택 뜰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무엇이든지 심었다. 닭도 수십 마리를 쳤다. 인분과 계분으로 비료가 넉넉한 탓인지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작물은 곧잘 자랐다.

엄마 자신이 변변치 못하면서 당면한 생활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다. 호박이나 가지 따위는 조금이라도 여분이 생기면 썰어 조합 창고 양철 지붕에 널어 말렸다. 몰래 입수한 밀을 제피도 못한 채 맷돌로 갈아 날마다 여러 마리의 암닭이 낳아 주는 계란을 듬뿍 넣어(그 당시 이것은 기막힌 사치였다.) 어찌어찌 애써 얻은 설탕과 반죽하여 프라이팬을 두 개 이용한 억지 오븐으로 비스킷을 구어주기도 하고, 밭에서 갓 캐어 온 감자를 아주까리 기름으로 노릇노릇 구어주기도 했다.

연년생 아이들은 하나가 앓으면 으레 환자가 셋이 되었다. 세 놈이 다 앓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라 갔다. ‘큰놈’으로 태어난

영기는 필사적으로 사는 엄마를 곤잘 도왔다. 밭을 매는 날이면 젓먹이는 방에 뉘어 두고 네 살짜리와 세 살짜리는 뜰에서 놀게 하여 보아 주면서 호미질을 했다. 아이들은 싸우는 일이 없었다. 흙에서 구르며 곤잘 놀았다.

그래도 재잘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하루는 너무나 조용하여 수상히 여겨 눈을 들어 보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엄마는 너무나 놀라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침부터 매고 있던 밭에 있었다. 두 아이의 얼굴은 득의에 차 있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우이도 뽑았쎄요.”

영기는 엄마를 도우려고 엄마가 속아 놓은 김장 밭 한 고랑을 호기와 함께 모조리 뽑아 버린 것이었다.

어쨌건 영기는 엄마를 도우려고 애를 썼다. 귀한 먹이를 흘려 버려 엄마를 질색케 하면서 닭 모이도 주고 김칫거리도 함께 다듬어 주었다.

그런 생활에도 우리집에는 손님이 많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바둑을 좋아하고 인정이 많은 남편은 조합에 온 조합원을 거의 날마다 데리고 왔다. 하여 찬거리는 항상 달렸다. 계란과 야채 이외에는 모든 것이 귀중품이었다. 엄마는 반찬 마련에 골치를 앓았다.

친정 어머니가 간간이 보내 주시는 미역이랑 마른 머루치도 아껴 아껴 써야 했다. 미역은 미역국, 미역 무침, 미역 튀각으로 이용하고 머루치는 도착하자 곧 한 부대를 다 쏟아 손질을 했다. 대가리를 떼고 똥을 발라 낸다. 몸똥아리는 볶음으로, 대가리는 바스러서 된장찌개에, 똥은 밭에 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제법 손을 타는 작업이다. 영기는 찢고만 손으로 엄마를 도왔다.

어머니는 햇머루치가 나오면 제일 큰 부대로 머루치를 보내 주셨다. 그 해도 가을이 깊어 갈 무렵 머루치가 오고 나는 언제나처럼 그것을 다듬기 시작했다. 영기도 옆에 앉아 도울 채비를 차렸다. 얼마

를 다듬다가 영기가 말했다.

“어머니…… 모가지 하나 먹어도 돼? 모가지 하나만 나 줘, 응?”

엄마는 머루치 비린내가 나는 손으로 어린 딸을 끌어안았다. 나는 어느덧 울고 있었다. 대가리와 모가지도 분간치 못하는 겨우 세 돌배기 어린것의 너무나 겸손하고 절제적인 말에 깊은 죄책감을 가진 것이다. 전시의 극심한 결핍을 어린 직감으로 예민하게 느끼고 가장 본능적인 먹는 것에 대한 욕망마저도 이 어린것은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낫다 한 것은 어른들과 손님들에게 드리고 어린 것들에게까지도 먹일 수가 없는 어미의 어쩔 수 없는 불쌍한 규모를 어린 딸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머루치 모가지…… 모자라는 어휘로 최소한의 것을 조심스럽게 원했던 그가 너무나 애처로워 이때 이 말은 언제나 엄마의 마음을 적셔 주는 것이다.

호 기

——삼천만의 한 사람

호기의 출생은 친가에서보다 외가에서 더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다.

외아들 밑에 줄줄이 딸만 낳으신 부모님은 실로 27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신 것이다. 외아들로부터도 손을 얻었으나 두 아이가 다 여아였고, 큰딸은 시댁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자손으로 고추 달린 애기의 출생은 실로 27년 만이고 보니 그 점잖으신 외조부님도, 감쩍스러운 정도로 단정한 외조모님도 모두 목이 쉬셨었다.

“아들이다아——”

“응, 아들이라구? 정말 아들이야?”

하신 두 분의 음성은 거의 절규였고, 이 아마도 생애 단 한 번의 절규로 두 분의 목청은 터져 버린 것이다.

하여 아우 본 놈과 세 모자녀가 떠나는 날에는 두 분의 눈은 붉어 있었다. 지난밤을 잠 못 이루시고 새신 것이 분명했다.

“딸이 낳은 자식도 내 핏줄인데 아들 많은 집에 꼭 이 아이를 보내야 하나?”

하시는 외조부님의 말씀에는 절절한 진정이 깃들어 있었다.

이렇게 오만 정성과 사랑을 받고 난 호기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어찌다 다니는 승합 자동차(乘合自動車—버스)로 삼동 도로를 40분이나 흔들려 가야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골이고 보니 삼출성(滲出城) 체질이라는, 보기에는 흰하게 발육이 좋아보이면서 자주 탈이 나는 이 아이를 기르느라고 엄마는 무진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호기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연년생을 데리고 찢찢매는 엄마를 얼마큼 도와 준 것은 아이들이 삼하지 않고 착한 탓일 것이다. 젖이 흔해 흰하게 살이 찢 아우와 일찍 젖이 떨어져 앙상한 누이는 둘이서 종알종알 서로 맞먹지 않는 말을 주고받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다. 영기는 못 하는 말이 없었으나 ‘흥’자 발음은 하지 못했다. 하여 ‘호기’는 언제나 ‘오기’였다. 둘이 지나자 ‘오기’도 말을 익히기 시작했는데 ‘흥’자 발음은 곧잘 하면서 ‘근’자 발음을 겹쳐한다. ‘그래서’가 ‘글래서’인 것이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큰애들처럼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모를 불러 동네 사람들은 모두 쟁그럽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모자라는 말로 저희들의 감정, 괴로움 따위를 곧잘 일러바쳤다. 하루는 오기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어 머 니, 애애 바. 나 깨뜰려(깨뜨려).”

하며 고개를 마구 가로 흔들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연년생이면서 유달리 아우를 사랑하는 누이가 자꾸만 아우를 안아주려 하는 것이 무서웠던 모양이었다. 저보다 작은 누이가 위태위태하게 안으려는 것이 불안하여 제판은 자기 방어를 하려 했던 것이다.

또 어느 날은 아이가 양양거려 뛰어가 보았더니 호기가 눈을 질끈 감고 도리질을 하다가 엄마를 보고

“어 머 니, 애애 바. 나 먹어.”

한다. 영기가 예쁘다고 뽀뽀를 하려 한 것인 모양인데 둘이 다 아직 걸음이 신통치 않으니 아우는 겁만 났었으리라.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깨뜨린다’는 등 ‘먹는다’는 등 하는 엉뚱한 말로 자기의 불안과 위기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아우를 볼 때까지는 젖을 먹였던 시대다. 둘이 지나도 두어 달을 더 젖만 먹은 호기는 삼출성 체질이면서 토실토실 살이 찼다. 하여 잦은 잔병치레는 ‘병’이 아니고 ‘사고’라는 느낌을 주었다. 지능의 발달도 빠른 편이었다. 그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다. 무엇이든지 꼬치꼬치 물어 엄마는 손을 들 때가 많았다. 물대접에 담긴 젓가락의 굴절을 보고 깜짝 놀라 젓가락을 물에서 건져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담가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눈이 커진다.

“왜 이러지?”

엄마 쪽으로 큰 눈을 돌린다. 엄마가

“아 그건 광선의 굴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란다.”

질문이 다시 쫓아온다.

“광선이 머야? 굴절이 머야.”

엄마는 물리 시간에 배웠던 기초 지식도 잊어버린 후다.

“글쎄…….”

“몰라?”

아이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떠오르고 나는 부끄러운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데서나 곤란한 질문을 남발하여 곤잘 엄마를 궁지에 빠뜨렸다.

그날 우리는 후암동으로 가고 있었다. 을지로 4가에서 갈아탄 전차는 1가를 지나면서부터 초만원이 되었다. 호기는 다섯 살, 발육이 좋다 해도 어른의 허리에도 차지 않았다. 사람들 틈에 끼어 정발차 때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툭 말을 던진 것이다.

“어머니, 여운형 씨는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무나 뜻밖인 질문이라 엄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얼떨하며
“좋은 분이지.”

호기는 앞을 가리는 어른들의 웃웃자락 뒤에서 큰 눈을 껌벅거리
다가

“그런데 왜 죽여.”

했던 것이다. 다음 순간 호기를 가리고 서 있던 어른들이 조금씩 몸
을 움직여 자리를 넓히고

“그러게 말이다. 좋은 분을 왜 죽여!”

“그럼 그럼 네 말이 옳다.”

“아 고놈 바른말 하는구나.”

모두 한 마디씩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미아리 고개 아래 살고 있었다. 미아리 묘지가 이전되
기 전이어서 아이들은 날마다 장렬(葬列)을 보며 자랐다. 호기는 어
느 날 굉장한 장렬을 보았다. 수많은 회장자들이 울며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 경건한 태도로 장렬을 지켜보았
다. 어린 호기는 그들이 ‘여운형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잘
이해는 하지 못했으나 누군가가 선생을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슬픈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모두 숙연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
겠는가?

그로부터 호기는 장렬이 지날 때마다 집 밖으로 뛰어나가 죽음의
정체를 알아 내려고나 하듯이 그 뒤를 눈으로 쫓았다. 어린 생각으로
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얼마 동안 말도 질문도 줄었다.

호기가 부산으로 피난을 간 것은 국민 학교 3학년 때이다. 거처를
정하지 못하여 얼마를 집에서 놀았다. 식구가 너무너무 많아 방 두
개와 창고 하나를 겨우 얻어 사는데 그래도 몇 식구는 잠을 친구 방
에서 자야 했다. 맨몸으로 떠난 처지에 식구가 너무 많고 보니 양식
도 부식도 무섭게 들었다.

그런 살림에 날마다 걸인들이 와서 밥을 얻어 갔다. 제 나이도 모르는 반편 하나가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두운 머리로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피난 통에 내 먹을 밥도 다 갖구간단 말야.”

하고 악을 썼다.

그때 대패질도 하지 않은 판대기로 시멘트 벽을 두른 창고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호기가 제 밥그릇을 들고 나와 큰 손칼로 몇 번 제 밥을 덜어 걸인의 깡통 밥그릇에 담아 주며 말했다.

“언니(아이들은 그 모자라는 아줌마를 언니라고 불렀다.) 야단치지 마. 그 사람도 삼천만의 한 사람이야.”

삼천만의 한 사람——나는 눈으로부터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용 기

— 나 호랭이 할래

용기는 형 호기의 생일날 오후에 태어났다. 아이마다 생사를 헤맨 끝에 낳았기 때문에 출생 후 제대로 울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만은 낳자마자 제법 크게 울었다. 예정일보다 열흘 넘어 형과 생일을 같이 한 것이다.

젖은 세 아이째인 이때도 평평 쏟아져 엄마 손가락은 젖가락같이 말라갔는데 아기 손목은 잘뚝잘뚝 하도록 살이 찼다. 아이들은 모두 순했지만 용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 일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순했다. 젖먹여 진종일 뉘어 두어도 보채지도 않았다.

어른들께 꾸중을 들으면서도 나는 시간제로 수유를 했다. “지가 먹으려고 아껴두나 부다”고 농조로 나무라셨지만 나는 시간 외에는 젖꼭지를 물리지 않았다. 아마 그날은 김치를 담그던 날이었던 것 같다. 수유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깜짝 놀라 안방에 들어간 나는 그만 입을 벌리고 말았다. 애기 머리맡 반침문 종이기가 다 찢겨 나가고 나무 살만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애기는 쑥쑥 위로 솟아올

라가 그 문종이를 박박 찢으며 혼자 놀고 있었던 것이다. 겨우 백 날 된 어린것이.

위의 두 아이는 돌을 바라볼 때부터 종알거리기 시작했는데 용기는 네 살이 다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신체나 지능의 발달이 보통보다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씩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던 어느 날 짓궂은 삼촌들이 어린 조카를 놀려 대었다.

“이놈은 왜 통 말이 없지?”

“응, 아무래두 맹아 학교에 넣어야 될까 봐”

그러자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용기가 불쑥

“싫여!”

쏘아 붙이듯이 말했던 것이다. 놀란 삼촌들이

“이놈 봐라. 말을 할 줄 알잖아?”

“엉뚱한 놈 같으니…… 그러면서 시침 똑따구 있었구나.”

용기는 책에서 눈을 들고

“시끄러! 나 책 보구 있잖아.”

하고 의젓이 삼촌들을 꾸짖었다. 그때 우리는 맹아 학교 안에서 살고 있어서 용기도 거기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용기는 말도 잘하고 장난도 잘하고 바로 위인 형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 했다.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무시무시하도록 몹시 싸웠다. 싸움의 원인은 딱지치기로 시작되고 ‘자식’이란 말이 꼬투리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자식’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이었던 모양으로 이 한 마디 때문에 격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말리며 꾸짖으며 하면서 엄마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한 놈이 딱지 한 장을 들고 요리조리 겨누다가 바닥의 딱지를 향하여 힘차게 내려치자 바닥의 딱지가 훌쩍 뒤집어진다. 이긴 놈은 딱지를 주머니에 넣고 진 놈은 주머니에서 또 한 장을 꺼내 바닥에 깬다. 둘이 다 사생 결단을 하듯 필사적인 얼굴이다. 꺼내 놓고 집어 넣고

또 내리치고 하는 동안 한 놈이

“자아식 그런 데가 어딴어!”

하고 시비를 건다.

“머? 왜 자식이라 그래!”

“언제 내가 자식이라 그랬어! 자식아.”

“지금 자식이라 그랬잖아. 자식아!”

마치 자식이란 말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오점이나 되는 것처럼 치고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처럼 사이 좋은 형제도 드물었다.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서로 찾았다.

어느 날 늦도록 용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돈암교 쪽으로 가더라고 하여 집안이 발각 뒤집혀졌었다. 밤중이 되어도 찾지를 못해 엄마는 실신하고 식구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방송국에 연락도 하고 파출소마다 뒤킨 끝에 광화문 파출소에 보호되고 있는 그를 찾아 내었다. 파출소에는 자기가 찾아갔다는 것이다. 집을 찾아 달라고 하며 아버지의 성명과 직장·집 주소, 전화 번호까지 또렷이 대었다. 파출소에서는 웬지 빵만 사다 먹이고 연락이 늦어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다.

어린것이 집이 있는 돈암동에서 어떻게 광화문까지 갔는지 의아해했으나 누구를 따라 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납치되어 간 것도 아니었던 것은 다음날 안 일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형을 찾으며 어찌어찌 그 먼 곳까지 갔던 것이었다.

용기는 피난간 부산에서 창고 안에서 살면서도 쾌활하고 충실하게 자랐다. 아버지는 은행 중역이었으나 워낙에 식구가 많아 은행에서 마련해 준 방을 두 개나 배당받으면서도 모자라 창고에서 기거해야 할 만큼 궁하게 살았지만 티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시장에 갔다 오던 엄마는 골목 안에서 벌어졌던 광경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무슨 놀이 할까야.”

“호랭이놀이 하아자.”

다른 한 아이가 의견을 냈다.

“그으래 호랭이놀이 하아자.”

모두들 찬성이다. 맑고 건강한 음성이다. 고달픈 피난살이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다. “호랭이 호랭이” 아이들은 연호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아무도 호랑이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흥이 깨어지고 모처럼의 놀이도 호지부지해 진다.

이때 제일 어린 용기가 나섰다. 어리지만 나이보다 크고 실하다.

“나 호랭이 할래.”

“야아 호랭이 호랭이, 용기가 호랭이다야.”

이리하여 호랑이놀이가 실현되었다. 용기는 큰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꼬부려 가슴 앞에 모으고 으르릉 댔다.

“나 호랭이다. 어허형 어허형!”

보고 있던 엄마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하면서 약간 걱정도 되었다. 자기가 가장 나쁜, 남이 싫어하는 역할을 맡아 하는 하찮은 놀이이기는 하나 전체를 즐겁게 해주려는 심덕이 기특하였지만 커서도 나쁜 역할을 맡아 하려고만 하면?

그래도 이날 엄마는 어린 아들로부터 배운 것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현 기

— 진지 주세요

꿈으로만 알았던 해방을 맞고 어쩔 줄을 모르게 환희에 들떠 있던 우리는 또 뜻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재앙에 맞서고야 말았다. 국토 분단이라는 청천 병력을 맞은 것이다. 분단이 자아낸 비극과 혼란과 궁핍과 사회 불안은 너무나 컸다. 헤아릴 수 없이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월남민, 좌우 이념의 치열한 마찰과 투쟁, 극심한 물자의 결핍, 치솟는 물가,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추악하고 불안한 정국 등등으로 누구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덕였다.

7년 동안의 시골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이사를 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도 나오지 않는 수도와 가스 공급이 끊긴 부엌이었다. 장충동에 있는 사택은 일인 간부들만이 살던 집이라 널찍하고 방도 많고 욕실이나 부엌도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수도도 가스도 끊겨 첫날부터 물과 불로 인한 극심한 고생을 했던 것이다.

저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들이 들어선 동네면서 우물 있는 집은

몇 집이 되지 않았고 어느 집이나 물 나누어 먹기를 꺼렸다. 연년생 밑에 두 살 차이인 아우 본 놈, 그리고 뱃속에 아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고달픔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스가 끊긴 부엌은 말쑥하기만 했지 물 한 술 데울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석유통 한쪽을 썰어 아궁이를 낸 엉성한 화덕을 뒤꼍에 놓고 그 위에 솥을 얹어 밥을 안쳤다. 찌개, 국 등 반찬은 쇠뿔로에서 익히고 물은 욕실 큰 가마에 따로 데워야 했다.

식구는 언제나 열 식구가 넘었다. 시댁의 선영인 경기도 연천은 강 하나를 사이하여 이북 땅이 되어 있었다. 시아버님은 묘하 시골집에 조모님과 시모님을 남기신 채 와 계셨고 금곡 궁집으로 피난가 사시던 둘째숙부님, 무진회사 지방 지점장을 그만두시고 올라와 계시던 셋째숙부님을 비롯하여 38선 넘어온 식객들을 합쳐 넓은 집이 오히려 좁았다. 옥순이라는 열네 살짜리 아이 보는 계집애마저 시누이 병구완으로 보내고 끼니때마다 석유통 화덕에 거꾸 두 솥의 밥을 지어 내야 하는 고통이란 필설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고통을 치르고 있는 어미의 태중에서 현기는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까 섬약한 몸으로 혼자 맡아 해야 했던 크고도 궁핍한 어수선한 살림의 고초를 현기는 뱃속에서 함께 겪었던 것이다.

현기가 태중에서 겪은 고통은 살림의 고달픔만이 아니었다. 극도로 쇠약해 있던 모체는 건디는 한계를 넘어 드디어 쓰러져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열 식구가 넘는 식구는 윗어른이 아니면 남자들, 다섯 살, 네 살, 두 살의 어린 삼남매, 전화기는 벽에 달려 있었지만 해방과 동시에 불통이 되어 신교정 친정에도 알리지를 못했었다.

갓 이사해 간 동네이므로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의사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아버님 삼형제분은 해장국집에서 요기를 하시고 여타 식구들은 딱딱한 빵, 오징어 따위로 끼니를 이은 모양이었다.

경복 중학 1학년의 막내 시동생이 신교정까지 가서 사정을 알렸는

데 치마끈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의사와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달려 오셨다는 어머니는 오후가 넘어서야 장충동에 당도하시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전차뿐인데 그 전차타기 투쟁을 할 재간이 없어 걸으셨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동네와 병원 전화는 불통이 아니어서 어려서부터 보살펴 주셨던 박용준 박사와 함께였다. 넷째 번 아기를 가진 나를 아직도 ‘애기’라고 부르는 박 박사는 나를 보자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임신 팔 개월의 임부가 40도가 넘는 열로 가물가물 하고 있지 않은가.

원인도 병명도 잘 몰라 우선 해열제 안정제 영양제 등등 더듬듯한 처치를 받고 겨우 나는 잠이 들었다 한다. 그 고열이 말라리아열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다. 다음날은 평열이어서 우선 많은 식구들이 휘질러 놓은 빨래 정리를 하기까지 했다. 쇠약해 있었으나 물이 없고 그동안 빨지 못했던 빨래를 사람 본 김에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거들러 왔던 친정집 가정부는 엄청나게 밀린 빨래도 빨래려니와 저녁이 되자 돌아오기 시작한 식구 수에 놀랐다. 막내동생 하나만 거느린 부모님뿐인 단출한 살림만 말아 하던 그는 물이 없어 빨래거리를 신교동으로 가져가 빨겠다고 우겨 큰 이불 붓짐만큼이나 큰 빨래보따리를 이고 가버렸다.

나는 후들거리는 몸으로 또 밥을 두 술 짓고 반찬 마련을 해야 했다. 화덕 위의 솥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식구 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한 밥을 식지 않게, 쉬지 않게 하려고 무던 애를 썼었다. 신교정 가정부가 며칠 먹을 물을 시장 수도까지 가서 길어 놓고 가서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라고 좋아했지만 다음날 오후가 되자 나는 또 떨기 시작했다.

열은 41도에 가까웠다. 박 박사 병원은 가까운 장충 공원 옆에 있었으나 식구들은 아무도 그 소재를 몰랐다. 늦게 돌아온 남편이 동네를 쓸다시피 하여 병원 하나를 찾아 내고 간청해 왕진을 오게 한 의

사는 쓴 입맛을 다셨다. 증상을 물어본즉 말라리아의 의혹이 큰데 임신 팔 개월의 환자에게 키니네를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유일한 일꾼이 쓰러지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시아버님 삼형제분과 연천서 올라와 함께 있던 김희경 이수익 같은 식객들은 그래도 해장국집 등에서 요기를 하는 모양이었으나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남편은 모르되 앓는 어미인 나와 어린 삼남매에게는 구완하고 뒤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헛소리를 하면서 고열에 시달리던 밤이 새자 열은 거짓말같이 내려 학질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어른들은 병명을 알자 안도의 빛을 보이었다. 학질쯤 — 하는 눈치였다. 학질은 이겨 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시의 상식이었던 것이다. 직날(열이 오르는 날)조차도 누워만 있으면 병에 진다고 생각하던 의학 지식이었다. 하여 헛소리를 할 정도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변변히 조리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열은 하루거리가 아니고 날마다 오르게 되었다. 소위 기학이라는 것이다. 의사는 키니네를 쓸 수 없으니깐 살바르산을 주입했는데 이 독한 약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어 나는 주사맞는 날 하루를 뺀 나머지 날들을 고열에 시달려야 했다. 집안은 친정집을 포함하여 야단이 나 있었다. 친정 외조모님이 오셔서 늙으신 몸으로 살림을 하시고 신교정 가정부는 하루 걸러 와서 물 길어 놓고 빨래거리를 이고 갔다. 쇠약할 대로 쇠약한 임부에 덩벼 붙은 학질은 결정적인 치료제인 키니네를 써야만 하는데 분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현기는 태중에서 그 고열과 싸워야 했다. 아무도 태아가 무사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저 모체만이라도 건지면 하는 것이 절박한 소망이었다. 오죽하면 병원에서조차도 받기를 거절하였을까.

진통이 시작되자 산파와 간호부를 대동하고 뛰어와 주신 박용준 박사는 이날 십 년 감수했다는 말을 그뒤 가끔 하셨었다. 기가 막힌 난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기는 마침내 이겨냈다. 반 주검이 되어 있었으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다. 박 박사조차도 불기맞고 물벼락맞고 목구멍에 박은 고무 호스를 통해 불어 넣은 입김을 쐬어 아기가 픽픽 거리다 드디어 약하디 약하나마 울기 시작하자 일어서서 덩실 춤을 추었다.

“얼씨구 두 목숨 건졌네.”

이 아이는 태어나서도 고난을 겪어야 했다. 엄마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앞친 데 뒤킨 격으로 젖앓이를 몹시 했다. 어디로 가도 결핵성 유선염이라는 진단이 났다. 어느 아이 때나처럼 넘칠 만큼 유도는 흔해 왼쪽 젖 하나만으로도 수유는 충분했으나 앓는 어미의 젖이 유아에게 좋을 리 없었다.

집안 형편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 갔다. 누구할 것 없이 겪어야 했던 월남 가족의 고초가 우리 집안이라고 면해졌을까. 경제적으로만이 아니고 마음도 인색해져서 어른들은 관용과 이해를 잃고 집안 살림을 맡은 젊은이들은 우울하고 성격이 꼬였다.

궁핍에 쪼들리고 노역에 지쳐 허덕이는 젊은 부모들은 아이 교육에까지 힘쓸 겨를이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우선 어른부터 섬겨야 했고, 발등에 떨어진 불, 지극히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절박한 처리부터 해야 했다.

여섯 살, 다섯 살, 세 살, 한 살——모두가 손타는 아이들이라 홍역을 해도 같이하고 불거리를 앓아도 함께 앓았다. 그래도 저희들끼리 싸우며 어울리며 정답게 자랐다.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았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장난은 심해도 말쑥은 부리지 않았다.

현기는 형과 오빠들 틈에서 쉽게 자랐다. 어쩌다 데리고 나가면 너무 예쁘다고 야단들이었지만 집안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현기가 관심과 우려의 중심이 된 일이 있다. 그 역시 일찍 아우를 보아 몸이 약해 있을 때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감기가 악화

되어 폐렴을 앓게 되었는데 허약한 탓인지 증태가 계속되었다. 새삼 놀라고 당황하여 입원을 시켰다.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되어 아무래도 잘못될 것만 같아 엄마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라와 집안이 한가지로 어지럽고 어려울 때 잉태되어 낳아 핏덩이 때부터 시달린 어린것이 측은하여 마음으로 울었다. 설설 끓는 몸을 껴안으며 태중에서도 이런 초열(焦熱)에 두 달 가까이나 시달렸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현기는 이때도 잘 견뎌 냈다. 눈을 감은 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는 애처로운 모습으로 앓던 어린것은 옛새되던 날 비로소 눈을 떴다. 맑고 고운 눈이었다. 열이 내렸던 것이다. 울기조차 못하고 뽕뽕 신음소리만 내던 아이는 열이 내린 지 사흘이 지나자 공복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우유도 미음도 넘기지 못했었는데 밥을 달라고 졸랐다.

병으로 받자를 받아 어리광이 늘은 현기의 밥 청하는 소리는 복도까지 들렸고 듣는 사람은 모두 웃었다. 돌이 지난 지 녀 달밖에 되지 않는 현기는 예쁜 소리로

“진지 줘어. 진지 먹구 찌퍼. 빠이(빨리) 진지 줘어.”

하고 졸랐던 것이다.

방치하다시피 하였던 아이들이 험한 말 한 마디 배우지 않고 고운 말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는 어느덧 눈물짓고 있었다.

봉 기

— 어머니는 형식적으로만

막내인 봉기에게는 큰 불만이 하나 있다. 식구들이 자기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다.

자기는 남자다. 그리고 누구 못지 않게 남자답다. 몸도 건강하다. 과감성과 책임감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맡더라도 끝까지 해낼 끈기도 있고 어려운 일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슬기와 창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내라는 서열 하나 때문에 언제나 곁에 비켜 있어야 한단 말인가.

며칠 전에도 식구들이 안방에 모여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있는데 얼굴을 내미니깐 어머니가

“봉기야 졸립지? 오늘은 어머니가 좀 바쁘니깐 혼자 먼저 자, 응?”

상냥하게 타이르듯 말하는데 그만 김이 새어 물러났지만 ‘나는 이 집 식구 아니란 말야? 심통이 나는 것을 간신이 참고 자리에 들긴 했지만 잠이 올게 뭐야. 번번이 제쳐놓구 사람을 싸악 무시한단 말

야.’ 봉기의 가슴은 부걱부걱 끓는 것이었다.

다섯 살 난 봉기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니면 성격차에서 오는 오해인가 세대차에서 오는 어긋남인가? 하지만 성격차니 세대차니 하는 말을 연상케 하는 나이도 아니다. 겨우 다섯 살이다. 부모들은 그의 속 마음을 까마득 모를 수밖에 없다. 나이 들기 전부터 갑자기 기울기 시작한 집안일에 시달리게 되었던 아버지는 집안일에 관여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며 아낌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어린것들에게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시켜서는 안 된다. 상봉하술수다 식구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곱살곶게 보살필 수는 없을지언정 구김살없이 그늘없이 키우고 싶은 것이다. 어른 아래 유난한 자식 사랑도 꾸중거리가 되는 법도가 조심스러워 제대로 애정 표시도 할 수 없으나 어른들의 걱정은 아이들 앞에서는 비쳐서도 안 된다. 더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막내가 아닌가. 자라는 것은 소외가 아니고 애정이며 사랑인 것이다. 첫째 겨우 다섯 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일이 없다.

그러나 작은 몸으로 죽겠다고 형들 틈에 끼어 형들 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봉기로서는 자기도 어엿한 가족의 일원이다. 그는 어머니를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떳떳하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다.

하여 더러 실수도 했다. 돈암동 돌집에 살 때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일이 있다. 6·25가 나던 해 봄이라던가. 그러니까 세 살 때 일이다. 세 살 때라지만 12월 23일이 생일인 봉기에게는 첫돌이 지난 지 다섯 달도 채 되지 않을 때였다. 봉기는 큰 실수를 했던 것이다.

그 많은 식구와 어수선하게 살면서 무던히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그 와중에서도 꽃을 심고 가꾸었다. 마당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분에도 심어 대청에도 경대 앞에도 놓았다. 금붕어도 길렀다. 고운 옷자락을 하늘거리며 노는 금붕어를 볼 때마다 마음 같아서는 그저

어항 속을 휘저어 움켜잡아 보고도 싶지만(사실 한 번 그래도 보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여 가슴이 아팠다. 금붕어뿐인가 경대 앞에 놓인 올망졸망한 병들도 갖고 놀고 싶지만 어머니가 하지 말라니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어쩌다 두 살 위인 누이가 만지려 하면 봉기는 도끼눈을 하고 누이를 나무라는 것이었다.

날이 따뜻해지자 어머니는 마당에 모종도 내고 화분에도 예쁜 꽃을 심었다. 무슨 꽃인지 빨갭빨갭 봉오리가 맺혀 무척 예뻐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화분들을 댕돌에 내어 놓고 물을 주었다. 물을 먹은 꽃들은 햇빛을 받아 뿡긱뿡긱 웃는 것만 같았다.

그날도 어머니는 댕돌에 화분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물줄 사이가 없었다. 아버지가 큰소리로 부르신 것이다. 아버지가 무어라고 하시자 어머니는 부리나케 옷을 갈아입고 노할머님께

“애비 심부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급히 집을 나갔던 것이다.

어머니가 꽃에 물을 줄 때면 늘 옆에서 보고 있던 봉기는 이날도 쪼그리고 앉은 채 꽃을 보고 있었다. 물을 주지 않아선지 꽃들의 모습이 쓸쓸하게 슬퍼 보인다. 그래 꽃들은 물이 밥이라지. 배가 고파 이러는거야. 봉기는 꽃이 가없어졌다. 그래 물을 줘야 해.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참지는 못 할거야.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날씨가 따뜻해지고부터 노할머님은 대청에 앉기를 좋아하셨다. 노할머님은 잠수실 때와 주무실 때를 빼놓고는 항상 담뱃대를 입에서 떼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제나 화로불에 담뱃불을 붙이신다. 성냥은 황내가 난다고 절대로 쓰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날도 노할머님 앞에는 청동 화로가 놓였고 삼발이 위의 주전자에서는 소리를 내며 물이 끓고 있었다.

봉기의 눈에 그 물주전자 들어왔다. 그는 뒹뒹 그 옆으로 걸어갔다. 돌 달에서부터 걸음마를 시작한 그는 아직 걸음걸이가 서툴다. 그 서툰 걸음걸이로 화로 옆에 가서 끓는 물주전자를 들어 올렸

다. 노할머님은 어린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다. 담뱃대를 입에 무신 채 깜박 졸고 계셨던 것이다.

봉기는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뒤뚱거리며 대청 끝으로 갔다. 이윽고 땃돌에 쪽놓인 화분에 끓는 물을 부어 주기 시작했다.

이때 부엌에서 정기 언니가 뛰어나왔다. 봉기 짓거리를 보자 질겁을 하고

“애개개, 꽃은 뭘헐려구 삶아.”

소리를 지르면서 주전자를 낚아챘다. 그 바람에 노할머님이 눈을 뜨셨다. 영문을 모르시고 머영 하시는데 정기 언니가

“장난두 분수가 있지. 그래 꽃 삶는 늪이 어딴어.”

하고 악을 썼다.

“꽃을 삶았다구?”

노할머님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다. 봉기는 억울하다. 난 어머닐 도우려 했던 말야. 허나 생후 아직 일 년 반이 못 되는 그는 엄니, 압버지, 맘마, 이이(이리), 시여(싫어), 나취 등 몇 마디밖에 말을 못 한다. 좀 모자라는 부엌 언니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고 등도 두어 번 얻어맞았다(이건 바로 위인 현기 누나가 어머니한테 한 고자질로 알게 된 일이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몰라 주었지만 얼마 후에 돌아온 어머니는 알아 주었다.

“착해라. 어머닐 도우려구 그랬구나. 어쨌건 다행이야. 그 끓는 물을 네 발등에라도 부었다라면 어쩔 뻔했니. 정말 하느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꼬옥 껴안아 주었던 것이다.

말도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부터 봉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감과 봉사 정신은 이토록 투철하고 적극적이었다. 형들 가는 데는 악착스럽게 따라붙어 신학 대학 뜰까지 갔다가 사나운 개에게 물린 일도 있다. 큰 아이들같이 내뺄 수가 없어 그만 물리고 말

왔던 것이다.

그는 그 아픈 혈청 주사를 이를 악물고 참았다. 제 잘못으로 물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린것이 자기의 소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뜻이 역력했다. 아픈 주사를 참는 데 그치지 않고 그는 운 일이 없는 아이였다. 엄마는 그가 어떻게 어떤 소리로 운 일이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 언제나 생글거리는 아이였다. 정말로 쉽게 자라주는 아이라고 대견해 하였다.

해방 직후의 사회 혼란도 얼마큼 수습이 되고 연천에 남아 계시던 종조모님과 조모님도 무사히 월남하시어 집안도 그런대로 얼마큼 안정이 되었다.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인구로 수도물은 여전히 공급이 시원치 않았으나 한국식 부엌이 딸린 집으로 이사하고부터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했다.

“글쎄, 불때면 방도 더웁고 밥도 끓고 국도 끓고 물도 더워야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물은 물대로 불을 때서 익히고 데우는데 방은 냉돌이니 군불은 또 따로 때야잖아요? 방마다라고요. 죽을 뻔했대구요.”

수도물도 가스도 끓인 말쑥한 장충동 집 부엌 때문에 어머니는 무던히 고생을 한 모양이었다. 팔푼이기는 하나 일 거드는 사람도 하나 있었다. 어린 봉기 눈에도 도움을 줄 것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칫거리도 다듬고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했다. 이 언니는 갓설혼이라는데 자기 나이도 셈도 몰랐다. 그래서 어찌다 되질 같은 것을 할 때는 겨우 세 돌을 지난 현기 누나가 한 마디 할 때마다 춤을 추듯 팔딱팔딱 뛰면서

“하아나 두울 세엿 ——”

하며 뒷수를 세었다. 하여 봉기도 세 살이 될까말까 할 때부터 셈을 알게 되었다.

아스라한 기억 속에 딱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다. 어머니가 저녁거리를 사러 가면서

“바른쪽 술에 장작 지펴 놔요. 바른쪽이야. 밥 먹는 손 쪽 말이에요.”

하고 나간 지 한참 만이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음이 들렸던 것이다. 토막 나무로 집짓기놀이를 하던 봉기와 현기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끌어안고 오들오들 떨었다. 아랫목에 언제나처럼 화로를 앞에 하고 앉아 계셨던 노할머님도 너무나 놀라셔서 무셨던 담뱃대를 잿속에 틀어박고 반쯤 몸을 일으키셨다.

폭음은 술이 깨어지는 순간에 일어난 것이었다. 언니는 빈 술 아궁이에 불을 자꾸자꾸 때어 그만 무쇠술이 깨어졌던 것이다.

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무거운 김칫거리를 내려놓자마자 일어났던 일을 알았다. 어머니는 어깨까지 움직이며 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밥먹는 손 쪽이라구 했잖았어!”

언니는 빼죽빼죽 하면서

“밥먹는 손 쪽에 때었됐어요.”

“어느 쪽 손으로 밥먹지?”

“이쪽으로요.”

언니가 올린 손은 왼쪽 손이었다. 그녀는 왼손잡이였던 것이다.

이 일이 있고부터 꼬마 봉기는 엄마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고 더욱 결심을 굳히는 모양이었다. 엄마가 하는 대로 마른 걸레질도 하고 쓰레기를 치운다고 쓰레기통에 걸레까지 갖다 버렸다.

생일이 늦은 봉기는 우리 나이로 다섯 살이 되었으나 젖내가 나도록 어려 보였다. 그래도 배우개장 노점상 아주머니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어린것이 말 수도 적은데 상냥하고 영리하여 누구나가 귀여워했다. 제판엔 엄마를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모두 미소를 띄우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장에 가는 것이 제일 좋았다. 피난에서 돌아온 해부터 명륜동으로 옮겨 살고 있던 어머니는 해화동 성당 앞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 4가 시장에 갈 때가 많았다. 전차타는 것도 신났고

물건사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러나 식구가 많아 장바구니는 언제나 어머니의 힘에 겨워 보였다. 봉기는 약한 어머니가 안쓰럽다. 더욱이 돌아올 때는 좀 더 걸어야 한다.

그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짐은 내가 들어 드려야지……’

그날도 모자는 혜화동 로타리에서 전차를 내렸다. 봉기가 말했다.

“짐은 내가 들고 갈게.”

“뭐? 너가? 짐을?”

어머니의 큰 눈이 더 커졌다.

“응, 나 힘 세”

“그래도 꼬마한테 짐을 들리는 어머니, 남이 보면 욕해요.”

봉기는 고개를 가우뚱 하다가 말했다.

“그럼 같이 드는 척해. 응? 내가 실질적으로 들테니 어머니는 형식적으로만 든 채하세요. 알았지?”

다섯 살짜리 꼬마는 엉뚱하게도 삼촌들이랑 드나드는 문학 청년들로부터 귀동냥으로 배운 어렵고 딱딱한 말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란

— 장녀 영기의 딸

세 살이 된 경란이는 헤어진 지 일 년 만에 아빠와 다시 만났다. 외할머니는 문갑 위에 아빠와 엄마의 큰 사진을 올려놓고 아침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시키고 자기 전에도 사진을 향해 잘 자라라는 인사를 시켜 왔지만 막상 직접 얼굴을 대하고 보니 아빠란 사람은 아주 생소한 신사였다.

그 신사는 대합실로 나오자마자 활짝 웃으며 외할머니가 안고 있던 경란이를 받아 안으려 했으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겁먹은 얼굴이 되어 고개를 돌리고 외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빠다. 아빠야.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으나 경란이 얼굴에서는 좀처럼 경계심과 수줍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주춤하는 아빠의 품으로 몸을 던지듯이 안겼다. 이윽고 두 팔로 아빠의 목을 안았다. 점점 더 팔을 조여 다시는 놓치 않겠다는 듯이 꼭 껴안고 뺨을 아빠

의 뺨에 갖다 대었다. 순간 마중 나갔던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그때껏 띄우고 있던 미소가 싹 가셨다. 작으나마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어린것의 맑고 큰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한 천륜의 만남을 목격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경란이는 아빠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국제 학회에 참석차 한국에 왔던 아빠는 며칠 머무르는 동안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경란이를 떼어 놓는 데 애를 먹었다. 같이 간다고 떼를 썼기 때문이다.

하여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의 공항에서의 헤어짐은 가슴아픈 것이었다. 어린것은 흐느껴 울면서도 이미 단념한 얼굴로 외할아버지 품으로 옮겨 안겼다. 어린 소견에도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기도 하여 외할머니의 가슴은 아팠다.

집에 돌아오자 경란이는 아빠가 쓰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빠가 베고 자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이 든 어린것은 깨고 나서도 그 베개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인형 대신 커다란 베개를 안고 노는 날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에서 깬 경란이가

“할머니, 할머니.”

하며 새삼스럽게 부르곤

“내가야. 잠을 잤더니이, 아빠가 눈에 왔다.”

하는 것이었다.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꿈을 꾸다던가 “꿈”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며 꾸, 아마도 난생 처음 꾸 꿈속에서 어린것은 그리운 아빠를 만났던 것이다.

사람은 언제부터 꿈을 꾸는 것일까? 꿈이라는 생리 현상에 경이와 두려움과 기쁨을 세 살 나이에 체험한 경란이는 그 신비의 체험을 기억 속에 새겨 두었을까. 그 체험이 스스로 신기하여 모자라는 어휘

를 동원하여 “잠을 잤더니 눈에 온 아빠”라고 적절하게 표현한 어린 슬기에 외할머니는 묘한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겨우 두 살 난 경란이를 얼마 동안 기르게 된 것은 엄마의 공부 때문이었다. 박사 과정을 밟다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중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한 딸의 고초를 묵과할 수 없어 어린것을 안고 돌아온 것이다.

경란이는 너무나 귀여운 재물로 외롭게 둘만 남은 외조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 상봉하술의 대가족과 함께 전시의 궁핍을 견디며 연년생을 기르느라 제대로 돌보아 주지도 못했던 자식들에 대하여 항상 가슴아파하던 외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못 해주었던 호강을 외손녀에게는 넘치도록 시키고 싶어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외손녀에게 쏟았다. 경란이는 이때 실로 외할머니의 기쁨이며 보람이며 사는 목적이기도 하였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약삭빠르고 되바라지게 영리한 아이로 만들기 싫어 지육(智育)면에는 지나치게 힘쓰지 않고 풍부한 감성과 아름다운 정서 속에서 친부모를 잠시 떠나 있는 어린 마음이 그늘지지 않도록 하려 하였다.

경란이는 어리면서도 인정 있고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다. 많이 가르치지 않았건만 저만의 생각으로 저만의 표현법으로 의사 표시를 곧잘 했다.

어느 날 종일 마당에 깔려 있는 자갈들을 가지고 논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그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할머니, 코가 캄캄해서 못 자겠어.”

하고 고통을 호소했다.

날이 새기가 바쁘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코감기라는 것이었다.

“코가 캄캄하다구?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

하고 홍 박사가 몹시 유쾌해 하였다.

한번은 한강 쪽에 데리고 간 일이 있는데 강을 보자

“오, 스몰 오오션! (small ocean!)”

하며 탄성을 질렀다. 하와이에서 난 그녀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익힌 몇 마디 되지 않는 말 속에 대양이란 말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엄마는 학위 논문이 통과되자마자 아이를 찾아 갔다. 외할머니는 허전하고 쓸쓸하여 마음을 잡지 못하는데 딸에게서는 연거푸 전화가 왔다. 아이가 외할머니한테 가겠다고 떼를 써서 찢찢매고 있다는 것이다. 경란이에게는 달도 꽃도 음식도 집도 한국 것이 제일이지 미국 것은 보기도 싫다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가 얼마큼 계속된 후 어린것은 단념을 한 모양으로 조용해지고 천성인 부드러움과 상냥함으로 동네 아이들과 사귀게 되어 한시름을 놓게 되었는데 하루는 같은 또래의 옆집 아이와 울타리 앞에서 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엄마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하는 자랑을 꼬마들은 하고 있었다. 옆집 아이가

“우리집 개는 말을 한다구.”

“거짓말!”

“정말야, 엄마가 그러는데 ‘호호 호’하는 소린 문 열어 달라는 소리래.”

“그건 개 말이지 사람 말이야? 너 몰라서 그러지 우리 한국은 굉장하대구! 달두 말야, 여기 달 같지 않아. 이만큼 크구 굉장히 밝대구. 너 달같두 말야 이만큼 크대구.”

몸짓 손짓으로 크기를 말하는 경란이에게 옆집 꼬마는 점점 기가 죽어 가는데 경란이가 한층 소리를 높이다란다.

“그리구 말야, 우리 할머니네에는 너, 쥐도 있단다아!”

“쥐!?”

묵은 한옥이라 할머니 집에는 사실 쥐가 많았고, 쥐라면 키키마우스를 연상하는 미국 꼬마의 얼굴에 놀라움과 부러움이 떠올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으리라.

남 지

—— 호기의 장녀; 1975. 3. 31. 만 4세 10개월 때

……아이들의 재롱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 평화스런 시간이다. 그런 가운데도 묘한 대화가 오간다.

“할아버지 늙어서 죽을테니까 말 잘 들어야 한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남지가

“왜 죽어?”

“늙으니까.”

“죽으면 뭘 할거야”

“산에 들어갈거야.”

“산에 들어가 뭘 해.”

“잠자지. 그러면 걱정도 없고 참 좋다.”

한참 재미난 남지가 이번엔 애비를 향해

“아빠는 언제 죽어?”

“할아버지 담에 늙으면.”

“나도 아빠 담에 늙으면 죽을거야.”

하며 남지는 천진한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 성인이 알고 있는 죽음도 뭐 남지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있을까?

죽음보다도 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 장남 호기의 아이들(남지, 남우, 남연)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만세(남우)”만 할머니가 쓴 것이고, 나머지는 아빠인 호기의 일기에서 발췌한 것이다.

남우 (1)

— 대한 민국 만세

벽돌색 머리의 예쁜 여 선생님은 남우 앞에 섰을 때 더욱 상냥하게 미소를 띄었다. 하얀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알 수 없는 말로 뭐라고 이르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남우의 눈은 점점 토끼눈같이 빨개져 갔다.

그는 선생님의 이름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더욱 모른다.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낮설은 얼굴들이고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어 댄다. 유치원에 함께 다녔던 철이, 경이, 그 예쁜 계집애 경이 생각이 난다. 딱지를 쳐도 미끄럼을 타도 나이보다 덩치가 큰 남우를 따를 놈이 그리 없었는데 여기서는 말을 통 못 알아들으니 주눅이 든다.

몇 달 전 일이다. 아빠하고 엄마가 늦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언제나 아홉시가 되면 자리에 데려다 뉘어 주던 아빠가 그 밤따라 모른 척하여 통 재미가 없고 들어도 무언지 잘 모르는 뉴스까지 듣다가 그만 TV 앞에서 잠이 들었었다.

이튿날 엄마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엄마 파리가 어디야?”

국민 학교 1학년의 누나가 물으니깐 아침부터 집에 와 있던 할머니가,

“너희들 참 좋은 곳에 가게 됐어. 파리는 불란서 서울인데 아주 좋은 데야.”

“불란서는 좋은 나라야?”

“그럼, 우리 나라 다음에 세계에서 켈 좋은 나라구 파리는 서울 담에 켈 좋은 곳이구.”

“아유 신난다. 신난다.”

남우와 남지는 정말 신이 났었다. 이내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우리는 파리에 간다야.”

놀이터에서 흙강아지들이 된 개구쟁이들이 몰려왔다.

“머 파리? 니들 치사한 데 가는구나.”

국민 학교 2학년의 골목 대장 학선이가 편잔을 준다. 남지 누나가,

“피이. 할머니가 그러는데 파리는 대한 민국 담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래.”

“빵 놓치 마. 니 할머니가 멀 알아.”

“할머닌 몇 번이나 갔다 왔거든.”

“니 할머니두 치사하구나.”

“머라구?”

싸움이 되려는데 할머니가 부르러 왔다.

“자아 할머니하구 가자. 엄마는 바쁘다.”

그날부터 아빠와 엄마는 무던히 바빠졌다.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들락거리고 엄마는 종일 나다녔다. 아빠와 엄마는 늦게 돌아와서도 카세트를 틀어 놓고 공부를 했다. 이상한 말소리가 흘러 나오는 것을 듣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웃으면 안 돼. 너희들두 배워야 하는 말이야. 그래 당신 알파벳은 떼어 주는 것이 어때?”

아빠가 말하다가,

“그것보다두 남지는 1학년이라도 다녔으니깐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남우는 한글을 깨쳐 주어야지 큰일나겠는데.”

며칠 후 엄마가 예쁜 대학생 누나를 데리고 왔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노는 소리에 좀이 쑤시지만 남우는 날마다 두 시간씩 한글 공부해야 했다. 그것은 김새는 일이기도 했지만 신나는 일이기도 했다. 판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바둑아 아리와’ 해야 하는 것은 김이 새는 일이었지만 그 대신 거리에 걸려 있는 그 많은 간판들을 모조리 읽을 수 있게 됐는데다가 만화까지도 혼자 읽을 수 있는 신나는 일이었다. 하여튼 바쁘기도 하고 어수선하면서 기대에 부풀고 활기에 찬 나날이었다.

그러던 것이 막상 파리에 와보니 기가 막혔다. 아빠의 친구 아저씨의 주선으로 간 곳이 더러운 골목에 있는 한국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경영하고 있는 ‘애진원’이라는 조그만 호텔. 호텔이라고는 하나 서 울서 할머니가 데리고 가 준 일이 있는 그런 깨끗하고 근사한 호텔이 아니다. 문도 계단도 삐걱거리는 칙칙하고 어두운 그리 깨끗지 못한 곳인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우중충한 집들이 서 있는 좁은 길은 더럽고 휴지가 너절하게 굴러다녀 남지 누나는,

“이게 파리아? 할머니는 대한 민국 담에 켈 좋은 곳이었는데 파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애진원’ 사람들은 친절하고 어린 애진이도 한국말을 잘 해 아이들은 그 생활에 곧 익었다. 돈이 많지 않은 한국 손님들로 ‘애진원’은 항상 만원이었다. 그래서 파리가 아이들에게는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아빠는 날마다 직장에 나가면서 엄마와 살 집을 구하러 다녔다. 둘

은 자주 싸웠다. 사월도 중순이 가까워 오자 엄마는 자주 짜증을 냈다.

“여긴 구월 신학기라 가뜩이나 뒤졌는데 집두 정하지 못하니——” 학교라곤 아직 발도 들여놓아 본 일이 없는 일곱 살의 남우는 그저 심심하기만 하였다.

집세가 호되게 비싸지 않으면 주위 환경이 아이 기를 곳이 못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의 직장에서 너무 멀어 집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파리는 아빠에게도 생소한 곳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하여 결국 아빠는 출퇴근 고생을 무릅쓰기로 하였다.

이사는 일요일날 했다. 시내를 벗어나 싱그러운 숲 속을 얼마큼 달린 후 역시 숲이 많은 곳에서 내렸다. 숲 속에 크림빛 아파트들이 여러 채 서 있었다. 아빠가 그 어느 한 채에 들어갔다가 주름투성이의 뚱뚱한 할머니와 함께 나왔다. 할머니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이층에 올라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할머니는 이상하게 역조가 높은 소리로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애들아, 조심해야 한다. 이 카펫을 더럽히면 세탁비를 내야 하구 구멍을 내면 갈아줘야 한단다. 벽에 낙서하면 벽지를 새로 붙여야 한다. 못구멍 하나에 10프랑씩이라니깐 남우야 함부로 똑딱거리면 큰 일 나. 우리는 돈이 없거든.”

사실 집은 가까스로 얻어 들었지만 한국에서 부친 집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어린 눈에도 엄마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파리의 봄 하늘은 언제나 잔뜩 찌푸리고 기분 나쁜 비가 오다 말다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도 아니다. 후드가 붙은 비옷을 입고 뛰놀다, 몹시 젖을 만큼 빗발이 세어지면 집 안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아직은 탄집 아이들과는 어울려 놀 만큼 사귀지도 못하고, 첫째 말이 통 통하지를 앓는 것이다.

낯선 강아지들이 만났을 때 서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지 않으면 이빨을 반쯤 드러내고 얇게 으르렁거리려 보듯이,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로 살피며 빙빙 돌듯이, 남매와 고장 아이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반감이 섞인 눈초리로 서로를 살피다가 공연히 소리를 썩 지르고 집으로 뛰어들곤 했다.

남지와 남우는 여전히 자주 싸웠다. 가뜩이나 심란한 엄마가 꾸짖으면,

“허지만 심심해 죽겠는 걸. 심심해서 싸운단말야.”

남매는 손을 맞잡고 밝게 웃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것은 이사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어제 일이다. 그래도 남지는 한국에서 1학년을 마쳐 낮이 설어도 견디었으나 남우는 난생 처음 가는 학교에서 색다른 얼굴들을 보자 눈 속이 빨개지고 입 귀가 쉴룩거렸다. 울상이 되어 앉힌 곳이 새침떼기 잔(Jeanne) 옆자리였는데 계집애가 약간 위로 흰 오뎅한 코를 똑바로 쳐들고 결눈질 하나 하지 않는 데 질렸지만 그래도 하늘색 리본을 단 노오란 솜사탕 같은 머리가 마음에 들긴 했다. 그러면서 남우는 학교가 지겨워 아침에 공연히 생떼를 부리고 울었다. 똥하고 서 있는 남우를 보고 개구쟁이들이,

“시누아, 시누아.”

하고 놀렸다는 것이다. 아빠가,

“시누아(중국인)가 왜 어쨌단 말야. 저희들보다야 시누아가 월등 났지. 중국 문화를 저희들이 어떻게 당해.”

남우 눈이 뚱그래졌다.

“문화가 머야, 아빠.”

“문화란 말야,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멋지게 고상하게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아빠는 진땀을 뻘다. 남지가 끼여들었다.

“그럼 할머니 또 거짓말했잖아. 불란서 사람은 한국 사람 담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구 했는데 그럼 시누아는 머야.”

어쨌건 아빠와 엄마는 남우를 달래서 학교로 데리고 갔다. 불란서

에 오면서부터 남우는 좀 미거해졌다. 이때도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선 속에서 우거지상을 지으며 엄마 쪽만 쳐다보는 것이었다. 벽돌색 머리의 예쁜 선생님이 엄마 옆으로 다가가서 고개를 갸웃한 애교 어린 태도로 무어라 말하자 엄마의 얼굴에 겸연쩍은 빛이 떠오르고 남우 쪽에 흘깃 눈을 준 후 등을 돌렸다.

“엄마아.”

남우는 체면없이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커다란 눈에서 금방 굵은 눈물이 떨어진다. 선생님이 좋은 냄새를 풍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뒤에서 개구쟁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감쪽한 잔의 코끝이 더 상큼하게 위로 치켜졌다. 남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혼신으로 참았다.

첫시간이 무슨 공부를 하는 시간인지 남우가 알 까닭은 없다. 선생님이 분홍색 분필로 꼬부랑 꼬부랑 글씨를 쓰자, 아이들은 남우가 알아듣지 못하는 큰 소리로 힘차게 대답을 했다. 이윽고 하얀 시험지가 돌려진 것이다.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학교지만 그 종이에 무엇인가를 쓰라는 뜻은 남우도 알 수가 있다. 무엇을 쓰라는 것인지는 물론 모른다. 노란 머리, 까만 머리, 빨간 머리, 가지각색의 작은 머리를 기울이며 꼬마들은 일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남우가 알지 못하는 글씨를 쓴다. 남우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써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남우의 눈은 또 토끼같이 빨개져 갔다.

킁킁한 절망 속에서 남우는 빨개진 눈을 감는다. 뜨거워진 눈 속에 태극기가 떠올랐다. 우리 나라 국기, 태극기——

남우는 크게 눈을 떴다. 얼굴빛도 눈빛도 화안하게 밝아져 있었다. 그는 연필을 쥐었다. 이윽고 힘을 주어 흰 종이 가득히 자기가 아는 글씨로 하고 싶은 말을 커다랗게 썼다.

대한민국 만세!

남우 (2)

— 호기의 장남

저녁상에서 남우하고 재미있는 대화가 오간다.

“아빠. 몇 살 되면 어른이 되지?”

“스무 살 되면.”

“서른 살 되면?”

“그때도 어른이지.”

“마흔 살이면?”

“그때도.”

“예순 살이면?”

“그때는 할아버지가 되지.”

“100살 되면 다 죽지?”

“아니.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 남우도 그때까지 있을거야.”

“그럼 만 살 되면?”

아이의 생각이 비약을 한다.

아직 만(萬) 단위의 숫자의 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이것이

별나라에만 있을 만한 굉장한 수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아빠. 왜 사람은 모두 죽어야 되지?”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공포감도 실감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모두가 신비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이다.

“그건 우리가 모두 흠에서 나와서 흠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얘기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달리 대답할 도리가 없다.

“누가 우리를 흠으로 만들었어?”

“하느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살다가 죽으면 다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지.”

“그럼 만 살이 되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거란 말이야?”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는 아이의 눈이 동그래진다.

“물론이지.”

“예수님도 그럼 살아계셔?”

“그럼. 우리 맘에도 하늘 나라에도 어디에나 살아계시지.”

계속 캐묻는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결론은 저녁 먹으면서 흘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공부 잘 하고 말 잘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만 살이 되어도 하느님의 귀여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준다. 내가 ‘죽음’과 ‘영생’에 대하여 아이보다는 말은 잘 하겠지만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는 스스로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아이하고의 짧은 대화가 내가 처해 있는 현위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현재(現世)에서도 앞날도 쉽게 점칠 수 없지 않은가. 우리 앞에 영생이 있을진대 눈앞의 일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게 바로 산다는 것이 아닐까.

남 연

— 호기의 차녀

“엄마, 나 추운 물 줘. 김치가 힘이 세서 씻어 먹을래.”

여섯 살난 막내 딸이 우습다. 우리말도 배우기 전에 외국에 나와 자랐으니 불어대로 ‘추운 것’과 ‘찬 것’ ‘힘이 센 것’과 ‘맛이 매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듣고 한참 웃었으나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들 국어 교육이 정말 걱정된다.

국제 교류가 활발한 시대라 파리 도처에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동양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안타까운 일은 중국 아이들이나 일본 아이들이 모일 때는 저희들끼리 저희 나랏말을 주고받는데, 우리 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불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 나랏말을 쓰면 더없이 귀여워 보이는데 자기 나랏말을 두고 외국어로 대화를 하면 코가 유난히 납작해 보이는 것은 나만 느끼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일본 아이들과는 달리 국어를 하는 학교에 매일 다니지 못하는데

다가, 해외 거주 자녀들을 위한 국어 통신 교육 제도마저 없는 실정이니, 아이들에게만 “코가 왜 그리 납작하냐”고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집에서는 아이들 국어 교육을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는데도, 날이 갈수록 제 나이에 비해 아이들의 어휘와 표현 능력이 부족해감을 느낀다.

역시 아이들은 책에서보다 같은 또래끼리 어울리는 가운데 말을 쉽게 배우게 마련인가 보다. 새로운 말에 접하여 어른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번잡하게 얹히지만 아이들의 순백한 영혼에는 우선 절실한 점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들어 ‘사과’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어른들은 그 산지가 어디며 값이 얼마며 색깔이 어떠한지 무엇이 어찌고저찌는 등 관심사가 복잡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맛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어른들보다 훨씬 쉽게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이 신경을 써서, 같은 또래의 아이들끼리 열려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주중에는 우리 국어 교과서가 있으니 매일 조금씩 익히게 하고 주말에는 몇 집이 어울려 소풍을 간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국어 회화 기회를 마련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해외 생활에 바쁘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장차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될 우리의 어린 싹들이 국어 아닌 다른 말을 먼저 배우고 그 말로 생각하며 자라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남 진

— 삼남 봉기의 큰딸

우리 할아버지는 열한 살 !

기분 좋은 날이었다. 떡갈나무 거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떡갈나무가 많은 고장의 여름은 싱그러운 잎냄새로 마음까지 녹색이 된 듯 신선하고 풋풋했다. 녹음이 짙어선지 여름에 들어섰건만 더웁지 않고 뜰에 핀 진분홍색 석남화가 울타리로 심은 조팝나무의 하얀 꽃과 어울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겨우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진에겐 동생이 둘이나 있다. 바로 아래 남이는 같은 해에 난 동년생(同年生)이어서 열한 달 차이이고 막내 남주는 둘 전의 사내아이다.

타고난 팔잔지 남진이는 그 나이에 벌써 의젓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아 준다. 혼자서 찢찢매는 엄마 심부름도 곧잘 한다. 특히 어제부터는 신이 났다.

할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할아버지는 영국과의 합자 업체의 회장이시다. 따라서 일 년에 한 번은 영국에 가시고 귀국하실 때는 뉴욕

에 들러 가신다. 봄일 때도 있고 가을일 때도 있는데 올해는 봄이 지난 후에 오셨다. 여름에 들어서려는 6월 말에. 그런데 할아버지의 생신날은 6월 26일이다. 바로 어제였다. 할아버지는 어린것들하고 어렵다고 사양하셨지만 아빠와 엄마가 우겨서 생신 축하 파티를 했었다. 탁자에 예쁜 테이블 클로스를 덮고 꽃도 장식하고 엄마는 있는 대로의 힘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차렸었다. 남진이는 접시도 나르고 나이프랑 스푼 포크 같은 것도 가지런히 식탁 위에 놓았다.

가장 신났던 것은 과자점에 특별히 주문하여 사 온 생일 케익을 식탁에 놓았을 때였다. 아빠가 방의 전깃불을 모조리 끄고 여러 개의 작은 촛불을 켜 생일 케익을 양손에 받쳐들고 들어왔을 때 모두는 일제히 해피 버스테이를 함창하였다. 외할머니가 성악가이신 까닭인지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은방울을 흔드는 것같이 맑고 곱다. 그 노래 속에서 나이는 드셔도 건장하신 할아버지는 케익 위에 쏜 촛불들을 한숨에 꺼버리셨다. 정말로 근사했었다.

그 흐뭇함과 뿌듯함은 밤을 자고 나도 가시지 않았다. 남진은 할아버지가 사주신 초콜릿을 핥으며 밖으로 나갔다. 이웃집과의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서 옆집의 애니를 만났다. 두 집 사이에는 담도 울타리도 없다. 좁은 길이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길 양편에는 제라늄이 줄지어 심어져 있어 양쪽 집에 다 속하는 정원 같다.

기분이 좋은 남진이는 애니에게 초콜릿을 내밀었다. 애니가 받아 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자 남진이 입이 스물거렸다.

“애니, 우리집에선 어젯밤에 파티했다.”

“무슨 파티?”

“우리 어제 해피 버스테이 부르는 것 못 들었어?”

“아니.”

“크게 불렀는데 못 들었던 말야?”

“응, 현대 누구 생일이었지?”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집에 오셨어.”

“늙은 사람이니?”

“응, 쪼끔.”

“늑네 할아버지, 그럼 몇 살이니?”

남진이는 갑자기 가슴을 떡 폈다. 자신에 찬 소리로

“열한 살이야! (He is eleven years old!)” 또박 또박 말하고 활짝 웃었다. 생일 케익에 꽂혔던 작은 초의 숫자를 그녀는 정확하게 세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65세의 할아버지의 연세 수대로 꽂았던 작은 여섯 개의 초와 좀더 작은 다섯 개의 초의 수효를.

남 아

——삼남 봉기의 작은딸

담 배

아빠하고 엄마가 억척스럽게 다져 만든 뒤뜰 놀이터 가장자리에 둘러 심은 짙레에 달린 빨간 열매를 작은 새가 몇 마리 와서 쪼아 먹고 있는 것을 남아는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고함을 지르며 달려가서 쫓아 버리는 건데 그러기에는 나름대로 시름이 크다. 그녀는 작은 주먹으로 작은 가슴을 쳤다. 어찌지? 책상 위를 훑어보고 책장 위도 쓸어 보고 침대 밑까지 큰 몸을 구부려 더듬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애들아, 여기서 담배 보지 못했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물으셨을 때 선뜻 갖다 드려야 했던 것은 아니었었는지. 후회가 작은 가슴을 저몄다.

사단인즉 TV의 금연 강조 프로가 발단이 되었다. 몇 사람이 나와 번갈아 가며 무어라고 떠들어 대는데 어린 나이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요컨대 담배를 피우면 큰일난다는 취지인 것 같았다.

엄마가 줄담배를 피우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거 보세요. 아버님두 담배 끊으셔야지요. 큰일나시는 거예요.”

하자 할아버지는

“그래 그래, 누가 좋다더냐. 내일부터 끊겠다.”

하시면서 또 한 개비의 담배에 불을 당기셨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시며 몇십 년이 되셨잖아요. 내일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당장 끊으셔야지.”

“알았다 알았다.”

할아버지는 지셨다는 듯이 불을 끄셨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깐 재떨이 가득히 풍초가 쌓이고 입에는 담배가 여전히 물려 있지 않은가.

남아는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큰일나기 전에 내가 결단을 내려야지…… 그녀는 할아버지가 욕실에 들어가신 틈을 타서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였던 담배갑을 치워 버린 것이다.

좋은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할아버지는 안절부절 하시면서 쓰레기통까지 들여다보셨다. 옆에서 보기에다 딱할 만큼 어쩔 줄을 몰라하시며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보며 어린 남아도 울상이 되는 것이었다.

남아는 남진의 동생이지만 일 년에 둘이 열한 달을 사이하여 태어났으니 형과 나이는 동갑이다. 몸크기도 비슷하며 지능도 엇비슷하다. 어린 대로 형은 넉넉하고 아우는 조신하다. 할아버지에게 해로운 것이 확실한 담배를 감추어 버린 것도 속이 깊은 데서 오는 소위 일 것이다.

지난해에는 여름에 들리셔서 생신 파티도 해드리고 즐겁기만 했는데 올해는 담배 까닭으로 뜻밖의 곤경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남아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예쁜 짤레 열매가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우두커니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엄마는 갈비를 마련했고 갈비는 열 대라도 먹어치울 수 있는 남아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지만 식

욕이 동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불안은 더 커졌다.

할아버지가

“갈비를 먹었더니 더 담배 생각이 나는구나. 너 담배 가진 것 없니?”

하고 아빠에게 물으셨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요.”

아빠가 송구해 하면서

“그럼 제가 몇 갑 사다 드리지요.”

하며 일어서려 했다. 딱갈나무 거리에서 쇼핑 몰까지는 한참의 거리다. 종일 직장에서 피로했을 텐데 이 밤중에 담배 몇 갑 사러 먼 길을 가야 하다니……. 남아는 울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될 그럴 것까진 없다. 몸에 좋은 것두 아닌데.”

“괜찮습니다. 잠깐 다녀 오지요.”

아빠가 일어섰다.

“아냐. 마침 끓으려던 참이니 차라리 잘 된거야.”

할아버지가 굳이 말리시어 아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남아는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아쉬움을. 그녀는 발끝 걸음으로 조용히 식당을 나갔다. 이윽고 얼마 뒤에 자리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다. 소중한 선물처럼 하얀 담배 개비에는 가는 분홍색 리본이 매어져 있었다.

부 록

□ 인간 韓戊淑을 말한다

알뜰 살림과 기분 전환의 재치

安 惠 初

새해 들어 몇 번째 날이었던가. 작가 한무숙 선생님 댁으로 세배를 갔었다.

여류 문협 관계의 일로 꼭 좀 다녀가 달라는 선생님의 당부도 있으시고 해서.

선생님을 혜화동 자택으로 찾아 뵙는 것은 그때가 두 번째인데, 선생님 댁은 문단에 귀한 외국 손님을 맞이할 때면 곧잘 연회장으로 활용되곤 한다는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우선 또 집구경하는 재미부터가 있었다. 그리 크진 않으나 격(格)이 높은 한옥 스타일에 한국의 전통미가 잘잘 흐르는 세간살이들이며, 대문에서부터 자갈이 깔린 앞마당, 뗏돌, 섬돌, ‘亞(아)’자형의 난간이 달린 쪽마루, 대청마루. 방방마다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한 게 윤기가 흘렀다. 마루 창문계에 웅기종기 놓여 있는 겨울 화분의 꽃송이들도 어찌면 그렇게 토실토실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는지.

화분 재배에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신지 선생님께 여쭙 보았더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갖는 오줌을 물에 약간 타서’ 거름으로 주곤 하신다고. 아휴, 선생님, 정성도 지극하시지. 때 맞추어 물 주기만도 쉽지 않은데.

“지금이야 뭐 영감님하고 단둘만의 홀가분한 살림살이인걸요. 층층 시하에서 다섯 아일 키우며 소설 쓰던 생각을 하면…….”

하기야 이 나라 여성의 귀감인 ‘신사임당상’까지 받으신 분이시다 (주부클럽에서였던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그 어느 한 가지 역할인들 소홀함이 있으셨을까. 은행장 사모님까지 지내셨으면서도 오버코트 하나로 20년이나 버티셨다는 그 ‘맵고 짭’ 내핍 정신. 선생님 자신에게는 맵고 짭 그만큼 가정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를 위해서 선심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되었음을 알 만하다.

□ 작가의 말

내 마음에 뜬 달

韓 戊 淑

오랜 세월을 오래된 한옥에서 살고 있다. 가끔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곧잘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다. 구조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없고 화장실이 멀고 부엌이 너무 깊고——주로 그런 점을 들어서 걱정을 해 준다. 나는 그저 웃고만 있다. 오래 살아 익고 보면 별로 불편을 느끼는 일도 없으나 인생이란 본연적으로 부자유한 것, 불편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이 들수록 짙어지기 때문이다. 하여 인생이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주어지고 목적도 갖게 하고 사연도 쌓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오래 살았다. 어려서 그림 쌍육(雙六)놀이를 하고 놀았을 때의 생각을 가끔 떠올릴 때가 있다. 두 패로 갈라져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한 패는 거지 모양으로 남루를 감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고, 다른 패는 아름답게 고귀하게 가치있게 짧게 사는 인생이다. 나는 언제나 후자를 택했었다. 어려서부터 오래 살기를 원치 않고 값지게 살기를 원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실인생은 아무래도 전자같이 너절하게 산 것 같다. 때문에 명들고 죄짓고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상처투성이로 고생하며 살아 왔다.

70을 살았건만 수유(須臾)같이 짧은 것도 같고 지루하고 아득한 것 같기도 하다. 오래 살다 보니 결혼 생활에도 몇 겹으로 연륜이 서렸다.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만나 어느덧 50년을 함께 산 것이다. 즐거웠던 일도 있었으나 작은 마찰과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맺어지면 죽음을 맞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 그런 신념 속에서 살아 온 세월이었다.

세월은 덧없는 것,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는 건 인생을 체험하기 전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수수만년 전부터 전인류가 겪어 내려온 이른바 원체험(元體驗)의 신비로 인하여 생이지지(生而知之)로 날적부터 의식의 심층에 깔고 태어났던 것인지, 읽고 듣고 본 현상에서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건 이제 확실한 실감으로 파고든다.

금혼의 해를 맞아 무엇인가 한 매듭 짓고 싶어 느끼고 겪었던 일들을 때때로 적어 두었던 것을 정리하며 새삼 여의치 않았던 인생, 못나게 살았던 회한, 그런 나를 여지껏 지탱해 준 존재들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어쩌면 푸념같기도 하고 잘 성찰되지 않은 고백같기도 한 고르지 못한 글월들을 모아 한 권의 책에 담으면서 아직도 못다한 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는데 스스로 놀란다.

한 줄, 한 장의 부피 속에라도 깔끔하게 남김없이 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지 못하는 변변찮은 실력 때문이라. 어쨌건 한 어리석은 인생의 현장의 기록으로 읽어 주시기 바랄 뿐이다.

《작품 연보》

(발표 연대순)

구 분	작 품 명	발표 연월	발표지명	비 고
장 편	역사는 흐른다	1948.	국 제 신 문	응 모 당 선
"	역사는 흐른다	1948.	태 양 신 문	연재(국제신보 폐간으로)
단 편	정의사(鄭醫師)	1948. 4.	문	예
"	램 프	1948. 8.		
"	부적(符籍)	1948. 10.	문	예
"	내일 없는 사람들	1949. 9.	문	예
"	삼층장	1949. 11.		
"	수국(水菊)	1949. 12.	회	망
"	김일등병	1951. 4. 5		
"	파 편	1951. 5.		
"	대구로 가는 길	1951. 9.		
"	아버지	1951. 10.	문	예
"	소년 상인	1951. 11. 14	백	민
"	떠나는 날	1952. 3.		
"	귀 향	1952. 6. 29	문	예
"	심노인(沈老人)	1952.		
"	환 회	1953. 1.		
"	허물어진 환상	1953. 5. 5	문	예
"	모닥불	1953. 5.	여	원
"	명옥이	1953. 5.		
"	군 복	1953. 6.		
"	굴 욕	1953. 7. 23	서 울 신 문	
"	집 념	1954. 3. 10	문	예
"	얼 굴	1954. 11.		
"	월 운	1955. 6. 6		
"	돌	1955. 9.	문 학 예 술	

구 분	작 품 명	발표 연월	발표지명	비 고
"	천 사	1956. 5. 2	현 대 문 학	연 재
"	감정이 있는 심연	1957. 1. 10	문 학 예 술	
"	그대로의 잠을	1958. 11.	사 상 계	
장 편	빛의 계단	1960.	한 국 일 보	
단 편	대열 속에서	1961. 10.	사 상 계	
중 편	축제와 운명의 장소	1962. 10.	현 대 문 학	
단 편	배역(配役)	1962. 10.	사 상 계	연 재
"	그 늘	1962.	예 술 원 회 보	
중 편	유수암	1963. 10.	현 대 문 학	
평 론	전후의 한국 문학	1963. 11.	일본문예지(文藝)	
장 편	석류나무집 이야기	1964.	여 상	
단 편	우리 사이 모든 것이	1971. 9.	현 대 문 학	
중 편	어둠에 갇힌 불꽃들	1978. 6.	문 학 사 상	
단 편	양 심	1978. 8.	현 대 문 학	
"	이사종의 아내	1978. 9.	문 학 사 상	
"	회고전(回顧展)	1978. 11.	한 국 문 학	
"	생인손	1981.	소 설 문 학	
"	송 곶	1982.	"	
"	술가락	1983.	문 학 사 상	

《저작집 연보》

구 분	제 목	발간 연월	수록 작품명	출판사명
장 편 창작집	역사는 흐른다 월 운	'50. 3. 10 '56. 8. 10	내일 없는 사람들, 김일 등병, 돌, 월운, 파편, 모 닥불, 허물어진 환상, 귀 향, 굴욕, 정의사, 심노 인, 명옥이, 램프, 소년 상인	자 양 당 정 음 사
창작집	감정이 있는 심연	'57. 12. 10	천사, 집념, 부적, 대구로 가는 길, 얼굴, 떠나는 날, 환희, 아버지, 군복, 수국, 감정이 있는 심연	현 대 문 학 사
장 편 수필집	빛의 계단	'60. 12. 20		현 대 문 학 사
창작집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축제와 운명의 장소	'63. 10. '63. 10. 30	축제와 운명의 장소, 대 열 속에서, 그대로의 잠 을, 배역, 그늘, 유수암	신 태 양 사 휘 문 출 판 사
영문판 창작집	<i>In the Depth</i>	'65.	"Shadow", "Put me to Sleep", "A Halo around the Moon", "Dr. Chung", "In the Depth", "By the Fire", "Splinters"	
영문판 창작집	<i>The Running Water Hermitage</i>	'66.	"A Letter", "The Angel", "The Rock", "The Runn- ing Water Hermitage"	
창작집	우리 사이 모든 것이	'87. 9. 15	우리 사이 모든 것이, 양 심, 이사종의 아내, 회고전	문 학 사 상 사
수상집	이 외로운 만남의 축 복	'81. 1. 10		한 국 문 학 사

구 분	제 목	발간 연월	수록 작품명	출판사명
영문판 창작집 (With Rim Sooil and Koo Inhwan)	<i>The Hermitage of Flowing Water and Nine others</i>	'83	"The Hermitage of Flowing Water", "The Washed-out Image", "The Amulet", "Shadow", "The Halo around the Moon", "Abyss"	Gateway Press, Inc. Baltimore, MD, USA
장편집 창작선	만 남(상, 하) 생인손	'86. 6. 10 '87. 2. 25	생인손, 송곳, 숟가락, 우리 사이 모든 것이, 이사종의 아내, 어둠에 간힌 불꽃들	정 음 사 문학사상사
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90. 6. 15		스포츠서울

《저자 약력》

- 1918. 10. 25. 韓錫命, 張淑命 夫妻의 차녀로 외가인 종로구 통의동에서 출생.
- 1919. 1. 부친의 직업 관계로 경상도로 이사.
- 1926. 국민 학교 2학년 때 베를린 세계 만국 아동 그림 전시회에 입상.
- 1931. 이 해부터 일본인 화가 荒井巖久代 씨에게 사사, 그림 공부 시작.
- 1936. 부산고등여학교 졸업. 폐결핵으로 이 해부터 요양 생활에 들어감.
- 1937. 小康을 얻어 〈東亞日報〉에 연재된 金末峰의 장편 소설 〈密林〉의 삽화를 맡아 그림.
- 1939. 다시 요양 생활.
- 1940. 병세가 약간 호전되자 부친의 친구인 金德卿 씨의 차남 振興과 결혼.
- 1941. 장녀 榮起 출생.
- 1942. 장남 虎起 출생.
- 1944. 차남 龍起 출생.
- 1946. 차녀 賢起 출생.
- 1948. 국제신보사 장편 소설 모집에 응모, ‘역사는 흐른다’ 당선. 삼남 鳳起 출생.
- 1949. 〈국제신보〉 폐간으로 인하여 ‘역사는 흐른다’를 〈太陽新聞〉에 연재.
- 1951. 1. 부산으로 피난.
- 1953. 8. 서울 수복에 따라 귀경.
- 1954. 병 재발로 요양 생활 다시 시작.
- 1958. 3. '57년도 자유 문학상 수상.
- 1961. 신문윤리위원.
- 1962~1985. 국제 펜클럽 한국 본부 이사. 서울시 도시 미화 자문 위원.

1962. 10. 일본 〈朝日新聞〉 일본 PEN 초청으로 도일, 각 대학에서 강연(연제: 한일 문화의 상봉).
1963. 10. 일본 문예지 〈文學散步〉사 초청 문학 강연(연제: 한일 두 자연주의 작가, 廉想渉과 島崎藤村의 유사점과 상이점).
1965. Bled, Yugoslavia에서 개최된 국제 펜클럽 회의에서 주제 발표(Writers and Korean Contemporary Society).
1969. Menton, France에서 개최된 국제 펜클럽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1970. 2. 차남 龍起, 미국에서 교통 사고로 사망.
1971. 5. 일본 여성지 〈主婦之友〉사 초청으로 강연(“お茶の水會館”에서)(연제: 일본에 끼친 백제 문화의 영향).
1971. 11.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일본문화 세계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1973. 5. 17. 제 5 회 신사임당상 수상.
1974. 12. Jerusalem, Israel 국제 펜클럽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1976. 6. 부부 서화전(신문회관).
- 1976~ 한국 중앙 박물관회 이사.
1978. Stockholm, Sweden 국제 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1978. 한국 여류 문학인회 부회장.
- 1979~ 한국 소설가 협회 대표 위원(부회장).
1979. 11. Mexico City, Mexico에서 개최된 AMPE 국제 회의에서 주제 발표(Agony of Working Women).
- 미국의 University of Hawaii에서 문학 강연(연제: Postwar Korean Literature).
1980. 미국 George Mason대학에서 문학 강연(연제: 상대 일본에 끼친 한국 문화의 영향).
1980. 2. 한국 여류 문학인회 회장.
1980. 한국 문인 협회 이사.
1984. 한국 카톨릭 문우회 대표 간사(회장).
1985. 6. 제 2 회 부부 서화전(利馬美術館).
1986. 7.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문학 강연(연제: Shamanism and Korean Literature).
1986. 7. 26.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1986. 10. 20. 대한민국 문화 훈장.
- 1986. 11. 14. 대한민국 문학상 대상 수상.
- 1987. 5. 12. 미국 Harvard 대학에서 문학 강연(연제 : Korean Literature in the Era of National Division).
- 1989. 3. 1. 제 30 회 3·1 문화상(예술 대상) 수상.
- 1990. 2. 10. 일본 문화 연구회 회장.
- 1990. 7. 26. 제 3 회 부부 서화전(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실).
- 1990. 12. 28. 한국 소설가 협회 상임 대표 위원(회장).
- 1991. 10. 18.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韓戊淑 文學全集 ⑧》

내 마음에 뜬 달

초판 1쇄 인쇄 1992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1992년 12월 30일

지은이 韓 戊 淑

펴낸이 鄭 鎭 肅

펴낸곳 (주)을유문화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

전화 733-8151~3 · 734-3515

FAX. (02) 732-9154

1950년 11월 1일 등록 제 1-292 호

대체구좌 010041-31-0527069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500 원

ISBN 89-324-7048-0 34810

ISBN 89-324-7040-5(전 10 권)